

## 제 2 편

# 여수 도서의 현황





# 제1장 여수시내권

-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여수시내권에는 오동도, 장군도, 대경도, 소경도, 장도, 묘도 등의 섬이 있으며, 천혜의 자연경관과 함께 이층무공의 유적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



## 제1절 유인도서

### 1. 오동도(梧桐島, 죽도, 대섬)

#### 1) 개 관

오동도는 수정동에 위치한 연륙도다. 여수를 상징하며, 한려 해상 국립 공원의 시작점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 1번지가 되었다.

오동도는 완만한 구릉성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해안은 암석해안으로 높은 해식애가 발달해 있고, 암벽에는 해식동과 풍화혈(風化穴), 해식아치가 곳곳에 있다.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 화성암인 중성화산암류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토양은 신생대 제4기 적색토가 넓게 분포한다.

식생은 목본류 194종과 초본류 224종의 식물이 자생하고 있다. 상

록 난대성 수종인 동백이 군락지를 이뤄 약 3,000여 그루가 서식하고 있고, 이 밖에도 시누대, 후박나무, 해송 등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1과 1속 1종이 자라는 희귀한 돈나무가 자생하고 있다.



▲ 1930년대 오동도

특히 오동도에 서식하는 동백은 다른 지역의 춘백(春栢)과는 다르게 이르면 11월경부터 피기 시작해 이듬해 4월까지 온 섬을 붉게 물들이는 동백(冬栢)으로 개화 절정기에는 마치 섬 자체가 하나의 동백꽃으로 보이기도 한다.

오늘날 한려해상 국립공원 첫 출발지로 변화하기까지 오동도의 모습은 개발과 현대화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일제강점기인 1933년 12월 10일 3년간의 공기 끝에 길이 768m, 너비 7m의 방파제가 준공되어 연륙도가 되었다. 조그마한 무인도였던 오동도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의 학교조합재산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광복 후 여수 교육청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이때, 여수서국민학교와 수산학교의 실습지로 사용되기도 했다.

1968년 12월 31일 건설부 공고 제164호로 오동도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됨으로써, 1969년 9월 여수시가 2,000만 원에 오동도를 매입한다. 그리고 약 3,000만원의 예산으로 전망대, 산책로, 방파제, 관리사무소 등을 짓고 본격적인 관광지로 개발하였다.

여수시는 1979년에 오동도 안에 있는 불법 건물을 철거하고, 1981년에 오동도 개발 계획을 세웠다. 1984년 오동도 종합상가가 준공 되었으나, 2003년



▲ 음악분수대

태풍 매미로 폐허가 되다시피 하였다. 시는 오동도 종합 상가 건물을 전면 리모델링하여, 지상 3층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게임랜드, 전시관, 회센터, 한식당 등이 들어서면서 오동도 카멜리아관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개관되었다.



▲ 시누대 터널

오동도는 늘어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996년부터 동백열차를 운행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도에는 걷고 싶은 산책로가 만들어졌다. 2005년에는 38억 원의 사업비로 오동도 음악분수대가 만들어져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출입구 방파제 길은 여수미협 작가들이 여수와 관련된 그림을 그려 관람객들의 발길에 불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오동도란 지명은 조선 후기부터였으며, 이유는 지형의 구조가 오동나무 이파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오동나무가 울창하여 오동도라 불리웠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오동나무는 거의 볼 수 없고, 동백나무와 일명 해장죽(海藏竹)이라는 시누대가 뾰뾰하게 들어서 있다. 오동도는 죽도, 대섬이란 별칭을 갖고 있다.

오동도는 임진왜란 때, 훈련장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화살대로 쓰기 위해 대나무를 심어 번성하자 죽도(竹島)라 불렀고 옛날에는 육지와 인접한 지역의 섬을 대섬이라고도 했다.

## 2) 문화관광자원

여수의 상징 오동도는 관광객의 발길마다 아름다운 전설과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 오동도의 상징인 동백꽃, 지명 유래와 관련된 오동나무, 토끼와 거북 이야기, 오동도의 남쪽 동굴에 살았다는 지네의 용굴 등 멋스런 이야기들이 해풍에 속삭이고 있다.

한 겨울 해풍을 맞으며 오동도를 붉게 수놓은 동백, 속속 솟아나는 꽃 이파리 속에는 한 여인의 고결한 지조와 절개가 있다.

## ① 동백꽃 전설

어느 날 한 부부가 오동도로 귀양을 왔다. 귀양 온 부부(夫婦)는 땅을 개간하고 고기잡이로 생계를 꾸렸다. 그러나 남편이 고기잡이를 나간 틈에 도둑[野盜]이 들었다. 도둑이 집안에 살림살이를 보쌘하고 나서 아내의 몸까지 탐하려 하였다. 아내는 도둑의 욕정을 느끼자마자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내의 발길은 도둑의 손을 피할 수 없었다. 아내는 하는 수 없이 남편이 돌아옴직한 동남쪽 낭떠러지에서 투신 자살했다.



▲ 자산공원에서 바라본 일출정과 오동도

날이 저물 무렵 돌아오던 어부는 단애(斷崖) 밑에 떠오르는 아내의 시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어부는 사랑하는 아내를 이 섬의 정상에 묻었다. 세월이 흘러 여인의 묘에서는 동백나무가 자랐고, 동백나무에서는 절개를 상징하는 붉은 꽃송이가 피기 시작했다. 여인의 마음을 담은 동백은 화수분처럼 번져 온 섬을 뒤덮었다.

이후부터 오동도에는 오동나무 대신 동백나무가 번져 눈보라 속에서도 꽃을 피웠다. 사람들은 이 꽃을 보고 여인의 절개와 지조가 서려 있다는 의미에서 동백꽃을 여심화(女心花)라고도 부르게 되었다.

## ② 오동나무 전설



▲ 동백꽃

오동도란 지명 유래에서 알 수 있듯이 오동도에는 오동나무가 많이 자생했던 것 같다. 상서로운 봉황새가 오동나무 열매를 따먹으러 남해 바닷가 오동도로 날개짓을 했다. 그러나 오늘날 오동도에는 봉황도 날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동나무도 찾아 볼 수 없다. 오동도에 오동나무가 사라진 이유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 오동도 등대

신돈(辛旽, ?~1371)은 고려 후기 창녕 옥천사에서 심부름하던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 공민왕의 사부가 된다. 왕의 신임을 등에 업은 신돈은 진평후라는 봉작까지 받으며 기울어 가는 고려 왕조를 재건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더욱이 왕권에 도전하는 일에는 가만있지 않았다.

신돈은 오동나무가 무성한 오동도에 여수의 봉산, 봉계, 구봉산, 쌍봉, 비봉, 금봉산 등에서 살고 있는 봉황새가 자주 드나든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불길한 징조였다. 그 이유는 임금을 상징하는 봉황이 오동도에 드나드는 것은 새로운 임금이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는 평소에 전라도라는 'ㅅ'자가 사람 '人'자 밑에 임금 '王'자를 쓰고 있는데 불만족이었다. 더구나 남쪽 여수라는 곳에 절경의 오동도가 있어 서조인 봉황새가 드나드는 것을 알고는 불길한 예감을 했다. 필시 기울어 가는 고려 왕조를 맡을 인물이 전라도에서 나올 징조만 같았다.

그는 공민왕에게 이 같은 사실을 귀뜸하여 사람 '人'자 밑에 쓴 'ㅅ'로 '羅道'는 들입 '人'자 밑에 임금왕 '王'자를 쓰도록 하였고, 그후 봉황새의 출입을 막기 위해 오동도의 오동나무를 모조리 베어 버렸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오동도에는 오동나무가 자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서로운 봉황도 찾지 않는다고 전한다.

### ③ 토끼와 거북이 전설

오동도에 방파제가 설치된 후부터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어 있었지만 그전에는 자산에 있던 토끼가 오동도를 용궁이나 유토피아처럼 여겼던 모양이다.

하루는 자산(尺山)에 살던 토끼가 지척에 있는 오동도를 한 번 구경하고 싶었다. 토끼는 묘책을 찾다가 바닷가 가장자리를 유유자적하고 있는 거북이를 만난다. 바닷가에 나가 거북을 만난 토끼는 "오동도를 구경시켜 주면 좋은 보물을 주겠다."고 거북을 꾀었다. 우직한 거북은 토끼의 말을 믿고 오동도 구경을 시켜 주었으나 토끼의 약속은 지켜지



지 않았다.

거북은 화가 치밀어 토끼를 오동도에 실어다 놓고 가죽을 흘러당 벗겨 버렸다. 이때 이곳을 지나던 토신(土神)이 토끼뽀를 보니 측은한 생각이 들어 오동도 억새풀밭에 가서 땡굴라고 일러 주었다.

토끼는 토신이 일러준 대로 억새풀밭에서 땡굴었다. 껍질이 벗겨졌던 몸에 억새풀이 달라붙어 토끼는 옛날보다 더 고운 옷을 입게 됐다. 그러나 토끼는 이때부터 거짓말은 커녕 참말도 할 수 없도록 병어리가 되고 말았다. 토끼 뽀에 속아 오동도를 오갔던 거북이는 아직도 오동도 동편에 거북바위 화석으로 남아 토끼를 노려보고 있다.



▲ 용굴

#### ④ 용굴 전설

오동도는 암석해안으로 높은 해식애가 발달해 있고, 암벽에는 해식동과 풍화혈(風化穴), 해식아치가 곳곳에 있다. 오동도 남쪽 용굴이 대표적인 해식아치이다.

이 용굴에는 오백년 묵은 지네가 살고 있었다. 이 지네는 날씨가 흐리면 기다란 촉각만을 밖에 내놓고 있어 이 섬에 해초를 채취하러 오는 아낙네들은 이 동굴을 지네굴이다 하여 접근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처음으로 이 섬에 해초를 채취하러 왔던 여인이 있었다. 기다란 촉수를 내놓고 있는 지네의 위장술을 모르고 있던 여인은 사람들의 접근이 어려워 해초가 풍부한 동굴 주위로 계속 접근해 갔다. 이때 해초 아래에 머리가 찢가마니만한 지네를 보고 여인은 놀도하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들은 남정네들은 배를 타고 몰려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버린 여인을 구하기 위해 갖은 묘책을 짜냈다.

사흘 밤낮 동안 불을 피워 연기를 동굴 속으로 흘러 보내자 지네는 기진맥진하여 여인을 등에 지고 나타났다. 사람들은 여인을 구하고 복수가 두려워 지네를 잡아 없애버렸다. 그 후부터 용굴에서 다시는 지네를 볼 수 없었다 한다.



## 2. 장군도 ((將軍島), 대섬, 참경도(斬鯨島))

### 1) 개 관

장군도는 중앙동 산 1번지인 섬으로 남산동과 돌산도 사이에 있는 무인도다. 돌산대교를 건너다 보면 왼쪽으로 보이는 섬이 장군도다. 면적은 0.0178km<sup>2</sup>, 높이는 80m, 해안선의 길이가 0.6km이다.

장군도에는 연산군 때 이량 장군이 축성한 수증성이 있다. 장군은 1497년(연산군 3)에 전라도 홍양에 일어난 왜변을 다스린 공으로 전라 좌수사로 발탁되었다.

장군은 전라좌수영에 부임한 후 왜구의 침범 해로로 이용 되는 돌산도와 장군도 사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고민이었다. 장군은 전략적으로 해로에 돌로 수증제(水中堤)를 쌓았다. 이 수증제방(방왜축제)이 성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수증성이라 불렀다.

절도사 이량 장군이 이렇게 수증성을 석축하게 된 이유는 왜구의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였다. 왜구가 전면적으로 침략해 올



▲ 장군도 석축(영동사리 때)

때는 부산 쪽을 택하였지만 소수의 왜구가 침략할 때는 옥지도, 남해도, 돌산도의 해류를 이용하여 이동하였다.

소수의 왜구

가 장군도와 돌산도

사이의 빠른 물살을 이용하여 침범하면 잡기가 어려웠다. 왜구의 침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큰 돌을 약 100m 정도의 축대를 쌓아 성곽을 이뤄 왜구가 넘보지 못하게 했다. 이와 같은 기록은 『호좌수영지(湖左水營誌)』에 상세하게 전한다.

현재 장군도와 돌산도를 연결한 수중성은 대부분 사라져 정확한 형상은 파악 할 수 없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축대가 수면위로 상당한 높이까지 올라와 마치 성을 쌓은 것처럼 되어 있었다고 전한다.

현재는 간조 때를 제외하고는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간조 때에는 섬 가장자리로 갈수록 큰 석재들이 놓여 있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당머리(당두진)와 장군도 사이의 유속이 매우 빨라 섬 주변이 깎여 들어가고 있을 때, 시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5년에 해안 주변에 석축을 쌓아 침식을 막는 공사를 하였다.

### 『호좌수영지』에 기록된 장군도

장군도는 전라좌수영성의 남쪽 1리에 있으며, 섬 가운데 참경대(斬鯨臺)가 있었지만, 이제 옛 터만 남아 있다. 섬의 좌우는 파도가 심한데, 예로부터 남쪽에서 왜구가 자주 나타나 노략질을 하였다. 홍치(弘治) 11년 정사년(丁巳年)에-丁巳年은 명나라 홍치(弘治) 10년이므로 11년은 잘못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며, 연산군 3년(1497)에 해당된다.- 절도사 이량(李良)이 돌을 운반하여 이 섬의 왼쪽에 축대를 쌓아 엄연한 성곽을 이루니 왜구가 감히 엿보지 못했다. 후세 사람들이 비석을 세우고, 비면에 '장군성' 이라고 새겼으며, 섬의 이름을 '장군도'라 했는데 장군은 이량(李良)장군을 칭호함이다.



▲ 장군성비

장군도 안에는 장군성비가 있는데 높이 269cm, 비신(碑身)높이 204cm, 비신(碑身)너비 82cm, 두께 27cm, 이수(鱗首)높이 65cm, 이수두께 26cm이다.

이 비는 방왜축제를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비로 방왜 축제와 바로 접하여 위치하고 있는데, 비의 전면에 「將軍城」이란 음각이 새겨져 있을 뿐 그외 다른 기록이나 문자가 없어 건립 연대 등을 알 수가 없다.

장군도라는 명칭은 1497년(연산군 3)에 수군절도사 이량(李良)이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수중성을 쌓고 이후에 장군도라는 빗돌을 세운 데서 비롯된다.

장군도는 대섬과 참경도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대섬이란 육지나 해안 지방 마을과 인접한 섬을 일컫는 지명이며, 참경도(斬鯨島)는 옛날에 이 일대에서 고래를 많이 잡았던 관계로 참경도라 부르기도 했다고 전한다.

## 2) 문화관광

### ① 전라좌도수군절도사 이량(李良)과 장군도

이량 장군은 조선 중기 전라좌도수군절도사로 활동한 무신이다. 본관은 함평(咸平), 자는 자방(子房), 함성군(咸城君) 이종생의 후예이다.

이량 장군은 어려서부터 체격이 건장하고 총명해 틈틈이 병서와 무술을 익혔다. 1479년(성종 10) 여진족을 상대로 건주싸움에 출전하여 큰 공을 세우고, 1480년 무과에 급제하여 삭주부사·회령부사·의주목사를 지냈다.

1497년(연산군 3) 흥양(興陽)에 왜변(倭變)이 일어났을 때 녹도(鹿島)만호로 적을 대파하였다. 그 공으로 당상관의 품계인 가선대부(嘉善大夫)에 특진됨과 동시에 전라좌도수군절도사로 발탁되었다.

전라좌도수군절도사가 되어 남해안에 수시로 침입한 왜구들을 막기 위한 방책을 세우다가 장군도와 돌산 사이에 세계 유일의 수중성을 쌓았다.

같은 해 10월 다시 전라우도수군절도사가 되어 금오도(金鰲島)에 침

입한 왜구들을 격퇴시키는 전과를 올리고, 1500년 함경도병마절도사가 되어 여수를 떠났고 1502년 지변사가 되었다.

## ② 이량 장군 방왜축제비(李良 將軍 防倭築堤碑)

이량 장군 방왜축제비는 1497년(연산군 3) 전라좌수사로 부임해 온 장군이 장군도 동쪽과 돌산 북쪽 사이의 해협으로 왜구가 침입하는 것을 봉쇄하고자 독을 쌓은 사실을 적은 내용이다.

원래 이 비는 장군성비와 나란히 세워져 있었다고 전한다. 이량의 5세손 이배원(李培元)이 글을 짓고, 6세손 이필(李泌)이 글씨를 써 1643년(인조 21)에 세웠다.

그 후 비가 훼손되자 8세손 이삼(李森)이 1710년(숙종 36) 지금의 충무동에 다시 비를 세웠고, 1984년 진남관으로 옮겨 보존하고 있다. 방왜축제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왜축제비

### 방왜축제비문

선조(先祖) 함천군의 휘는 량. 자는 자방이며 함평이씨이다. 이러한 사실 공적이 조정에 알려져서 국사에 기록되어 있다.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 없으나 이 주비(원래 장군도에 세워졌던 비)에 그 전말을 석면에 대략 기록하였다. 홍치(弘治) 10년 정사(丁巳: 1497)년에 왜군이 녹도에 침입하여 그 수장을 죽였다. 조정은 이 일을 무마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때 공은 부친상을 입고 있었다.

그 일의 책임자로 공이 다시 발탁되어 명을 받들었다. 조정의 명을 받들고 힘을 써서 그간의 사정을 둘러보았다. 겨우 수개월 후에 왜군이 다시 쳐들어왔다. 공은 부대를 이끌고 자신이 직접 창칼을 들고 전선을 이끌고 출동하니 모든 적이 크게 패하여 귀와 코를 뺐 것이 아주 많더라. 그 공으로 인하여 가선으로 특진급하였다.

좌수영의 남쪽에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한 섬이 있으니 파도와 조류가 몹시 빨랐다. 예로부터 왜구가 침입하여 침탈할 때에 노략질하는 놈들은 모두 이 섬 사이를 경유하여 임의대로 왕래하였다. 공은 그 형세를 살피고 그 근심을 끊고져 이때 공사를 독려하여 그 바다의 깊이와 넓이를 재어보았다. 따라서 영 소속 배로 명하여 돌을 운반하여 그 바다 속에 돌을 던져 놓으니 빠르지도 늦지도 않았다.

날이 가고 달이 가니 돌은 많아지고 물은 얕아져서 배들이 통과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도 또 놓으니 축대가 물 위로 나타나며 마치 성곽을 쌓은 것 같다. 파도를 가르고 옆으로 버티어 있더라. 도둑들이 와서 보고 하늘의 조화로 만들어진 것처럼 의심하고 감히 다시는 넘보지 못하더라. 이로부터 외침을 알리는 변방의 봉화는 드물게 피어 오르게 되고 백성은 편하게 지내게 되니 영원히 고맙게 여기게 되었다. 이것은 국가를 위하여 일대 방어책이 되었느니라.

이때에 남쪽 백성들은 그 섬을 이름하여 장군도라 부르고 비석을 세우고 공로를 칭송하였느니라. 그 뒤 승정 신사에 공의 후손이 마침 절도사로 와서 그것(비)을 보고 비석이 훼손되어 떨어져 나가 알아볼 수 없게 되어 드디어 망가져 전할 수가 없게 됨을 염려하여 서울에 사는 일가들에게 알리게 되니 2년이 지난 계미 2월에 비석을 고쳐 세웠다.

공의 5세손 감사 배원이 글을 짓고 6세손 함능부원군 해가 그 면에 적어넣었다. 이제 불초 후예가 비문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니 슬프고 공경하는 그리운 마음 가늠 길이 없구나. 자획은 떨어져 나가 글자는 없어지고 결렬되어 읽을 수가 없구나. 오호라 계미로부터 이제 겨우 60년이 지나갔는데 이 비석이 망가졌으니 오래가지는 못하리라.

이는 바닷물과 해풍 때문에 쉽게 마멸되어 버린 것이 분명한 것인저. 이래서 재력을 모으고 영내에 비를 옮겨 세우니 이는 영의 서문 밖이라 영원히 썩지 않을 장소이기를 바라서이다.

이 일을 할 때 영하의 군민이 명을 듣고 즉시 달려오니 우리 선조 방왜의 위열함을 가이 상상할 수 있도다. 백성들에게 입힌 혜택 오히려 이제까지 생생하고 후손들의 영모하는 마음도 끊이지 않고 그 역시 무궁할지이다.

8세손 가선대부 행전라좌도수군절도사 이삼(李森)이 삼가 기록함.

### ③ 장군도를 두고 다투는 세 마리 용 전설

장군도와 관련된 풍수설로 '장군도를 두고 다투는 3용'이라는 이야기가 전한다. 풍수설에 의하면 장군도는 여의주에 해당되고, 이 여의주를 두고 세 마리의 용이 다투는 형국이라고 한다.

그 첫째 용은 예암산(남산)이요, 둘째 용은 돌산도요, 셋째 용이 경호도이다. 여수의 진산으로 알려진 종고산에서 여수항을 내려다보면 중심에 작고 동그란 장군도가 여의주처럼 떠 있고, 세 마리 용이 서로 다투는 형국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풍수설과 관련된 조상들의 재담 속에서 장군도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 하늘에서 본 장군도 일대

### ④ 여수 제1경

여수 팔경 가운데 첫번째로 꼽히는 장군도에는 섬 정상에 조그마한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1914년 1,000여 그루의 빛나무를 심어 봄이면 벚꽃이 장관을 이뤄 한 폭의 설경화를 보는 듯 하다.

현재는 섬 주위를 따라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와 벤치 등 휴게 시설이 있고, 서쪽에는 장군도 등대가 있다.

장군도를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종포 나룻터에서 돌산행 나룻배를



▲ 장군도 나룻배

타거나, 돌산대교에서 배를 이용하면 장군도에 들어갈 수 있다.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영등, 백중 사리 때는 돌산에서 걸어서 들어갈 수도 있다.



### 3. 경호동

#### 1) 개 관

경호동의 중심지인 경도는 여수시 동남쪽 국동과 돌산도 사이에 위치한 섬으로 국동 남쪽 약 0.5km 지점에 있다. 경호동은 대경도(大鯨島), 소경도(小鯨島)의 2개 유인도와 가덕도(加德島), 고래섬, 가장도(加長島), 두력도(斗力島), 북섬, 새섬, 노도(老島), 솔섬, 암나무섬, 진섬, 풍락도(風落島), 첫섬(일명 피리섬) 등의 12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다.

대경도에는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유적으로 발 180번지인 내동 마을 동쪽, 발 33번지 오복마을 북쪽, 발 38번지 오복 마을 동쪽, 오복마을 등 4개 소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대경도 발 33번지 오복마을 북쪽(‘나 유적’)유적이 대표적이다. 유적 위치는 내동 마을에서 해안선을 따라가다 낮은 구릉을 넘어서면 왼쪽에 있다.





유적의 동쪽으로는 넓은 간석지가 형성되어 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내려오는 낮은 구릉상에 형성된 유적은 동쪽 부분이 논으로 경작되면서 많이 파괴되었으며, 남쪽도 경작으로 훼손이 심하다.

유적의 범위는 동서 약 20m, 남북 약 50m로 패각층은 최대폭이 약 70cm 정도 된다.

출토 유물은 융기문토기(隆起文土器), 압인문토기(押引文土器), 침선문토기(沈線文土器), 점렬문토기(點列文土器), 어골문토기(魚骨文土器) 등이 수습되었다.

이러한 대경도 조개더미 유적이 입지한 곳은 해풍에 안전한 지대로 대체로 만입부에 해당된다. 만입부는 간석지가 발달하여 각종 어패류의 서식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태풍과 해류의 흐름에 의한 파도의 영향이 적다.

이 유적에서 수습된 토기는 지금까지 남해안 신석기시대의 문양 구성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경도는 본래 돌산군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경호면에 속하게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대경도(大鯨島), 소경도(小鯨島), 가장도(加長島), 야도(冶島)를 병합하여 여수군 돌산면 경호리(鏡湖里)에 편입되었다.

이후 1949년 여천군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7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여수시에 편입되어 경호동으로 개칭되었다. 1998년 삼여동



▲ 대경도 조개더미 유적

함으로 주민 행정은 월호동과 통합되었다.

대경도의 자연환경으로는 대경도의 최고점인 성산(92m)을 기준으로 구룡지를 중심으로 완만한 지형을 이룬다. 남쪽 해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안은 만과 갯이 연이어서 드나들이 복잡하고, 북쪽 해안의 만입부에는 간석지가 펼쳐져 있다.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 중성화산암류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토양은 신생대 제4기 적색토가 넓게 분포한다. 기후는 대체로 따뜻하고 비가 많이 내린다.

주민 대부분이 농업과 어업을 겸하고 있으나 밭농사 위주로 경작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고구마·보리·쌀·콩 등이며, 여수시를 비롯한 주변 도시를 배후지로 하여 당근·마늘·옥수수·참깨 등의 특용작물이 근교 농업 형태로 생산된다.

연근해 일대에서는 장어·낙지·멸치 등이 잡히고, 굴·바지락·피조개 등이 양식된다. 외동과 내동 마을을 잇는 도로가 남북 방향으로 나 있으며, 북쪽 외동에 등대가 있다.

소경도는 최고 지점이 섬의 북쪽에 있는 51m의 구룡지이다. 섬의



▲ 대경도 양식장

모양은 북서~남동 방향으로 길며, 특히 남서쪽 사면은 거의 평지를 이룬다. 해안은 북쪽에 소규모의 만이 있을 뿐 비교적 단조로우며, 남서 해안 만입부에 간석지가 발달해 있다.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 중성화산암류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토양은 신생대 제4기 과거 고온 다습한 기후 환경에서 만들어진 적색토가 넓게 분포한다. 기후는 대체로 온화하고 비가 많이 내린다.

주민의 반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며, 일부는 농업과 어업을 겸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로는 쌀·보리·고구마·마늘·콩·팥·참깨 등이 생산된다. 연근해에서는 장어·낙지·멸치·전어 등이 주로 잡히며, 자연산 바지락의 채취와 홍합·새조개·피조개 등의 양식이 활발하다.

특히, 피조개와 새조개는 이 곳 특산물로 유명하다. 한 때는 일시적인 해수 오염으로 양식업이 다소 주춤하기도 했다. 취락은 섬 중앙부에서 북쪽 해안가 선착장 일대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경호동은 갯장어 요리가 유명한 지역이며, 도심에서의 접근성이 좋고, 경관이 뛰어난 곳이다. 따라서 골프장과 리조트를 건설하는 관광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로 개발 여건이 무르익고 있는 지역이다.

최근 민박과 낚시가 가능한 어촌체험마을 사업으로 이글루 모양의 해상 펜션이 건조되었다.

## 2) 현황

### ① 도서

(2009년 2월)

도 서 (개)			세 대	인 구 (명)			면 적(km <sup>2</sup> )	해안선(km)
계	유인	무인		계	남	여		
14	2	12	476	1,242	669	573	6.8	16.72

### ② 유인도서

도서명	세대	인구	면적(km <sup>2</sup> )	법정동	행정동	마을수	마을명
대경도	409	1,075	2.32	경호동	월호동	3	오복 내동 외동
소경도	67	167	0.42	경호동	월호동	1	소경

### ③ 주요 무인도서

도 서 명	해안선(km)	면적(km <sup>2</sup> )	행정구역	특 징
불무섬[冶島]	1.3	0.05	경호동	2008년도까지는 사람이 살았으나 최근에 무인도로 변함. 일제강점기에 어업전전기지가 있었고, 유곽을 짓고 장사를 하여 여수 최초의 흥동가가 있었던 곳임
가장도(加長島)	1.52	0.0705	경호동	1960년대 「모정의 뱃길」영화로 소개되어 널리 알려짐.
가덕도(加德島)	0.65	0.0239	경호동	소호동과 경계에 있는 긴 섬.
그 외	노도(老島), 노랑섬, 두력도(斗力島), 북성(고서), 새섬(조도), 첫섬(초도), 피리섬, 적도, 풍락도(風落島), 진섬(장도, 진도)			

### ④ 인구변화

1975	1985	1995	2009
2,453	2,661	2,013	1,242

경도는 음은 같지만 훈이 다른 한자어 경(鯨, 京, 鏡)이 시대에 따라 표기 되었다. 1530년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경도(鯨島)로, 1789년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는 경도(京島)로, 1896년 돌산군이 신설될 때, 경도(鏡島)라 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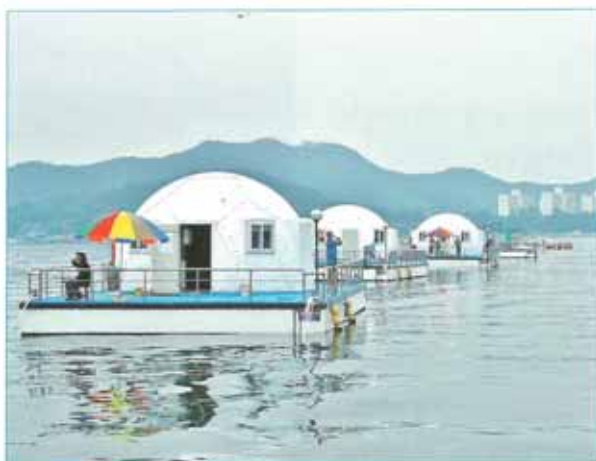
경도(鯨島)는 고래섬으로 고래가 많이 잡히기도 했지만 지형이 고래의 형상을 닮아 경도(鯨島)라 했다. 경도(京島)는 어느 왕의 후궁이 서울에서 귀양 와 '서울 경(京)' 자로 바꾸어 사용한 데서 유래한 것이고, 경도(鏡島)는 주변 바다가 거울같이 잔잔하다고 하면서 1896년 경호동(鏡湖洞)이란 법정동을 만들었다.

여수 8경 중 원포귀범(遠浦歸帆)은 남쪽 수평선이 보이는 곳까지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돌아오던 돛단배의 경호동앞 바다를 지날 때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3) 문화관광자원

#### ① 외동 어촌체험마을-해상 펜션

경도 해상 펜션은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 3월부터 1년 여에 걸쳐 경동 외동 어촌계가 조성했다.



▲ 해상펜션

바다위에 조성된 펜션 4동과 바지선은 국내최초로 바다위에서 펜션 생활을 하면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유료 낚시터다.

바다 위의 펜션은 돛형으로 샤워실과 냉장고, 에어컨은 물론 상수도 시설까지 갖춰 일반 펜션과 비교해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어족자원의 고갈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어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바다위의 펜션은 어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

이용방법은 우선 어촌계 담당자(061-666-0043)에게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이용 요금은 4인 기준으로 주중 120,000원, 주말(금토일) 140,000원이다. 4인 기준가격이나 최대 8인까지 가능하고, 4인 기준을 초과시 1인당 10,000원의 추가 요금을 받는다.

## ② 하모(갯장어)

하모는 여름철 대표적인 보양식이다. 특히 갯내음이 코끝을 자극하는 정도의 하모맛은 하모의 고장 여수에서도 일품이다. 경도의 하모 맛은 혀끝이 아니라 쪽 빛 바다위에 옹기종기 앉아 있는 그리운 섬의 눈빛에서 시작된다.



▲ 하모 회

하모는 지방에 따라 해장어, 개장어, 낫장어, 뱀장어, 녹장어, 갯붕장어, 이장어, 갯장어 등으로 불리며, 중국에서는 해리(海鱺), 해만(海鰻), 해만리(海鰻鱺), 일본어로는 '하모'라고 한다. 이글에서는 여수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하모로 통칭하기로 한다.

'하모도 한 철'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여름철에 잡힌 하모가 가장 맛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일본인들은 특히 하모를 즐기기에 때문에 식민지 시대에는 하모를 '수산통제어종'으로 지정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함부로 잡거나 유통시키는 것을 금지했다.

하모는 각종 야채와 곁들여 회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회는 씹을 수록 고소하고 단맛이 난다. 굽거나 데쳐서 먹을 수 있으며 내장까지 함께 먹기도 한다. 뱀장어, 붕장어, 먹장어 등과 같은 다른 장어류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가장 많으며, 이 성분이 갯장어의 특유한 맛을 내게 한다. 또한 EPA, DHA의 함량이 높아 혈관에 생기는 혈전을 예방하는 데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하모잡이는 광복 이전,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됐으며 지난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잡아 올린 하모의 90% 가량을 일본에 수출하였다. 요즘은 국내 소비가 늘고 일본 현지 생산량이 증가해 어획량의 20% 가량만 수출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하모 잡이 역사는 길지만 요리가 본격적으로 대중에 알려진 것은 겨우 10년 안팎이다.

하모는 일본인들이 더위를 이기는 최고 보양식으로 꼽고 있다. '하모'는 일본어로 '아무것이나 잘 무는 습성이 있다'는 뜻이다. 또 일본어 '하무(물다)'에서 유래됐다는 말도 전한다.

또한 샤브샤브는 일본식 조리법인데, 살짝 데친 하모를 초고추장이나 간장에 찍어 먹으면 회로 먹을 때보다 부드러우며 쫄깃한 맛이 난다.

### ③ 경도산성과 후궁 이야기

경호동의 내동과 오복마을 사이에 산이 하나 있는데 이 마을의 뒷산을 성산이라 한다. 성산에는 허물어진 긴 성터가 남아 있다. 이 성터에는 천년 세월에도 변함 없이 신화 같은 이야기가 뱃전에 부서진다.

경도(京島)에는 백여 년 전만 해도 날씨가 흐리고 파도가 치는 밤이면 성산에서 가냘프게 흐느끼는 여인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흔적이 사라진 채 비바람에 허물어진 돌들만 이끼에 쌓여 세월의 무상함을 말해주고 있다.

고려 후기 어느 해에 경도의 내동마을 앞 성산에 미모의 여인이 수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외롭게 살고 있었다.

시종들은 두 무리로 나누어 한 무리는 성산 뒤쪽 평지에 대궐을 짓고, 또 다른 무리는 해변과 산에서 커다란 돌을 주어다가 성을 쌓아 올렸다. 바람결에 들려온 소문에는 경도에 정착한 미모의 여인은 왕비이고, 그 밖의 시종들은 조정의 신하들이라 했다.

왕비가 경도로 쫓겨 온 사연은 다음과 같다. 어느 날 왕비가 어전에서 실수로 방귀를 끼는 무례를 범하는 바람에 유배된 것이라고 했다.



▲ 경도산성 올라가는 입구

이후부터 왕비는 축성된 성내 4천 5백여 평의 땅을 갈아 춘하추동 갖가지 씨를 뿌리고 거두어 차차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궁궐을 잇

지 못한 왕비는 조정에 나아가 관용의 은혜를 간곡히 진언했으나 거절 당했다.

다시 경도로 돌아온 왕비는 옥동자를 낳았다. 왕비는 이 옥동자의 성을 자신의 성인 함양 여씨를 성으로 주었다. 왕자는 날이 갈수록 무럭무럭 자라나 이웃 규수와 혼인하여 종족을 번성케 했다고 한다. 이 설화는 경도 지명과도 연관되지만 여씨 중시조 이야기이기도 하다.

#### ④ 외동마을 당제

경호동 소경마을과 외동 마을에서는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당제를 지낸다. 당제를 언제부터 모시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조상 대



▲ 외동 당산나무의 당집

대로 전해오는 방식 그대로 모시고 있다. 그동안 제가 끊긴 적이 거의 없지만, 간혹 마을에 사정이 생겨 1년간 모시지 않은 적은 있다고 한다.

외동마을 당산나무 기원과 당제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마을 사람들은 서쪽의 기운이 약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흙을 쌓아 조산을 만들고 나무를 많이 심었다. 그 나무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당산나무다.

이 나무는 약 500년 전 자손이 없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면서 소나무 두 그루를 심고 매일같이 자식처럼 키운 것이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돌아가시면서 두 소나무에게 “마을을 지키는 이정표가 되라.”고 당부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위쪽 소나무를 할아버지 나무로, 아래쪽은 할머니 나무라고 믿으며, 당산나무로 지정하여 매년 음력 설달 그믐날



그 분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당산제와 풍어제를 모시고 있다.

'윗당산'은 마을 들어가는 우측 산 위에 위치하고, '아랫당산'은 마을 안쪽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윗당산을 '당산할아버지'라 하고, 아랫당산을 '당산할머니'라 일컫는다. 설달 그믐날 밤 10시경에 제사를 지내는데, 예전부터 지금까지 제일과 제시는 변함이 없다.

제를 모신 뒤에 마을에 탈이 생기면 제를 다시 모신 적도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음력 칠월칠석날에 아랫당산에서 간단히 제를 모시기도 한다.

당주는 제 모시기 4일 전에 가려 뽑는데, 생년월시를 따지지 않는다. 당주로 뽑히면 그 날부터 초상나거나 출산한 사람들이 함부로 당주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또한 초상난 집이나 출산한 집을 출입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행동과 말을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당주는 1년간을 근신한다. 지금은 당주 1명만을 뽑는데, 예전에는 원당주 1명, 접당주 1명을 뽑았다. 원당주는 행동을 조심하고 근신해야 하기 때문에 접당주가 음식을 장만하고 원당주를 도와주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당주와 접당주 부인이 음식을 장만한다고 한다.

지금은 당주를 서로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수고비를 지급한다. 제비는 예전에는 당주가 제를 모신 뒤에 결산을 보고 집집마다 할당하여 걷었으나, 지금은 마을 자금으로 충당한다. 대략 3년 전부터 당주에게 수고비로 백만원을 주는데, 이 안에는 제비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제 모실 무렵에 마을 사람이나 객지에 나간 사람들이 기부금을 낸다. 이장이 기부자 명단을 일일이 기록해 두었다가 당주에게 알려주면, 당주가 제 모실 때 일일이 호명하며 구축하고 소지를 올린다. 기부금으로 들어온 돈은 모두 당주가 관리한다.

신체의 형태는 윗당산은 대리석으로 된 한 칸 규모의 건물로 정면에 철제문이 달려 있고, 지붕은 얇은 철판으로 되어 있다. 당집 안에는 '산신지위(山神之位)'라 쓰인 나무로 된 위패가 놓여 있고, 그 옆으로 제기가 일부 놓여 있다.

아랫당산은 원래 당집이 없었다고 한다. 현재의 당집은 20여 년 전에 축조한 것이라 한다. 시멘트로 된 한 칸 규모의 건물로 철제문이 정

면에 달려 있고 지붕은 기와로 없었다.

당집 지붕과 사각 모서리 기둥 그리고 당집 윗부분은 단청으로 되어 있어 제법 화려하다.

현재 윗당집 뒤와 아랫당집 옆에 소나무는 나뭇가지들이 많이 쇠하여 생명력을 잃고 있다.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아랫당집 옆으로 큰 도로를 내면서 나무를 부주의하게 다루어 고사되고 있는 것이라 한다. 또한 아랫당산의 소나무가 고사하자 윗당산의 소나무도 이유 없이 고사해가고 있다.

### ⑤ 영화 '모정의 뱃길' (노래 : 이미자의 꽃피는 여수바다. 1966년)

나는 모른다, 물결 위에 일렁이는 그림자를 몇 억겁이 지난 후의 이 파도 위에도 한 오라기 주름살이 굽이칠까. 살을 에이는 어머니의 뱃길 따라 왜 오고 갔는지를 나는 모른다. 깊고 또 깊은 곳에 남아 있거라. 물 보라가 그리는 한 장의 초상화. 아, 나의 어머니 모정의 뱃길.

굳이 거창하게 시(詩)라고 말하지 않아도 좋다. 단지 물길처럼 마음 또한 이렇게 흐르는 것을.

1956년, 모두가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 초등학교 6년을 졸업한다는 것은 지금의 대학을 졸업한다는 것보다 더욱 귀한 일이었다. 그것도 스무명이 채 못 사는 자그마한 섬마을 출신의 여자아이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말이 좋아 섬마을이지, 내 가족을 포함해 겨우 세 가구가 살았던 그 섬에서는 생계를 위해 약간의 채소와 나물을 육지에 팔러 나가기 위해 이용했던 나룻배 한 척만이 외부를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다.

어머니는 남들이 다 자는 깊은 밤, 달빛에 의지해 혼자 노 젓는 방법을 익혀냈다. 병중인 아버지와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며 오랜 세월 동안 배우지 못한 것을 원통하게 여기신 어머니는 절대로 딸에게 문맹을 대물림할 수 없다고 결심하셨다.

내 어머니 박승이는 그렇게 6년간 전남 여천군(현재 여수시) 가장도에 서 20리 바닷길 노를 저었다. 시계는 커녕 수탉도 없던 새벽, 어머니는 오직 바람소리와 파도소리로 그날의 날씨를 가늠하며 조각배를 띄웠다.

초등학교 3학년 때 태풍 사라호로 산산조각이 난 배의 파편을 안고 통곡했던 어머니, 한겨울 추위에 갈라진 손등으로 여자도 배워야 한다는 일념



▲ 모정의 뱃길 (母, 박정희, 딸) ▲ 어머니 박승이, 딸 정숙현



만으로 파도를 헤쳐 나가던 어머니였다.

말로는 표현 못할 6년의 세월. 마침내 졸업식 날이었다. 어머니는 박수갈채와 울음바다 속에 '장한 어머니상'을 받았다. 그리고 당시 우리의 사연을 취재했던 한국일보 이문희 기자로 인해 '모정의 뱃길 3만4천리'는 전국 방방곡곡에 알려지며 우리 모녀는 한국일보와 인연을 맺게 됐다. 1962년 2월14일자로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한다.

그때 받은 격려 편지는 국내외에서 하루 200여 통 이상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정의 뱃길'이란 이름으로 영화가 만들어졌고 어머니를 소재로 한 노래(필자 주 : 이미자의 '꽃피는 여수바다')도 불려졌다. 라디오 연속극까지 만들어졌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여수에 내려와 어머니와 나를 격려하며 장학금을 주던 일을 잊을 수 없다. 그 후 나는 여수에서 중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대학(성균관대 국문학과)을 나왔다.

이제 아이 세 명을 키우는 나는 당시의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다. 딸 가족을 위해 새벽 기도를 다녀온 후 낮은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르는 어머니의 얼굴은 마냥 평화롭다.

내가 한석봉이나 이울곡이나 맹자처럼 훌륭하지 못한 탓으로 내 어머니가 그들의 어머니처럼 길이길이 기억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러나 이젠 거의 잊혀져 가고 있는 어머니를 기억해 이런 지면을 통해 어머니에게 감사와 사랑의 글을 올릴 수 있게 해 준 한국일보에 감사한다. 나 또한 어머니의 발끝에도 전혀 미치지 못하나마 당신의 모습을 닮으려 한다.



#### 4. 장도(長島)

장도는 시전동 선소 부근에 위치한 섬으로 썰물 때는 연륙도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고 5가구에 10여명이 살고 있다. 주민들은 주로 어패류를 잡아 생업을 유지하고 있다. 장도란 지명은 섬이 길쭉하다는 의미에서 유래되었다.

그러나 장도가 여수 웅천지구에 들어설 GS칼텍스의 사회공헌사업 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곧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곳에는 카페테리아, 상설전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 5. 묘도(猫島)

##### 1) 개관

묘도는 여수 지역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양만 내에 있는 섬 가



운데 가장 큰 섬으로, 월내 선착장에서 1.5km 거리에 있다. 묘도에는 5개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묘도에 사람이 들어와 살기는 기원전부터 인 것으로 추정되나 완전하게 마을을 형성한 것은 약 오육백 년전 쯤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쪽에는 봉화산(246m)을 비롯한 산지가 산재하나 중앙부와 남쪽은 경사가 완만하여 촌락과 농경지가 분포한다. 해안은 사빈해안(沙濱海岸)이 많으며 간석지가 넓게 발달하여 있다.

지질은 주로 중생대 백악기 퇴적층인 낙동층군하부로 이루어져 있고, 동쪽과 남서쪽의 만입지의 개펄은 방조제로 막아 농경지로 이용하고 있다. 섬 주위에는 쥐섬, 소당도, 황도, 새섬, 목도 등 여러 섬들이 있다. 묘도의 발자취를 보면, 1896년(고종 23) 2월 3일, 칙령 제 13호에 따라 홍양, 낙안, 순천, 광양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섬들을 묶어 새로운 행정구역인 돌산군에 포함시킴으로써 묘도는 지금의 광양지역인 태인면에 소속되었다.

1896년까지 묘도에 있었던 자연마을은 남산동, 읍포, 광양포, 도독포, 온돌동, 유두, 지신도의 7개가 있었다.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

령 제111호에 따라 돌산군이 해체되어 여수군 삼일면으로 변경되었다.

1949년 여천군 삼일면 묘도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1980년 12월 1일에는 전라남도 여천군 삼일읍 묘도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으며, 1986년 1월 1일 여천시 승격과 동시에 묘도동으로 변경되었다.

1998년 4월 1일 삼여 통합으로 여수시 묘도동이 되었다. 묘도는 임진왜란의 전적지로 이때 쌓은 성인 도독산성이 현존하고 있으며 주위에는 성곽과 포대를 설치했던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 2) 현황

### ① 도서

도 서 (개)			세 대	인 구 (명)			면적(km <sup>2</sup> )	해안선(km)
계	유인	무인		계	남	여		
6	1	5	534	1,350	724	626	11,51	16,3

### ② 유인도서

도서명	세대	인구	면적(km <sup>2</sup> )	법정동	행정동	마을수	마을명
묘도	534	1,350	11,51	묘도동	묘동	5	묘읍, 창촌, 도독, 온동, 광양포

### ③ 주요 무인도서

도서명	행정구역	특 징
딴목섬	묘도동	장구미 앞에 있는 섬 바지락, 굴, 고둥이 서식
새 섬	묘도동	황새, 백로, 갈매기가 많이 모여 든다
가문여	묘도동	밀물 때는 가물가를 보인다는 여로 바지락, 고둥, 소라 등이 서식
목도	묘도동	나무가 많아 나무섬이라고도함
지신도	묘도동	온동마을 동쪽에 위치, 바지락, 굴, 소라 등이 서식

### ④ 인구변화

1985	1988	1990	1993	2000	2005	2009
3,110	2,914	2,346	1,981	1,665	1,471	1,349

## ⑤ 공공기관

주민센터	출장소	교육기관	파출소	우체국	농협지소	한전지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		초등1	1	1	1			1

섬의 모양이 고양이처럼 생겼다 하여 묘도(貓島) 또는 고양이섬이라 한다. 우리말 이름에 해당하는 섬 명칭은 '괴섬'으로 알려져 있다.

주변의 취섬인 서치도나 소섬인 우순도 등의 이름과 연관되어 보인다. 이런 특이한 이름과 풍수지리설을 바탕으로 이 섬에는 서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지 못한다고 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 전해진 이야기로 실제로는 고양이와는 관계가 없는 땅이름이다. 묘도의 옛 이름은 괴섬이라 하였는데, 괴섬이란 말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고어(古語)로 굴(窟)의 뜻이 있다.

묘도를 괴섬으로 부르게 된 것은 섬의 서쪽 해안에 바위굴인 괴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괴입의 괴를 본래의 의미인 굴로 생각하지 않고 고양어로 추측하여 한자표기도 고양이 묘(猫)자로 표기함으로써 현재의 묘도가 되었던 것이다.

묘도는 묘읍, 온동, 창촌, 광양포, 도독 등 5개 마을로 이루어졌다. 5개 마을의 유래와 입도조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묘읍 부락은 1450년경에 묘도의 고을과 넓은 해안을 끼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을개라 불러오다 조선말 묘도의 3개 촌락 중 가장 중앙에 위치해 묘읍이라 하였다.

1914년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돌산군 태인면 지역이었으나 온돌개, 팽이골, 읍포를 합하여 묘도리라 칭하고 여수군 삼



▲ 괴입

일면에 편입시켜 지금까지 묘읍으로 부르고 있다. 묘읍은 삼한시대에 마을이 형성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곳에서 신석기시대의 돌칼, 돌도끼 등이 발굴 되었으나 현재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입향 유래는 1500년 경에 제주 고씨 고담이 이 마을에 처음으로 입향하여 마을을 형성하여 살았다고 전하고 있다.

온동 마을의 유래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1591년(선조 24)에 온돌 또는 온돌포라 불렸다. 1976년에 여수공단 조성으로 인해 전라남도 여천지구출장소 삼일지소 온동리로 운영하다가 1986년 1월 1일 시 승격으로 묘도동에 속하게 되었다.

이 마을은 조선 초기에 구들방이라 불렸다. 구들방이라고 부른 이유는 한옥은 방에다 구들을 놓게 되는데, 이곳에서 방돌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인근지역에 사용하게 됨으로써 구들방이라고 부르다가 지금 온동으로 부르게 되었다.

입향조는 남양 방씨 방명국으로 1484년(성종 15) 갑진년에 전라도 남원에서 묘도 창촌에 입향 하였다. 그 후 세손인 방호생 씨가 자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온돌개리로 이주하여 후세들이 세거하고 있다.

창촌 마을은 고려가 멸망하고 난 후 조선이 개국되면서 이곳에 마을을 형성하여 주민이 운집하며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창촌이란 지명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창고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충무공과 명나라 진린 도독이 왜군 소서행장 막하 부대를 무찌르기 위해 이곳 도독에다 진을 치고 있었다. 육지로부터 가지고 온 군량미, 창과 칼, 화살, 무기류 등을 현 묘도초등학교 터에다 창고를 만들어 보관해 왔다.

이후에 3개 마을에서 나오는 오곡과 어패류 건어물 등을 창고에 보관 여수 순천 등지로 수송한 곳이어서 창촌이라 불리워지게 되었다고 전한다.

창촌 마을의 입향조 유래는 1396년경 즈음에 설씨가 입향하여 살아왔으나 그 수요가 적어 자손들을 퍼뜨리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 남양 방씨, 청송 심씨 등이 입향한 후에 김해 김씨가 이거하여 살고 있다.

광양포 마을은 갯개라고 불렸다. 갯개란 바닷물이 들어와 포구를 만드는 곳이며, 얇은 바다를 방언으로 갯본이라 부른다. 광양포는 갯개



의 우리말을 한자로 차음하는 과정에서 연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독 마을은 도독골 또는 도독개라 불렸으며 임진왜란 때에 조·명 연합군이 이곳에 주둔한 이래 불려진 지명이며 통상 도독이라 칭한다.

섬진강 하류가 만들어낸 천혜의 자연환경 때문에 굴, 바지락, 꼬막, 피조개 등의 수산자원이 매우 풍부하고, 멸치, 장어, 개불이 어획되었으나 여수국가산업단지와 광양제철소가 조성되면서 수산업의 기반은 쇠퇴하였다.

### 3) 문화 관광자원

#### ① 창촌 고인돌

묘도의 고인돌은 묘도우체국 앞에 있는 구릉의 발에 있다. 고인돌의 상석은 장방형이며, 장축은 남북 방향이다. 상석 밑에는 빗돌이 있으며 옮겨진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창촌 고인돌

출토된 유물은 청동기 시대의 석검 2점이 수습되었다. 석검 I식은 여수반도에서는 처음으로 발굴된 형태로 청동기시대 묘제에서 수습되는 유물의 중요한 자료이다. 석검 II식은 습배식으로 이와 같은 형태는 월내동 고인돌군에서 1점, 세구지 고인돌군에서 1점이 발견되었다.

#### ② 묘도동 산성

묘도동 산성의 축조에 관한 문헌 기록은 찾아 볼 수 없고, 체성이 거의 무너져 있어서 성곽의 초축 시기를 알 수 있는 단서가 거의 없다.

다만, 출토 유물 가운데 기와류가 고려시대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산성은 고려시대와 그 이후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해볼 뿐이다.

묘도동 산성은 묘도에서도 동쪽으로 돌출된 곳에 위치한다. 해발 130m의 유두산(油頭山) 정상에서 해발 75m까지 연결된다.

북서쪽 해안가는 작은 만이 형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작은 포구로 사용되고 있다. 북쪽과 동쪽은 급한 경사를 이루며 내려가다가 해안선과 연결된다. 남쪽은 상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하게 내려간다. 곡부(谷部)는 유일하게 산의 북서쪽으로 내려가며, 계곡은 크게 형성되지 않았다. 서쪽으로는 섬의 서쪽에 위치한 봉화산까지 능선으로 연결된다.

묘도동 산성은 테뫼식 산성으로 체성은 산 정상에서 서쪽 사면까지 내려오는 동고서저(東高西低)의 형태이다. 체성은 석축된 것으로 추정되며, 성의 평면 형태는 부정형으로 동쪽이 좁고 서쪽이 넓다. 성의 총 둘레는 699m이다.

성 안의 지형은 산 정상에 완만하게 경사진 평탄지가 남서쪽으로 내려오며, 서쪽으로는 계곡이 형성되어 급한 경사를 이룬다. 성곽의 길이는 약 2km이며, 본래는 토성이었으나 후대에 석재로 보충한 흔적이 확인된다.

체성과 관련된 시설로는 문지(門址) 2개소가 확인되었다. 수습된 기와의 등면은 무문이며, 내면에는 베의 흔적이 선명하고 물손질로 면을 정리하였다. 분할면은 내면에서 등면으로 살짝 그은 후 부러뜨렸다.

이러한 수법의 기와는 순천 해룡산성(海龍山城)에서 다량으로 출토된 바 있고, 고려시대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③ 당제

민간 신앙은 묘읍 당산제와 온동 당산제가 있다. 묘읍 당산제는 매년 음력 정월 초하룻



▲ 묘읍 당산나무와 돌돌

날 0시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마을 공동으로 지낸다. 제는 음력 정월 초하룻날 자시(0시) 경에 마을 뒤편 밭 한 가운데에 있는 돌(입석)에서 모신다. 이를 '원당산'이라 한다.

원당산은 마을 뒤편 산 아래 밭에 있는데 마을에서 약 300m 떨어져 있다. 온동 당산제는 매년 음력 선달 그믐날에 마을에서 공동으로 자정경에 지낸다.

제주는 제를 모시기 사흘 전에 마을회의를 통해 선정한다. 제주 선정과 절차는 다른 곳에서 지내는 당제와 별반 차이가 없다.

#### ④ 묘도와 진린도독

묘도는 광양만의 중앙에 자리 잡은 섬으로 정유재란 때 명나라 제독 진린(陳璘, 1543~1607)과 관련된 지명과 유적이 남아 있다. 진린 도독과 관련된 이야기는 도독마을의 유래담과 관련하여 전한다.

진린의 자는 조작(朝爵), 호는 용애(龍崖)이며, 1543년 중국 광둥에서 태어났다. 19세 어린 나이에 연대장격인 파총(把總)에 발탁되어 광동성 내에서 발생한 20여 건의 소요 사건을 평정하여 신종으로부터 크게 인정을 받았다.

1597년 정유재란으로 명의 변방까지 시끄럽자 신종은 부총병으로 산둥 지방의 왜구 방어의 책임을 지고 있던 진린을 흠차총령수병어왜총병관전군도독부도독수군도독(欽差總領水兵禦倭總兵管前軍都督府都督水軍都督)으로 임명한다.

『선조실록』에 나타난 바로는, 전투에도 참전하지 않고 외곽에서 구경만 하던 그들은 우리 수군이 거둔 적의 수급을 협박해서 가져갔고 번번이 이순신 장군의 출전을 방해하기까지 했다.

이런 불상사는 오래가지 않았다. 1598년(선조 31) 9월 21일, 진린 도독은 수군 5천 명과 전함 5백 척을 거느리고 고금도를 출발하여 순천 왜성에 갇혀 있던 왜적을 섬멸하려고 묘도에 진을 쳤다. 진린은 이를 동안 군장을 수습하고 나서 곧바로 장도에 비축한 적의 군량을 불살랐고 왜성을 공격했다.

진린은 적의 퇴로를 열어주는 왜장의 휴전 제의에 넘어가 병력과 함께 1598년 10월 9일 고금도로 철수했다. 진린은 적들의 뇌물 공세에



▲ 도독 마을

잠깐 마음이 흔들렸으나, 이순신 장군의 강력한 설득으로 1598년 11월 11일 다시 묘도에 진을 친 뒤 노량해전에 참전한다. 이로써 진린이 묘도에 진을 친 기간은 27일이 되는데 묘도

의 도독마을이 바로 그 흔적의 터이다.

전란은 적선 500여 척을 섬멸하고 끝이 났다. 진린은 전란을 치른 동안 이순신 장군의 지휘력과 전략 전술 그리고 이순신의 인품에 깊이 탄복해 마지않았고 종종 지휘권도 양보했다. 전란이 끝나고 진린은 1599년(선조 32) 4월 명나라로 돌아갔다. 진린은 조선에서의 전과로 광동백에 봉해지고 사후에 태자소보에 추증되었다.

『여천시 마을유래지』에 의하면 도독마을은 정유재란 당시에 명나라 진린 장군의 수군이 진을 친 데서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도 진린의 직함을 따라 도독포, 도독개라고 불리며 그때 쌓은 산성이 남아 있다. 주위에는 성곽과 포대를 설치했던 흔적도 있다. 임진왜란 때 지원병을 거느리고 주둔했던 격전지를 마을 이름으로 삼은 것이다.

### ⑤ 묘도와 풍수

묘도 주위에는 독특한 지명을 갖고 있는 섬이 있다. 묘도는 고양이섬, 서치도는 쥐섬, 우순도를 누룽지섬이라고 한다.

우순도는 서치도 앞에 있으니, 쥐 앞에 누룽지고, 서치도는 묘도 앞에 있으니 고양이가 앞에 쥐가 된다.

서치도에서 묘도를 바라보면 마치 고양이가 쥐를 먹기 위하여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은 형국에서 옛날부터 전하여 오는 전설은 쥐의 몸보다 열배나 더 큰 누룽지를 가진 섬이 고양이입 앞에 있다고 하여 우순도라 하였다.

묘도는 고양이가 쥐와 누룽지를 놓고 어느 것부터 먹느냐 하는 모습이어서 이곳에 큰 인물은 나지 않더라도 의식주만은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전한다.



▲ 묘도 지름머리

구전에 의하면 이 섬의 꼬리(즉 고양이가 꼬리는 남해군 쪽에 있음)에는 유두라고 선조들이 불렀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시대 때 일본인들이 석유가 나올 것이라며 이곳에서 탐사 작업을 시도해보았지만 모두가 허사였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지금 이곳에는 GS-칼텍스 원유부두가 설치되어 대형 유조선이 항상 정박하고 있어 선조들의 선견지명은 수천 년 후의 우리나라 발전과 개발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 ⑥ 이순신대교

2007년 11월 착공하여 2012년 10월 준공 예정인 여수국가산단 집입도로 개설공사는 여수산단과 광양산단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4차선 도로건설사업으로 총 8.55km에 사업비 1조413억 원이 투입된 대역사이다.

이 중 3공구의 주탑인 이순신대교는 광양시 금호동에서 여수시 묘도동 구간으로 총 4,933억 원이 소요되며, 콘크리트 주탑으로는 270m로 세계 최고 높이를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주탑 높이가 세계 최고일 뿐 아니라 주경간장(주탑과 주탑 사이의 길이) 또한 1,545m로 일본 아카시대교(1,991m), 중국 시호우먼교(1,650m), 덴마크 그레이트벨트교(1,624m)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긴 현수교량이다.

현수교는 주탑과 주탑을 케이블로 연결하고 케이블에서 수직으로 늘어뜨린 강선에 상판을 올리는 방식의 교량이다.

바다에서 상판까지의 높이가 최대 85m, 평균 71m이며, 주탑 사이



▲ 이순신대교 조감도

선박운항 가능 폭은 1,310m로 길이 440m의 18,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2개가 양방향으로 운항할 수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현수교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1,280m)를 능가하는 것이다.

주탑과 주탑 사이를 연결하는 메인 케이블은 세계 최초로 1,860MPa(메가파스칼)급의 인장강도를 가지고 있는 직경 5.35mm의 초고강도 강선이 사용됐다. 이는 지금까지 현수교에 설치된 강선 중 가장 강도가 높은 일본의 아카시대교(1,760MPa)보다 뛰어나다.

또한 이순신대교는 순수 국산기술로 시공된 국내 최초의 다리로 세계에서 6번째로 현수교 기술 완전 자립화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동안 모든 분야를 자국 기술로 자립화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덴마크 등 5개국뿐이었다.

건설과정에서도 각종 첨단 공법을 사용하였다. 세계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주탑은 슬립 폼(Slip Form) 공법을 채택하여 공사기간을 약 50% 정도 단축하였으며, 또 가로보 역시 육상에서 사전 제작한 후 유압식 기계로 인양 시공하는 헤비 리프팅(Heavy Lifting) 공법을 도입해 전체 주탑 공정을 11개월로 단축시켰다.

교량 상판은 강풍이 심하고 태풍이 잦은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내풍 안정성은 높이고 중량은 감소시키는 트윈 박스 거더(Twin Box Girder) 방식이 적용돼 최대 풍속 90m/s까지 견딜 수 있다.

이는 초속 44m 이상의 대형 태풍 2개가 한꺼번에 몰려와도 교량을 지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 아울러 평탄성과 포장 품질 향상의 극대화를 위해 상판에 국내 최초로 에폭시 아스팔트 포장이 적용되었다.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가 완성되면 여수산단과 광양산단간 이동거리는 60km에서 10km로 줄어들고 이동 소요시간도 80분에서 10분으로 1시간 넘게 단축된다.

이순신대교의 주경간장을 1,545m로 설계한 것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해인 1545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이순신대교가 들어서 는 여수는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사이자 삼도수군통제사로 부임했던 전라좌수영 겸 삼도수군통제영이 있던 곳이고, 또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의 배경이 묘도 앞바다(노량해전)였던 점을 반영한 것이다.



## 제2장 돌산읍 -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섬







▲ 무술목 앞바다



돌산도는 우리나라에서 아홉번째로 큰 섬으로 돌산대교의 준공으로 인해 육지와 다름 없이 접근성이 좋으며, 경치가 아름답고 볼거리가 많아 해양관광단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 하늘에서 내리다 본 무술목과 소미산 일대의 전경

## 제1절 개관

### 1. 위치와 역사

#### 1) 위치

돌산읍은 돌산도·송도·금죽도 등 3개의 유인도와 가막도, 야도 등 20여 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다.

동쪽에는 남해도, 서쪽에는 남면의 일부와 화정면, 남쪽에는 금오도, 북쪽에는 여수시의 구시가지가 위치해 있다. 돌산도의 4극은 동으로는 임포마을(동경 127° 48'), 서로는 송도마을(동경 127° 42'), 남으로는 성두마을(북위 34° 35'), 북으로는 진두마을(북위 34° 44')이다.

돌산도의 주변 바다로는 동쪽에 광양만, 서쪽에 가막만, 남쪽에 외



돌산 송도와 군내항

해인 남해가 위치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1984년에 준공한 돌산대교로 육지부인 여수시 남산동과 연결되어 있다.

## 2) 지형

돌산도는 최고봉인 봉황산(460m)과 천왕산·봉화산·대미산·본산·금오산 등이 사방에 우뚝 솟아 있고, 이들 산에서 내려온 냇물이 모인 돌산천 등의 하천이 있다. 동쪽의 둔전리·죽포리 일대는 돌산에서 가장 넓은 평지가 있어 논과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 천마산 애추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 화성암인 불국사 화강암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산지 지형으로는 대미산·천왕산 등에 애추(崖錐, 너덜경, talus or scree)가 발달되어 있다. 애추란 가파른 낭떠러지 밑이나 경사진 산허리에 고깔 모양으로 쌓인 돌 부스러기를 말한다.

해안은 소규모의 만과 곶이 이어져 드나들이 비교적 심하며, 남동쪽 해안은 대부분 암석해안이고, 서쪽 해안은 약간의 갯벌이 펼쳐져 있다. 바닷물의 차별침식에 의한 풍화혈(타포니)이 성두마을에 발달해 있다.

바닷물이 자갈이나 모래를 퇴적하여 형성된 지형을 비치(beach) 또는 해변(海濱)이라 한다. 해변 중 모래가 퇴적된 지형을 사빈(沙濱)이라 하는데, 방죽포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이 대표적 사빈이다.

## 3) 유래

돌산의 명칭은 백제시대와 고려시대에는 '돌산현(突山縣)', 통일신라시대에는 '여산현(廬山縣)'이라 불렸다. 돌산현이라는 고을명칭은 돌산도에 봉황산·천왕산·두산·대미산·소미산·천마산·수죽산·금오산 등 8개의 큰 산이 있다는 뜻에서 팔(八)·대(大)·산(山)자를 포함하는 한자어인 '돌산(突山)'



▲ 성두해안 풍회혈

이라 칭했다 한다.

일설에 의하면 섬의 여러 산에 돌이 많이 쌓여 있어 '돌산' 이라 했다 한다. 또 다른 일설에 의하면 뱃길 따라 남해안의 중서부를 가다보면 갑자기 큰 산이 나타나는 곳 또는 큰 산이 쏙 나온 곳이라 하여 '돌산' 으로 부르게 되었다고도 한다.

여산현(廬山縣)이라는 명칭에서 '오두막 여(廬)' 라는 한자가 쓰인 것은 해안에 위치한 섬 지방의 특성상 작은 집들이 많아서 지어진 이름이 아닐까 추정된다.

1523년(중종 18)에 방답진이 설치되었고, 1896년 2월 3일 돌산군이 설치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돌산군이 폐군됨에 따라 여수군에 병합되어 두남면이라 불리게 되었다가 1917년 두남면을 다시 돌산면으로 개편했으며, 1980년 돌산읍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읍사무소는 돌산도의 남서쪽에 위치한 군내리에 있다.

#### 4) 기후와 산업

돌산은 온대 계절풍 기후 지역의 저위도에 위치한 도서지역으로 연평균 기온 14.1℃, 1월평균기온 2.2℃, 8월평균기온 25.7℃, 연강수량 1,181.4mm이다. 여름에는 서늘하고 비가 많이 내리며, 겨울에는 비교적 따뜻하며 지형과 풍향의 영향으로 눈이 거의 내리지 않는다.

토양은 신생대 제4기의 고온 다습한 기후 환경에서 만들어진 적색

토가 넓게 분포한다. 이러한 기후와 토양의 영향으로 곰솔나무·동백나무·후박나무·팽나무 등이 잘 자란다.

주민들 대부분이 농업과 수산업을 겸한다.

최근에는 농수



▲ 금천마을 해안과 굴 양식장

산물 가공업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이 발달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쌀·보리·고구마·감자·돌산갯·고들빼기·시금치·마늘·두릅 등이다. 연근해 일대에서는 문어·조기·삼치·멸치·갈치·장어·퀴치 등이 잡히고, 굴·홍합·김 등이 양식된다.

### 5) 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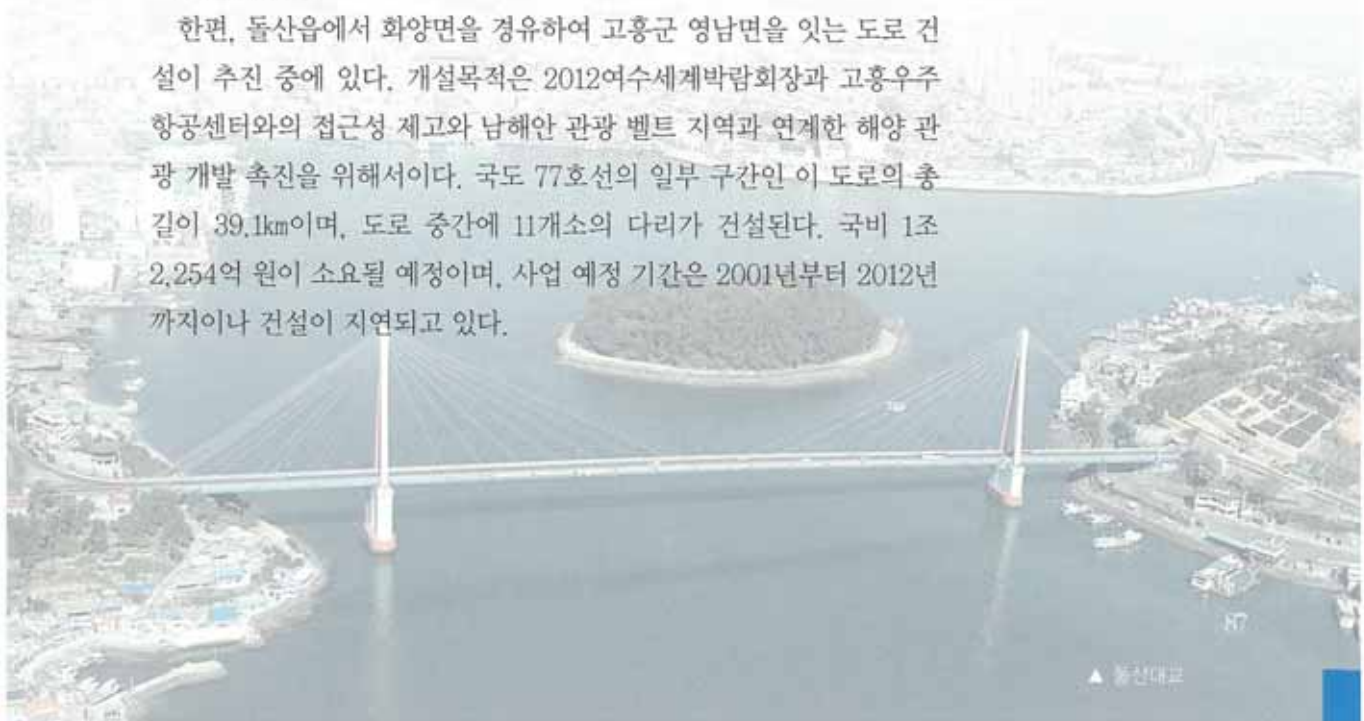
돌산은 경기도 용인에서 시작되는 국도 17호선의 종착 지점에 해당하며, 아름다운 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해안도로가 잘 갖추어져 있다. 1980년 12월 착공하여 1984년 12월 15일에 완공된 길이 450m의 2차선으로 된 돌산대교가 있으나 돌산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차량 통행량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돌산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도로를 정비하고 있으며, 4차선의 제2돌산대교를 건설 중에 있다.

제2돌산대교 건설은 돌산읍 우두리에서 여수시 수정동 간을 연륙교 630m, 터널 490m, 접속도로 820m 등 모두 1.94km 구간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955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 8월 12일부터 2010년 8월 11일까지 60개월이다. 콘크리트 사장교 형식으로 건설되는 이 다리는 여수의 해안 및 기존 돌산대교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한편, 돌산읍에서 화양면을 경유하여 고흥군 영남면을 잇는 도로 건설이 추진 중에 있다. 개설목적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장과 고흥우주항공센터와의 접근성 제고와 남해안 관광 벨트 지역과 연계한 해양 관광 개발 촉진을 위해서이다. 국도 77호선의 일부 구간인 이 도로의 총 길이가 39.1km이며, 도로 중간에 11개소의 다리가 건설된다. 국비 1조 2,254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사업 예정 기간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이나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



▲ 돌산갯



▲ 돌산대교

## 2. 현황

### 1) 인구

(2009년 2월)

1962년	1967년	1972년	1982년	1987년	1996년	2005년	2009년
25,089	26,692	26,237	22,549	20,194	15,960	15,622	14,873

### 2) 공공기관

시 청 돌산청사	읍사무소	출장소	학교			파출소	우체국	농협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초	중	고					
1	1	2	4	2	1	3	2	3	2	6

### 3) 도서

도 서 (개)			세 대	인 구 (명)			면 적(㎢)	해안선(km)
계	유인	무인		계	남	여		
23	3	20	5,664	14,873	7,498	7,375	71.81	104.4

### 4) 유인도서

도서명	세 대	인 구	면적(㎢)	법정리(10)	행정리 (40)
돌산도	5,576	14,621	70.8	군내리	군내, 동네, 남외, 서외, 송도
				신복리	신기, 대복, 예교
				금성리	성두, 작금
				울림리	임포, 소울, 대울, 백포
				죽포리	죽포, 두문, 봉림, 방죽
				서덕리	서기, 덕곡, 송월
				금봉리	송시, 금천, 향대, 속전, 봉양
				둔전리	둔전, 봉수
				평사리	모장, 평사, 도실, 월암, 계동, 굴전
				우두리	상동, 하동, 백초, 진목, 세구지, 진두
송도	87	250	0.9		군내리에 속함, 송도
금죽도	1	2	0.11		금봉리에 속함

## 5) 무인도서

도서명	면적(km <sup>2</sup> )	특 징
상중도	0.0123	군내리 서외마을 앞에 위치한 시루뒀은 섬
하중도	0.0050	군내리 남외마을 앞에 위치한 시루뒀은 섬
소송도	0.0100	작은 송도
율 도	0.0281	율리리 소율마을 동쪽에 위치한 섬으로 밤의 알맹이 모양으로 생겨서 '율도' 밤섬으로 불림. 밤섬에는 이무기가 있어 1년에 한번씩 '금굴'에 가서 목욕을 하고 갔다는 전설이 있다.
야 도	0.0050	두문포 앞에 위치한 불무(불무,冶)의 주둥이를 닮은 섬으로 용이 살았다는 동굴이 있음
서근도	0.0400	금봉리 서쪽 앞에 위치한 섬
백 도	0.0050	모장 마을의 남쪽에 있는 섬으로 해안의 돌들이 흰 빛이 남. '흰섬' '노인섬' '백도' 등으로 불림
독 도	0.0040	소아치섬
항대도	0.0560	금봉리 항대마을 앞의 섬으로 썰물이 되면 섬으로 이어지는 긴 목이 생기는 육계도, '목대'라 불려오다 1960년경에 '항대'로 바뀜. 풍수지리적으로는 소가 왼쪽으로 누운 모습이라 힘을 못쓴다고 함.
승개도	0.0040	
취 도	0.0450	모장 마을의 서쪽, 금죽도와 풀구섬 사이에 위치한 섬. 취가 많이 나므로 '취섬'이라 했다 함.
소금죽도	0.0320	금죽도의 북방에 위치한 섬. 대가 있는 작은 섬. 작은 대섬.
초 도	0.0020	금죽도 북방에 위치한 섬. 여수에서 돌산으로 올 때 첫 섬이라는 뜻.
가막도	0.0021	가막만의 중앙에 있으며 까마귀 같이 생겼다하기도 하고 멀리서 보았을 때 까맣게 보여서 '까막섬'·'가막도' 등으로 불림
경 도	0.0030	평사리 모장 마을 앞에 있는 섬에 줄기 있는 풀이 많이 난다해서 풀구섬(줄기섬), 경도(靑島) 등으로 불린다. 멀리서 보면 달같이 생겼다 하여 '달섬'이라고도 불림
소경도	0.0420	평사리에 속하는 섬
내치도	0.0064	우두리 월전포 앞에 위치한 섬
외치도	0.0110	우두리 월전포 앞에 위치한 섬
죽 도	0.0040	평사리 무술목 해수욕장 앞에 위치한 섬
혈 도	0.0023	평사리 무술목 해수욕장 앞에 위치한 섬



■ 달암산성지

## 제2절 유인도서

### 1. 돌산도

#### 1) 유적지 및 관광지

우두리 상동마을의 마상포와 돌산도에 근접한 송도에서 신석기시대 조개더미 유적이 발견되었다. 특히 송도 유적지에서는 집자리와 덧무늬토기가 발견되었다. 또한 돌산도에서 고인돌이 현재까지 22군(群)에 181기(基)가 분포된 것이 확인되고 있어 돌산지역의 역사가 유구함을 알 수 있다.

문화 유적지로는 향일암(向日庵,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40호), 은적



암(隱寂庵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39호), 돌산 군관청(突山軍官廳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155호), 돌산향교(전라남도 문화재자료 41호), 돌산 평사리 고니도래지(전라남도 기념물 43호), 방답진 성터, 이충무공 유적 기념비, 달암산성지(達巖山城址) 등이 있다.

그 밖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로는 야경이 아름다운 돌산대교, 여수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는 돌산공원, 몽돌 해변으로 유명한 무술목 해수욕장, 방죽포 해수욕장, 북한 반잠수정 전시관, 해양수산물과학관 등을 들 수 있다.

### ① 향일암과 금오산

금오산(金鰲山)은 돌산도 끝자락에 위치한 해발 323m의 산이다. 금오산이 유명한 이유는 양양 낙산사의 흥련암, 남해의 보리암, 강화도의 보문사와 함께 우리나라 4대 관음기도처 중의 하나이고, 일출 광경이 빼어난 향일암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돌산읍 산 7번지에 위치한 향일암(向日庵)은 '해를 향한 암자'란 뜻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인 화엄사의 말사(末寺)이다. 1984년 전남문화재자료 제 40호로 지정되었다. 금오산은 풍수지리상 경전을 등에 모신 금 거북이가 바닷 속으로 막 들어가는 모습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대웅전 앞에서 왼쪽 아래로 보이는 봉우리가 거북이의 머리고, 향일암이 서 있는 곳이 거북이의 몸체에 해당 한다. 전설을 입증하듯 금오산의 바위들은 마치 거북등처럼 갈라져 있어, 쇠 '금(金)' 자에 큰 바다거북 '오(鰲)' 자를 써서 금오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향일암은 644년(신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돌산 금오산과 향일암



▲ 향일암 일출

라 선덕여왕 13년) 원효대사(元曉大師, 617~686)가 창건하였다. 창건 당시 원통암(圓通庵)이라 했다는 내용이 『여수군지』와 『여산지』에 기록되어 있다. 그 후 958년(고려 광종 9)에 윤필(允弼)대사가 이곳에 수도하면서 원통암을 금오암(金鰲庵)이라 개칭하였다고 한다. 한때 거북 '구(龜)' 자를 써서 영구암이라고 부른 적도 있으며, 영구암이라는 편액이 현재도 남아 있다. 금오산의 기암절벽 사이사이에 대웅전, 관음전, 삼성각, 종각, 해수관세음보살상이 위치해 있다.

1713년(숙종 39)에 당시 돌산 주민들이 논과 밭 52두락을 헌납한 지 2년 뒤인 1715년에 인묵(仁默)대사가 향일암이라고 명명하였다.

향일암에서 뒤편의 금오산 정상까지 오르는데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흔들바위를 지나면서부터 시야가 확 트이기 시작하여 바위 지대에 오르게 되면 촛대바위, 기둥바위 등 갖가지 모양의 바위들이 바다의 풍경과 어우러져 멋진 풍광을 연출 한다.

한편, 향일암에서는 매년 '향일암일출제'가 펼쳐진다. 이는 향일암의 장엄한 일출을 널리 알리고 새해의 소망을 기원하는 신년 해돋이 관광축제이다. 향일암일출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며 12월 31일에 펼쳐지는 새해맞이 행사와 1월 1일의 본행사, 부대행사로 이루어진다.

금오산 정상에서 이루어지는 해님이 감상을 시작으로 하여 사물놀이 시연, 탐방객 장기자랑, 영상비디오 상영, 향일암일출제 개막식, 모듬북공연, 게임한마당, 댄스파티, 촛불의식, 재야의 타종, 원단(元旦) 예불 등의 새해맞이 행사와 신년맞이 폭죽 및 캠프파이어 대동놀이, 야외영화제, 일출기원 사물놀이 공연, 비나리 기원굿, 소원성취문 풍선 달아 날리기, 해맞이 기원제례, 풍년 기원 해상퍼레이드 등의 본행사가 있다. 부대행사로는 타임캡슐코너 운영, 일출사진 촬영대회, 보물찾기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 은적암 일주문

## ② 은적암

돌산읍 군내리 중봉산 아래에 위치한 사찰로 1984년 2월 29일 전남 문화재자료 제39호로 지정되었다.

『여수군지(麗水郡誌)』, 『여산지(廬山誌)』 등에 1195년(고려 명종 25) 보조국사 지눌이 창건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보조국사가 금오도에 절을 지어 송광사라 한 뒤 잠깐 쉬었다 간 이곳에 절을 세워 은적

암이라 하였다 한다. 1918년에 그려진 후불탱·칠성탱·산신탱 등이 있고 극락전·관명루·칠성각 등의 건물이 있다.

관명루의 상량문에 따르면, 1618년(광해군 10), 1790년(정조 14), 1857년(철종 8) 등 3번에 걸쳐 개수된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정유재란 때 소실되지 않고, 이때 개수된 것이라면 은적암은 임진왜란 훨씬 전에 건립된 사찰임을 시사하고 있다. 1991년에 단청 공사를 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극락전은 남향이며 막돌허튼층기단 위에 막돌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전면은 원형기둥, 후면은 사각기둥을 세우고 창방과 주두, 장혀, 도리



▲ 은적암

를 차례로 절구하였다. 공포는 주심포계의 2익공식이며 지붕은 팔작지붕인데 우측은 바람막이 판이 있는 맞배지붕이다.

관명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이며 대웅전을 향하고 있는 맞배지붕집이다. 암자 뒤의 석벽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으며, 남향의 산록에 위치하고 있어 후박나무·동백나무 등 난대성 숲이 울창하여 절경을 이룬다.

### ③ 방답진 봉수대



방답진 봉수대 ▲

'봉수(烽燧)'란 고려·조선 시대에, 밤에는 횃불(烽), 낮에는 연기(燧)를 올려 변방 지역에서 발생하는 병란이나 사변을 중앙에 알리던 통신 제도이다.

조선시대에 변방으로부터 서울 남산으로 연결되는 5개의 직봉(直烽) 봉수길이 있었다. 5개의 직봉(直烽) 봉수길 중 제5직봉의 첫 출발에 해당하는 봉수대가 '방답진 봉수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이다.

돌산을 금봉리 봉양마을 뒷산을 임도를 따라 약 2시간 정도 올라가다 보면 봉화산(381m)에 '방답진 봉수대'가 나온다. 봉수대에 올라가 보면 여수 전역을 사방으로 조망할 수 있다. 광양만과 가막만의 선박들의 동태가 한눈에 들어오는 요충지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다.

방답진 봉수의 직봉 코스는 돌산도 봉화산→회양면 백야곶→고흥 팔영산→장흥 금일산→진도 여귀산→옥구 화산→양성 괴태산→양천 개화산→서울 목멱산(남산)이다.

### ④ 방답진 성터

방답진(防沓鎭)은 전라좌수영에 속한 진영(鎭營)으로 좌수영성에서 남쪽으로 40리 떨어진 돌산 군내리에 위치하던 왜구방비를 위한 요충지였다. 방답진은 1523년(중종 18년)에 설치된 후, 1895년(고종 32년)에 폐진될 때까지 372년간 존재하였다. 좌수영 산하의 5포 중 사도진

과 함께 첨사(僉使) 지휘하던 곳이다.

방답진성은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방답진의 설치와 함께 쌓은 성으로 성 안에는 관아가 즐비하였다. 성의 동문은 현재의 돌산초등학교 쪽으로 넘어가는 동령고개 길목에 있었다.



▲ 구 동헌

성터는 이곳에서 북쪽으로 서당산 중턱을 따라 읍사무소 뒷산 중턱에 이른다. 이곳에서 군내리 교회 뒷산 중턱에 낮게

나마 그 성터의 자취가 남아 있고, 성벽 흔적을 따라 비스듬히 내려오면 자동차 도로 길목에 서문터가 남아 있다. 서문터에서 도금터를 넘어 남쪽 바닷가로 나오면 남문터가 있으며, 이곳에서 다시 동쪽으로 상본산(上本山)을 거치면 동문터에 이르게 된다.

### ⑤ 방답진첨사 이순신(李純信) 장군

방답진(防沓鎭)은 전라좌수영에 속한 진영(鎭營)으로 돌산군내리에 위치하던 왜구방비를 위한 요충지로 좌수영 산하의 5포 중 사도진과 함께 첨사(僉使)가 지휘하던 곳이다.

충무공의 『난중일기』 임진년(1592) 1월 10일 일기에 “방답에 새 첨사로 이순신(李純信)이 부임하여 왔다.”라고 적혀 있다. 바로 이 분이 왜란 때 전라좌수사 겸 3도수군통제사였던 충무공 이순신(李舜臣) 장군과 동명이인(同名異人)인 방답첨사 이순신 장군이다.

방답첨사 이순신은 1554년에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에서 출생하였다.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자는 입부(立夫), 시호는 무의공(武毅公)이다. 25세에 무과에 급제하여 함경도 온성판

### 방답진 성



성은 석축성으로 규모는 둘레 661m, 높이 3.9m이며, 평면 형태는 사다리꼴이다. 여첩(女堞) 205개소·창고 20칸·연못 1개소·성문 3개소가 있었다.

동헌(東軒)은 지금까지 남아 있어 읍사무소 회의실로 사용되고 있다.

객사는 지금의 우체국 자리로 광복 후까지 남아 있었으나 1972년 2월 22일 화재로 소실되었으며, 읍사무소 동편에 군관청(軍官廳)과 서기청(書記廳)이 현재까지 남아 있다.

관 등의 벼슬을 거쳐 방담첨사로 부임한 것은 1592년 1월이다. 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을 도와 선봉장으로 출전하여 옥포, 한산도 등에서 커다란 전공을 세웠다. 그 후 경상우수사, 전라좌수사, 전라병마사 등을 역임하였다.

1604년에 왜란 때 무공이나 명에 파견된 외교관으로 공을 세운 이들을 선정한 선무공신(宣武功臣) 18명 중 3등공신이 되었다. 1611년에 별세하였으며, 묘소는 광명시 일직동 산 26-7에 있다.

왜란 당시 방담진첨절제사 이순신이 이끄는 방담진의 수군이, 전라좌수영의 지휘관이던 이순신 장군의 함대에 합세하여 커다란 전공을 세운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역사적 사실이라 볼 수 있다.

충무공 이순신과 무의공 이순신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충무공 이순신(李舜臣) & 무의공 이순신(李純信)

	이 순 신 (李舜臣)	이 순 신 (李純信)
생존	1545(인종1)~1598(선조31)	1554(명종9)~1611(광해군3)
향년	54세	58세
본관	덕수(德水)	전주(全州)
출생	서울 중구 건천동(현 인현동)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시호	충무공(忠武公)	무의공(武毅公)
주요	1576년(32세) 무과 급제	1577년(24세) 무과 급제
	1580년(36세) 발포만호	1591년(38세) 방담진첨사
	1586년(42세) 조산보만호	1592년(39세) 중위장으로 옥포해전 출전, 전위장으로 당포, 한산, 부산포 해전 참전
	1591년(47세) 전라좌수사, 거북선건조	
년보	1592년(48세) 왜란, 4차례 출전하여 대승	1597년(44세) 유부수군장(留部水軍將)경상우수사
	1593년(49세) 한산도로 진을 옮김,삼도수군통제사	1598년(45세) 충무공의 부장(部將)으로 노량해전 참전
	1597년(53세) 재란, 투옥, 백의종군, 명량해전 승리	1602년(49세) 전라좌수사
	1598년(54세) 노량해전 중 별세	1604년(51세) 선무공신(宣武功臣) 3등에 완산군(完山君)으로 봉해짐
	1604년 선무공신(宣武功臣) 1등에 봉해짐	1611년(58세) 전라병마사 재직 중 별세

## ⑥ 돌산 군관청



▲ 돌산 군관청

돌산 군관청(軍官廳)은 1987년 9월 18일에 전라남도유형문화재 제155호로 지정되었다. 돌산읍 군내리에는 방답진 설치 이후 공공건물로 아사향청(衙舍鄕廳), 순교청(巡校廳), 장

교청, 서기청, 형리청, 사령청, 취수방(吹手房) 등의 관아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군관청이다.

군관청은 1872(고종 9) 1895(고종 32)년 경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1872년에 작성된 《방답진지도》에는 현재의 위치에 배를 두었던 곳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이후에 3칸 규모의 군관청과 장교청이 각각 지어졌다가 1895년 이후 순교청으로 개조되었다.

당시 섬 지방을 다스리던 형리들의 관사라 구전되어, 조선말까지 형리들의 숙소로 사용되었으나 왜병의 침입 이후에는 기능을 상실하였다. 1896년 돌산군이 설치되면서 대부분 건물이 돌산군 행정 관아로 사용되었다. 이때 군관청은 순교청으로 사용되었다. 1899년에 발간된 《돌산군읍지》 순교청 조에도 이 건물이 12칸이며 예전의 군관청이라는 기록이 나타나 있다.

관아 건축인 군관청은 'ㄷ'자형 평면으로 구성된 17평 규모의 기와 집이다.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이며, 각 실은 여러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오른쪽 날개 끝부분은 계자난간을 두른 5척 너비의 툇마루를 설치하였다. 창호는 용자살로 2짝 미서기이다.

건축구조는 막돌 주춧돌 위에 두릿기둥을 세운 굴도리집 양식으로 되어 있다. 돌산 군관청의 왼쪽으로 자연석 축대와 담장이 둘러싸여 있고 후면에는 자연석 축대로 오른쪽은 자연석 담장이 둘러 있다. 전면 동쪽으로는 툇밭이 200평 정도의 울안에 있고 주위에는 민가들이 둘러싸여 있다. 현재의 돌산읍 군내리 일원은 옛 방답진의 축성과 문

### 삼정사교(三井四橋)

'정' 씨 성을 가진 사람이 동네사람들을 위해서 3개의 우물과 4개의 다리를 만들어주었다 한다.

삼정은 동문안샘, 아랫샘, 영조샘을 말하며, 사교는 현재는 흔적이 없으나 「여산지」의 기록을 보고 현재의 위치를 비정해 보면 돌산읍사무소 입구, 농협 좌측, 홍살문 앞, 남문터 앞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터, 배 만들었던 곳, 비석, 해자 등이 남아 있어 침절제사가 배치되었던 바다 방어의 요충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 ⑦ 돌산 비석군



▲ 돌산 비석군

돌산읍 군내리 내에 산재되어 있던 오래된 비석 8기를 1976년 4월에 남외마을 벽송정 아래로 옮겨 놓았다가 2004

년 12월 28일 돌산군관청 뜰 안으로 이설하여 보존하고 있다. 8기의 비석은 첨사 장익복 영세불망비(1786년 건립), 첨사 박춘수 영세불망비(1845년 건립), 삼정사교(三井四橋)중창비(1802년 건립), 법부대신 신기선 영세불망비(1896년 건립), 학부대신 이도재 영세불망비(1896년 건립), 군수 서병수 애민선정비(1900년 건립), 군수 마준영 영세불망비(1903년 건립), 김우섭 시혜기념비(1945년 건립)이다.

### ⑧ 방답진 선소



▲ 방답진 선소 (굴강)

방답진성의 서문터 밖으로는 조그만 만(灣)이 있어 적의 침입으로부터 전선을 보호하거나 즉시 출동시킬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깊게 판 굴강(掘江)이 있다. 굴강은 현재에도 좌측 사진처럼 원형에 가깝게 남아 있다.

『호남읍지(湖南邑誌)』에 의하면 전선 2척·병선 2척·협선 4



척·군관 50명·기패관 25명·진무 45명·지인 25명·군노 25명·기수 50명·사령 25명·사생 50명·화포장 22명·포수 68명·사공이병 18명·능로군(能櫓軍) 302명 등과 방군(防軍) 1,620명이 배치되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방답진 선소에서 임진왜란 직전 '방답귀선(防踏龜船)'이라 불리는 거북선 1척 건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굴강은 현재에도 어민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 ⑨ 돌산향교

돌산읍 군내리에 위치한 돌산향교는 순천으로부터 독립하여 돌산군이 설치(1896년)된 이듬해인 1897년에 설립되었으며, 1984년 2월 29일 전라남도문화재자료 제41호로 지정되었다.

조선시대 국가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은 서울에 국립대학에 해당하는 성균관(成均館)이 존재하고, 부(府)·군(郡)·현(縣)과 같은 지방 행정 단위에는 중등교육 기관인 향교(鄕校) 설립이 허용되어, 과거시험을 준비하여 유생(儒生)들과 관료를 배출하는 산실(産室)의 구실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여수의 경우 1396년(태조 5년) 여수현이 폐현(廢縣)이 되어 순천고을과 병합되니, 돌산과 여수에서는 갑오개혁

### 향교의 건물배치

성균관이나 향교의 일반적인 건물 배치 방식은 2가지이다.

첫째, 평지에 지을 경우 공자의 사당인 대성전(大成殿)을 앞에 두고, 강학(講學)공간인 명륜당(明倫堂)을 뒤에 위치시키는 전묘후학(前廟後學)의 건물 배치를 한다. 현재 서울 성균관대학교 안에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성균관'과 '나주향교' '영광향교' 등의 건물 배치가 이리하다.

둘째, 앞쪽이 낮고 뒤쪽이 높은 경사지에 지을 경우 강학(講學)공간인 명륜당(明倫堂)을 앞에 위치시키고, 공자의 사당인 대성전(大成殿)을 뒤에 두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구조이다. '광주향교' '여수향교' 등 가장 일반적인 향교들의 건물 배치 구조이다.





▲ 돌산향교 대성전 위패

(1894)으로 과거 시험이 폐지되고 난 후에야 향교가 설치되었던 것이다. 돌산향교사적(突山鄉校事蹟)에 의하면, 돌산군이 신설된 직후 사직단이 먼저 세워지고, 이어 대성전, 명륜당, 풍화루 등이 차례로 세워졌다 한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돌산이 없어지고 여수군과 병합

되어 돌산향교 또한 훼손될 위기를 맞았으나 돌산지역의 유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철폐를 모면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대성전의 상량문은 당시 승정대부중추원부의장이던 신기선(申箕善)이 지었고(撰), 명륜당 상량문은 학부대신 이도재(李道宰)가, 풍화루 기록문은 당시 돌산군수이던 서병수(徐丙壽)가 지었다.

돌산 향교는 평지에 지어졌으나 부지의 모양이 좌우로 퍼져 있어서 강학공간인 명륜당을 왼쪽에, 공자 사당인 대성전을 오른쪽에 배치한 좌학우묘(左學右廟)의 독특한 배치를 하고 있어 일반적인 향교의 건물 배치와 다르다.

그러나 좌학우묘나 좌묘우학의 배치구조를 가진 향교들의 공통된 사실은 대성전이 명륜당의 건축선보다 반드시 위쪽에 자리하고 또한 곳에 따라서는 지반(地盤)도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돌산 향교의 대성전에는 공자(孔子)의 위패를 비롯하여, 4대 성인인 안자(顔子), 자사(子思), 증자(曾子), 맹자(孟子), 송나라의 4대 유학자인 주돈이, 정이, 정호, 주희 및 신라의 설총 이래 우리나라 18명 학자의 위패를 모시고 배향(配享)하고 있다.

### ⑩ 돌산 평사리 고니도래지

돌산대교를 건너 7km 쯤 가면 평사리 굴전마을 해안에 고니도래지가 있다. 굴전해안은 굴을 포함한 어패류가 풍부하며, 산지로 둘러싸인 잔잔한 바다라서 고니들의 월동지로서 적합한 조건이라 볼 수 있다.

고니는 기러기목 오리과에 속하는 철새로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고

니류는 고니·큰고니·흑고니 등 세 종류인데, 평사리 고니도래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주로 큰고니이다.

큰고니는 몸길이 1.5m, 날개를 펼친 길이 2.4m로 매우 크며, 몸이 순백색이므로 '백조(白鳥)'라고도 불린다. 부리는 선명한 황색이며 끝 부분부터 콧등까지는 검다.

여름과 가을을 러시아 북부의 툰드라와 시베리아 등에서 지내면서 넓은 초원의 늪지에 풀잎과 줄기 또는 흙을 이용하여 둥우리를 틀고 한배에 3~7개의 알을 낳아 번식 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겨울이 너무 추우므로 비교적 겨울이 따뜻한 한국·일본·중국 등지로 10월 하순경에 날아와서 월동을 한 후, 4월경에 러시아로 되돌아간다.

고니는 천연기념물 제20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1979년 8월 3일에 평사리 고니도래지를 전라남도 기념물 제43호로 지정하여 보호 및 관리하고 있다.



▲ 고니도래지



### ⑪ 돌산대교

돌산대교는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와 남산동을 잇는 사장교(斜張橋) 방식의 연륙교(連陸橋)이다. 길이 450 m, 너비 11.7 m이며, 미국 트랜스 아시아사(社)와 한국 종합개발공사가 설계하고, 대림산업과 삼성중공업이 시공을 맡아 1980년 12월에 착공하여 1984년 12월에 완공되었다. 총공사비 179억 5400만 원이 소요되었다.

돌산대교 아래의 바다는 조류속도가 초속 3m나 되고, 여수항으로 비교적 큰 선박이 출입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양쪽 해안에 높이 62m의 강철교탑(鋼鐵橋塔)을 1개 씩 세우고, 56~87mm 굵기의 28개의 강철 케이블이 경사지게 뻗어 내려 다리를 묶어 지탱하는 사장교(斜張橋)형식의 다리를 건설한 것이다. 수면으로부터의 다리 상판까지의 높이는 20m이다.

돌산대교 주변에는 다도해와 여수항이 바라보이는 돌산공원과 횃집을 중심으로 한 상가, 거북선모형체험장이 있고,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일대를 운항하는 유람선 선착장이 위치하고 있다.

돌산대교를 통하여 국도 17호선(경기도 용인~여수 돌산 군내리)이 연결되고 있다. 2000년 10월 여수시는 돌산대교와 돌산대교 준공담.



진남관에 경관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에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돌산대교의 조명 시설은 총 8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0여 가지의 색상 연출이 가능하다. 돌산대교 조명시설의 점등시간은 평소에는 일몰시간부터 밤 11시까지이나 연말연시 등 관광객이 많을 시기에는 연장하여 점등한다.



▲ 돌산대교 회타운

## ⑫ 제2돌산대교

여수시 수정동과 돌산 우두리를 잇는 제2 돌산대교는 2005년 8월에 착공해 2010년 8월 완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연륙교 630m, 터널 490m, 접속도로 820m 등 사업전체 길이는 1.94km이다. 다리 구간은 폭은 20m로 사장교 형태의 4차선 다리이며, 총공사비 962억 원이 투입된다.

돌산방향에서 제2돌산대교를 건너면 종화동 자산공원 터널을 지나 여수역과 마래터널을 통과하여 만성리, 미평 수원지 주변, 둔덕동 호명고개, 호랑산 터널, 석창을 지나 주삼동으로 연결된다. 국도 17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공사의 일부 구간에 해당하는 제2 돌산대교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기간 중 돌산지역으로 이동하는 관광객들의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수 시가지를 통과하던 차량을 우회시켜 교통체증 해소와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와 함께, 하멜 동상과 하멜 등대가 있는 해양공원과도 인접하고 있어 용이한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제2돌산대교

### ⑬ 돌산공원

돌산공원은 1987년에 돌산을 우두리에 조성된 공원으로 부지 면적은 약 287,600㎡이다. 여수에서 돌산대교로 접어들면 정면에 언덕이 보이는데, 이 언덕 앞에서 우회전하여 조금만 가면 왼쪽으로 공원진입로가 보인다. 이 가파른 길을 조금 오르면 사방이 확 트인 돌산공원에 도착하게 된다.

돌산공원에는 동백나무를 비롯한 수목과 꽃으로 조경이 되어 있고, 산책로와 쉼터 등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돌산대교와 장군도, 여수 구시가지와 진남관, 오밀조밀한 다도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구봉산과 종고산도 마주 보인다. 신혼부부의 결혼식 야외촬영지로도 인기가 높다. 밤에는 돌산대교의 야경과 함께, 검은 바다에 일렁이는 여수항의 아름다운 야경으로 환상적인 분위기를 감상할 수 있다.

공원 내에는 돌산대교 준공기념탑, 어업인 위령탑 등이 있으며, 공원의 가장 높은 곳에는 여수시의 로고를 형상화하여 만든 타임캡슐이 있다.

어업인 위령탑은 그물을 끌어당기는 어부의 역동적인 모습을 형상화한 조형물과 어우러져 있는데, 여수시가 2002년 8월에 준공하였다.

1999년에 매설된 타임캡슐에는 삼여통합(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이 1998년 통합됨)관련 자료, 당시의 시민생활·사회문화 자료 및 문물 등 여수의 역사를 기념할만한 관련 자료 803점이 들어 있다. 이 타임캡슐의 개봉 일자는 100년 후인 2098년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

공원의 돌산대교와 마주한 언덕에는 SBS 방송국이 '선택' (2004년 8월 2일~2005년 1월 22일 방송)이라는 아침드라마를 촬영하기 위해



돌산대교 준공 기념탑은 돌산대교를 형상화한 탑신과 조형물이 우뚝 서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탑 앞 대리석에는 박상천 시인의 '큰 사랑 큰 그리움이 다리가 되어 놓였네.' 라는 시가 기록되어 있다. 돌산대교 준공기념탑은 돌산대교와 거의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있어, 형형색색으로 시차를 두고 변하는 돌산대교의 야간 조명을 감상하기에 좋은 위치이다.



▲ 돌산공원

타임캡슐 ▲

어업인 위령탑 ▲

만든 세트장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치되어 있다. 돌산공원은 입장료 및 주차료가 없어 마음 편하게 둘러 구경하기 좋은 곳이다.



▲ 돌산공원 드라마 세트장

## | 북한 반잠수정

전시중인 반잠수정의 길이는 12.53m, 넓이는 2.95m, 높이는 1.04m, 무게는 11.5t, 탑승인원은 6~8명, 속도는 40~50노트(엔진 3대, 수면 아래 20m까지 잠수 가능)이다.

### ⑭ 북한 반잠수정 전시관

북한 반잠수정 전시관은 돌산읍 울림리 445-2번지 위치하고 있다. 1998년 12월 17일 밤



반잠수정 ▲

11시 15분경 돌산읍 울림리 임포마을 앞바다로 침투하다 발각되어, 우리군과 교전 끝에 침몰한 북한 반잠수정을 인양하여 공개 전시하는 시설이다.

반잠수정(半潛水艇)이란 선체의 대부분은 물속으로 들어가고 갑판 위쪽만 물 위로 나오는 잠수정을 말한다.

일 시	경 과
1998.12.17 23시 15분경	울림리 임포초소에서 미상의 선박 접근 발견
1998.12.18 06시 50분경	거제 남방 100km 지점에서 반잠수함 격침시킴
1999.03.17	해군 해난구조대 해저 150m에서 선체 인양
1999.04.21	반잠수정 여수시에 전시 건의
1999.11.22	여수시와 국방부 간에 북한반잠수정 및 노획물자 대여계약 체결
2001.11.24	북한반잠수정 전시관 건립부지 무상사용 협약체결
2001.12.31	전시관 착공
2002. 08. 29	전시관 준공

### ⑮ 방죽포 해수욕장

돌산읍 죽포리에 있는 해수욕장으로 하얀 모래사장이 특징이고, 백사장 길이 300m, 너비 70m이며, 수심이 얇고 경



사가 완만하다.

해안이 항아리 속처럼 오목하게 생겨 파도가 잔잔하고 아늑하다. 백사장 뒤편에 2백 여 년 수령의 송림이 울창하게 조성되어 있어 따가운 햇볕을 피할 수 있으며, 지형의 영향으로 무더운 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 야영하기에도 좋고 지하수도 풍부하다.

한편, 방죽포 해수욕장을 배경으로 강찬우 감독이 1966년에 김진규, 이경희, 태연실 주연의 '황포돛대'라는 영화를 촬영하기도 하였다. 가수 이미자 씨가 주제음악으로 부른 '황포돛대'는 요즘도 애창되고 있다.



▲ 방죽포 해수욕장

### ⑰ 무술목 해수욕장

평사리에 위치한 무술목은 가막만과 광양만 사이에 있는 폭이 좁고 긴 땅을 말한다. 향일암·용월사와 함께 돌산도의 대표적인 해돋이 장소로 꼽힌다. 해변에서 정면으로 바라다 보이는 혈서도, 죽서도를 형제섬이라 부르기도 한다. 해변에는 조각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관도 있다.

현재는 가막만 쪽의 바닷가에 제방이 쌓아져 있는데, 제방

### 영화이야기

## 황포돛대



▲ 황포돛대 영화포스터

1960년대 대표작 영화인 황포돛대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사랑하는 그와 헤어진 그녀는 그의 아들을 낳지만, 사생아로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하여 아들을 그에게 보내고, 자신은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딸을 낳는다.

시간이 흐른 후 그녀의 아들과 딸을 장성하여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거센 반대에 부딪힌 그녀의 딸은 견디다 못해 자살을 하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그녀를 어머니로 모시기로 한다.

을 쌓기 전에는 소미산과 대미산 자락이 바다로 뻗어 육지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고, 밀물 때는 완전히 바다가 되고, 물이 많이 빠지면 두



▲ 무술목 형제섬 일출

지역이 연결되는 육계사주가 형성되어, 바다 밑의 암반과 모래가 들어나 사람이 건너 다녔다고 한다.

만조 때에도 육로의 폭이 100m 가 채 되지 못해 마치 수로로 연결되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였다고 한다.

정유재란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왜선 60여척과 왜군 300여명을 섬멸한 전승지로도 전해 내려온다.

1598년(선조 31년)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에서 패주하던 왜군들을 이곳으로 유인하였다. 한편으로는 마을 주민들을 동원하여 가가호호 배를 거두어서 무술목의 잘록한 곳을 뒤덮어 멀리서 보기에 물길처럼 보이게끔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이곳으로 들어왔던 왜군들은 항해가 가능한 줄 알고 지나가다 뱃길이 막혀 무술목을 넘지 못한 채 소미산과 대미산에 매복 중이던 조선 수군에게 전멸 당했다는 것이다.

### 무술목의 지명 유래



무술목이라는 지명 유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전하여 지고 있다.

첫째는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섬멸한 후 이곳이 온통 피로 물들어 '피내'라고 부르다가, 세월이 지남에 따라 '무서운 목'이라 부르고 다시, 무실목 또는 무술목으로 바뀌었다는 설이 있다.

둘째는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무찌른 때가 정유재란의 마지막 해인 무술년(1598)이었기 때문에 무술목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설이다.

셋째는 '물'의 고어인 'ㅁ'이 '뭇'으로, '뭇+목=뭇의 목' (무스목)무수목)무술목'으로 변화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 ⑰ 이충무공 유적 기념비



▲ 이충무공 유적 기념비

무슬목 해수욕장 입구에는 1963년에 세워진 높이 280cm, 비신 164cm, 폭 56cm, 기부(거북받침) 둘레 445cm의 '이충무공 유적 기념비'가 있다.

비의 이름과 비문은 모두 한글로 새겨져 있는데, 비문은 노산 이은상이 짓고 글씨는 전영재가 썼다.

비문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임진왜란 당시의 전적에 대하여 자세히 적고 있다.

## ⑱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관

평사리 무슬목의 해양수산과학관은 해양 수산 문화를 전승·보전하고, 수산과학을 발전시키며, 청소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세운 것으로 1993년 12월 29일 착공하여 1998년 2월 14일 준공하였다.

해양수산과학관 1층에는 어류수족관 있으며, 2층에는 해양수산전시실·수산과학전시실·해양생물 디오라마관과 3D입체 영화상영관이



있고, 별관에는 해양수산 체험학습장이 있다. 해양수산의 과거·현재·미래가 담긴 종합전시관으로서 해양수산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있다.



▲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관 전시관

### ㉑ 용월사



▲ 용월사

돌산을 우두택지지구가 끝나는 지점의 산모퉁이를 돌면 왼편에 용월사를 알리는 표지석이 있다. 좁은 언덕길을 오르고 상동, 하동마을을 통과하여 좀 더 지나면 남산요양원이 나온다. 남산요양원 앞길을 다 올라 갈림길에서 왼쪽 언덕길로 넘어가면 용월사에 도착할 수 있다.

용월사는 10여 년 전 지어진 사찰로서 남해도 방향의 경치 좋은 넓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해안가 절벽 위에 위치하여

있다.

향일암(向日庵)이 해를 향한 암자라면, 용월사(龍月寺)라는 명칭은 달뜨는 곳에 위치한 사찰이라는 관념으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용월사 역시 향일암과 더불어 돌산의 해돋이 명소로 알려지고 있다. 곧 용월사는 일출(日出)과 월출(月出)을 모두 조망하기 좋은 사찰인 것이다.

용월사에는 천자문(天子門), 대웅전, 관음전, 관음보살상, 종루, 요사채 등의 건물이 있고 절 마당에 화단이 잘 가꿔져 있다. 용월사에서 나와 언덕에서 좌회전하여 내려가면 월전포(月田浦)가 있다.

## ㉔ 지장대사

돌산읍 평사리 319-16번지에 지장대사(地藏大寺)가 위치하여 있다. 지장대사는 송광사 스님이시던 정현(正玄)스님이 1990년에 창건하였다. 정현스님의 말에 따르면 “송광사에서 관세음보살 천일기도를 하던 중 꿈속에서 지장보살을 두 번이나 봤다. 그리고 지금 이 터를 꿈에 직접 보여 주셔서 한 번도 와 보지 않은 이곳을 찾아와 절을 세운 것이다.”라고 한다.



▲ 지장대사

건물로는 대웅전, 극락전, 삼성각, 요사채 등이 있다. 지장대사의 뜰에는 2000년에 조성된 복스럽고 편안한 느낌의 지장보살 좌상, 2001년에 조성된 높이 11m의 관세음보살 입상이 서쪽으로 펼쳐진 넓고 먼 바다를 조망하고 있다.

지장대사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스리랑카의 「쓰리달라다 마할리가와(佛巖寺)에 봉안되던 진신사리 3과 중 1과를 2004년에 모셨다는 점이다. 매년 부처님 오신 날에 이 사리를 공개한다 한다.

지장대사는 해질녘에 찾아가면 석양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진입 도로 보수 및 지속적인 불사(佛事)가 진행 중이어서 지장대사를 찾는 신도(信徒)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㉕ 달마사 (達磨寺)

달마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인 화엄사의 말사로 우두택지구 동편 산기슭에 위치해 있다. 돌산대교를 건너 1km쯤 가다가 U턴하면 대로변에 달마사 진입로를 알리는 간판이 있다. 약간만 올라가면 도착할 수 있다. 우두 택지구와 주변 바다와 대경도 등이 아름답게 보이



▲ 달마사 대웅전

며, 시내에서 가까워 접근도가 좋은 곳에 위치한 사찰이다.

경내 칠성각 아래 위치한 『화산(華山)달마사 창건사적비(1992년 5월에 건립)』에 창건유래가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명현(明賢)스님이 출가하여 화엄사 각황전에서 천일 관음기도를 마치고 안동지방을 만행타가 꿈에 신장이 현현하여 돌산에 이천신장 상주처가 있다고 선몽함에 따라 1984년 이곳에 창건하였다 한다. 1984년 10월 3일 대웅전을 상량하였으며, 1985년 9월 요사를 준공하였고, 1986년 7월 칠성각을 건립하였다. 현재는 대웅전·관음전·범종각·불문당·무설전(요사)등 9동의 건물이 있다.

창건 시기부터 팔정회와 마니회 등 신자들의 신행 및 봉사단체가 조직되어 활동 중이다. 2008년 3월 10일 사찰 입구에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의 입소 및 재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시설인 마니원(摩尼院)을 개원하였다.

## ② 여수 유람선과 거북선 모형 체험장



▲ 여수항을 운항하는 유람선

돌산대교를 건너 우회전하여 50m지점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여수 유람선 선착장, 거북선 모형 체험관, 회타운이 나온다.

여수유람선 여행은 다도해 해상 국립

공원에 속하는 여수의 아름다운 섬들을 관광해설과 함께 구경할 수 있는 여수 최고의 관광코스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유람선은 국동크루즈 유람선(061-644-2000, <http://여수유람선.kr>)과 (주)한려수도(061-644-6255) 등 두 회사에 의해 운행되고 있다.

국동크루즈 유람선은 2척이 운행되며 정원은 각각 605명과 248명이다. 운행 코스로는 무술목·용월사·오동도 일주코스(2시간 소요), 오동도 일주코스(1시간), 돌산도 일주코스(2시간 20분), 용월사·오동

도 일주코스(1시간 30분), 백야도 일주코스(2시간), 사도기착(공룡발자국, 모래섬)·일주코스(4시간), 향일암 일주코스(2시간) 등이 있다.

(주)한려수도의 유람선 2척이 운행되며, 정원은 각각 220명과 236명이다. 운행 코스로는 오동도 일주코스(1시간), 용월사·오동도 일주코스(1시간 30분), 향일암에서 내려서 구경하는 코스(3시간 30분) 등이 있다. 요금은 1시간 코스는 8,000원 2시간 코스는 15,000원 4시간 코스는 20,000원 등으로 비교적 저렴하다.

유람선 선착장 옆 바다에는 전라 좌수영의 거북선을 고증하여 실물 크기로 복원한 거북선 한척이 띄워져 있다. 1986년 4월 26일에 관광객에게 개방을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층으로 된 거북선 모형의 내부에는 관광객들이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는 많은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다. 2층에는 충무공과 신여량(申汝樑)의 영정이 좌우로 모셔져 있다. 신여량 장군은 고흥군 동강면 마륜리 출생으로 거북선의 최초 선장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다.

그 외 2층 내부에는 그 당시에 쓰이던 화포, 사조구, 장병검 등의 무기와 삼군사명(三軍司命), 홍소령기(紅小令旗), 남소령기(藍小令旗) 등의 깃발과 포병, 활병, 노 젓는 격군 등 실감나게 전투 장면을 묘사한 밀랍으로 만든 병사들이 배치되어 있다. 계단을 따라 1층으로 내려가면 중앙통로의 좌우에 여러 개의 방이 구획되어 있다. 병기고, 부식창고, 철물고, 취사소, 군병휴식관, 부상병 치료소 등에는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인형과 조형물이 갖추어져 있다.

### ㉓ 돌산목장성지

목장은 국방용·교통용·식용 등의 목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곳을 말한다. 조선시대에 목장은 병조 사복시(司僕寺) 소관이었다. 조선 초기에는 별도로 감목관을 두었다가 후기에는 지방 수령이나 도서 지방에 수군이 있는 경우에 해당 수군의 장이 겸하여 맡았다. 감목관 아래에는 감목을 두고 그 아래 노비 신분의 목자(牧子)를 두었다.

목장은 맹수로부터 보호되고 사료와 급수가 용이하며 가축의 관리가 편리한 반도 지형이나 도서 지방에 주로 설치하였다. 목장을 운영하기 위해 축사·사료 창고·사료 저장실·목책·관리 사무실 등을 두었고,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말을 신성시하여 마신당(馬神堂)도 두었다. 남부 지방에는 임진왜란 이후에 대대적으로 목장이 증설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의하면 여수 지역의 목장은 장흥부 소속으로 고흥의 도양곶목장 관할이었다.

도양곶목장은 1445년(세종 27)경에 설치되었고, 1629년(인조 7)에 순천부의 곡화목(曲華牧)으로 분리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순천도호부 산천 조에 백야곶(白也串)돌산도(突山島)묘도(猫島) 등 세 곳에 목장이 있다고 하였고, 『여지도서(輿地圖書)』순천 목장 조에도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돌산목장성의 위치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위치



▲ 돌산목장 지도



를 논하기 어렵다. 다만 돌산읍 신복리 검단마을에서 금성리 작금마을을 경유하여 성두마을에 이르기 까지 성의 흔적이 남아 있어 이곳이 목장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성은 '만리장성'이라는 명칭으로 구전되어 내려오고 있다.



▲ 돌산목장 성터

『승평지』나 『호남읍지순천부읍지』의 기록에 따르면, 말의 수가 116필, 목자 12명, 감목관 1명이 있었다.

번창기에는 말의 수가 1,302필까지 늘어났고, 목자 역시 363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 ④ 둔전(屯田)

둔전리는 여수 시가지에서 동남쪽으로 12km 지점인 국도 변에 있는 마을로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분지형을 이루고 있다. 서북쪽으로는 봉수마을과 접하며, 돌산도에서는 들판이 가장 넓은 곳이다. 저수량이 제일 많은 둔전제(屯田堤)가 있으며, 들 가운데로는 와룡천(臥龍川)이 흐르고 있다.

1592년(선조 25)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상도의 대부분은 왜군의 발아래 짓밟히게 되었다. 이 때 수많은 피난민들이 전라도 쪽으로 몰려들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사로 부임해 있던 전라좌수영 지역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순신 장군은 왜군과의 전투에 전력하는 한편, 전라좌수영 근처로 몰려든 피난민의 구호에도 온갖 정성을 쏟았다. 당시 전라좌수영으로 몰려든 약 200호(戶)의 영남 피난민들을 위해 임시 거처를 마련하여 그 해 겨울을 지내게 했다. 그러나 이들은 전란이 끝난 뒤에 고향으로 돌아간다 해도 굶주림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이순신 장군은

피난민들의 거처를 돌산도에 마련하기로 하였다.

1593년(선조 26) 1월 26일 전라좌수영 경내에 거처하던 경상도 피난민 200호를 좌수영 남쪽지역의 목마장(牧馬場)이던 돌산도에 이주시켜 농사를 짓도록 영(令)을 내려주기를 청하는 글(狀啓)을 조정에 올렸다.

당시 돌산도에는 국가의 목마장(牧馬場)과 국둔전(國屯田)터가 있어서 일반 백성들의 출입은 금지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순신 장군은 피난민들을 돌산도에 이주시켜 농사를 짓게 하여 생활고를 덜게 하고, 한편으로는 전라 좌수영의 군량을 확보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노렸던 것이다. 피난민들을 이주시킬 돌산도의 둔전 마을은 땅이 넓은데다 산지로 둘러싸여 적이 쉽게 침입할 수 없는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땅을 개척하여 농사를 짓는데 좋은 위치라고 여긴 것이다.

1593년(선조 26) 조정에서는 경상도 피난민들의 돌산도 거주를 허용하고 국둔전을 경작하게 함에 따라 마을이 형성되었다. 국둔전 터의 이름을 따서 둔전리(屯田里)라는 지명이 생겨났다. 왜란 당시 경상도에서 온 피난민들의 후손인 문(文), 박(朴), 김(金), 주(朱), 강(姜)씨 등이 주로 살고 있다.



## ㉔ 향일암 전설

향일암과 관련된 몇 가지 전설과 설화가 있다.

첫째, 향일암은 본래 금오암, 영구암, 깨깨절 등으로 불렸으나 인목대사가 향일암으로 불러야 널리 이름이 난다해서 1715년 향일암으로 개칭하였다 한다.

둘째, 향일암은 해를 바라보고 있는 동향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어, 절의 출입문이 북쪽으로 나있었는데, 절이 흥하려면 출입구를 동향으로 내야만 한다는 전설이 내려왔다. 전설에 따라 1971~1972 양년에 걸쳐 동굴 속의 흙을 제거하고 현재와 같은 출입구가 만들어지자 절이 흥하기 시작하였다 한다.

셋째, 향일암을 제대로 구경하려면 바위 밑 7개소를 통과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칠성님께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원효대사가 수도한 곳으로 가는데 2개소, 흔들바위로 가는데 1개소로 3개소 밖에 안 되었는데, 향일암의 출입구가 정면으로 바뀌면서 새로 생긴 2개소와 대웅전 좌측으로 나갈 때 새로 생긴 2개소를 포함하여 모두 7개소가 된 셈이다.

넷째, 향일암에는 '흔들바위' 또는 '불경 바위' 라고 불리는 바위가 있다. 이러한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옛날 원효대사가 수도를 끝내고 이곳을 떠나 갈 때 많은 불경책을 다 가져갈 수 없어서 공중에 달려 보낸 것이 멀리 가지 못하고 이곳에 바위로 변하였기 때문에 불경바위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한다.

다섯째, 향일암 불상은 순금불상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밤중에 어느 도둑이 훔쳐 달아났다.

그러나 이때 청명하던 밤하늘이 갑자기 안개가 끼면서 어두워져, 도둑이 밤새 걸었지만 향일암 주변을 맴돌다가 붙잡혔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 향일암

### ㉔ 군내리 아뒤산 계곡 전설



▲ 군내리항

군내리 뒷산인 아뒤산 계곡을 옥녀탄금혈이라고 한다. 이 계곡은 가뭄이 들어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하는데, 옛날 한 지관이 이 마을에서 여자가 태어나면 미녀가 많지만 행실이 방정치 못할 것이라는 말에 방담진성 축성시 유수지를 만들어 바다로 흐르던 물을 동문 쪽으로 흐르게 하였는데 이를 서출동류수문통이라 하였다.

여러 섬들을 악기로 비유 개선장군을 맞이하여 축하연을 베푸는 형세라 한다. 연회가 끝난 뒤 개선장군은 속세를 떠나고자 스님이 되어 바랑을 걸머지고 예교리 뒤산을 넘어갔다고 하여 지금도 이 골짜기를 중바랑계라고 한다.

풍수설에 의하면 이 골짜기가 명당이라 하여 예로부터 이곳에 조상의 묘를 많이 쓰고 있다.

### ㉕ 성주동 골짜기 전설

올림리 백포 마을 뒤편 골짜기를 성주동 골짜기라 한다.

예전에는 이곳에 밤나무가 많이 자생하였다 한다. 누구든 이곳의 밤나무를 베면 병이 나므로 손을 대지 못하였다 한다. 그러나 문묘(文廟)의 건축용 자재로 이 밤나무를 베어 사용하면서부터 별탈이 없어졌다 한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곳을 '성주동'이라 하였다 한다.

### ㉖ 봉수마을의 삶 바위 전설



▲ 봉수마을

봉수 마을 뒤 아랫 양지 몰랑이라는 곳에 높이 약 90m나 되는 암벽이 있는데, 이를 '삶바위'라고 부른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이 바위에서 사람이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다. 실제로 약 20여 년 전에도 사람이 떨어진 적이 있으나 다친 곳이 없었고 죽지도 않았다 한다.

### ㉘ 용두래미 전설

도실마을 앞, 천마산 뒤쪽에 '용두래미'라는 곳이 있다. 전설에 의하면 이무기가 하늘로 승천하려고 하자, 어느 여자가 보고 "뱀 봐라. 뱀이 하늘로 오른다!"라고 소리치자 승천하지 못하고 죽었다 한다.

천마산 북쪽 중턱에는 용이 떨어져 죽은 것과 같은 형태가 남아 있는데, 이곳을 용두래미라 한다. 이곳에는 바위 색깔이 붉은 기를 띠어 이 전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 주위에는 새카만 산딸기가 자생하고 있기도 하다.



▲ 도실마을 앞 천마산

### ㉙ 평사리 월암마을 석보 전설

옛날 평사리 월암마을에 담력이 크고 지혜가 뛰어난 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임진왜란 때 이 산위에 적병들이 석보를 쌓고 근처마을 사람들을 살해하고 재물을 약탈하므로 30세의 활기 왕성한 이 젊은이는 의분을 참지 못하고 선두에 나서서 마을의 청장년 수십 명을 모아 암석 밑에 숨었다가 야음을 틈타 공격을 감행하여 적병이 주둔해 있던 석보를 점령하고 수백의 적을 주살하니 잔여의 적병들이 많은 무기를 남겨 둔 채 멀리 도주하였다 한다.



▲ 월암마을

### ㉚ 쌍마교 전설

『여산지(廬山誌)』의 기록에 의하면 평사리 굴전 마을 길가에 '쌍교암'이라는 바위가 있는데, 옛날 어느 노인이 지나면서 이 바위가 땅에 묻히면 쌍마교가 이 길로 출입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다. 그런데 그 뒤 갑오년에 큰비가 산 더미가 흘러내려 이 바위가 땅에 묻히게 되자, 어느 노인의 예언처럼 이 해에 돌산군이 설치되었다.

초대 군수가 승마 5필이 이끄는 쌍교(쌍가마)를 타고 이 바위 앞을 지나게 된 후부터 쌍교암이라 부르게 되었다.



▲ 굴전마을



▲ 죽포 깃수확

## ㉔ 깃김치

돌산갓은 해양성 기후와 비옥한 알칼리성 토질인 돌산도에서만 생산되는 채소이다. 돌산갓의 특징은 톡 쏘는 매운맛이 있으며, 섬유질이 적고 잎과 줄기에 잔털이 없으며 연하다. 다른 채소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높고, 비타민 A와 C가 많은 것도 특징이다. 돌산갓김치는 돌산갓과 파에 고춧가루, 마늘, 생강, 멸치액젓과 생새우를 함께 갈아 만든 양념을 섞어 버무려 만든다.

갓 특유의 매운 맛과 짓갈의 잘 삭은 맛이 입맛을 돋워준다. 가을에 담가 먹는 계절 김치로 저장성도 뛰어나다. 칼슘이 발효에 의해 젖산과 결합, 젖산칼슘으로 되고 인과 결합해 뼈의 주성분이 되어 사람의 골격 형성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또, 눈을 밝게 해 주고, 기침을 그치게 하며 기를 하강시켜 속을 따뜻하게 하여 냉·대하 치료, 머리와 얼굴의 풍(風)을 예방하는 데 효능이 있다고 한다.

현대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갓이 거담제와 결핵성 질환 예방에 효험이 있다고 하여 귀하게 여겨 왔다.

갓김치는 먹을 때 코끝이 짜릿하게 톡 쏘는 맛과 시큼한 맛이 일품으로, 갓이 많이 나는 시기는 가을이다. 돌산 갓김치의 홍보를 위하여 '갓김치 축제'가 개최되기도 하며, 갓김치의 수요가 늘면서 돌산 주민들의 소득도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 돌산갓김치

### ㉓ 고들빼기김치



고들빼기의 어린잎과 뿌리로 봄철에 나물을 무쳐 먹기도 하고, 김치를 담그기도 한다.

고들빼기김치의 씹쌀한 맛은 이른 봄 입맛이 없을 때 입맛을 돋우기 위한 식품으로 예로부터 이용되어 왔다.

“고들빼기김치는 양반이 아니면 못 먹는다.”는 말이 전해내려 올 만큼 재료를 준비할 때에도 일반 김치와는 달리 정성이 많이 들고, 손이 많이 가는 고급 김치이며, 고들빼기 자체의 강한 섬유질과 젓갈에 의한 방산화 작용으로 장기 보존이 가능하다.

한방에서는 고들빼기의 줄기와 뿌리를 활혈초(活血草)라 하는데, 피를 맑게 하고, 몸속의 독과 통증을 없애주며, 염증을 삭히고 이뇨 작용에도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감기로 인한 열, 편도선으로 인한 염증, 설사, 해열, 상처가 났을 때도 쓰이며, 진정제로도 사용된다. 종기가 났을 때 뿌리를 찢어서 상처에 붙이기도 한다. 고들빼기는 돌산 갓과 함께 돌산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으며, 고들빼기김치의 판매도 돌산 갓김치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 ㉔ 굴구이



굴은 바위에 붙어살기 때문에 석화(石花)라 하며, 모려(牡蠣)라고도 한다. 굴 껍질이 패총(조개더미)에서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굴은 먼 옛날부터 식품으로 이용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바다의 우유’로 불려왔던 굴은 서양에서 날 것으로 먹는 유일한 해산물이기도 하다. 굴에는 비타민C, 철분, 아연 등의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다. 또한 비타민 A, B1, B2, B12와 구리, 망간, 요오드, 칼슘 등이 풍부하고 라이신과 히스티딘 등의 아미노산도 많다. 굴속의 당질은 글리코겐으로 소화흡수가 잘된다.

도산의 금천, 향대, 모장, 평사, 도실, 굴전마을 등에서 굴이 많이 생산된다. 굴은 살이 퉁퉁하게 오르는 늦가을부터 제 맛을 느끼게 한다. 생산된 각굴은 망태에 담겨 15Kg이나 20Kg단위로 대도시로 팔려 나가기도 한다.

그러나 굴은 상하기 쉬운 식품이기 때문에 신선할 때 먹는 것이 좋다. ‘굴구이 거리’로 불리는 도실에서 금천까지의 도로변에는 굴구이 식당들이 많다. 도산 굴구이는 네모난 철판냄비에 각굴을 넣고 가스 불로 굽는다. 왼손에는 면장갑을 끼고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다 익은 각굴을 까서 초장에 묻혀 먹는다. 굴구이를 먹고 나서 나오는 굴죽 맛 역시 가히 환상적이라 할 수 있다.





### ㉔ 우두지구와 진모지구

돌산도에서 가장 발달된 곳이 과거에는 읍사무소가 소재한 군내리 일대였으나, 최근 가장 빠르게 도시화가 기대되는 곳은 '우두지구'와 '진모지구'이다.

돌산대교를 건너서 1km 쯤 가다보면 오른 편으로 넓은 택지지구가 나타나는데 이곳을 '우두지구'라 한다. 우두지구의 약간 남쪽에 '진모지구'가 위치하고 있다.

우두지구에는 삼려통합 이전 여천군청이 있던 곳으로, 1997년에 늘어난 택지수요를 감안해 96만1,014㎡(약 29만평)의 택지개발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1998년 삼려통합 이후, 군청청사가 폐쇄되면서 기대한 만큼의 인구유입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택지의 미분양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침체의 늪에 빠졌다.

우두택지 조성을 끝내고 곧바로 인근에 진모택지지구 22만9,000㎡(6만9,000여 평)개발에 나섰지만 이 또한 1999년 공정률 26%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2003년 우두지구에 청솔아파트 1878세대가 완공되고, 2007년 12월에는 2012 여수 엑스포 유치 결정되었으며, 2008년에는 비어있던 옛 여천군청이 '돌산청사'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시청공무원들이 다시 파견되어 업무를 재개함에 따라 우두지구의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띠고 새로운 건물들이 날로 들어서고 있다.

또한 공사가 중단된 채 활용방안을 찾지 못했던 진모지구에 여수시가 2012년까지 국비와 시비 180억 원, 민자 5,700억 원을 투입해 대규모 청소년종합시설을 건설키로 하고 부지조성을 완료해 가고 있다. 진모지구에는 실내·외 워터파크(2,500명 동시수용), 대형스키돔(1만8,000평), X-게임장과 E-스포츠센터(5,000평), 청소년수련관(8,000평), 가족수련관(900평), 어린이 테마파크(레고랜드)등이 들어서게 된다.

여수시는 진모지구에 축구장 4면을 건설해 평소에는 일반 시민들의 운동공간으로 제공하고, 겨울철에는 동계 전지훈련장소로 사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제2 돌산대교(길이 744m, 4차선)가 완공되면 '우두지구' '진모지구'와 세계박람회 개최 장소까지의 거리는 2~3km 이내로 단축된다. 또한 '우두지구' '진모지구'는 교동이나 중앙동과 같은 구도심과도 가까우며 이미 택지 개발이 완료되어 있어 머지않아 빠르게 도시화가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 우두지구



▲ 진모지구



## 2. 송도(松島)



▲ 돌산 송도 조개더미 유적

송도(松島)는 돌산읍 군내리 앞 바다에 위치한 섬이다. 여수항에서 16.9km, 돌산읍에서 1km 떨어져 있다. 해안선 길이는 약 5.8km이고 면적은 약 1.43km<sup>2</sup>이다.

『도서지』에는 180년 전 진주 강씨(晋州姜氏)가 입도하여 강씨 촌을 이루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당시 송

도에는 소나무가 무성하였기 때문에 송도라 불렀으나 현재는 소나무가 거의 없고 모두 밭으로 변하여 문전옥토가 되었다.

최고봉은 89m이며, 섬의 남쪽에 큰 만이 발달해 있다. 부속 도서로



### 송도 덧무늬토기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토기로 송도조개더미에서 출토된 적갈색 토기이다.

무늬는 아가리 아래 평형 덧띠를 돌리고 그 아래 기하학적 구획을 나누고 그 안을 비교적 가는 덧띠로 촘촘히 채웠다. 서울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는 남쪽에 장구섬이 있고 북쪽에 있는 상증도와 하증도에는 해식애가 발달되어 있다.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 불국사 화강암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토양이 비옥하여 농경에 유리하다. 기후는 대체로 따뜻하고 비가 많이 내린다.

주요 농산물로는 맥류가 재배되고, 수산물로는 낙지·문어·바지락·홍합·돛 등이 어획 및 채취되고 있다.

교육 기관으로는 돌산초등학교 송도분교가 있다. 교통은 돌산을 군내리에서 연락선을 이용한다.

### 3. 금죽도(金竹島)



▲ 금죽도

금죽도(金竹島)는 돌산읍 금봉리 앞 바다에 있는 유인도이다. 여수에서 남쪽으로 약 8.2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면적은 0.9 km<sup>2</sup>이다.

예전에 대나무가 많아서 멀리서 보면 금빛이 나므로 금죽도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금죽도에 자생

하는 대나무는 화살을 만들기에 적합하여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화살을 만들어 왜군을 무찌르는데 사용했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현재 금죽도에 대나무는 없고 소나무가 섬의 일부에 자라고 있다.

최고봉은 47.9m이며,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 화성암인 불국사화강암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토양은 신생대 제4기의 고온 다습한 기후 환경에서 만들어진 적색토가 넓게 분포한다. 기후는 온화하고 비가 많이 내린다.

금죽도의 동쪽에 마을과 선착장이 있다. 한때는 8가구 50

여명이 살았으나 현재는 1가구에 김재연(남, 82세)·곽수업(여, 79세) 씨 부부만이 살아가 유인도의 명맥을 겨우 이어가는 섬이다. 노부부의 삶은 SBS 생방송투데이(2007. 7. 1)에 소개된 바 있다. 발전기를 켜서 TV를 시청한다. 해안에 샘물이 나오고, 토질이 괜찮아 밭농사가 잘된다. 여수항이나 돌산에서 소형 어선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다.

## 제3절 주요 무인도서

### 1. 가막도



▲ 가막도

가막도는 가막만의 중앙에 있는 무인도로 돌산읍에 속한다. '가막만'은 이 섬 이름 가막도에서 유래되었다. 면적은 0.0021 km<sup>2</sup>, 최고지점은 20m이며 숲이 울창하다.

까마귀처럼 생겼다하기도 하고, 멀리서 보았을 때 까맣게 보여서 '까막섬' 또는 '까막도'라는 명칭이 유래되었다 한다.

『여수·여천 향토지』에 의하면 섬 전체가 현무암으로 되어서 검게 보이므로 붙여진 지명이라는 기록이 있으나 확실치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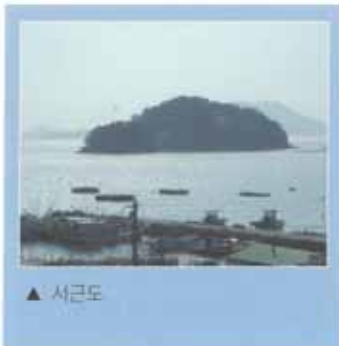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 화성암인 중성화산암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해안 주변에 암석해안이 발달하였다. 섬 동쪽 인근에 금죽도, 취도가 있으며, 기후는 대체로 온화하고, 비가 많다. 토양은 신생대 제4기 과거 고온다습한 기후환경에서 만들어진 적색토가 넓게 분포하며, 난대성 식물이 자란다.

한 때는 나무가 울창하여 섬이 나무로 뽕뽕하게 들어서 있었으나 1950년대 섬에 불이 나서 나무를 모두 태운 뒤에 민둥산이 되었다가 지금은 다시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다.

가막도와 금죽도 사이는 여수항으로 입출항하는 선박들의 주요 항로이기도 하다.

이곳까지 접근하는 방법은 정기여객선이 닿지 않아 사선(私船)을 이용해야 하며 여수 국동항에서 배로 약 20분 거리에 위치한다.

## 2. 서근도(西根島)



▲ 서근도

서근도(西根島)는 돌산읍 금봉리 앞바다에 있는 면적 약 0.04km<sup>2</sup>의 무인도로, 명칭의 유래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예전에는 대나무가 많아 죽도라고도 불렀다 한다.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 불국사화 강암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항대도가 있다. 토양은

신생대 제4기 과거 고온 다습한 기후 환경에서 만들어진 적색토가 넓게 분포하며, 기후는 대체로 온화하고 비가 많이 내린다.

주변 바다에는 간석지가 발달해 있어 금촌 어촌계에서는 통발 어업과 바지락 양식을 주로 하며, 여름에는 낚시꾼들의 내왕이 많다.

## 3. 경도(莖島)



▲ 경도

경도는 돌산읍 평사리 모장 마을 앞에 위치한 면적 0.0420km<sup>2</sup>의 무인도이다. 경도라는 명칭은 섬에 즐기 있는 풀이 많이 난다해서 즐기의 사투리인 '쫄구섬'이라고 하였다. 누군가 '닭섬'으로 등록하여 일제강점기 때부터 닭섬이 되었고, 경도는 풀 즐기섬이라는 순 우리말을 한자화한

데서 비롯되었다.

최고봉은 해발 30m이며, 섬 둘레는 암석 해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 화성암인 불국사 화강암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토양은 신생대 제4기 과거 고온 다습한 기후 환경에서 만들어진 적색토가 넓게 분포한다. 기후는 대체로 온화하고 비가 많이 내린다. 현재 사람은 살지 않고 약간의 밭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사철에만 모장마을 주민들이 내왕하고 있다.

### 등산이야기

## 돌산 종주 등산로

여수시의 대표적인 섬 돌산의 종주 등산로는 돌산대교를 건너 우두리에서 시작되어 전국 최고 관음기도처인 금오산 향일암에 이른다. 도상 거리는 32km, 조금 빠른 걸음으로 등산을 하면 전체 산행 시간은 무려 11시간에 이른다.

코스는 우두리에서 145봉을 거쳐 소미산, 대미산, 본산, 수죽산, 봉화산, 갈미봉, 봉황산, 394봉, 274봉, 울림치, 금오산, 향일암으로 이어진다. 코스 중간에 오르내림길이 있어 적당한 시간으로 코스를 배분하면 3시간, 5시간 등 자유롭게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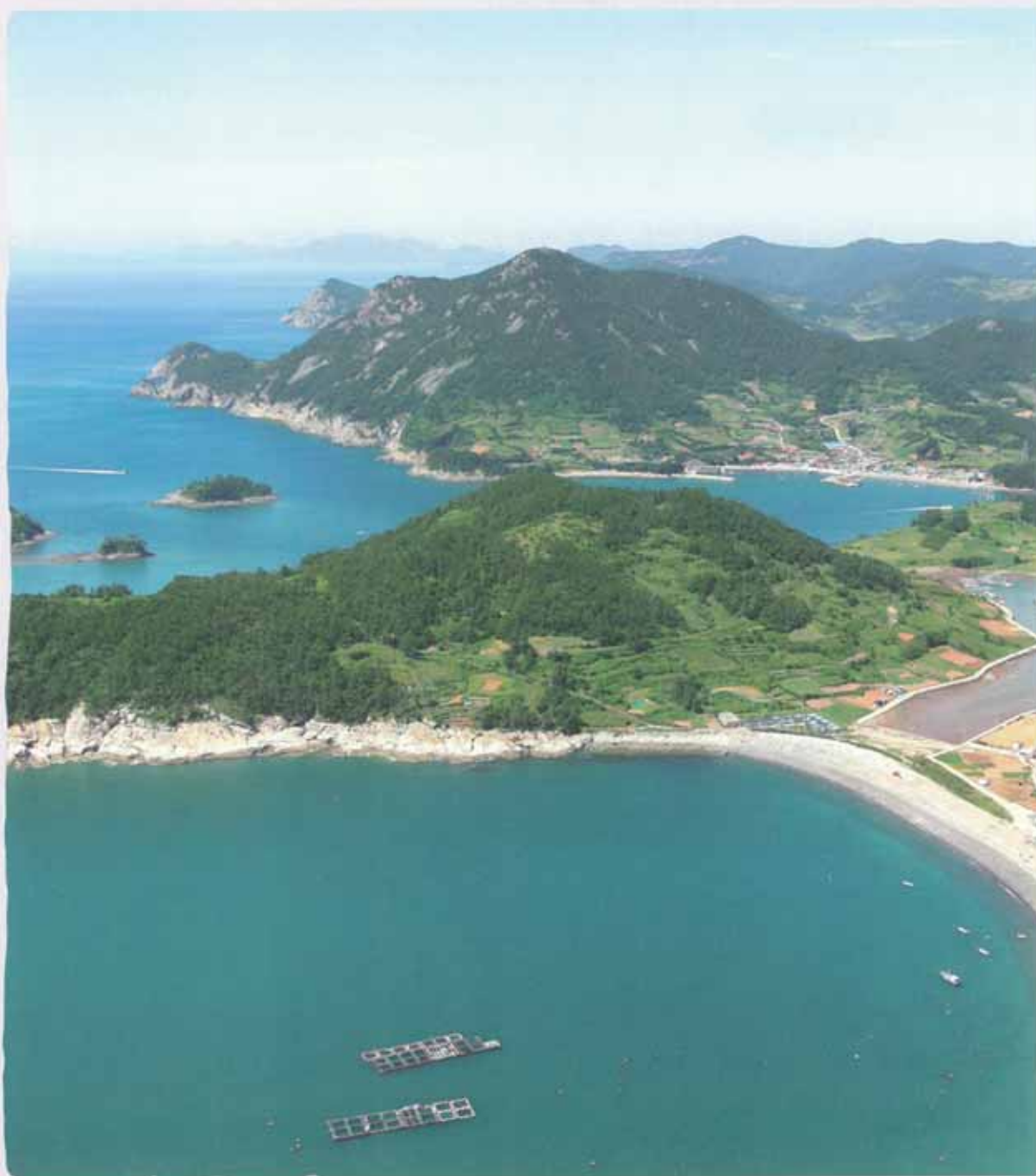
돌산은 동쪽은 다도해, 서쪽은 화양면, 남쪽은 바다 건너 남면 등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 산마루로 올라서면 양쪽에 펼쳐진 다도해의 풍경이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느끼게 하는 환상의 코스이다. 특히 향일암의 동백숲과 금오산, 영구암, 무술목 등 명승지가 곳곳에 있어 자연과 함께 풍광을 즐기고 심신을 달래는 수양길이라 하겠다.





# 제3장 남면

- 다도해 물결따라 이어진 환상의 섬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 화성암인 불국사 화강암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토양은 신생대 제4기 과거 고온 다습한 기후 환경에서 만들어진 적색토가 넓게 분포한다. 기후는 대체로 온화하고 비가 많이 내린다. 현재 사람은 살지 않고 약간의 발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사철에만 모장마을 주민들이 내왕하고 있다.

### 등산이야기

## 돌산 종주 등산로

여수시의 대표적인 섬 돌산의 종주 등산로는 돌산대교를 건너 우두리에서 시작되어 전국 최고 관음기도처인 금오산 향일암에 이른다. 도상 거리는 32km, 조금 빠른 걸음으로 등산을 하면 전체 산행 시간은 무려 11시간에 이른다.

코스는 우두리에서 145봉을 거쳐 소미산, 대미산, 본산, 수죽산, 봉화산, 갈미봉, 봉황산, 394봉, 274봉, 울림치, 금오산, 향일암으로 이어진다. 코스 중간에 오르내림길이 있어 적당한 시간으로 코스를 배분하면 3시간, 5시간 등 자유롭게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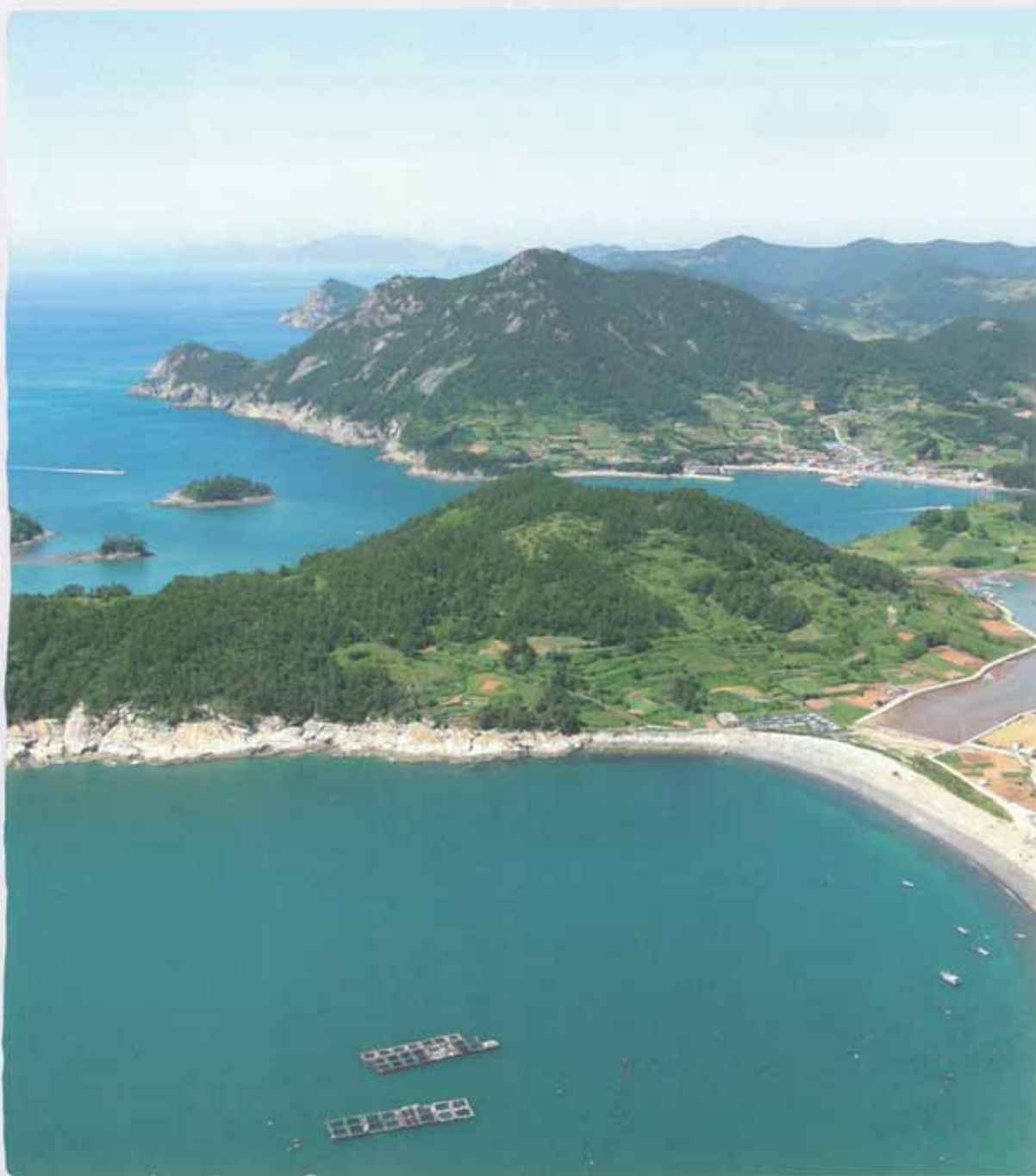
돌산은 동쪽은 다도해, 서쪽은 화양면, 남쪽은 바다 건너 남면 등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 산마루로 올라서면 양쪽에 펼쳐진 다도해의 풍경이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느끼게 하는 환상의 코스이다. 특히 향일암의 동백숲과 금오산, 영구암, 무술목 등 명승지가 곳곳에 있어 자연과 함께 풍광을 즐기고 심신을 달래는 수양길이라 하겠다.





# 제3장 남면

- 다도해 물결따라 이어진 환상의 섬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점점이 떠있는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금오열도 남면은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해산물과 무공해 채소 그리고 감성돔 낚시터로 유명한 아름답고 신비로운 곳이다.



## 제1절 현황

### 1) 기본현황

도서 (개)			세대	인구(명)			면적(km <sup>2</sup> )
계	유인	무인		계	남	여	
35	11	24	1,779	3,821	1,926	1,895	42,34

### 2) 유인도서

도서명	법정리	행정리	인구	마을	마을명
금오도 (金鰲島)	우학리 (牛鶴里)	내외진(内外軫)	206	3	내진(안진개), 안골, 외진(발진개)
		우실(牛室)	182	3	우실, 흑암동(黑岩洞, 건바위), 냉수동(冷水洞, 찬물내기)
		학동(鶴洞)	76	3	학동, 작은머릿개, 못동
거무섬 (斗母里)	두모리 (斗母里)	모하(母賀)	63	3	모하, 조피동, 누에머리(눅은목)
		두포(斗浦)	73	2	두포(초포初浦, 첫개), 가는고지
		직포(織浦)	54	1	직포(보대)

금오도 (金鰲島 거우섬)	유송리 (柳松里)	함구미(含九味)	98	2	함구미, 용두(龍頭, 용머리)
		송고(松高)	137	1	송고(솔고지)
		여천(汝泉)	62	1	여천(여천구미)
		대유(大柳)	130	1	대유(큰버들개), 수항도(首項島)
	심장리 (深張里)	소유(小柳)	55	1	소유(작은버들개)
		심포(深浦)	162	2	심포, 막포(莫浦)
		미포(尾浦)	78	1	미포(망구미)
		장지(張芝)	184	2	장지(진작지), 소우실포(작은우실개)
안도 (安島, 안섬)	안도리 (安島里)	안도(安島)	403	5	안도(안섬), 이야포(以也浦), 상산동(上山洞) 동고지(東古地), 위지암(爲地岩, 오지암)
		서고지(西古地)	153	2	서고지, 부도(釜島, 가마섬)
연도 (鵞島, 소리섬)	연도리 (鵞島里)	연도(鵞島)	411	6	연도, 덕포(德浦), 가랑포(加浪浦) 동부(東部), 서부(西部), 북부(北部)
		역포(力浦)	194	1	역포
대두라도 (大斗羅島)	두라리 (斗羅里)	대두(大斗)	98	1	대두
		봉통(蜂桶)	125	2	봉통(벌통구미), 선창(船塢)
나발도(羅發島) 소두리(小斗羅)	나발(羅發)	70	2	나발, 소두(小斗)	
화태도 (禾太島)	화태리 (禾太里)	화태(禾太)	434	2	화태, 묘두(猫頭, 괴머리)
		월전(月田)	86	1	월전(달밭구미)
횡간도 (橫干島)	횡간리 (橫干里)	횡간(橫干)	174	2	대횡간(大橫干, 큰빗간이) 소횡간(小橫干, 작은빗간이)

### 3) 주요 무인도서

도 서 명	면적(km <sup>2</sup> )	행정구역	특 징
오 동 도	4.00	우학리	머거섬
알 마 도	38.00	연도리	고지도 표기
작 도	3.200	연도리	까치섬,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사건

### 4) 인구변화

1975년	1985년	1997년	2000년	2005년	2009년
17,465	12,207	6,146	5,087	4,171	3,821

### 5) 공공기관

면사무소	출장소	교육기관	파출소	우체국	농협지소	한천지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	3	초세(분교3) 중세(분교3) 고1	분소1 출장소2 해경2	4	3	1	2	5



## 제2절 개관

### 1. 위치와 역사

#### 1) 위치

남면은 여수시 남쪽 해역에 있는 화태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나발도, 대횡간도, 소횡간도, 금오도, 안도, 연도, 대부도, 소부도, 삼도, 형제도, 수향도 및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다. 남면에서 가장 큰 섬 금오도를 중심으로 섬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금오열도(金鰲列島)' 라고도 부른다. 남면의 북쪽에는 들산읍과 화정면이 위치하고, 동쪽의 경상남도 남해도, 서쪽에는 고흥군과 접하고 있으며 남쪽은 태평양으로 연결되어 있다.

남면은 섬이 많아 섬과 섬 사이는 예로부터 주요한 교통로인 수도(水道)를 이루고 있으며 주요 수도로는 횡간수도(橫干水道), 금오수도

(金鰲水道), 안도수도(安島水道), 연도수도(鰲島水道)가 있다. 섬들의 대부분은 억겁의 파도에 수직벽으로 깎여진 해식애를 이루고 있으며 절벽 아래는 수많은 해식동이 있어 해상 국립공원에 걸맞는 절경을 이루고 있다.

## 2) 기후

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으로 아열대 기후 특성을 보이고, 겨울에는 대륙성 기후의 특징이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해양성 기후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일 년 가운데 가장 더운 달인 8월의 평균 기온(28℃)에서 가장 추운 달 1월의 평균 기온(6℃)을 뺀 연교차는 22℃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1,400mm, 서리가 내리지 않는 무상 기일은 332일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한 남면 일원은 자연 경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안 지형을 학습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다. 씨 아치를 볼 수 있는 연도의 코끼리 바위와 많은 해식동, 더불어 어디서나 쉽게 해식애와 파식대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안도 백금포와 금오도 직포에는 해수욕장이 있어 여름철 피서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 3) 역사

남면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 시대부터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개더미 유적이 화태도와 안도에 3개씩 횡간도·금오도·연도에 한 곳씩 모두 9곳이 보고되어 있다. 이 가운데 안도 조개더미는 2007년 국립광주박물관에서 발굴함으로써 이 지역 신석기 시대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었다.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유적인 고인돌은 두 모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고인돌 7기가 북서 방향으로 일렬을 이루면서 분포해 있다.

## 남면의 식생



▲ 방물

아열대성 기후가 나타나는 남면 지역의 식생은 상록 활엽 수림대가 발달해 있지만, 생육이 불리하거나 벌목 등으로 인해 표토가 드러난 산지인 독라지(禿裸地, bare land) 식생과 마을 당산 주변 숲의 보존 상태가 양호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유송리에 분포되어 있는 치자나무는 지금까지 학술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새로운 종으로 발견된 지역의 이름을 따 '금오치자(Gardnerianutans Sie et Zucc)'로 학계에 보고되었다.



▲ 화태도 상공



▲ 안도조개더미 출토-결상이식

뒷개돌이 완전히 노출된 것은 2기이고, 나머지는 모두 땅에 파묻혀 완전한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다.

선사 시대 이후 남면 지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기록이 부족한 편으로 토기와 자기 등의 유물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조상은 대부분의 다른 도서와 마찬가지로 임진왜란 이후에 각 섬으로 들어 온 것으로 보인다.

횡간도의 관왕묘제, 금오도 망산과 안도 상산의 봉수대, 횡간도의 놀이청 금석문 등이 분포하여 이 지역의 역사를 느낄 수 있다.

#### 4) 산업

섬이기 때문에 경지 면적이 좁고 경사가 급하여 농업에 불리한 지형 조건을 지니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여 고구마·보리 등을 재배했다. 하지만 일손 부족으로 경작 면적이 줄고 있으며, 최근 들어 방풍, 취, 더덕, 황금과 같은 환금 작물(換金作物)의 재배도 이루어지고 있다.

남면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해산물로는 감성돔, 방어, 삼치, 농어, 송어, 장어, 멸치 등의 다양한 어류와 홍합, 바지락, 전복, 소라, 해삼 등의 패류, 그리고 돌김, 파래, 미역, 가사리, 툇, 청각 등의 해조류의 생산이 활발하다.

각종 해산물은 청정 해역일 뿐만 아니라 생육 조건이 좋아 그 맛이 좋는데, 특히 횡간도에서 나는 신갱이 파래(일명 샬리포래)는 그 맛이 독특하여 옛날 궁중에 진상까지 했다고 한다.

최근 어족 자원의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면 지역에는 정부에서 인공 어초와 어린 물고기(稚魚) 방류를 통한 바다 목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자연 상태에서 물고기를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 안도바다목장





## 제3절 유인도서

### 1. 금오도(金鰲島)

#### 1) 개관

(2009년 2월)

세 대	인 구 (명)			면적 km <sup>2</sup>	해안선 km	공 공 기 관	교 육 기 관	교 통	선착장
	계	남	여						
827	704	385	319	27	64.5	9	초, 중 고	일1회	51

남면의 면소재지인 금오도는 우리나라에서 21번째로 큰 섬이며, 여수시에서 남동쪽으로 떨어진 돌산도·화태도·월호도·대두라도·소두라도·나발도·황간도 등과 함께 금오열도를 이루는 중심 섬이다. 금오도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는 쌀·보리·콩·고추·마늘·고



▲ 송광시 터에서 본 침강해안



▲ 안도에서 본 금오도 장지마을과 망산



▲ 금오도 용머리 해안

구마 등이 생산되며, 연안 일대에서는 멸치·삼치·장어 등이 잡힌다. 마을은 낮은 평지와 해안 일대에 산재해 있으며, 해안과 농선을 따라 도로가 나 있고, 동서 방향의 도로는 포장되어 있다.

1981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금오도 지구에 속하게 되었다.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 화성암인 중성 화산암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고봉은 서쪽에 솟아 있는 매봉산(382m)이며, 그 밖에도 동쪽의 옥녀봉(261m)을 비롯한 해발 200m 내외의 산이 대부분이다. 해안은 소규모의 만과 곶이 발달해 비교적 드나들이 심하며, 특히 서쪽은 반도처럼 바다로 돌출해 있다.

기후는 대체로 따뜻하며, 비가 많은 해양성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동백나무가 무성하여 남국적인 풍경을 이루며, 토양은 신생대 제4기의 과거 고온 다습한 기후 환경에서 만들어진 적색토가 널리 분포한다.

금오도는 '거무섬'이라고 부르던 섬으로 삼림이 울창하여 검게 보였기 때문에 불리게 된 것을 음이 비슷한 한자로 표기하면서 금오도가 되었다. 금오도가 금거북이를 닮아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이야기 역시 한자를 뜻풀이한 결과이다.

금오도는 한 때 거마도(巨磨島)라고도 하였는데 이 또한 거무섬의 이름을 비슷한 한자로 표기한 경우다. 『청구도』나 『대동여지도』에도 거

마도로 표기되어 있다. 1872년에 제작된 「전라도 순천 방답진 지도」에는 “거마도는 황장봉산(黃腸封山)이며, 산꼭대기에 오르면 동남쪽으로 일본의 대마도가 보인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 금오도 돌산~신기간 차도선

금오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시대부터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남면 유송리 여천(汝泉)마을 동쪽 바닷가에 있는 금오도 조개터미 유적이다.

금오도는 조선시대부터 기록에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바닷길과 왜구의 침입, 소나무를 기르던 봉산(封山), 금오도에 닿은 난민, 금오도 개발 등에 관한 내용이다. 조선시대 금오도는 궁궐을 짓거나 보수할 때, 임금의 관(棺)을 짜거나 판옥선 등의 전선(戰船)을 만들 재료인 소나무를 기르고 가꾸던 황장봉산(黃腸封山)이었다.

소나무의 중요성 때문에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었던 기간도 길었는데, 봉산으로서 금오도에 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도 자주 나타난다. 1885년(고종 22)부터 본격적으로 금오도에 사람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여 어업의 발달과 더불어 1960년대까지 인구가 급증하였지만 이촌향도 현상과 어족자원의 고갈로 1970년대부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금오도 유송리 여천마을

## 2) 문화관광자원

### ① 신석기·청동기 유적



▲ 금오도 여천마을 당림

금오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 시대 부터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여천(汝泉) 마을의 조개더미 유적이다. 이 유적은 유송리 여천 마을 동쪽의 바닷가에 위치한다. 현재는 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조개더미층이 드러난 면적은 동-서 30m, 남-북 15m 정도의 작은 규모이다.

조개더미층은 흑갈색 자갈층 위에 형성되어 있으나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 유적에서 발견된 토기류는 14점으로 특징은 굽은줄무늬토기와 가는금무늬투기, 세모점줄무늬토기 등 점줄무늬 그리고 겹아가리토기 등 남해안 지방 신석기 시대 여러 유적에서 출토된 내용과 비슷한 것이 특징적이다. 돌산 송도에서는 덧무늬토기가 늦은 시기에 나타나는데, 이 유적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의 유물로 추정된다.

청동기 시대 유적으로는 두모리 고인돌 때를 들 수 있는데, 이 유적은 우학리에서 서쪽 두모리로 넘어가는 고갯마루에서 남서 방향으로 약 200m 떨어진 밭에 있으며, 고인돌 7기가 북-서 방향으로 일렬을 이루면서 분포하고 있다. 완전히 드러난 것은 2기이며, 나머지는 땅에 묻혀 정확한 형태를 알아보기 어렵다.

### ② 황장봉산(黃腸封山)



▲ 금오도 때봉산 (황장봉산)

조선 시대 금오도는 궁궐을 짓거나 보수할 때, 임금의 관(棺)을 짜거나 판옥선 등의 전선(戰船)을 만들 재료인 소나무를 기르고 가꾸던 황장봉산이었다. 소나무의 중요성 때문에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었던 기간도 길었는데, 봉산으로서 금오도에 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 자주 나타난다.

황장봉산이었던 금오도는 전라좌수영 관할 아래

방답전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1865년(고종 2) 9월 태풍 때문에 쓰러진 소나무들을 경복궁을 다시 지을 때 활용했다.

이러한 사실은 『일성록』과 『승정원일기』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데, 태풍으로 소나무들이 거의 쓰러져버림으로써 봉산의 기능을 잃게 되었다.

1885년 이전까지 금오도는 황장봉산으로써 사람들의 출입이 금지되었고, 때문에 많은 짐승들이 자연스럽게 살고 있었을 것이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로서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창평집(昌平集)』을 들 수 있는데, 책 내용에 「렵소기행시(獵所紀行詩)」 22수가 전해지고 있다. 이 시의 서문에 따르면 1882년 5월 사슴피를 마시기 위해 순천 금오도의 사냥터에 갔다가 지었다고 밝히고 있어 금오도에 사슴이 많았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종 때 금오도를 명성황후 민씨(1851~1895)가 살고 있던 명례궁에 하사했으며, 명례궁에서는 이곳에 사슴 목장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1884년(고종 21) 금오도의 봉산이 해제되어 좌수영 소유지로 이관되자 막장이었던 이주희의 건의에 따라 1885년(고종 22) 일반인에게 개간을 허가함으로써 사방에서 이주민들이 모여 들어 불과 10년 이내에 골짜기마다 많은 마을을 이루게 되었다.

### ③ 금오도민유지해결기념비와 금오도개척100주년기념비

봉산(封山)이었던 금오도가 1885년 민간인들이 들어와 살 수 있도록 국유지에서 민유지로 바뀐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18년에 세운 '금오도민유지해결기념비'와 금오도 개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86년 10월 26일, 남면 사람들이 뜻을 모아 세운 금오도개척 100주년 기념비가 면사무소 옆에 나란히 서있다.



▲ 금오도 굴동 영화 「혈의 누」 촬영지



▲ 금오도민유지해결기념비, 금오도개척100주년기념비

[전설]

옥녀봉 전설



우학리 우실마을 뒷산을 옥녀봉이라고 하는데, 하늘에 살고 있던 선녀 4명이 이 마을에 내려와 놀다가 3명은 다시 하늘로 올라갔지만 한 선녀만이 인간과 인연을 맺어 올라가지 못하고 이곳에 살게 되었다.

그 선녀가 옥녀(玉女)였기 때문에 옥녀봉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옥녀가 인간과 인연을 맺어 살고 있음을 알게 된 옥황상제가 서로 만나지 못하게 남자는 다 사랑에, 선녀(仙女)는 옥녀봉에 각각 바위로 만들어 서로 마주보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또한, 내외진 마을 중앙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남면 출장소 안에는 금오도에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 온 것을 맞아 1978년 12월 5일, 세운 '남면전화점화기념비'도 볼 수 있다.

④ 우학리 교회와 이기풍목사기념관

1906년 4월 5일 여수군 남면 우학리 냉수동 322번지에서 안돌영·김문옥의 두 가정이 모여 가정 예배를 본 것을 시작으로 본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우학리교회는



▲ 금오도 우학리교회

순수하게 이 지역 유지들의 힘으로 설립된 교회이다. 1938년 9월에 열린 제27회 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말았지만 우학리교회는 이기풍 목사를 중심으로 신사참배를 반대하였다.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투옥되고 고문당한 끝에 숨진 이기풍 목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기풍 목사 순교기념관'을 건립하였다. 또한 주위 여러 지역에 선교사를 파견하고 교회 건립을 도와주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⑤ 직포(織浦) 해수욕장과 방풍림

면소재지로부터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직포마을은 동산이 마을을 감싸고 있고, 남쪽 끝에는 매봉산이 우뚝 솟아 있으며, 바닷가에는 아름다운 해식



▲ 금오도 직포마을

애가 발달해 있다. 지형에 따라 마을이 있는 곳은 포구가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 여름철 해수욕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바닷가를 따라 흐르는 등천에는 노송 30여 그루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마을의 동쪽 옥녀봉의 선녀인 옥녀가 주변 모하, 두포 마을에서 목화와 누에고치를 가져와 이곳에서 베를 짰다고 하여 베틀의 바디(보대)의 이름을 따 '보대'라고 부르다가 한자식 땅이름인 직포(織浦)로 바꾸었다.

### ⑥ 불무골

두포 마을은 1885년 금오도 개척 당시 조정으로부터 권농관이 파견되어 두모리 1367번지에 관사를 짓고 주변 여러 섬사람들을 동원해 방과제를 쌓는 등 금오도에서 가장 먼저 개척된 곳이다. 당시 경차사관 산하



▲ 두포마을 불무골

도포수였던 박정안이 1885년 정월에 가장 먼저 입주하였고 1889년 6월에 최순익이 초대 금오도 둔장으로 임명받아 본격적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금오도가 봉산이었을 때 사슴 사냥을 위해 내려오는 관청 소속 포수들이 처음 도착한 포구(浦)라 하여 '첫개'라 부르다가 옥녀봉과 관련된 전설에 의해 두포라고 했다. 즉, 옥녀봉에 살던 선녀인 옥녀가 상(桑)거리에서 탄 뽕잎을 이용해 누에를 쳤는데, 누에고치가 많아 말(斗)로 바뀌어 두포(斗浦)가 되었다.

### ⑦ 송광사 터

함구미 마을 뒷산에는 넓은 평지가 있는데, 산봉우리 바로 밑에 있는 이곳을 이곳 사람들은 '절 터'라고 부르고 있다.

옛날 어떤 도사가 이곳에서 지팡이를 한번 내리쳐 절 터를 다듬은 뒤 절을 짓고 불공을 드렸는데, 하루는 상좌 아이가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기 위해 쌀을 씻던 중 그만 잘못하여 수십 길 벼랑 아래로 떨어져



▲ 금오도 송광사 터

죽어버렸다. 도사가 이곳을 떠나면서 지팡이를 쳐 산봉우리를 무너지게 하여 절의 흔적을 없애 버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지금도 상좌 아이가 쌀을 씻던 곳을 '뜯물통'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쌀을 씻던 절벽 위에는 쌀뜯물처럼 보이는 하얀 흔적이 남아 있다. 현재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실제로 절이 있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보조 국사가 모후산에 올라가 좋은 절터를 찾기 위하여 나무로 조각한 새 세 마리를 날려 보냈는데 한 마리는 순천 송광사 국사전에, 한 마리는 여수 앞바다 금오도에, 한 마리는 고흥군 금산면 송광암에 앉았다고 하며, 이것을 삼송광(三松廣)이라 부른다고 전한다.

『여산지(廬山誌)』에 “고려 명종 25년(1195) 보조 국사 지눌이 남면 금오도에 절을 짓고 이름을 송광사(松廣寺)라고 했다.”라는 기록을 통해 볼 때 함구미 뒷산의 절터는 송광사의 옛 터로 추정할 수 있다.

『영은징오기(靈隱燈窟記)』에 따르면 송나라 영종 경원 원



▲ 함구미 아홉굴



▲ 함구미 초분



년(1195) 보조 국사 지눌이 금오도에 정성스럽게 절을 지었는데, 이름을 송광사(松廣寺)라 했다. 『부사귀객기(浮槎歸客記)에 따르면 은적암 또한 보조국사 지눌이 지었는데, 금오도와 조계산의 송광사를 왕래하면서 잠시 머물던 곳이다.

## 영화이야기

### 인어공주

2004년 제작된 박흥식 감독의 영화<인어공주>는 부모님의 젊은 시절이라는 낯설고도 궁금한 시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유쾌한 판타지 영화다.



▲ 함구미(영화 '인어공주' 촬영지)

주인공 나영(전도연)이 엄마의 스무 살 시절이라는 상상지도 못했던 시공간 안에 순수하고 따뜻한 인물들과 엄마의 첫사랑에 끼어들게 된다는 유쾌한 스토리를 적절히 녹여낸다.

마을 역사상 처음으로 개봉되는 버스 앞에서 모두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부침개 하나도 모두 함께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수 십년 전의 섬마을. 대머리의 부동산 아저씨인 현재의 외삼촌이 말썽꾸러기 중학생으로 살고 있는 곳.

이런 시공간을 뛰어넘는 배경, 그 안에서 비슷한 나이 또래의 엄마와 별이는 당황스런 사건들과 '순수했던 스무 살 시절의 첫사랑'이라는 요소가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는 영화이다.

영화는 주로 제주도 우도와 필리핀 세부섬 그리고 남면 금오도의 함구미마을에서 촬영했다.

⑧ 송고(松高)마을 당제



금오도를 비롯한 많은 섬에서 당제를 모셔왔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졌고 송고마을 당제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당제는 음력 정월 초하루 자시부터 시작되는 상당제와 이튿날 오전에 행해지는 현식제까지 이를 동안 치러진다. 예전에는 정월 초이튿날 시작해 사흘날 현식제를 지냈으나 현재는 육지에서 고향을 찾아온 사람들의 교통·시간 편의를 위해 조절하였다.

상당은 마을 뒷산인 매봉산 중턱 부근에 있는 바위이다. 중당은 마을 옆에 있는 당산나무로 소나무이며, 현식제가 이뤄지는 곳은 마을 앞 선창이다. 상당의 신격은 산신으로 산신은 야신(野神)이므로 당집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으며, 하당은 당할머리를 모신다.

당제를 모시는 사람을 '제만' 이라고 하는데, 설달 그믐날 생기복덕과 청렴한 부부로 정한다. 제만 부부는 제사를 모실 곳을 청소하고 금줄을 치며,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정성을 드린다.

상당제가 끝나면 제물을 가지고 집으로 내려와 제만 부부만 음복한다. 이후 제만 집에서 하당제 때 쓸 음식물을 장만한다.

하당제에는 마을 사람들도 참석하는데, 깨끗한 사람이거나 희망자 그리고 매구꾼이다.

상당제와 하당제가 끝나고 날이 밝으면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마을 앞 선창가에서 현식제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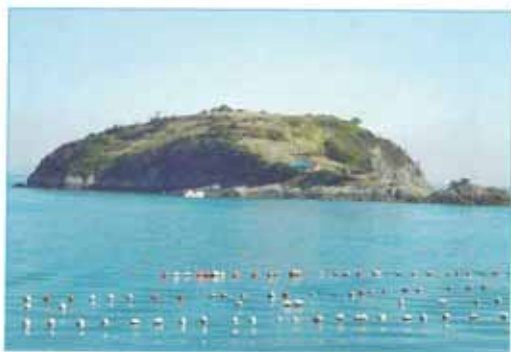
용왕제라고도 하는 현식제는 당주집에서 장만한 제물상과 각 가정에서 차려온 음식상을 마을 회관 앞 선창가에 줄줄이 늘어놓는다. 제

가 진행될 때 매구꾼들은 매구를 치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구경한다. 제의 진행은 제만이 술잔을 각각의 상에 한잔씩 붓고, 바다를 향해 매구를 치면서 재배한다.

제가 모두 끝나면 각각의 상에서 제물을 조금씩 떼어내어 주머니에 담아 바다에 헌식한다. 이를 마을 사람들은 용왕에게 대접한다고 말하는데, 이후 상을 중심으로 둘러 앉아 음식을 음복하고, 매구를 치면서 한바탕 흥겹게 논다.

### ⑨ 수항도 首項島

남면 유송리에 속한 섬으로 육계도화 과정에 있으며 목섬의 뜻인 수(首)와 항(項)을 겸한 지명이다. 최고봉은 56m이며, 면적은 약 0.03km<sup>2</sup>이다. 금오도에서 0.8km 떨어져 있고



▲ 유송리 수항도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선착장이 서쪽에 하나 있으며 길이는 10m이다. 농산물로는 고구마가 재배되고, 수산물로서는 전복, 소라, 미역, 톳 등이 난다.

1850년경 황씨(黃氏)가 처음으로 입도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금오도보다 사람이 먼저 입도하였다 하여 수항도라 불리게 되었다. 섬이 사주에 의해 육지와 연결된 섬을 육계도라 하는데, 바로 '목섬'은 육계도를 의미하는 대표적 지명이다.

등산로 탐방

금오도 비렁길



▲ 금오도 비렁길

금오도에 비렁길은 남면 유송리 함구미마을에서 출발하여 용머리, 송광사 터, 두포, 굴동, 직포까지 9Km 구간으로 여유 있는 걸음으로 약4시간 정도 소요된다. 남해안에서 찾아보기 힘든 해안단구의 벼랑을 따라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벼랑의 지역어인 비렁길로 불린다.

비렁길은 여수시가 2010년 6억원의 예산으로 함구미에서 해안선을 따라 직포까지 약9km 구간 중 미개설되어 있는 870m를 개설하고 조망이 우수한 곳에 전망데크를 설치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태탐방로를 활용한 프로그램이다.

금오도의 자연풍광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월등한 만큼 비렁길 생태탐방로개설로 전국적으로 알려진 매봉산 등산코스와 더불어 등산이 부담스러운 관광객들도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탐방코스가 완성되어 가족단위 관광객이 찾아오는 건강의 섬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2. 안도(安島)

### 1) 개관

(2009년 2월)

세 대	인 구 (명)			면적 km <sup>2</sup>	해안선 km	공 공 기 관	교 육 기 관	교 통	선착장
	계	남	여						
254	543	282	261	3.96	29	5	초, 중	일2회	5

금오도의 남쪽에 있는 안도는 섬과 섬의 안에 즉 안쪽에 있는 섬이어서 '안섬'이라고 부르던 섬으로 동도(東島)와 서도(西島) 2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두 섬 사이에는 200m 정도의 수로(水路)가 뻗어 있어 천혜의 항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로의 남쪽 끝에 발달한 사주에 의하여 두 섬이 연결되었다. 백금만, 이야포만을 비롯해 동고지와 서고지 등 여러 만과 곶이 있어서 섬 모양이 마치 기러기 같다 하여 안도(雁島)라고도 하였다.

안도에는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음을 알려주는 조개더미 유적이 3곳에 분포하고 있다. 일본 승려 엔닌(圓仁, 794~864)의



▲ 안도 두영안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의 847년 9월 8일의 기록 중에 안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어 여수 지역에 대한 최초의 기록으로 여겨진다.

현재 안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조상(入島祖)은 임진왜란 이후에 섬에 들어 온 것으로 보이는데, 경주 정씨가 가장 먼저 정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은 없어진 당집에는 정씨 내외분의 위패를 모시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1860년대 마을에 큰 불이 나(경신 대화재) 100여 가구 또는 300여 가구 가운데 한 집만 남고 모조리 불타버려 봉산으로 민간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던 금오도 등지로 이주해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다고 한다. 최고봉인 상산(上山) 정상에는 봉수대의 흔적이 있는데, 왜구의 침략과 상황을 알리던 요망소로 추정되며 금오도의 심포 마을 요망소와 서로 연락을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

1950년 8월 3일 안도 이야포에서 미군 전투기의 기총 소사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은 140~150여 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가슴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북동쪽에 있는 백금만(白金灣)은 백사장이 형성되어 해수욕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야포 마을 바닷가는 원마도가 높은 자갈 해안으로 되어 있다. 북쪽 만(灣)의 부두는 과거에 일본인들이 근대적인 어항을 건설하면서 만들어졌다. 안도항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아주 좁아 멀리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섬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S자를 이루며 폭이 넓어져 천연 호수를 형성하고 있다.

밀물 때는 큰 배도 마을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으며, 1959년 사라호 태풍을 제외하고는 태풍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천혜의 요새이다. 이러한 지형 조건 때문에 아주 옛날 해적 또는 왜구의 근거지였었다는 소문이 있기도 하다.

2010년 2월 18일 남면 금오도→안도간 연도교인 안도대교가 공식개통되었다. 길이 360m, 폭 12.5m, 주탑높이 46.2m이며 해양수면에서 교량상단까지 27.1m의 통과높이이며, 2005년 7월 착공, 369억원의 사업비로 국내 최장 경간 길이 200m로 가설된 복합엑스트라 도즈드교로 도서 지역간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주민생활편익과 관광자원 개발 등 주민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을 될 것으로 보인다.

## 2) 문화관광자원

### ① 조개더미 유적

조개더미란 수렵·어로·채집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선사시대의 인류가 식료로 채집한 조개를 먹은 뒤 버린 껍질이 쌓여 이루어진 퇴적층 유적으로 패총(貝塚)이라고 한다.

안도에는 조개더미 유적이 3곳에 분포하고 있다. 국립광주박물관에서는 금오도~안도 간 연도교 가설 공사에 따라 안도 조개더미 유적이 훼손될 위기에 처하자 2007년 1월 2일부터 4월 6일까지 약 90일에 걸쳐 긴급 발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구역 내에서는 무덤 2기, 불 땀 자리 7기, 움집 유구(竪穴遺構) 7기 등이 확인되었고 껍질에 구멍을 뚫어서 걸게 만든 고리형 둥근 귀고리(玦狀耳飾) 1점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귀고리는 중국 동북부와 연해주, 그리고 일본 열도 등 주로 해안과 도서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장신구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고성 문암리 무덤 주인공의 머리 부분에서 돌로 만든 한 쌍이 출토된 바 있으며, 이번 안도 조개더미에서 출토된 1점은 중부 이남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출토된 예로 동아시아 신석기 문화권 내의 교역망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조개껍질이 쌓인 층(貝殼層)에서는 콩알무늬토기, 덧무늬토기, 손가락 끝으로 무늬를 새긴 토기, 눌러찍은무늬토기, 붉은칠토기 등이 출토되어 남해안 신석기 시대 토기 문화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한반도 남해안 신석기 시대 토기 문화의 흐름과 같이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남해안 지역 집단 간 또는 일본과의 교류



▲ 안도조개더미 유적 발굴 현장



▲ 안도 서고지마을



▲ 안도 동고지마을



▲ 안도조개더미 출토 토기편

▲ 안도조개더미 출토 공염문토기

▲ 안도조개더미 출토 돌칼

▲ 안도조개더미 출토 유골 1쌍

▲ 안도조개더미 출토 이용늪시

▲ 안도조개더미 출토 유골 1쌍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흑요석 220여 점이 확인됨으로써 단일 유적으로는 가장 많은 수량이다. 흑요석은 날카로운 날을 얻을 수 있는 화산암질 석재로 신석기 시대 어로나 사냥을 위한 작살과 같은 도구 제작에 널리 사용됐다.

이러한 흑요석의 원산지는 백두산과 일본 열도이며, 안도 조개더미에서 가까운 여수 송도 조개더미에서 출토된 흑요석의 원산지는 일본 서북 구주의 고시다케(腰岳) 지역으로 분석된 바 있다. 이로 볼 때 안도 조개더미의 흑요석도 큐슈지역이 원산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 ② 어촌체험마을

안도 마을은 2007년 전라남도로부터 어촌 체험 관광 마을로 지정되었다. 어업 생태 체험은 어촌을 찾은 관광객들이 바다에서 직접 잡은 고기와 채취한 해산물을 가족 단위 및 마을 주민들과 함께 요리 체험을 함으로써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고기잡이는 백금포만과 삼





▲ 안도마을

섬 주변, 해산물 채취는 이야포 해수욕장과 선착장 주변을 활용하며, 관광객의 원활한 체험 활동을 위해 체험 프로그램 가이드는 마을 사람들이 직접 담당하게 된다.

섬터 지구는 안도의 상징인 당산 주변에 산책로, 전망대, 정자, 파고라 등을 설치하여 마을 주민과 관광객들의 휴식과 편의를 제공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개매기는 독살과 더불어 바닷가에서 행해졌던 전통 어업방법으로 바닷물이 들고 나는 것을 이용해 관광객들이 직접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체험 활동이다.

안도에서는 최근 신석기시대 조개더미 유적이 발굴됨으로써 토기류, 장신구류 등의 유물이 출토되어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유적과 유물을 활용할 수 있는 역사 유물 체험 지구는 선착장 앞에 있는 어촌계 창고 및 매표소를 2층 건물로 새롭게 지어 1층은 체험 안내 센터, 농·수산물 직판장, 어업창고, 매표소로 활용하고, 2층에 유물 전시관이 갖춰져 있다.



▲ 안도 어촌체험마을



▲ 안도 상산



▲ 안도 해수욕장

### 3. 대부도(大釜島)

(2009년 2월)

세 대	인 구 (명)			면적 km <sup>2</sup>	해안선 km	공 공 기 관	교 육 기 관	교 통	선착장
	계	남	여						
8	13	5	8	0.16	3.2				2

남면 안도 서안 가까이에 있는 섬으로 최고봉은 약 93m이다. 남서쪽은 해식애가 발달해 있고 인근에 소부도가 있다. 중생대 백악기 중성화산암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후는 대체로 따뜻하고 비가 많다. 취락은 안도와 접한 동안에 발달해 있다.

인근 해역은 신강수도에 속하며, 멸치잡이와 김양식으로 유명하다. 안도 서고지에서 사선(私船)으로 접근할 수 있다. 섬의 형상이 가마솥(釜)을 엮어 놓은 것 같이 생겼다 한 데서 유래된다.

전력은 공급되나, 상수도는 공급되지 않아 우물물을 식수로 사용한다. 주민들은 어로와 양식업에 종사한다.



▲ 대부도



#### 4. 연도(鰲島)

(2009년 2월)

세 대	인 구 (명)			면적 km <sup>2</sup>	해안선 km	공 공 기 관	교 육 기 관	교 통	선착장
	계	남	여						
278	605	311	294	6.81	35.6	3	초, 중	일2회	4

안도의 남쪽으로 이어지는 연도는 여수항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섬으로 예부터 소리도(所里島)라 하다가 소리도를 솔개를 닮은 섬으로 풀이하여 솔개 연(鰲)자를 써서 연도라 하였다. 역포마을은 제주도로 유배 보낼 때 이곳을 거쳐갔다고 하며 마을 어귀에 역마터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러한 연유로 역포(驛浦)라 하다가 역포(力浦)로 고쳐 쓰게 되었다고 한다. 경남 남해에서 진주 하씨가 최초



▲ 연도



▲ 연도

로 입도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임진왜란 후 진주 김씨와 경주 정씨 등이 입도하여 현재의 마을을 형성하였다.

필봉산에서는 2,500년~3,500년 전의 것으로 판명된 돌도끼가 5점이 발견되었고 신석기시대 토기편, 통일신라시대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1958년에는 연도마을 뒷산에서 금동입불상 1점이 출토되었다.

섬은 동쪽의 가랑포(加良浦)와 서쪽 병포만(竝浦灣)이 있어 좁은 목(項)을 이루고 있어 자연스럽게 남-북으로 나누어진다. 북쪽 역포만(力浦灣)에 역포 마을이 있는데, 보리·고구마를 비롯한 농산물과 근해에서 멸치·문어 등을 많이 잡고, 갈치젓의 명산지로 알려져 있다. 섬의 남쪽 끝인 대룡단(大龍端)에는 아름다운 경관에 어울리는 소리도 등대가 있다. 해식애와 해식동, 파식대와 무성한 난대림이 잘 어우러져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금오도 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연도는 1995년 7월, 씨프린스호가 태풍 '페이'의 영향으로 좌초되어 기관실 폭발과 함께 다량의 벙커C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던 곳이기도 하다.

## 2) 관광문화자원

### ① 해안 침식 지형



▲ 연도 돌 건너

연도를 비롯한 남면 지역은 섬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아름다운 해안 침식 및 퇴적 지형을 구경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연도는 남면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배를 타고 섬 주위를 돌면 해식애, 해식동, 씨아치 등 다양한 침식 지형을 볼 수 있다.

강한 파랑 에너지를 직접 받는 연도의

남서쪽 해안에는 바위의 약한 부분이 침식을 많이 받아 코굴, 솔팽이굴과 같은 해식동(Sea Cave)이나 코끼리바위같은 씨아치(Sea Arch)를 이루고 있다. 또한 파식대는 낚시꾼들의 안전한 낚시포인트로도 유명하다.



▲ 연도 코굴

## ② 솔팽이굴 전설

솔팽이굴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 경관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한다.

옛날 네덜란드 무역선이 연도 근처를 항해하다가 폭풍을 만나 배가 동굴 쪽으로 밀리면서 난파되었다. 이 사고로 배에 탔던 사람들이 거의 다 죽고, 한 사람만 기적적으로 살아 남았다. 혼자만 살아 남은 이 사람은 배에 실려 있던 보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자 동굴 속 어딘가에 감춰두었다. 이후 구조되어 고국 네덜란드로 돌아갈 수 있었다.

1972년 무렵,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군인 손연수씨는 우연히 지도를 놓고 보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자세히 지도를 본 결과 보물 지도에 표시된 위치가 연도 솔팽이굴이었으며, 지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난파된 배에서 유일하게 살아 남아 구조되었던 네덜란드인의 3세였었다. 따라서 확신을 가지고 동굴

을 탐사해 보았으나 동굴 안쪽이 막혀 있어 별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동굴 속 어디엔가 보물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 연도 솔팽이굴

또한, 솔팽이굴 속으로 들어가면 동부 마을의 어떤 집 부엌에서 누룽지를 굽는 소리가 들렸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 굴이 동부 마을 밑으로 뚫려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 ③ 씨프린스 호 기름 유출 사건

1995년 7월 23일 오후 4시쯤 남면 연도 등대 서쪽 1.5km 해상에서 키프리스 국적 14만 4천t급 호유 해운 소속의 유조선 씨프린스호가 태풍 '페이'의 영향으로 좌초되어 기관실 폭발과 함께 다량의 병커C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남아시아 오만의 미나알파할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수입해 온 원유 190만 배럴을 실은 씨프린스호는 7월 19일 지금의 GS-Caltex정유인 호남 정유 원유 부두가 있는 광양항에 입항했다. 7월 21일 부두에 접안, 22일 오후 6시까지 정유 공장으로 원유 130만 배럴을 공급했을 때, 북상하던 태풍 '페이'가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는 경보를 듣게 되었다. 따라서 남은 원유 60만 배럴을 실은 채 세존도 북방 3.7마일 해상으로 피해 태풍을 넘기려 했으나 기관이 고장남으로써 표류하게 되었다. 23일 오후 2시 10분쯤 남면의 무인도인 작도와 충돌, 기관실이 폭발하면서 기름이 유출되기 시작했다.

충돌 후 사고 선박은 조류를 따라 서쪽으로 표류하다 23일 오후 4시쯤 소리도 등대 서쪽 1.5km 해상의 대바위에 좌초하여 배 뒤쪽은 바다



▲ 연도

에 가라앉고 앞부분은 바다 위로 솟은 상태가 되었다. 기름의 유출량은 기관 연료 유인 병커C유 1,400t 가운데 폭발로 인한 연소량과 잔류량을 제외한 700t 이상으로 추정되었다.

기름 유출로 인한 오염 범위는 초기 방제의 미숙과 기상 악화로 사고 2일째인 24일 유출된 기름띠가 좌초된 지점인 소리도 앞 해상으로부터 남북으로 30km, 동서로 15km 범위 내에 위치한 남면과 돌산 동쪽의 가막만과 여자만을 제외한 화정면 일대까지 오염되었다. 사고 4일째인 26일 유출된 기름이 고흥과 경남 남해·통영까지 반경 40~60km 해역에 타원형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었으며, 8월 2일에는 거제도 인근 해상에서 폭 1~3m, 길이 10~100m 길이의 기름띠가 관찰되었다. 8월 4일에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밀려가 50여만 명의 피서객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 ④ 소리도 등대

남면의 최남단 연도에는 1910년 10월 최초로 불을 밝힌 소리도 등대가 있다. 평균 해수면으로부터 82m, 땅 위에서 9.2m 높이의 육각 철근 콘크리트로 구조물이며, 내부에는 2층 구조로 철제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다. 등대는 밤에는 어두운 밤바다의 길을 열어주지만, 낮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 장소로 알맞은 곳이다. 등대까지 가는 길은 삼림욕을 할 수 있으며, 등대 주변의 휴식 공간과 해안 침식 지형이 주는 아름다움, 트인 바다 위로 멀리 백도까지 볼 수 있는 곳이다.



▲ 소리도 등대



## 5. 화태도(禾太島)

(2009년 2월)

세 대	인 구 (명)			면적 km <sup>2</sup>	해안선 km	공 공 기 관	교 육 기 관	교 통	선착장
	계	남	여						
220	520	264	256	2.17	17	2	초, 중	일5회	15

남면 화태리에 속한 섬으로 돌산대교에서 20km, 돌산도 남쪽 약 2km 해상에 떨어진 섬이다. 최고봉은 117.8m로 북쪽과 남쪽이 구릉 지이며, 중앙부 평지는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마을은 중앙에 위치한 화태 마을과 남동쪽 바닷가의 월전 마을에 집중 분포한다. 주민은 대부분 농업과 어업을 겸하며, 농산물로는 고구마·황금 등이 재배된다. 연근해에서는 주로 우럭·광어 등이 잡히며, 전복·소라 등이 채취된다.

『여지도서』에는 “수태도(愁太島)는 돌산의 서쪽에 있으며, 주위는 20리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화태도의 옛 이름이 ‘수태도’였음을 알 수 있다.





▲ 화태도 월전마을

임진왜란 때 왜군의 상황을 방담침사진(突山島)에 알려주는 기능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첫대섬'이라고 불렸고, 마을 뒤쪽 '노적산'에 군량미를 쌓아 놓은 것처럼 적을 속였기 때문에

벼이삭 수(穗) 자를 써서 수태(穗太) 섬, 수태(愁太) 섬이라 했다가 벼화(禾)자를 써 화태(禾太)로 이름 붙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화태도에는 신석기 시대 조개더미 유적 3곳이 보고되었으며, 『조선왕조실록-광해군일기』에 의하면 조선 시대 화태도에는 항암제이자 고혈압 치료제로 쓰였던 뽕나무에 기생하는 겨우살이(桑寄生)가 기록되어 있다.

화태도에는 역사와 생김새에 따른 땅이름이 분포하고 있는데, 남동쪽에 있는 넓은 터에서 군사용 말을 조련하였다는 기마장, 북서쪽에 말발굽 형태가 찍혀있다는 마족바위, 고양이 머리처럼 생긴 괴머리(貓頭) 마을, 반달처럼 생겨서 붙여진 달밭기미(月田) 등이 대표적이다.

돌산읍 신복리 신기 마을과 화태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가설 공사는 남해안 도서의 연륙화를 통한 주민의 편의성 향상과 관광 자원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도교와 연결 도로를 포함하여 총 연장 3,848m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돌산읍 군내리 선착장에서 화태도를 비롯한 월호도, 두라도, 횡간도 등을 갈 수 있는 나룻배가 하루 5번을 왕복 운항하고 있다.



▲ 화태, 두라, 나발, 횡간도 나룻배



▲ 금오열도

## 6. 대두라도(大豆羅島)

(2009년 2월)

세 대	인 구 (명)			면적 km <sup>2</sup>	해안선 km	공 공 기 관	교 육 기 관	교 통	선착장
	계	남	여						
83	223	106	117	1,103	7.6		초1	일5회	

두라도(斗羅島)는 대두라도와 소두라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섬의 생김새가 콩을 닮았다 하여 큰 섬은 대두(大豆), 작은 섬은 소두(小豆)라고 했다가 한자식으로 '두라도(斗羅島)'로 기록했다. 대두라도는 '대두



▲ 대두라도

도' 라고도 부르며, 돌산에서 남쪽으로 4km 떨어진 바다에 있다. 주위에 금오도·소두라도·나발도 등이 있고, 섬 전체가 경사가 완만한 구릉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안은 대부분 암석 해안으로 단조롭다. 감자, 보리, 고구마 등을 주로 생산하고, 주변 어장에서는 멸치, 낙지, 전복 등을 잡으며, 김과 홍합 양식도 이루어진다. 아

름다운 자연 경관을 지니고 있어 1981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금오도 지구에 포함되어 있다.

### 소두라도(小豆羅島)

(2009년 2월)

세 대	인 구 (명)			면적 ㎢	해안선 km	공 공 기 관	교 육 기 관	교 통	선착장
	계	남	여						
9	21	12	9	0.16	7.5				3

### 7. 나발도(羅發島)

(2009년 2월)

세 대	인 구 (명)			면적 ㎢	해안선 km	공 공 기 관	교 육 기 관	교 통	선착장
	계	남	여						
17	49	29	20	0.12	3.0			일5회	5

남면 두라리에 속한 섬으로 화태도와 대·소두라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수시 섬 중에서 가장 수질이 우수하여 부근 섬에 물을 공급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섬 형상이 나팔같이 생겼다 하여 나발도라 부른다. 주민들은 주로 농업과 어업을 겸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고구마·보리 등이며, 연근해 일대에는 주로 우럭·광어·농어 등을 양식하며, 자연산 전복 채취가 이뤄진다. 취락은 주로 북서쪽 해안에 집중 분포한다.

돌산읍 군내리에서 하루 5차례 정기여객선이 운항한다.



▲ 소두라도



▲ 나발도



▲ 대횡간도와 소횡간도

## 8. 대횡간도(大橫干島)

(2009년 2월)

세 대	인 구 (명)			면적 km <sup>2</sup>	해안선 km	공 공 기 관	교 육 기 관	교 통	선착장
	계	남	여						
69	165	84	81	0.34	4.8		초	일5회	6

남면 횡간리에 속한 섬으로 돌산도 남쪽 약 1.5km 해상에 떨어져 있고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금오지구 서북단에 자리하고 있다. 대횡간



▲ 대횡간도

도와 소횡간도 등 2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으며 최고지점은 대횡간도가 91m, 소횡간도가 60m이다. 주민은 대부분 농업과 어업을 겸하며, 농산물로는 고구마·마



▲ 대항간도 놀이청 각석문

늘 등이 재배된다. 연근해에서는 주로 우럭·광어·멸치 등이 잡히며, 전복·해삼 등이 채취된다.

횡간도는 우리말 이름이 '큰 빗간이', '작은 빗간이'로 예전, 섬에 나무가 없어 벌거벗은 모습 또는 비스듬한 섬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항간도의 조개더미 유적은 화태초등학교 여동분교장 서쪽 바닷가에 위치한다. 조개껍질의 퇴적 상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층의 두께가 북쪽은 약 20cm, 남쪽은 약 1m에 이른다.

『호좌수영지』에 따르면 횡간도는 조선 시대 전복을 잡아 바치는 잠수군들이 살던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관우(關羽)를 신격으로 모시는 관왕묘제가 있어 여수 지역에서는 유일한 예로 보인다. 19세기 후반 관왕(關王 = 관우)을 모시면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이 서울에서 관우의 초상화 1점을 가져와 자기 집에서 제사를 모셨는데, 참여하는 사람이 늘자 사당을 세웠다. 일제강점기 일본 경찰에게 칼, 초상화, 서적 등을 빼앗겨 일시 중단되었다가 1914년 초상화를 다시 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봄의 경칩(驚蟄), 가을의 상강(霜降) 두 차례 제를 모셔왔다.

마을 사람들 전체가 참여하는 동제는 아니며, 이전부터 제사에 참여해 온 집안의 후손들이 계(契)를 조직해 운영해 왔다. 현재는 주민의 고령화와 재정부족 등으로 관왕제와 계의 명맥도 끊어졌으며 당집과 당집 내의 관우, 유비, 장비, 고승의 초상화가 방치되어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횡간도에는 한국 전쟁 초기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있었던 곳으로 1950년 8월 7일(음력 6월 25일) 남면 횡간도와 금오도 사이에 있는 '두룩여' 주변바다에 미군 전투기가



▲ 대항간도 관왕묘

조기배들을 향해 기총 소사를 실시했다. 전투기가 세 번 지나간 바다에는 사람들이 흘리는 피로 붉게 물들었고 화재, 횡간도를 비롯해 돌산 군내리와 신기 마을 사람 가운데 목숨을 잃은 사람이 12명이며, 5명이 크게 다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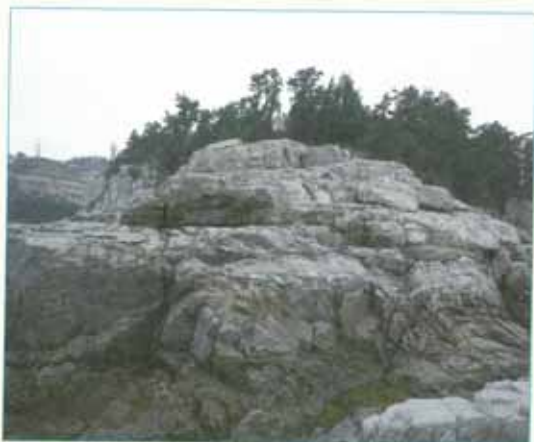
▲ 대횡간도 관왕묘 초상

### 소횡간도 小橫干島

(2009년 2월)

세대	인구 (명)			면적 ㎢	해안선 km	공공 기관	교육 기관	교통	선착장
	계	남	여						
6	9	4	5	0.08	2.7				3

## 대횡간도 놀이청



동북쪽 해안에는 넓은 파식대가 발달되어 있는데, 이곳에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 유성채, 군관과 절충장군을 겸한 탁·안해우, 순천 부사 박두세, 방담 첨사 이이준 무인

년 오월 일(節度使柳星彩 軍官折衝兼 鐸·安海宇 順天府使朴斗世 防踏僉使李以峻 戊寅五月 日)”이라고 새겨진 바윗글이 있다.

절도사와 순천 부사, 방담 첨사 등 군사적으로 전라좌수영에 소속된 관직과 이름으로 보아 방담진이 설치된 이후 어느 ‘무인년’에 이들이 함께 모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 새긴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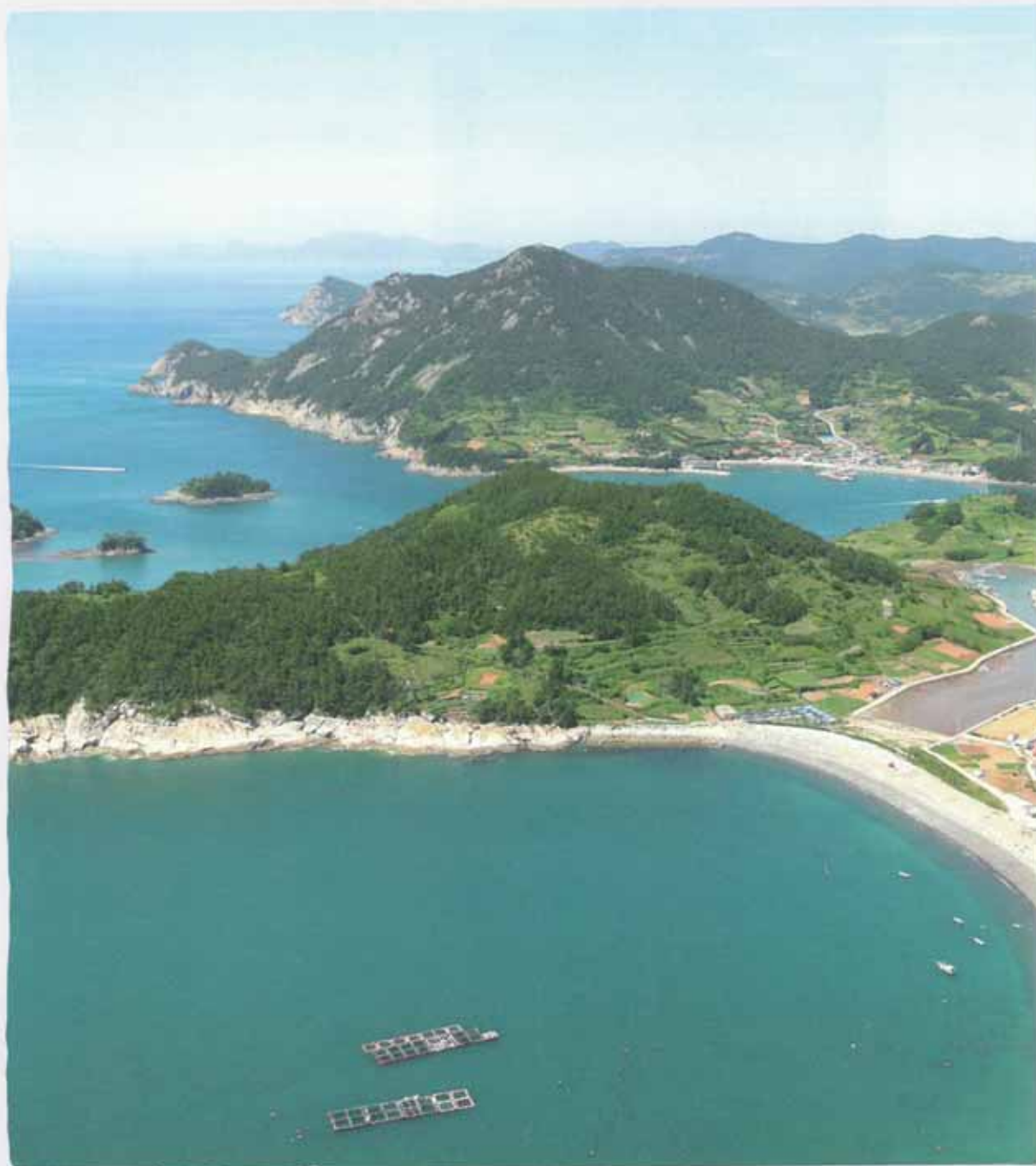
건너편 돌산읍 금성리에 있는 해식동을 과녁삼아 활을 쏘는 지방관들의 무예 연마장이라고 전해지는 이 파식대는 관리들의 놀이터 역할도 겸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놀이청’ 또는 ‘청노리’ 이라고 부르며 바위 부근 해식동에 이무기가 살았다는 전설도 전해진다.



# 제4장 삼산면

- 자연과 인간이 만든 천혜의 바다







## 삼산면

삼산면의 섬들은 오랜 시간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낸 유려하고 우수한 관광자원들이 곳곳에 산재해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거문도·백도 지구를 비롯하여 초도, 손죽도 등 바다와 함께해 온 세월의 흔적이 다양한 전통문화와 역사, 전설 그리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풍광으로 다가오는 매력적인 지역이다.



## 제1절 개관

### 1. 위치와 역사

#### 1) 위치

삼산면은 여수시 최남단에 위치한 행정구역으로 6개 법정리와 10개의 행정리, 112개의 도서(8개의 유인도서와 104개의 무인도서)로 이루어져 있다. 거문도를 중심으로 초도, 손죽도, 소거문도, 광도, 평도의 유인도와 백도를 비롯한 크고 작은 다수의 무인도로 이루어진 섬 지역으로 제주도과 여수의 중간 해역에 위치해 있다. 동쪽으로 일본의 규슈 고토(五島) 열도와 서쪽에 완도군·제주도를, 북쪽에는 고흥군과 여수시와 마주하고 있으며 남쪽은 대해인 동지나해에 접하고 있다. 삼산면의 4극은 유인 도서를 중심으로 볼 때 동경 127° 33' 인 광도가 가장 동쪽에, 동경 127° 13' 의 초도가 가장 서쪽에 위치한다. 또한 가장



삼산면 거문도

남쪽은 북위 34°00'에 위치한 서도이고, 극북은 북위 34°17'에 위치한 소거문도이다.

## 2) 기후와 식생

위도상 온대 계절풍 기후 지역에 속하여 뚜렷한 4 계절과 겨울에도 따뜻한 기온 분포를 보여 해양성 기후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다. 식생으로 볼 때 거문도 벚나무, 박달목서, 검은재나무, 남시돛풀, 갯강활, 나도은조롱, 큰갯쑥부쟁이, 흑산억새, 섬참란 성엽란 등 지역적 고유종이 서식하고 있는 난대성 식물의 분포가 두드러진다. 경도상으로는 우리나라 중



▲ 수월산에서 바라본 거문도

(유래)

## 삼산면



삼산면 명칭 유래는 고도(古島)·동도(東島)·서도(西島)의 3개 섬이 바다에 떠있는 산과 같아서 삼산(三山)이라 칭하였다는 설과, 거문도(巨文島)·초도(草島)·손죽도(巽竹島)를 3개의 산으로 상징하여 삼산이라 칭하였다는 설이 있다.

조선시대 1396년(태조 5) 홍양현(현재 고흥)에 속해 삼도라 부르고, 현재 면장직과 같은 풍헌(風憲)을 두었다.

1885년(고종 22) 영국 해군의 불법 거문도 점거사건 발생 후에 거문진을 설치하고 경락사(經洛使)와 도첨사를 두었으며, 1887년(고종 24) 삼도를 거문도라 개칭하였다.



▲ 여수 ↔ 거문도간 여객선

양 경선인 동경 127.5° 보다 약간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기후는 1월 평균 기온 2℃내외, 8월 평균 기온 25℃내외, 연 강수량은 1,361.7mm 정도이다.

### 3) 역사

1908년(순종 1)에 전라남도 들산군 소속으로 서도리에 삼산면 면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며, 1914년 전라남도 여수군에 예속되었다가, 1949년에 전라남도 여천군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1998년 4월 1일 삼려 통합에 따라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으로 변경되었다.

글은 김류가 쓴 「삼호팔경(三湖八景)」은 삼산면 지역의 거문도 세 섬 사이 호수 같은 바다 위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자연을 표현하고 있다.

자연이 준 가장 큰 선물인 뛰어난 풍경을 간직한 거문도는 고대로부터 중요한 해상교역로이면서 섬 주변이 풍족한 어장이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사람이 머물기 시작했고, 그 삶의 흔적들은 역사와 함께 관광 명소와 전설이 되어 전해오고 있다.

섬 주변에 많은 사연을 가진 동굴, 바위, 해변 등과 사람 이름의 지명들은 이를 바로 말해주는 것으로 솔순이 빠진굴, 명실여, 용냉이, 신선바위, 아차바위, 신지끼, 고두리와 오도리 영감 등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거문도 지구의 동쪽 해역 백도 지역은 무인도

### 삼호팔경(三湖八景)

글은 김 류



굴정(유촌)에 비치는 가을 달빛 橘亭秋月  
 죽촌의 밤 대나무 숲에 밤비 내리는 소리 竹林夜雨  
 서도 녹짜이(산) 끝의 수십 길 절벽 아래 바람 부는 날의 성난 파도 鹿門怒潮  
 용냉이 용물통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해넘이 龍巒落照  
 배골(서도리 남동쪽 해안)의 하얀 모래와 어우러진 삼호의 경치 梨谷明沙  
 불배를 이용하여 고기를 잡는 거문도 내해 밤바다 고기잡이 紅國漁火  
 안개 낀 기와집 물랑과 신선 바위 부근의 풍경 石潭歸雲  
 백도에서 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돛단배 白島歸帆

이나 빼어난 절경으로 국가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다.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1호인 「거문도 뱃노래」와 같은 다양한 민속의 무형문화재가 있으며, 손죽도와 초도를 비롯한 삼산면 지역에는 영국인 묘, 이대원 사당 등의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다.

#### 4) 산업

주요농산물은 쌀·보리·고구마 정도이며, 대부분의 주민이 어업에 종사한다. 연안 해역은 멸치·도미·삼치·갈치 등이 주요 어장을 이루고 있으며, 주민들은 대부분 거문도·초도·손죽도 등에 거주하고 있다. 바다는 주변에 오염원이 없고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을 받아 표면 수온이 높고 연안에 암반이 잘 발달되어 있어 해조류가 풍부하다. 따라서 해양생물의 산란, 회유 서식에 적합한 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 5) 교통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하루 2회 정기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으며, 손죽도와 초도를 거쳐 고도까지 2시간 10분 정도 소요된다. 고흥 북동향 여객터미널에서 하루 1회 정기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으며,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된다.



## 2. 삼호팔경

여수에는 '여수팔경'이 있다. 그리고 거문도에는 삼호팔경(三湖八景)이 있다. 삼호(三湖)란 서도, 동도, 고도의 세 섬이 마치 호수를 연상하게 한다는 의미이고, 팔경(八景)이란 8개의 아름다운 풍경을 의미한다. 곽은선생은 삼호팔경을 아름답게 노래하였는데 바로 녹문녹조, 백도귀범, 흥국어화, 이곡명사, 용만낙조, 굴정추월, 죽림야우, 석림귀운 등이 그것이다.

돛단배 귀향하는 백도  
구름이 넘나드는 석림  
낙조 그만인 용만  
불 밝힌 고기 배들  
파도가 넘실대는 녹문  
명사십리 이곡  
밤비 내리는 죽림 야경  
가을달빛 아름다운 굴정

여수반도에서 남쪽으로 114.7km 정도 떨어진 거문도 서도마을까지는 대략 2시간 20분 정도가 소요된다. 그리고 여수시 교동 여객선터미널에서 여객선이 하루 두 차례 운항되고 있다. 서도를 오가는 이 여객선은 공기부양선으로 마치 배가 물 위에 떠서 날아가는 것 같다. 이 배를 타고 가노라면 한려수도와 다도해 기점이자 종점인 남해 바다의 작은 섬들을 만끽할 수 있다.

### 1) 녹문노조(鹿門怒潮)

산책로에서 조금 떨어진 해안에는 삼호팔경(三湖八景) 가운데 제1경인 곽은 선생의 '녹문노조(鹿門怒潮)'가 있다.

녹문노조의 녹(鹿)은 사슴 녹자로 거문도의 지세가 사슴을 닮았다고 해서 유래된 말이다. 이중에서 서도는 사슴의 수컷을 상징하고 녹산은

사슴의 머리 부분을 말한다. 따라서 녹문은 사슴에 해당하는 머리 부분으로 거문도의 입구에 해당된다 할 수 있는데, 이곳은 바다의 거센 풍랑을 맨 처음 접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녹문에는 항상 거센 파도가 백마처럼 사납게 절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부셔서 하얀 포말로 사라지기도 한다.

녹산 끝의 30~40m 벼랑 아래에 바람이 일면 2~4m의 물기둥이 솟아올라 날리는 오색 물보라의 모습. 이 광경을 멀리서 보게 되면 마치 녹문에 성난 조류와 같고, 그 모습이 너무도 장관이어서 그것을 예찬하는 이름이 바로 녹문노조인 것이다.

조선 후기의 유학자 김유가 지은 『굴은재집』에 ‘녹문노조’에 대한 시가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바다의 목구멍과 같은 녹문이 열렸으니  
백천 꾸짖으며 바닷물을 내뿜네  
속루의 영혼이 아마도 남아 있어  
높이 오른 성낸 기세는 백마가 달리도다.

## 2) 백도귀범(白島歸帆)

서도에서 동쪽 방향으로 24km 떨어진 백도는 병풍처럼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무인절경의 군도이다. 동력선이 나오기 전에는 서도 사람들



▲ 녹문노조(병풍)

이 돛단배를 타고 이 섬으로 고기잡이하러 나갔다.

백도에서 고기잡이를 마치고 마을로 돌아올 때 바다 위에 떠있는 하얀 돛단배가 햇살에 반사되어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했다. 그래서 백도귀범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김유의 『굴은재집』에 '백도귀범'에 대한 시가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먼 섬에서 가까운 섬으로 번쩍번쩍 오가니  
달리는 용마 같고 날아가는 새 같구려  
망천을 그리워하여 좋은 시를 썼는데  
아득한 돛단배는 보기 드문 장관일세.



▲ 백도귀범(병풍)

### 3) 홍국어화(紅國漁火)



▲ 홍국어화(병풍)

서도마을에서 가까운 넓은 앞바다에는 고기잡이철이 되면 수십, 수백여 척의 고깃배들이 몰려든다. 고기잡이배들은 불빛을 보고 몰려드는 갈치와 멸치 등을 그물로 유인하기 위하여 수십 수백 척의 배 위에 축광이 높은 수많은 집어등을 켜게 되는데, 어두운 바다는 일시에 불야성을 이루며 휘황찬란한 빛의 축제를 연출한다.

오늘날 불꽃 축제며 여수산단 불야성의 시조는 어찌면 홍국어화, 수백의 고깃배들이 아세틸렌 등이며 가스등을 빨래 줄에 걸어 놓듯이 켜놓은 불빛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김유의 『굴은재집』에 ‘홍국어화’에 대한 시가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맑은 물 광경은 발에 비추어 붉었는데  
물결 위에 조각배는 동서로 오가네.  
물가를 장점한 꽃 그림자 예쁘니  
강루에 밤이 되면 봄 기분 느낄 거야.

#### 4) 이곡명사(梨谷明沙)

벧골은 골짜기에 돌배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벧골은 현재 서도리의 중심지인 돌팽이에 마을이 형성되기 전부터 있었다. 마을 아래 바닷가는 하얀 모래사장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다. 그 배나무골의 하얀 모래사장과 수정처럼 맑은 바다가 대조를 이룬 아름다운 경치를 이곡명사라 칭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풍경이 전쟁의 전초지로 이용되었던 역사가 있어 모두에게 가슴 아픈 상처를 주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벧골 마을을 비행장으로 사용하여 침략전쟁의 전초기지로 활용했었던 것이다. (벧골 출신 이대춘의 이야기)

이대춘이 초등학교 2학년 때인 1942년에 진해 항공대에서 1개 소대가 파견되었는데, 이때 배치되었던 비행기의 종류는 수상기, 전투기, 수송기, 정찰기 등이었다. 그때 바닷가(현 녹산 민박집 앞)에는 항상 2~3대의 비행기가 포탄을 장착한 채 정박해 있었다. 항공대는 서도초등학교 교실 한 칸을 빌려 숙소로 썼으며 가끔 학생들에게 훈련 장면을 시범해 보이기도 했다.



▲ 이곡명사(명문)

이 항공대는 1944년에 철수하고 대신 육군 1개 중대가 들어왔는데 이들은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조약을 맺자 같은 추축국인 일본이 관동군을 소련과의 전선에서 이탈하여 태평양 쪽으로 이동하게 한 것이다. 그리하여 거문도까지 오게 되었는데, 부대는 막사를 초등학교에서 변촌으로 이동하였다.

이 부대의 지휘자는 미나미 소위였으며, 초등학생들까지 도로공사에 동원되었다고 한다. 거문도는 이에 앞서(1935~36년경) 곳곳에 방공호를 만들었는데 주민들은 이 공사에 강제로 동원되어 많은 고생을 해야 했다.

김유의 『굴은재집』에 '이국명사'에 대한 시가 다음과 같이 전한다.

눈빛인가 배꽃인가 달빛 같은 모래에  
서로 밝게 비친 빛이 물가에 가득하네.  
아마도 먼 옛날 큼직한 바위들이  
몇 번이나 흔들리고 몇 번이나 문질렀나.

### 5) 용만낙조(龍巒落照)

서도 등 너머 용냉이에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을 담은 둘레 8m, 길이 6m의 용물통이 바위 한 가운데에 있는데, 이곳에서 보는 서산마루를 넘는 해넘이 광경이 너무 아름다워 삼호팔경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 되었다.

서도마을 앞바다에서 해안을 따라 뱃길로 섬 둘레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가거나 마을 뒤편 남서방향으로 오솔길을 따라가면 음달산 자락과 바다가 만나는 해안가에 아름다운 형상을 가진 기암절벽이



▲ 용만낙조(병풍)

많다.

그 중 남쪽 해변에 넓은 바위가 있는데 바위 정상에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해지는 '용연' 이라고 불리는 큰 연못이 하나 있다. 그곳에서 해질 무렵 남해바다에 물드는 석양은 가히 환상적일만큼 아름답다. 그래서 붙은 이름이 용만낙조인 것이다.

김유의 『굴은재집』에 '용만낙조' 에 대한 시가 다음과 같이 전한다.

동쪽은 금수요 서쪽은 금산인데  
푸른 바위 하얀 돌은 그림 같은 병풍일세.  
잠깐 사이에 햇살은 연지 빛으로 바뀌어  
쪽진 머리 옥녀를 예쁘게 단장했네.

#### 6) 굴정추월(橘亭秋月)

굴은 선생의 사당 숲 사이로 은은한 가을 달빛이 들면 내면 깊은 사색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절벽에 부서지는 하얀 포말이며 하얀 돛단배 등이 동적인 서도의 아름다운 풍광이라면 굴은 선생의 정자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정적인 아름다운 풍광일 것이다.

정자에 앉아서 하는 생각은 인생의 철학이나 세계관등일 것이다. 학문에서 배웠던 우주 질서의 이치를 반추해보고 과연 그것이 맞는 말인지 과감하게 회의해보는 사색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처럼 거문도의 아름다움은 動과 靜이 잘 조화된 중용의 아름다움에서 더욱 빛이 난다 할 것이다.



▲ 굴정추월(병풍)

### 7) 죽림야우(竹林夜雨)



▲ 죽림야우(병풍)

죽촌은 이름 그대로 대나무가 많은 마을이다. 밤에 비가 내리면 대나무 잎새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아름답다하여 붙여진, 참으로 유무형의 자연을 잘 섞어놓은 삼호팔경 중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왜 하필 밤에 내리는 빗소리일까. 어두운 밤, 사물이 모두 어둠 속으로 들어가 단순히 극명하게 되는 그 시각에 들리는 빗소리는 과연 어떤 소리일까. 게다가 대나무 숲에 떨어지는 빗소리는 과연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거문도에 문장가가 많이 배출되고, 학문의 깊이 또한 출중하다는

말은 삼호팔경에서도 엿볼 수 있다. 내면의 아름다움과 사색의 강조는 길과 속을 동시에 겸비해야 한다는 성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대목인 것이다. 대나무 잎에 비가 떨어지면서 내는 소리들의 화음은 음악이면서 철학이 아니겠는가.

### 8) 석름귀운(石凜歸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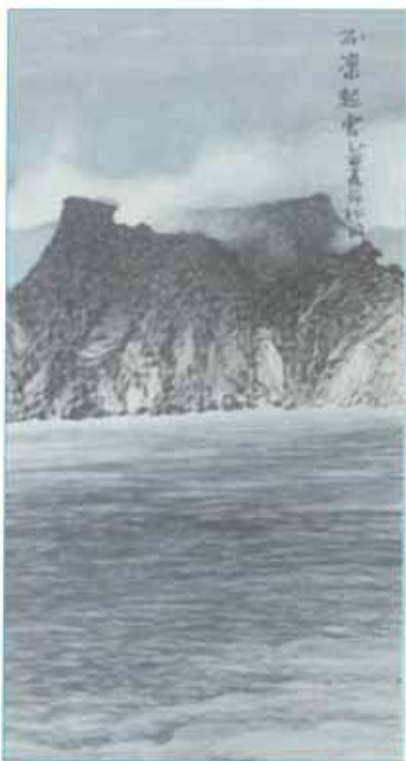
거문도 등대 가는 길에 있는 신선 바위 부근에 약 80평 가량의 기와집 몰랑이라는 바위 능선이 있다. 안개가 자욱이 낀 날에는 산의 형태는 배경이 되고 바위 능선이 기와지붕 형태로 뚜렷이 나타난다. '몰랑'의 단어는 '산마루'란 뜻을 지닌 우리 남도의 사투리다.

우선 기와집 몰랑이라는 우리말이 정겹다. 그리고 사람이 사는 집, 바위, 구름이 잘 어우러진다는 이 석름귀운은 천·지·인의 우리 고유

의 세계관이 잘 통합되는 풍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유의 『굴은재집』에 '석름귀운'에 대한 시가 다음과 같이 전한다.

절벽은 하늘에 닿아 날마다 구름인데,  
 자세히 보니 구름도 같고 비단도 같구나,  
 아마도 선녀가 높은 산 위에서  
 안개 빛 비단치마 곱게 걸치고 아스라이 돌아가나 보다.



▲ 석름귀운(병풍)



## 제2절 현황

### 1) 기본현황

도서 (개)			세대	인구(명)			면적(km <sup>2</sup> )	해안선(km)
계	유인	무인		계	남	여		
112	8	104	1,239	2,653	1,427	1,226	27,48	99

### 2) 유인도서

도서명	법정리	행정리	세대	인구	마을	마을명	
거문도	고도	거문리	거문	331	748	1	거문
	동도	동도리	유촌	70	155	1	유촌
			죽촌	80	166	1	죽촌
	서도	서도리	덕촌	204	431	1	덕촌
변촌			35	60	1	변촌	
		서도	175	391	1	장촌	

도서명	법정리	행정리	세대	인구	마을	마을명
초도	초도리	대동	114	225	3	대동, 예미, 녹항
		진막	39	99	2	진막, 정강
		의성	61	120	2	의성, 경촌
손죽도	손죽리	손죽	90	166	1	손죽
소거문도		소거문	15	25	1	소거문
평도		평도	20	38	1	평도
광도		광도	7	11	1	광도

### 3) 주요 무인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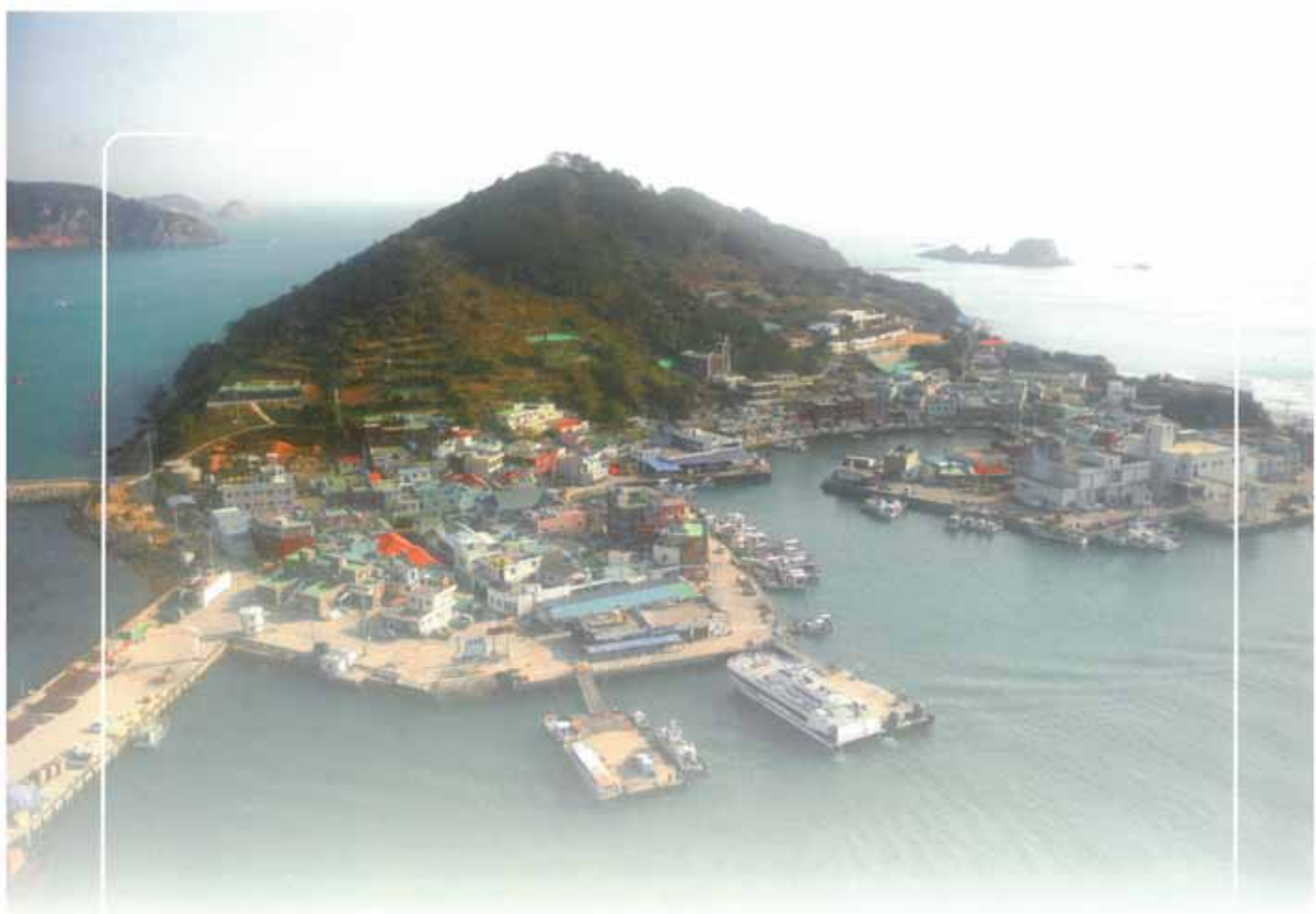
도서명	면적(km <sup>2</sup> )	행정구역	특징
대삼부도	0.788	거문리	거문도 동쪽 5km 지점에 위치한 무인도서 지역, 김 등을 많이 채취한다.
소삼부도	0.127	거문리	거문도와 대삼부도 사이에 있는 무인도서 지역과 김을 많이 생산하는데 검동서, 둥근섬 등의 부속 도서가 있다.
문도	0.023	거문리	거문도 동쪽 약 25km 거리에 있는 섬으로 최고봉은 73m이며 남쪽 해안에는 해식애가 발달하였다.
상백도	0.070	거문리	거문도 동쪽 약 28km 지점에 위치한 약 30여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백도 최고봉은 130m 정도로 1938년 만들어진 등대가 있어 주변 항로를 밝히고 있다. 해식애와 타포니 등 해안 침식 지형이 발달하였으며 근해에서 갈치, 삼치 등의 어로와 미역, 김을 생산한다. 아열대 회귀 동식물의 서식 밀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천연 기념물 흑비둘기 등 30여 종의 조류와 풍란 등 해양 식물 43종 등이 서식하고 있다.
구도	0.027	손죽리	평도 남쪽 약 2km 거리에 있는 무인도서 '갈퀴섬'이라고도 한다.
역만도	0.127	초도리	거문도와 손죽도 사이에 있는 무인도서로서 산지에는 역만도(盈萬島)로 기록되어 있다.
중결도		초도리	손죽도 서쪽 8km 지점에 있는 무인도서로 최고봉은 150m 이고, 상도(庠島), 용도(龍島)와 같이 군도(群島)를 이루며 손죽도와 초도 주민들이 김, 미역 등을 채취한다.
상섬	0.015	초도리	초도에서 2km 떨어져 있으며 멸치 건조장 2동과 우물 1개소가 있으며, 1989년 베트남 난민 78명이 상륙하여 56일을 지냄

### 4) 인구변화

1945년	1955년	1965년	1975년	1985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9년
1,939	1,842	2,032	1,826	1,396	2,919	2,749	2,325	2,653

### 5) 공공기관

민서무소	출장소	교육기관	파출소	우체국	농협지소	한전지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	2	초5, 중2	4	2	1	2	2	3



## 1. 고도(古島)

### 1) 개관

#### (1) 기본현황

(2009년 2월)

세 대	인 구 (명)			면적 km <sup>2</sup>	해안선 km	공 공 기 관	교 육 기 관	교 통	선착장
	계	남	여						
331	748	412	336	0.42	3.75	17	초1	일2회	5

삼산면 면소재지인 거문리에 있는 섬으로 마을 가운데에 희양봉과 남동쪽에 미양봉이 있으며, 정상부는 완경사나 해안으로 내려갈수록 급사면을 이루고 있다.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 화성암인 마산암류(馬山岩類)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섬 인근에는 안노루섬·밖노루섬·오리섬 등이 있다. 1월 평균기온 2℃ 내외, 8월 평균기온 25℃ 내외, 연 강





▲ 고도

수량은 1,361.7 mm이다.

삼호교라는 연도교로 서도와 연결되며 섬 내에는 거문초등학교, 거문도우체국, 면사무소, 여수해양경찰서 거문파출

소, 수협, 농협, 여객선터미널 등과 관광객들을 위한 식당,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교통은 여수항에서 정기여객선이 하루 2회 운항되고 있는데, 2시간 10분 정도 소요된다.

여수에서 손죽도와 초도, 거문도의 동도 또는 서도를 거쳐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고도의 여객선 터미널이며, 이곳에서 유람선을 이용하면 백도를 갈 수 있다.

거문항은 서도·동도·고도 세 개의 섬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천연의 항만으로 1918년에 개항되어 수많은 선박들이 출·입항 할 수 있는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남해의 중요한 어업전진기지였다.

하지만 원거리 어장의 형성과 어선의 대형화 등에 따라 전진 기지의 기능이 약화되고 단순한 대피항으로 변했다.

조선 전기에는 거문도를 고도(孤島) 또는 초도를 포함하여 고초도(孤草島)라 하였는데, 거문도를 고도라고 한 것은 왜인들이 고기잡이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왜 섬이라고 한 것을 왜와 음이 비슷한 '외' 섬으로 해석하고 이를 한자로 표기하면서 외로울 고(孤)자를 써서 고도(孤島)라 하다가 옛(古)자를 써서 고도가 되었다.

1885년 영국군의 거문도 점



▲ 고도 거문도 여객선 터미널

령 사건을 기록한 고종실록 22년 4월 3일(음)자 기사에 거문도라는 이름이 처음 나타나는데 정여창 제독이 거문도를 처음 방문한 것은 비슷한 시기여서 정 제독과 주민들의 필담에서 이름 지어졌다는 설(說)이 설득력이 있다.

## (2) 문화와 관광

### ① 일본인 이주 정착촌



▲ 고도 일본식 건물

1887년 영국군들이 철수하고 나서 고도에 마을을 형성한 것은 일본 사람들로서, 이들은 영국이 거문도를 무단 점거하던 시기 덕촌 유리미 해수욕장 부근에 유곽(遊廓)을 운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1886년 12월 11일자 The Graphic지에 실린 삽화에는 기모노를 입고 계단을 신은 일본인 여성들이 그림이 실려 있다. 그러나 고도가 본격적으로 개발된 것

은 일본인 어부들의 집단 이주를 통해 이루어졌다.

거문도는 을사늑약(1905) 체결을 전후해 일본인들이 들어와 정착을 시작했고, 최초의 일본인은 돗토리현(鳥取縣) 출신의 고야마코오세(小山光正)로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거문도에 들어온 사람은 기무라추타로(木村忠太郎) 일가이다. 이들은 1905년 1월 고향인 탕옥포(湯玉浦) 마을에 큰 화재가 발생해 170호가 전부 불에 타버리는 재난을 당하자 1906년 거문도에 들어왔다.

이어서 부산수산주식회사 오노에이타로(大野榮太郎)등이 이주함으로써 1908년에는 8~9호의 집이 세워졌으며, 거주하는 일본인은 30여 명에 이르렀다.

그 후 경술국치가 이루어지자 풍부한 어족 자원, 천혜의 항구, 통신 시설 등이 갖추어진 거문도에 일본인 이주자가 계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일본인 이주자가 증가함으로써 무인도였던 고도를 거문리라 부르고 서도 장촌마을에 있던 면사무소를 이곳으로 옮겨 행정 중심지로 만들었다. 1907년 거문도 우편수취소를 거문도우편소로 승격시키고, 1910년 8월 5일에는 여수경찰서 관할 아래 거문도순사주재소를 설치함으로써 마을의 규모가 커졌다.

1914년에는 15가구 47명, 1923년 98호 360명, 1942년 87호 347명, 1943년 87호 355명으로 1908년과 34년 후인 1942년의 일본인 수가 10여 배로 증가한 것은 거문도의 상황을 짐작케 한다.

거문리는 영국군인들에 의해서 마을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일본인들에 의하여 본격적인 취락이 형성됨으로써 지금까지도 일본인 정착촌의 흔적이 남아 있다.



(무형문화재)

## 거문도뱃노래



거문도 뱃노래는 고기잡이를 떠났던 거문도 어부들이 만선이 되어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들려주는 어로요이다.

낚소리, 술비소리, 고사소리, 율래소리, 가래소리, 썰소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 거문도 뱃노래는 1972년 전남 무형 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고, 여러 지역 문화제에 참가해 각종 수상을 하기도 했다.

풍어굿은 거문도 주민들 모두가 참여하거나 함께 즐기는 축제이다.

## ② 거문도 풍어제

거문도 수협 위판장 앞에서는 해마다 음력 4월 15일이면 '풍어제'가 열린다.

풍어제는 제관들이 중

심이 되는 새벽의 '고두리 영감제'와 유교식 제례부터 시작된다.

풍어제 하루 전 날 거문리에 모여 함께 밤을 보낸 제관들은 동이를 무렵 고기잡이배를 타고 거문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안노루섬(내장도)으로 향한다. 제관들은 안노루섬 정상에 세워놓은 만선기 앞에 제물을 진설하고 바로 독축에 들어간다.

고두리 영감제를 마친 제관 일행이 거문항으로 돌아올 때 거문도 수협 위판장 한편에 굿청을 마련하여 단장하고 제사상을 준비해 둔다. 풍어제는 제관이 진행하는 유교식 제사 의식을 먼저 치른 뒤 만신이 주관하는 부정굿, 당굿, 용왕굿, 재수굿, 헌식 등을 비롯해서 수중 고혼을 달래주는 용왕제로 이어진다.

헌식까지 끝나면 풍어굿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술비야 소리'와 '거문도 뱃노래'가 이어진다. 술비야 소리는 옛날 거문도 어부들이 울릉도 어장으로 갈 채비를 할 때, 칠푼쿨과 새끼줄을 엮어 큰 밧줄을 만들면서 일의 고달픔을 잊고 작업 능률을 높이기 위해 불렀던 노동요이다.

노래 소리와 동작까지 섬사람들의 강인한 삶의 의지를 잘 나타내는 어로요이다.



▲ 고도 거문도풍어제

### ③ 영국군 묘지

영국군 묘지는 1885년 4월 15일부터 1887년 2월 27일까지 2년 동안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거했을 때 물에 빠지거나 병 또는 총기 사고 등으로 죽은 9명의 수병 무덤이다. 처음에는 고도의 여객선 터미널 동북쪽에 있는 하늘뜰에 있었는데, 1910년 경술국치와 더불어 일본인들이 현재의 자리로 이장하였다. 영국군이 철수한 뒤 거문도를 확인 방문한 경략사 이원회(李元會)



▲ 고도 영국군묘지

의 보고에 의하면, 영국군이 철수하던 당시 9기의 묘가 있었으며, 묘마다 표식이 세워져 있었다.

현재 영국군 묘비는 2기가 남아 있는데, 그 중 하나는 1886년 3월 11일 사고로 사망한 영국해군 군함 Albatross호의 수병이었던 21세의 Willam J. Murry와 17세의 식당 견습병 Chales Dale의 묘비이고 다른 묘지 하나는 1903년 10월 9일 조선 바다를 향해하다 사망한 군함 HMS Albion호 수병 20세의 A.B Alexwood의 묘비다.

### ④ 신사 터



▲ 고도 신사터

1885년 영국의 거문도 무단 점거 이전부터 일본인들이 거문도에 들어와 정착했으며, 러·일 전쟁을 계기로 집단 이주가 시작되었다. 1904년 지도에 의하면, 거문항의 동쪽 능선에 금비라궁(金比羅宮)이 표시되어 있다. 금비라

는 일본인들이 섬기는 어업의 신(漁神)으로 금비라궁은 신사(神祠)를 말한다. 이 신사는 광복 이후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 파괴되어 그 흔적만 있고, 현재는 공원화되어 휴식공간과 헬기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 ⑤ 해저케이블 육양점



▲ 고도 해저케이블 육양점

우리나라의 국제 전신 전화는 1884년 2월 28일 일본에서 부산까지 해저 전선(釜山國設海底電線)을 설치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어 두 번째로 개설된 것은 영국군에 의해서 1885년 5월 거문도와 중국 상하이(上海)를 연결했으나 1887년 2월 27일 영국군이 철수함으로써 폐지되었다.

1904년 1월 일본의 사세보(佐世保)와 거문도, 중국 따렌(大連) 사이에 해저 전선이 부설되었고, 같은 해 9월 사세보~거문도~철원 반도 사이 4,019km의 해저 전선이 소통되었다. 또한 12월 거문도와 제주도를 연결함으로써 거문도는 통신망의 요충지가 되었으며, 1912년 3월 거문도와 고흥 사이에 해저 케이블 1조가 설치되어 거문도는 제주도 및 순천과 3국(局) 1회선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해저 전선에 의한 통신은 광복 이후 폐쇄되어 현재 거문리에 그 흔적만 남아있다.

### ⑥ 안노루섬과 고두리 영감



▲ 고도 안노루섬

고도에서 남쪽으로 약 70m 떨어진 안노루섬 정상에는 큰 바위들이 있어 제단처럼 활용할 수 있다. 옛날 거문도에 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은 일이 일어나자 마을 사람들이 용왕님께 정성스럽게 제사를 올렸더니 갑자기 폭풍우

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다음 날 바닷가에 나가 보니 바위 하나가 물 위를 둥둥 떠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님이 보낸 바위로 믿고, 이 돌을 안노루섬에 제단으로 모시자 다음부터 고등어가 많이 잡혔다.

덕촌마을에서는 이 돌을 '고두리(고등어)영감'이라 부르며 해마다 풍어를 기원하는 제사를 모셨는데, 경비 문제와 거문도 전체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협에서 주관해서 고두리 영감제를 지내고 있다.

### ⑦ 거문도사건의 흔적

영국의 중국 주둔 함대 본부는 거문도에 주둔할 해병 부대의 막사를 짓기 위해 영국 해군 기술진이 설계하고, 홍콩에 있는 미국업자가 만든 조립식 막사를 영국 상선 S.S. Glenagle호 편으로 운송해 1885년 8월 거문도에 도착했다. 이 상선에는 미국인 건축업자가 20여 명의 중국인 목수와 미장이가 함께 왔다. 이들은 거문도 주민이 거주하지 않은 고도에 주둔군 막사 건설 공사를 시작했다. 고도는 거문도 3개 섬 중에서 가장 작은 섬으로, 중앙에 해발 100m의 작은 산이 있고 좌우는 동도와 서도가 가로 놓여있어 영국 군함을 엄호하기 위한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고도에 건설된 영국 해병 부대의 막사는 군사 기지로 1885년 11월에 완성되었으며, 그 시설 규모는 다음과 같다.



▲ 거문도사건 당시 서도리 주민들과 영국군

- 상단부 : 사관용 주방, 사관용 식당, 시체 안치소(창고로 대응)
- 중간부 : 보급 창고, 매점, 해병 본부, 하사관과 사병 식당 및 취사장
- 하단부 : 해병대 포대, 경비병 부대용 막사 2개소, 일본인 세탁부용 막사, 경비실, 전보 통신실

해병 부대를 위한 막사 건설과 군사 기지화 작업은 땅을 다듬어 건물을 세울 수 있는 터를 만들어야 했고, 건축 자재는 물론 생활필수품도 홍콩, 상하이 또는 나가사키에서 보급선 편으로 운송해옴으로써 약 4개월이 걸렸다. 또 해안에는 접안 시설이 없어 간이 접안 시설도 함께 만들어야 했는데, 나중에 영국군이 거문도에서 철수하면서 그들이 거문도에 설치했던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여 홍콩으로 가지고 떠났다. 영국군이 세웠던 막사 자리에는 현재 거문초등학교가 자리잡고 있다.



## 2. 동도(東島)

### 1) 기본현황

(2009년 2월)

세 대	인 구 (명)			면적 km <sup>2</sup>	해안선 km	공 공 기 관	교 육 기 관	교 통	선착장
	계	남	여						
138	286	135	151	3.43	12.5	3	초1	일1회	4

거문도내의 3개 도서 중 동쪽에 있는 섬이라 하여 동도라 부르게 되었다.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 화성암인 마산암류(馬山岩類)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최고봉인 동도의 망향산(246.6m)을 비롯하여 비교적 경사가 급한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해안은 작은 돌출부가 많고 드나들이 심하고 대부분 암석해안이며 동도의 남쪽 해안은 높은 해식애로 이루어져 있다. 기후는 대체로 온



동도 망향산



화하며 비가 많다.

최초로 추씨가 입도하여 정착하였고, 자연마을로는 유촌, 죽촌 마을이 있으며, 고도 여객선터미널에서 동도까지는 순항선이 2007년부터 운항되고 있으며 소요시간은 10분 정도 걸린다.

## 2) 문화관광자원

### ① 거문진 터

거문도를 사방으로 에워싼 산세는 마치 고리 또는 병풍과 같고 그 안의 바닷물은 큰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림이 없으며, 급한 조수가 몰아치지도 않는다. 다만 물이 왕래하는 곳(水口)이 두 군데로 북쪽은 물이 얇고 구불구불하여 작은 배가 겨우 다닐 수 있지만 남쪽은 물이 깊고 넓다. 그 사이에 고도(古島)가 끼어 있으며, 그 밖은 좁고 위험하나 안쪽은 안전하다.

1885년부터까지 3년 동안 영국 함대 수 십 척이 거문도 앞바다에 정박하여 무장하고 경비를 하지 않는 날이 없었으며, 물속에 목책을 세워 이곳을 특별한 구역(別區)으로 만들었다.

조정에서는 임금님의 명으로 참판 엄세영을 보내 영국 사람을 정탐하게 하고, 교섭을 통해 영국군이 완전히 철수하게 했다. 또 경략사 이원희로 하여금 이 섬을 순찰하게 한 후,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진(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이 지방을 경비하게 했다.

이 때 이곳이 홍양현이란 소문을 들었으나 다시 삼도의 이름을 거문도라고 고쳐 부르기 시작했다.

고종 임금은 정해년(1887)에 독립된 진(獨鎭)을 설치함으로써 수군 침철제사 겸 수방장을 두어 변방을 지키게 하고, 청산도에 세웠던 초진(草鎭)을 이곳으로 옮길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시 전라감사가 계속 장계를 올리자 옛 법을 본받아 새로



▲ 동도 거문진터



▲ 동도 죽촌마을

만들되, 남관진(南關鎭)의 옛 사례에 따라 '풍화 거문진'이라 하고, 풍고 청산진(風高 靑山鎭)이라 할 것이요, 군제(節制)와 부대 편성

(隊伍), 관할 구역(句營) 등의 절차는 청산진의 예에 따라 시행하라 했다.

거문진의 구역은 우수영까지로 하고 대오는 종4품의 무관인 파총(把總)에게 맡기되 고금도, 신지도 등의 섬까지 절제하게 하였다. 거문진의 건물이 세워진 방향(坐向)은 동북방에서 서남향이며, 규모는 동쪽 10리, 남쪽에서 북쪽 10리까지 포함되었다.

고초도는 수로로 110리, 평일도, 생일도까지는 320리이며, 그곳에서 순영까지는 육로 500리, 우수영은 육로 170리, 병영까지의 거리는 육로로 140리, 서울까지는 육로로 1,000리가 된다.

당시 거문진에 속했던 마을은 거문도 동면(동도)의 유촌과 죽촌, 서면(서도)의 장촌과 덕촌, 초도의 진악동(진막), 이성금(의성), 대풍동(대동), 생일도(완도군 금일면 생일도)의 용촌리, 금곡리, 선창리, 유포리와 평일도(완도군 금일면 평일도)의 월송정, 감목리, 화전리, 구도청, 동백정, 척지리, 신도정, 소랑리, 내다리, 육소랑 등이었다. 한편 당시

의 호구(戶口)는 거문도 390호, 초도는 150호였었다.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동학농민운동이 실패로 끝나자 일본의 간섭에 의한 갑오개혁이 추진되면서 육군의 수는 크게 줄이고 수군을 완전히 폐지시켜 버렸다.



▲ 동도 유촌마을 돌담



▲ 동도 죽촌마을 해안

이에 따라 조선 수군의 주진(主鎭)으로 남해안 뿐만 아니라 조선을 지켜왔던 전라좌수영, 그 산하의 방담진과 거문진도 고종 23년(1895) 7월 15일 폐진되었다.

그 후 거문진에 세워졌던 건물은 해체되어 서도 장촌 마을의 사립 낙영학교를 세울 때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주춧돌만 몇 개 남아 있는 실정이다.

## ② 곶은당

동도 유촌마을에는 곶은 선생을 기리는 '곶은당'이 있다. 곶은 선생은 이곳에서 보는 가을 경치를 '곶정추월(橋亭秋月)'로 표현했는데, '삼호 팔경' 가운데 첫 번째이다.

곶은(橋隱) 김류(金澗, 1814~1884) 선생은 삼산면 유촌리에서 태난 유학자로서 그는 어려서 산성 김만형(山成 金萬衡) 선생의 문하에서 유학을 배웠으며, 30세에 과거를 보러 거문도를 떠났다.



▲ 동도 곶은당

하지만, 당시 삼정의 문란과 벼슬을 사고파는 매관매직이 극심한 것을 보고 벼슬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 서울로 가다가 과거를 포기한 김류는 장성의 큰 유학자 노사 기정진(蘆沙 奇正鎭) 선생이 학문의 근본을 중시하며 인재를 양성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문하생이 되었다.

학문의 깊이가 더해지고, 다양한 경험을 한 선생은 고향 유촌 마을로 돌아와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민들을 교화시켰다. 나이 50세에 '낙영재'라는 학교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학문을 펼치자 삼산면뿐 아니라 멀리 고흥과 완도 청산도에서도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이때부터 선생은 시인이나 문장가라기보다는 섬사람들의 학문을 일으키는 유학자로서 당시 호남 지역 유림들로부터 높은 존경을 받았다. 이는 흥양 현감이나, 남해안을 순회하던 암행어사 그리고 인근 고을 관리들이 선생께 문안을 여쭙는 글과 편지와 선물 목록 등의 유품을 통해 알 수 있다.



▲ 동도 굴은선생 碑

선생께서 서구 열강들이 무력으로 개방을 촉구하는 외교 책략과 통상을 요구한 문서와 조약 내용 등 다양한 자료를 입수하여 국제적 감각을 익혔다.

또한 노사 선생의 문하에서 배운 북학사상과 선생을 찾아온 외국인에게서 필담으로 얻은 세계정세의 흐름 및 외국 문물을 접목시켜 독자적 실학사상을 후학들에게 가르쳤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추진하더라도 나라의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음을 알리는 실사구시와 이용

후생의 실학을 펼쳤다.

한편, 아시아에 식민지를 개척하고자 우리나라 근해에 서양 선박이 자주 나타났던 시기인 1854년 4월, 러시아 푸차친(putiatin) 제독이 이끄는 러시아 함대가 거문도에 들어와 활동했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다.

그 이후의 여러 사건들을 『해상기문(海上奇聞)』에 남김으로써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영국 함대가 거문도를 무단 점거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거문도에 오게 된 청나라 수군 제독 정여창이 선생의 제자들과 필담을 나눌 때, 이 섬의 뛰어난 학문에 놀랐다고 전해지고 있다.

유물로는 현감존문장(縣監存門狀), 순영존문장(巡營存門狀), 영조기증선(英祖寄贈扇), 친필주서(親筆珠書), 해상기문(海上奇聞), 굴은제집(楡隱諸集) 등이 전해지고 있다.

굴은당은 유촌리에서 출생해 그곳에 낙영재를 세우고 후학 양성에 힘쓴 큰 유학자 굴은 선생의 학식과 덕망을 기리기 위해 그의 제자인 박규석 등이 1904년에 세운 사당으로 거문초등학교 동도분교장 뒤쪽 언덕에 자리하고 있다. 굴은당은 대지 100여 평에 건평 4평의 사주정자형(四柱亭子形) 기와집이며, 낮은 담장이 둘러싸여 주변 경관이 매우 초라하다.

굴은당이라는 현판은 노사 기정진의 후손인 기우몽(寄宇蒙)이 썼고, 당기(堂記)는 1904년 일본으로 사신으로 가다 풍랑을 만나 잠시 거문

도에 머문 완산 이지용이 썼다. 한편 같은 마을 유촌리에는 선생의 제자인 박규석의 강학소인 낙영재(樂英齋)가 있다.

### ③ 일본군 군사시설

유촌마을과 죽촌마을의 중간쯤 바닷가에는 만들어져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일본 군함과 수상 비행기가 정박할 수 있었던 시설이었다. 또한, 바닷가는 10~15m 깊이의 굴이 여러 개 있는데, 이는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이 창고, 대피소, 포대로 이용하기 위해 만들었다.

일본의 군사 시설은 망치산 정상에 쌓아진 망루대 흔적과 취골에서 고도 쪽으로 방파제를 만들어 거문도 내항을 전략 요충지화 하려 했지만 전쟁에 패배함으로써 중단되었다.



▲ 동도 일본군 군사시설

## [전설]

### 오돌이 영감 전설



▲ 동도 죽촌마을

죽촌마을은 대나무가 많아 '대추' 또는 '죽전(竹田)' 등으로 불려왔던 곳으로 굴은 선생은 죽촌마을에서 맞은 밤비를 '죽림야우(竹林夜雨)'로 표현하고 있다.

죽촌마을에는 왜구를 토벌했다는 '오돌이 영감'에 관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왜구들의 노략질로 마을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키가 아주 작은(五尺短軀) 청년 한 명이 마을 앞 바닷가에 표류해 왔다. 마을 사람들이 극진히 간호함으로써 그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 이름이 '오돌'이라 했다.

키가 작았지만 힘이 대단해 왜구들이 쳐들어오자 오돌이는 맨손으로 싸워 그들을 물리쳤으며, 왜구들이 빼앗은 물건을 되찾아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또한 죽촌 마을을 흐르는 실개천의 돌다리도 오돌이 영감이 혼자서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 3. 서도(西島)

#### 1) 개관

(2009년 2월)

세 대	인 구 (명)			면적 km <sup>2</sup>	해안선 km	공 공 기 관	교 육 기 관	교 통	선착장
	계	남	여						
358	750	387	363	7.77	26.9	3	초3, 중1	일1회	5

동도(東島)·고도(古島)와 함께 거문도를 이루고 있는 거문도 최대의 섬으로 동경 127° 18', 북위 34° 01'에 위치하며 주산업은 어업과 농업이다. 지질은 마산암류, 약간의 중성화산암류·중성 및 염기성 심성암류로 형성되어 있다. 음달산(陰達山, 237m)·수월산(水越山, 128m) 등 기복이 큰 산지로 되어 있다. 대부분의 해안은 암석해안으로 남쪽 해안과 서쪽 해안의 일부에는 높은 해식애(海蝕崖)가 발달하였다. 거문도의 내해(內海)인 도내해(島內海)는 수심이 깊고 파도가 잔잔하여



거문도 등대

천연의 양항(良港)을 이룬다.

다도해 및 제주해협 항로의 길목에 있으므로 남단과 북단에 등대가 있다. 성어기(盛漁期)에는 파시(波市)가 섰는데, 현재의 촌락들은 대개 파시에서 유래되어 발달한 것들이다.

취락은 섬 북쪽의 서도리와 남쪽의 덕촌리에 집중 분포하며, 거문도 내의 3개 도서 중 서쪽의 섬이라 하여 서도라 부르게 되었다.



▲ 신축된 거문도 등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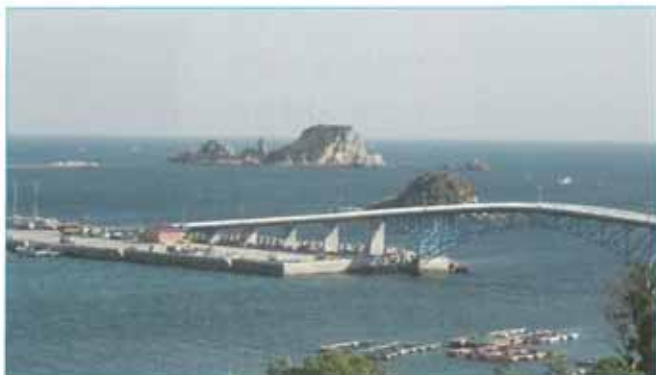
## 2) 문화 관광 자원

### ① 삼호교

1992년 12월, 고도의 거문리와 서도 덕촌리를 연결하는 연도교인 삼호교가 개통되었다. 폭은 5m, 길이는 250m의 이 다리는 거문도 사람들이 오랫동안 원했던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덕촌의 유리미 해수욕장과 거문도 등대를 비롯해 장촌의 이끼미 해수욕장과 녹새이 등대까지 걸어서 갈 수 있다. 현재는 서도와 동도를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할 계획이다.

### ② 의병장 임병찬비

임병찬(1851~1916)의 자(字)는 중옥(中玉), 호는 돈현(豚軒)이며, 전라북도 옥구현(沃溝縣) 대사리(大寺里)에서 태어났다. 16세 때 전주에서 치러진 과거(鄉試)에서 장원함으로써 1889년(고종 26)



▲ 서도 삼호교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와 낙안군수(樂安郡守) 겸 순천진(順天鎭) 절제사로 있었다.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후학 교육에 힘쓰던 가운데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다. 조정에서는 무남영우령관(武南營右領官)이라는 벼슬을 내렸지만 벼슬길에 나서지 않았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스승인 최익현(崔益鉉)을 찾아가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 의병장 임병찬 비

태인(泰仁)·정읍(井邑)·순창(淳昌)·곡성(谷城) 등에서 모집한 의병 200여 명을 이끌고 담양(潭陽)으로 가던 중 순창에서 일본군과 싸웠으나 패배했다. 1909년 6월 최익현과 함께 쓰시마에 감금되었으나 최익현은 단식으로 저항하다 자결하고, 임병찬은 2년 뒤에 돌아왔다. 1910년 경술국치 직전에 왕명에 의해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가 되어 독립의군부 전라순무대장으로 항일 구국 투쟁을 전개하다 1914년 6월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임병찬은 거문도에 유배되었으나 스승 최익현과 같은 단식 투쟁을 벌이다 1916년 5월 23일 숨졌다. 1962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단장(單章)을 받았다.

### ③ 유림(유리미) 해수욕장

고도에서 삼호교를 건너 거문도 등대로 가는 길에 있는 해수욕장으로 고운 모래와 민물도 풍부하다. 거문도 사람들이 물(모자반)·미역 등을 채취할 때 사용했던 교통수단인 '떼배통'을 복원하여 해수욕장에 띄워놓아 이



▲ 유림해수욕장



곳에서 낚시를 즐길 수도 있으며,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조내 이(후릿그물)'를 할 수도 있다.

여수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따르면, 유리미 해수욕장은 집단 시설 지구로 체재형 관광 휴양지에 맞는 호텔과 별장형 콘도미니엄 등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한, 영국군에 의한 국내 최초의 테니스 발상지로서 기념 광장과 테니스장 설치, 유럽 관광객을 겨냥한 헤밀턴 광장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 ④ 선바위(立巖)



▲ 서도 선바위

유리미 해수욕장에서 거문도 등대를 가기 위해서는 아주 좁은 목을 지나야 하는데, 이곳을 '무녕이'라고 한다. 파도가 거셀 경우, 바다 바깥쪽에서 치는 파도가 이곳을 넘기도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 남쪽 바다에는 30m 이상의 높은

바위가 솟아 이를 '선바위(入巖)'라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남자의 성기에 비유해 이름을 말하기도 한다.

굵은 선생은 이 바위를 '노인암'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의미와 시까지 남기고 있다.

바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밑 부분은 한 다리를 오므리고 다른 쪽 다리를 그 위에 올려 앉은 것처럼 보이고, 등 부분은 몸을 꾸부린 모양이며, 머리는 높이 솟으면서도 둥글어 대머리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 바위는 노인의 모습과 비슷해 '노인바위(老人巖)'이라고 이름을 짓고 시를 한 수를 남긴다.

남극의 노인성(壽星)이 하늘에서 내려왔는지  
외로운 바위의 괴이한 모습은 노인과 같구려.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나이 천년은 아니고 억만년쯤 되리라.

南極先天降壽星  
孤巖偃蹇老人形  
不知太一幾回算  
演紀千空復億齡

### ⑤ 수월산

해발 128m로 북쪽 능선은 비교적 완만하지만 서남쪽과 동쪽 능선은 급경사이거나 절벽을 이루고 있다. 해안은 파도에 의한 침식 작용으로 파식대와 해식애가 발달해 있으며, 서쪽의 선바위(立石) 일대는 경관이 아주 뛰어나다.

수월산의 식생은 동백나무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상록교목인 구실잣밤나무, 생달나무, 후박나무, 참식나무, 까마귀쪽나무, 박달목서 등과 상록소교목인 감탕나무, 자금우 등이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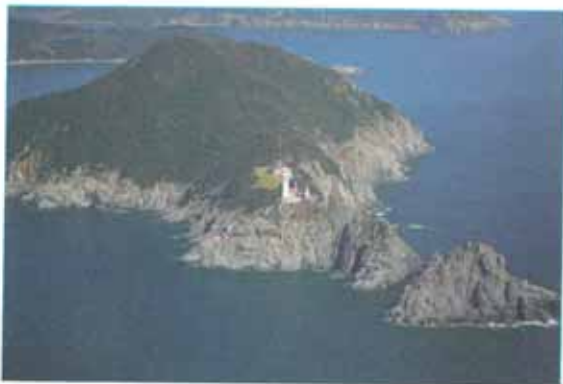
상록관목으로는 돈나무, 다정큼나무, 사스레피나무, 우묵사스레피나무, 광나무 등이 있고, 상록만경식물인 멀꿀, 큰보리장나무, 송악 등과 상록침엽수인 곰솔들이 분포하여 상록수가 우세한 식생을 이루고 있다. 낙엽소교목인 꾸지뽕나무와 낙엽관목인 천선과나무, 실거리나무, 초피나무, 두릅나무, 가막살나무 등이 상록수와 혼효림을 이루고 있다.

## ⑥ 거문도 등대

1905년 남해안에서 최초로 불을 밝힌 등대로서 100년 이상 남해안의 뱃길을 밝혀왔다. 옛 등탑의 높이는 6.4m이며, 흰색으로 원통형으로 벽돌과 돌 및 콘크리트가 혼합된 구조물이었다. 2006년 8월 완료된 거문도 등대 종합 정비 공사 때 높이 33m의 백색 육각형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새롭게 지었으며, 내부는 나선형 계단으로 만들었다.

1905년 4월 10일, 처음 뱃길을 밝힌 거문도 등대는 흰색과 붉은색 빛을 교대로 15초마다 1번씩 비쳤으며, 1929년 3월 23일 55,000축광의 찬스식 백열등으로 개조했다. 1934년 4월 6일, 등질을 섬백광으로 바꾸어 강섬광 91,000축광, 약섬광 55,000축광의 빛을 발하였으며,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동시에 등대 업무를 중지하였다. 1947년 2월 1일 석유 백열등으로 등대 업무를 다시 시작했고, 1951년 4월 8일 섬백광을 매 15초마다 1섬광씩 빛을 발했다.

새롭게 만들어진 거문도 등대의 광과 표지 기종은 3등대형(120V-1000W)으로 등질은 섬백광이며, 15초에 1섬광(FLW15s)씩 빛을 발한다. 등대에 접근하는 배에서 등대빛을 감지하기 시작하는 거리인 광달거리(光達距離)는 지리적으로 24마일(44km), 광학적 38마일(70km),



▲ 거문도 등대 주변



▲ 거문도 등대 (구 등대)

명목적 23마일(42km)에 달한다. 음파 표지는 공기 압축기 즉, 에어싸이렌으로 취명 주기는 매 50초에 1회 취명(취명 5초, 정명 45초)하며, 음달



▲ 거문도 등대 가는 길

거리는 6마일(11km)이다.

새로 만든 등탑에는 거문도와 백도의 전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최상층부에는 기존 등탑에서 설치되어 있었던 회전식 3등 대형 등명기를 옮겨 설치함으로써 선박의 안전한 항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옛날의 등탑은 남해안 최초의 등대로서 보존 가치가 매우 높아 등탑 외벽과 회전 장치를 보수하였으며, 회전식 등명기인 DCB-36을 설치해 보존하고 있다.

등대 절벽 끝에는 관광객들이 바다 경치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관백정이 설치되어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숙소 개방 등대로 선정되었다. 식기류, 조리 기구, 싱크대, 침구류 등을 구비하여 등대를 체험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거문도 등대에서는 멀리 백도가 보이는데, 옛날 거문도 사람들이 백도 부근에서 고기잡이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삼호팔경'에서는 '백도 귀범(白島歸帆)'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⑦ 보루봉



▲ 서도 보루봉

1894년 동학농민운동 때 일본군 1개 소대가 서도 보루봉(堡壘峯)에 감시 초소를 설치하고 주둔했다가 동학농민운동이 끝나자 철수하였다. 이후 1904년 러·일 전쟁 때 일본 해군의 진해(鎭海) 전초 기지로서 이곳에 해저 전신, 무선 전신소를 설치하고 주둔했다가 전쟁이 끝나자 철수하였다.

1907년 군대 해산령이 발표되자 대한 제국 특위군(特衛軍)은 일본군과 각지에서 충돌했고, 이때 거문도와

초도에 진입한다는 정보에 따라 5월 허미(許美) 소위가 이끄는 1개 소대가 거문리 큰 샘터에 있던 일본인 소학교에 주둔하였다가 12월 철수하였다.

### ⑧ 신선바위

기와집 몰랑과 전수월산, 즉 보로봉의 중간 정도에는 남서쪽 해안에 깎아 세운 듯한 50m 높이의 바위가 있고, 정상에는 5~6평 정도의 평평한 바위에 커다란 바둑판 모양이 새겨 있다. 이 바위를 '신선바위'라고 하는데, 주변 경관이 너무 수려해 신령님이 더 좋아해 매일같이 내려와 바둑을 두고 풍류를 즐긴다고 전해진다.



▲ 신선바위

### ⑨ 기와집 몰랑

유리미 해수욕장 뒤쪽 산의 생김새를 남쪽 바다에서 보면 마치 기와집 지붕처럼 보이기 때문에 '기와집 몰랑'이라고 부른다. 유리미 해수욕장에서 수월산의 무녕이목까지 연결되는 기와집 몰랑을 중심으로 한 등산로가 있으며, 바위가 기와가 없어진 것처럼 층을 이루고 있다. 굵은 선생은 '신선바위'와 '기와집 몰랑'이 안개에 쌓여 신비롭게 보이는 모습을 '석름귀운(石礫鬼雲)'으로 묘사했다.



⑩ 장촌 유물관과 거문도벚노래



▲ 서도 장촌유물전시관

▲ 서도 거문도벚노래전수관

과거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책자, 유물과 유품, 교지 등을 마을 회관에 보관해오다 새로이 전시하고 있는 곳이 장촌 유물관이다.

거문도 사람들은 동력선이 들어오기 전까지 돛단배를 이용해서 고기잡이를 했으며, 멀리는 동

해의 울릉도와 황해의 장산곶까지 다녔지만, 대부분의 어업은 서도·동도·고도로 둘러싸여 잔잔한 내해에서 이루어졌다.

거문도에서 주로 젓갈용 멸치잡이를 목적으로 하는 작은 배를 '챗배' 또는 '자자배'라고 하며, 보통 10여 명이 배에 타는데, 큰 배의 경우 노 젓는 사람이 4명이다. 멸치를 잡는 방법은 소나무의 송진이 있는 가지에 불을 붙인 뒤 빛을 좋아 하는 멸치를 유도하여 그물로 뜨는 것이다.

챗배는 주로 거문도 내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며, 먼저 먼 바다까지



▲ 거문도벚노래 - 숯비소리

노를 저어간 뒤 솔갱이에 불을 붙여 멸치를 모은다. 멸치가 모이면 흩어지지 않도록 불을 이용해 갯가로 유도한 뒤 갑자기 배를 돌려서 멸치와 배의 위치를 바꿈으로써 멸치를 갯가 구석으로 몰아넣는다.

“멜(멸치)이야”라는 소리와 함께 갯대를 눌러 그물의 입구를 벌리고, 숯불을 순간적으로 그물 안쪽으로 넣어서 멸치를 그 안에 들어가도록 한다. 이때 그물의 크기에 비



▲ 거문도벚노래 - 술비소리

해 멸치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불을 관리하는 불사공은 순발력이 있어야 한다. 멸치가 너무 많이 잡히면 그

물이 찢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켓배를 이용해 멸치를 잡는 시기는 음력 5월, 6월에 집중되는데, 이때 밤마다 멸치를 잡기 위해 수십 척의 배가 호수와 같은 바다 가운데서 불을 밝힌 채 작업하는 광경은 육지에서 보면 장관을 이루고 있어 이 광경을 삼호 팔경에는 '홍국어화(紅國魚火)'라고 묘사하고 있다.

### ⑪ 서산사와 만회 김양록



▲ 서도 서산사

서산사는 높은 학문으로 후학을 양성하고 효행이 지극했던 만회 김양록 선생을 중심으로 그의 아들 김지옥, 인동부사 김정

태, 거문도사립낙영학교를 세운 김상순 등 이 고장 선도자들의 공덕을 기리고자 1985년 11월 30일 당시 여천군청과 삼산면 향토문화추진위원회, 주민, 문중 등 각계의 성금으로 세운 사당으로 매년 승모제를 치르고 있다.

### ■ 술비 소리

거문도의 전남무형문화재 제1호 '술비소리'는 울릉도를 오가며 배질(항해)하면서 부르던 노래.

"간다간다 나는 간다, 에이야 술비야,(후렴 : 에이야 술비야) 울릉도로 나는 간다(후렴), 고향산천 잘 있거라(후렴), 부모형제 잘 계시오(후렴), 인제가면 언제 오나(후렴), 오도록 만 기다리소(후렴)… 울릉도를 가서 보면(후렴), 좋은 나무 탐진 미역(후렴), 구석구석에 가득찼네(후렴), 울고 간다 울릉도야(후렴), 어기영차 배질이야(후렴), 알고 간다 아릿역아(후렴), 이물에 이사공아(후렴), 고물에 고사공아(후렴), 허리띠 밑에 하장이야(후렴), 돛을 달고 닻 감아라(후렴), 어기영차 배질이야(후렴), 술렁술렁 배질이야(후렴), 진태중이 떠나간다(후렴), 술렁술렁 배질이야(후렴), 이돈 벌어 뒤향거나(후렴), 늙은 부모 봉양하고(후렴), 어진자식 길러내서(후렴), 먹고 쓰고 남은 돈은(후렴), 부귀영화로 살아보세(후렴)…"

1900년에 세워졌다는 사우를 근거로 1985년에 새로이 세운 서산사는 목조 건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이며, 이 건물의 주춧돌 일부는 유촌 마을의 옛 거문진 객사 터의 주춧돌을 사용했다고 한다.

사당의 왼쪽에 4평의 비각이 있고, 여기에 '학생김공지옥홀궁불망비(學生金公祉玉恤窮不忘碑)'와 '인동부사김정태홀궁불망비(仁同府使金鼎泰恤窮不忘碑)'를 옮겨놓았다. 정문은 3칸의 솟을 대문 형태로 쌍여당이문 위에 경양문(景仰門)이란 현판을 걸었다. 김양록 선생의 친필 유묵과 청나라 정여창의 유필도 전해지고 있다.

서산사 인근에는 초대 울릉도 도감을 지냈던 거문도 출신의 오성일 도감 묘가 있어 울릉도와 거문도와의 관계가 밀접했음을 알 수 있다.

## ⑫ 이금포(이끼미) 해수욕장

여름철에는 대부분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남쪽을 바라보는 해수욕장은 파도의 영향을 받아 바다 속 모래가 일어나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끼미 해수욕장은 서도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여름철 깨끗한 바다를 유지하고 있다.





## ⑬ 낙영학교



▲ 서도낙영학교 100주년 기념비

낙영학교(樂英學校)는 삼산면 서도리 출신이었던 김상순(金相淳)이 세운 것이다. 김상순은 1899년 일본 메이지(明治) 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1903년 육군 교관과 1905년 전주와 해주의 경무관 등을 지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교육밖에 없음을 알고, 고향으로 돌아와 1905년 11월 16일 자신의 땅에 건물 41평, 운동장 342평의 사립 낙영학교를 세웠다.

낙영학교는 광주 송정리, 목포에 이어 전남 지방에서 세 번째, 여수 지역 최초의 근대 교육 기관으로서 1912년 6월 20일 사립 거문보통학교로 이름을 바꾸었고, 1920년 공립학교로 전환되었다. 1938년 4월 1일 서도공립심상소학교를 거쳐 1941년 4월 1일 서도국민학교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학생수 감소로 1999년 3월 1일 거문초등학교 서도분교장이 되었다.

## ⑭ 녹산(녹새이) 등대

1958년 1월 뱃길을 밝히기 시작한 녹새이 등대는 북위  $34^{\circ}03'6''$ , 동경  $127^{\circ}17'7''$ 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달거리가 5km인 무인 등대이다. 서도장촌 마을에서 등대까지 가는 산책로가 아름답다.



▲ 녹산등대

⑤ 용연(용물통)



▲ 용물통

음달산에서 용네이 끝으로 가면 암반에 형성된 둘레 80m 정도의 물이 고인 웅덩이가 있다. 이 연못을 '용물통'이라고 하는데,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이 있으며, 이곳에서 실타래를 풀면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실제 이곳에서는 제주도 한라산이 보이는 곳이다.

'삼호팔경(三湖八景)' 가운데 '용만낙조(龍巒落照)'는 이곳에서 바라보는 석양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으로 노을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전설]

신지끼(기) 전설

거문도 사람들에게는 '신지끼'라는 인어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사람들이 삼치 낚시를 위해 새벽 2~3시 무렵 네 사람이 힘을 합쳐 노를 저으며 녹새이 쪽으로 갈 때 같은 곳에서 하얀 물체가 보였다.

조금 먼 곳에서 보면 물개처럼 보이지만 가까운 곳에서는 젓가슴 등이 뚜렷한 여성이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고 있는 모습이었다. 하체는 고기 모양이었지만 상체는 사람

모양을 한 인어로, 달빛 아래 비치는 그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또한, 여성들이 녹새이 주변에서 무래질(해녀)할 때 신지끼가 따라오기도 했는데, 놀라서 물으로 도망쳐 나오면 그 모습은 온데 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 신지끼는 특히 흐린 날 자주 나타났으며, 신지끼가 나타난 날은 큰 바람이 불거나 물결이 세차게 일어 고기잡이나 무래질을 하기가 어려웠다. 때문에 신지끼가 보이면 아예 바다에 나가지 않고, 농작물이나 집안 일을 돌보았다.

바다에서 생업을 유지할 수단을 찾아야 하는 거문도 사람들에게 신지끼는 두려움과 동시에 바다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 4. 백도

거문도 동쪽 약 28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해 황금 어장의 중심 지역으로 천연기념물 제15호인 흑비둘기를 비롯하여, 팔색조·가마우지·휘파람새 등 30여 종의 희귀 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또한, 풍란·석곡·쇠뜨기·땅채송화·눈향나무·후박나무·동백나무 등 아열대 식물들이 즐비하며, 353종의 식물 분포와 연 평균 수온이 16.3℃로 큰붉은산호·꽃산호·해면 등 170여 종의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그야말로 생태계의 보고라 할 수 있다.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루고 있어 백도를 찾는 관광객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백도라는 이름은 온통 하얗게 보인다고 해서 붙여졌다는 설과, 섬의 수가 100개에서 하나가 모자란 99개이기 때문에 '일백 백(百) 자에서 '하나 일(-)' 자를 빼 '백도(白島)'로 했다는 두 가지 설이 있지만 실제로는 39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무인군도이다.

약 6,000만년 전에 일어난 지각 운동에 의해 다양한 암석으로 뼈대를 갖춘 백도는 오랜 기간에 걸쳐 침강과 융기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

르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단층(斷層)과 바람(風化), 파도(海蝕)에 의해 깎이고, 바위에 틈(節理)이 생겨 약한 부분은 떨어져 나갔으며, 화학 작용이 더해졌다.

이런 과정을 거쳐 형성된 백도는 그 모습이 다양하고 기묘묘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 1979년 국가에서 지정문화재 명승 제7호로 지정했으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여기에 오래 전에 보았던 사람들이 바위의 모습에 걸맞은 이름을 짓고, 또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 낸 전설이 더해짐으로써 보는 자체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듣는 즐거움과 풍부한 상상력까지 키워 주고 있다.

또한, 바닷물이 많이 빠지면 바다 속에 있던 섬이 드러나 백 개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일백 백(百)' 자를 써서 백도(百島)라고 했는데, 다시 섬을 헤아려 본 결과 일백 개에서 섬 하나가 모자라 한 개(-)를 빼고 보니 '흰 백(白)' 자가 되어 白島라 부르게 되었다고도 한다.

백도는 여름 관광지의 대표적인 명소로 원추리, 나리, 찰레 등 20여 종의 야생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섬을 아름답게 뒤덮고 있다.

최고봉은 130m 정도로 1938년 만들어진 등대가 있어 주변 항로를 밝히고 있다.

해식애와 타포니 등 해안 침식 지형이 발달하였으며, 하백도에는 신선들이 다녀갔다는 신선바위와 신하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도끼를 가지고 왔다는 도끼여 등의 많은 기암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 백도 전설



태초에 옥황상제의 아들이 아버지의 노여움을 받아 인간 세상으로 귀양을 왔다. 귀양 온 상제의 아들은 용왕의 딸을 만나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이들은 바다에서 풍류를 즐기며 세월을 보냈다.

시간이 흐른 후, 옥황상제는 아들이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쳤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몹시 보고 싶어져 신하를 한 명씩 인간 세상에 내려 보내 아들을 데리고 오도록 했다.

100명의 신하를 내려 보냈으나 그들마저 용왕의 시녀들과 사랑에 빠져 돌아 오지 않았다. 화가 난 옥황상제는 아들과 신하 모두를 돌로 변하게 했는데, 그것이 크고 작은 섬인 백도가 되었다고 한다.





## 5. 초도(草島)

### 1) 개관

(2009년 2월)

세 대	인 구 (명)			면적 km <sup>2</sup>	해안선 km	공 공 기 관	교 육 기 관	교 통	선착장
	계	남	여						
204	478	249	229	7.72	22.6	2	초1, 중1	일2회	9

삼산면 초도리에 속한 섬으로 고흥반도 남단에서 남쪽으로 약 22.5km 지점에 있다. 초도를 비롯하여 용섬·중결도·안목섬·박목섬·둥굴섬·진대섬·술대섬·취섬·솔거섬 등과 함께 초도군도를 형성한다.

예로부터 풀과 바닷새가 많다 하여 조도(鳥島)라고도 한다. 최고봉인 상산봉(上山峰, 339m)을 중심으로 섬 전체가 대부분 산지를 이루며, 평지는 일부 해안가와 산지 사이에 소규모로 분포한다.

주민은 대부분 농업과 어업을 겸한다.



## 삼산면 초도리

연근해에서는 문어·낙지·삼치·새우·도미 등이 잡히며, 김·미역·톳 등의 양식이 활발하다. 취락은 주로 산기저부의 평지와 만 안에 집중 분포한다.

자연마을로 대동리의 대동·예미·녹항마을, 의성리의 의성·경춘마을, 진막리의 진막·정강마을이 있다.

초도는 높은 산이 있어 물의 양도 풍부하고 수질도 좋아 거문도를 비롯한 다른 섬 주민들이 부러워한다.

삼산면에서 초도만이 유일하게 벼농사가 가능했고, 특히 진막마을에서는 계곡으로 흘러나오는 물을 막아 1976년 6월에 수력발전을 하



▲ 초도 정강해수욕장

여 전깃불을 밝혔다. 해안선을 따라 도로가 나 있으며,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 화성암인 중성화 산암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고봉인 상산봉을 중심으로 섬 전체가 대부분 산지를 이루며, 평지는 일부 해안가와 산지 사이에 소규모로 분포한다.

### 3) 문화관광자원

#### ① 초도 뱃노래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인 초도는 전통적 생계 수단으로 약간의 농업과 바다를 이용한 고기잡이로 이을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전설과 노래 등이 나타났는데, 초도 사람들이 부르던 뱃노래가 대표적이다.

먼 바다로 이동할 때, 물살이나 바람이 강해 물살을 헤쳐 나가기가 어려울 때는 세사람이 하나씩의 노를 저으면서 힘을 합쳐 나가는데, 서로 호흡이 맞아야 효율적이기 때문에 노래로써 조정한 것이며, 현대 음악으로 본다면 3부 합창 정도의 돌림 노래이다. 거문도 뱃노래는 주



▲ 초도 앞 중결도

로 서도·동도·고도로 둘러싸인 잔잔한 바다 위에서 고기잡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도의 뱃노래와는 그 맛이 다르다.



- 초도 뱃노래 -

어양 (어양) 어양 (어양)  
 이어디야 자 (아이) 이어디야 자 (아이)  
 남극 끝은 가직어가고 진절도(중결도)는 멀어진다  
 이어디야 자 (잘도 간다)

웃나 배는 잘도 간다,  
 앞산은 가직어가고 뒷산은 멀어진다.  
 이어디야 자 (잘도 간다)  
 (이어디야, 이야디야)

[유래]

### 초도 지명 유래

350여년 전 염씨가 처음  
 입도하여 구미리(仇味里)  
 라 불려 오다가 그후 풀이  
 많은 섬이라 하여 초도라  
 부르게 되었다.

조선시대 『세종실록』  
 (1414)과 『대동여지도』  
 (1861)에도 홍양군(현 고흥  
 군)에 속한 초도로 기록되  
 어 있다. 한 때는 '째섬'이  
 라고 하기도 했는데, '째'  
 란 억새와 같이 풀을 이르  
 는 순 우리말로 이를 한자  
 화 하면서 한 때는 새 鳥를  
 써서 조도라고 한 기록도  
 보인다.



▲ 초도 앞 섬들

### ② 모자바위(수리망대) 전설

예미마을 북쪽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모자(母子)바위' 또는 '수리망대'로 불리는 바위가 있다.

옛날 고기잡이를 나갔던 아버지가 왜구들에게 잡혀서 끌려간 뒤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와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리다 지쳐 죽으면서 돌로 변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곳이다.

또한, 임진왜란 때 이곳에 커다란 독수리가 살았는데, 왜군이 물려오면 이 독수리가 먼저 알아차리고 크게 울부짖으며 공중을 빙빙 돌았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이 독수리를 보고 미리 대비함으로써 왜군과의 싸움에서 항상 이길 수 있었다.

이후 이 바위를 '수리망대'라 불렀는데, 아버지를 왜구에게 뺏긴 아들의 영혼이 독수리가 되어 이 바위에 앉아 망을 보며 원수를 갚은 것이라고 전해진다. 하지만 지난 2000년 초 지진의 영향으로 모자상이 사라져 버려 안타깝게도 지금은 바위의 원형을 볼 수 없게 되었다.



▲ 모자바위(수리망대)

### ③ 염씨가 지켜준 풍년 전설



▲ 대동마을 선착장

대동 마을에 쌀과 옥수수 등 오곡이 무르익어 대풍년이라고 믿고 있을 때, 갑자기 벌레 떼가 몰려들어 곡식은 물론 산에 있는 나무까지 남지 않을 지경이 되었다. 놀란 마을 사람들은 염씨 제당에 올라가 제사를 올리며, 벌레 떼를 물리쳐 줄 것을 간곡히

기원했다.

그날 밤 햇불을 든 귀신들이 산과 들을 돌아다니며 어지럽게 활동을 하자 갑자기 우박이 쏟아졌다. 아침에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벌레 떼들이 모두 죽은 채 바닷가로 씻겨 내려와 있었고, 이 마을은 풍년을 맞았다고 전해진다.

#### ④ 호랑돌팡(호랑이 바위) 전설

대동마을의 바람재에서 상산을 오르다 보면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호랑이 모양의 바위가 있다. 옛날 상산봉에는 육지에서 건너 온 호랑이 한 쌍이 살고 있었는데, 수놈 호랑이가 병들어 죽었다. 암 호랑이는 슬픈 나날을 보내며 외로움을 달래고자 항상 이 바위에 올라 육지를 보고 울었다.

달이 휘영청 밝은 어느 날 밤에 호랑이는 죽은 수놈 호랑이가 몹시 생각나 큰소리로 '어흥' 하고 울자 산울림이 되어 여기저기서 '어흥어흥' 하였다. 암놈 호랑이는 그 소리가 자기보다 더 무서운 짐승들이 쫓아오는 소리로 착각하여 달아나다 바다에 빠져 죽었다. 이후 마을사람들은 이 바위를 '호랑돌팡' 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⑤ 상술바구 전설

의성마을에는 '상술바구' 라는 높은 절벽이 있는데, 이곳에서 내려다보면 그 높이가 무시무시해 바람이 바다 쪽으로 불 때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이다. 배를 타고 바다에서 불 때는 수직 절벽이 펼쳐지는 곳에 붉은 글씨가 쓰인 것처럼 보이고, 그 아래의 사각형 바위에는 움푹 파인 구멍이 몇 개 보인다.

아주 먼 옛날 장래를 약속한 처녀 총각이 있었는데, 총각이



▲ 초도 상술바구

다른 여자를 좋아 하면서부터 처녀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처녀는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사정하고 또 사정을 했으나 한번 돌아선 총각의 마음은 되돌아오지 않았고, 큰 상처를 입은 처녀는 상술박영에서 뛰어 내리고 말았다.

세월이 흘렀을 때, 어느 날부터 총각이 가는 곳마다 뱀이 쫓아다녀 총각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가 어렵게 되었다. 사람들은 죽은 처녀가 뱀이 되어 복수하는 것이라고 수군대며, 모두들 두려워 총각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았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집에서나 들에서나 뱀은 파리를 틀고 고개를 쳐들고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다.

자신이 한 때 좋아했던 처녀가 원한을 품고 뱀이 되어 복수한 것이라고 믿은 총각은 죽은 처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정하고 빌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총각이 상술박영으로 가자 뱀도 따라왔다. 청년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며 절벽에 손끝을 깨물어 유언을 쓴 뒤 주먹으로 바위를 치고 바다에 뛰어 내렸다. 청년이 죽은 것을 본 뱀도 바위에 부딪쳐 물에 떨어져 죽었다고 전해진다.

암석에 포함된 화학적 성분 때문에 붉은 글씨처럼 보이고, 단단한 돌이 염분 등의 작용으로 빠져 구멍이 생긴 타포니를 이용해 사람들이 만들어 낸 전설은 인간의 상상력이 무한함을 보여주고 있다.

### ⑥ 벼락바구 전설

의성마을에서 잠등을 넘어 여마지미 끝에 가면 하늘을 향해 5~60m 높이로 우뚝 솟은 붉은 색깔의 돌기둥이 있는데, 예로부터 이곳은 벼락을 때린다는 전설이 있다.

아주 먼 옛날 이무기 두 마리가 살았는데, 한 마리는 용이 되어 승천했으나, 나머지 한 마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기다려도 기회가 오지 않았다. 어느 날 참다못한 이무기는 하늘



▲ 초도 의성마을

을 향해 욱을 퍼부었다. 그러자 갑자기 마른하늘에 먹구름이 끼더니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했다. 이무기는 “아 이제 내가 용이 되어 승천 하는구나”라고 좋아하며 몸을 사려 하늘을 향해 힘껏 솟구쳐 오르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쳤다. 벼락을 맞은 이무기는 그 자리에서 돌이 되어버렸고, 그 일대는 이무기의 피가 퍼져 바위가 붉게 물들고 말았다.

### ⑦ 정강 해수욕장

의성마을에서 진막 마을로 가는 중간 정도에 위치한 해수욕장으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깨끗한 바닷물과 모래가 아름답다. 민물도 풍부해 샤워장, 화장실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주변 갯바위는 대표적인 낚시 포인트이다.



▲ 초도 정강해수욕장

### ⑧ 안목섬



▲ 초도 안목섬

진막 마을 남서쪽에는 안목섬과 박목섬이 있는데, 안목섬은 썰물 때 육계사주로 초도 본섬과 연결되고, 박목섬 남쪽에 있는 용굴이라는 해식동이 있다.

어느 해 영등사리 때 마을 아낙네들이 안목섬에서 해산물을 채취하고 돌아오던 중 거북이를 만났는데, 거북이가 다음과 같이 애원했다. 박목섬에 천년 묵은 용이 사는데 용왕의 미움

을 사서 승천하지 못하고  
있으니 용왕님께 제사를 올  
려줄 것을 부탁했다.

마을 사람들이 용왕님께  
정성스럽게 제사를 올리자  
이듬해 영등사리 때 용이  
승천할 수 있었다.



▲ 초도 진막마을

### ⑨ 사랑바위



▲ 초도 사랑바위

대동 해수욕장 부근  
에는 ‘人’ 모양을 하고  
나란히 기대고 있는 껌  
명바구가 있다.

바위에는 금슬 좋은  
할머니와 할아버지 전  
설이 전해져 오고 있다.  
먼 옛날 젊은 부부가 육  
지에서 이곳으로 건너

와 아름다운 해변을 거닐면서 평생을 약속하고는 섬에 정착하여 오랫동안 다정하게 살다가 백년해로 하다가 바위로 변했다고 한다.

지금도 부부가 거닐던 해변에는 그들의 발자국이라고 얘기되는 흔적이 있고 바위 사이에서 나란히 앉아 청춘남녀가 사랑을 맹세하면 평생을 바위가 된 부부처럼 변치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전해진다.

### ⑩ 웰빙해산물 축제

자연산 패류와 해조류 등 해산물을 테마로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영등사리에 맞춰 바닷물이 갈라지는 시기에 진막마을 안목섬 바닷가 일대에서 직접 웰빙 해산물을 채취하는 생태체험형 축제로 2009년에 처음 개최되었다.

여수 해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웰빙 관광 섬 초도를 알린다는 취지

로 축제 기간에는 자연산 해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토속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의성리와 진막, 대동리 세 마을 부녀회 회원들이 마련하는 음식들은 자연산 돌김과 군소, 배말, 가사리, 톳, 성게 등 이름도 생소한 해산물들을 이용한 것들로 웰빙 축제의 의미를 더한다.

무엇보다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바닷길 갈림 현상 때 체험할 수 있는 해산물 채취이다. 바닷길 갈림 현상은 초도와 목섬 사이의 약 500m의 길이에 폭 70~80m 정도의 바닷길이 드러나는 것이다.

축제가 열리는 이틀간을 포함하여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바닷길 갈림 현상이 생기면 관광객들은 두어 시간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다.

### ⑩ 진막수력발전소터

상산봉에서 시작된 계곡물은 진막 마을 중심부를 지나 바다로 흘러들어 가는데, 수량이 아주 풍부하다.

이렇게 풍부한 수량을 바탕으로 1976년 6월 수력 발전소를 세워 전깃불을 밝힐 수 있었다.



▲ 진막수력발전소터

지금은 폐허가 되어버린 수력 발전소를 복원하여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한다면 관광 자원으로서 커다란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손죽도해수욕장

## 6. 손죽도(巽竹島)

### 1) 개관

(2009년 2월)

세 대	인 구 (명)			면적 km <sup>2</sup>	해안선 km	공 공 기 관	교 육 기 관	교 통	선착장
	계	남	여						
92	190	94	96	2.92	11.6	2	초1	일2회	3

거문도 북동쪽 40km 해상에 위치하며, 손죽열도의 중심 섬이다. 서쪽 돌출부 끝에는 무인등대가 있고, 길이 1km 정도 되는 손죽해수욕장이 북쪽에 자리 잡고 있다.

400여 년 전 제주에서 고씨, 부씨, 양씨가 최초로 입도하여 마을을 형성하였으나 왜구들의 노략질이 심하여 육지로 피신하였고, 이후 전주이씨, 밀양박씨, 김해김씨 등이 다시 입도하여 거주하였다. 취락은 선착장이 있는 북쪽 만 안에 주로 분포한다.

깃대봉 남쪽에 위치한 지지미재 아래에도 취락이 발달해 있는데 지





## 삼산면 손죽리

지매재는 경사가 완만해 봄철이면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진달래꽃으로 지짐(부침개)을 만들어 먹으며 놀던 화전놀이터이다.

손죽도에는 광복 전까지 어업과 관련된 안강망이라고 하는 중선(仲船)배가 삼산면에서 가장 많았으며, 지금도 '중선배 오색 풍어기 달기' 같은 마을행사가 전승되고 있다.

주민은 대부분 어업에 종사한다. 농산물로는 고구마·마늘·옥수수·보리·양파·콩 등이 생산되며, 근해에서는 문어·삼치·방어·도미 등이 잡히고, 자연산 톳의 채취와 미역·김 등의 양식도 이루어진다.

명칭의 유래는 임진왜란 전에 녹도만호 이대원(李大源)이 전사한 곳으로, 큰 인물을 잃어 크게 손해를 보았다고 하여 손대도(損大島)로 불리다가 1914년 손죽도로 개칭하였다.

원래는 홍양현에 속하였으나 1896년 지방제도 개편 때 돌산군 삼산면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여수군에 편입되었다. 1949년 여천군에 편입되었고, 1965년 손죽출장소가 설치되었으며, 1998년 여수시에 통합되어 오늘에 이른다. 소거문도·광도·평도 등 손죽열도를 연결하기 위해 손죽도에서 섬사랑호가 운항되고 있다



▲ 섬사랑호

## 2) 문화관광자원

### ① 다양한 식물들

손죽도의 식생은 뱃머리에서 동북 방향으로 소리쟁이개모시, 바랭이, 쇠무릅, 명아주, 해국, 비름, 담쟁이덩굴, 도꼬마리, 까마중, 하늘타리 등의 비교적 노방(路傍) 식물이 많은데 이는 밭이 많고 해안을 잇는 도로가 있기 때문이다.



▲ 손죽도 시누대

그리고 구실잣밤나무, 팽나무, 구기자나무, 섬쥐똥나무, 자귀나무, 예덕나무 등이 분포한다.

손죽도의 서북 방향인 가장골 바닷가에는 구기자, 한삼덩굴, 칩, 해국, 왕질경

이, 방울비자루, 개모시풀 등이 있고 소사나무와 송악이 다소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남끝 바위산에는 다정큼나무, 돈나무, 음나무, 가막살나무, 화살나무, 순비기나무, 동백나무 등이 있으나 섬의 남쪽 방향으로 해안은 100m 이상의 절벽으로 특히 이곳에는 인공림으로 방풍을 위해 조성된 곰솔이 잘 보존되어 있다.

지지미를 넘어 가는 길가에는 개비름, 까마중, 질경이, 도꼬마리, 그렁, 한삼덩굴, 엉겅퀴, 칩, 썸바귀, 망초 등 노방 식물이 많다. 특히 사람의 왕래가 심한 곳이나 가축의 방목지일수록 이들의 생육 상태가 좋다.

남쪽으로는 실거리나무, 다정큼나무, 돈나무, 예덕나무, 마삭줄, 천성과나무, 방울비짜루 등을 볼 수 있고 곰솔나무 아래에는 사스레피나무, 청가시덩굴, 청미레덩굴 등이 있고 개산초나무의 군락이 다소 형성되어 있다.

## ② 깃대봉과 봉화산

깃대봉은 해발 고도 242m로 손죽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 1896년 무렵 일본이 지도 제작을 위해 측량 기점으로 산꼭대기에 기를 꽂은 이후 지어진 이름이며, 봉화산은 조선시대 왜구나 적의 침입을 주변 지역에 미리 알리기 위해 설치한 요망소가 있었던 산이다.



▲ 손죽도 마을전경

## ③ 조개더미 유적

벧머리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해안 도로를 따라 약 200m쯤 가면 마울이 처음 시작되는 민가의 담장에 조개더미가 분포한다.

이 담장에는 깊은 바다 속 바위에서 사는 바닷굴, 소라, 전복, 두두렁고둥 등의 조개껍질이 박혀 있다. 조개더미 유적에서 발견된 유물로는 토기 조각과 뼈연모가 대표적이다.

토기는 눌러찍은무늬토기, 골아가리토기, 가는선무늬토기 조각 등이 수습되었으며, 동물의 뼈를 이용해 토기에 무늬를 새기던 도구의 하나인 자돌구가 발견되었다.

눌러찍은무늬 계통의 토기에는 마름모꼴선이 집중된 토기(菱形集線紋土器), 골아가리토기 조각이 있으며, 아가리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온



▲ 손죽도 조개더미

부분에 비스듬하게 짧은 빗금의 가는선무늬가 새겨진 것으로 보아 후기까지 조개더미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조개더미에서는

덧무늬토기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 거문도 서도리 조개더미보다 늦게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④ 삼각산

손죽마을에서 볼 때 북서쪽에 있는 커다란 두 개의 암반과 작은 바위 하나가 연결된 산으로 두 개의 커다란 암반이 서로 다리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각산(相脚山)이라고 했으나 음이 변해 삼각산이라고 부른다.

삼각산 아래에는 툇바끝과 무구장 터 등의 땅이름이 있는데, 이곳에 커다란 무덤이 있어 손죽도 해전에서 전사한 이대원 장군의 무덤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주인을 알 수 없는 무덤들은 임진왜란 때 왜적과 싸우다 순직한 군인들의 무덤자리라고도 알려져 있다.



## ⑤ 오색 풍어기와 길굿

손죽도에는 화전놀이도 활발했지만, 어업과 관련된 안강망(鮫鱈網, 仲船배)의 오색 풍어기 달기와 길굿놀이도 있었다. 광복 전까지 삼산면의 섬 가운데 손죽도에 안강망이라고 하는 중선배가 가장 많아 약 300세대의 마을에 55척이나 되었다.

어업이 주요 생계 수단이었던 손죽도 사람들은 중선배 주인(船主), 선원(船員), 그들의 가족과 선주가 부리고 있는 육지에서 온 머슴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중선배와 관련된 행사는 마을 전체의 행사나 다름없었다.

선달 그믐날 이른 새벽 경쟁적으로 선주집과 중선배에 풍어를 기원하는 오색기를 세웠다. 배 이름을 새긴 기(旗)와 오색천으로 만들어 늘어뜨린 오색 풍어기를 대나무 위 아래로 단 깃대를 배의 앞 돛대와 선주집 안의 기둥에 묶어 처마에 기대어 올렸다.

또한, 선원들이 낮에 선주집에 모여 풍어로 만선한 것을 알리는 깃발(奉旗)을 두 가지로 만들어 하나는 선주집의 담벼락에 세우고, 다른 하나는 선창에 있는 중선배 뱃머리에 세웠다.

선달 그믐날 오색 풍어기와 만들어 놓은 봉기(奉旗)를 앞에서 들고 팽과리, 징, 북, 장고, 소고 등의 굿물을 치면서 선창에 있는 배로 내려갔다.

배에서는 제물을 차려놓고 고사를 지내며 풍어와 만선을 기원하고, 안녕을 빌었으며, 3일 동안 등불을 켜 배 주변을 밝혔다. 고사가 끝나고 선주집을 향하여 되돌아오는 길에 굿을 치면서 앞소리로 “우리 배 사공은 신수가 좋아 연평바다에 도장원(都壯元)했네 헤이 야아 좋네 헤” 하면, 뒷소리로 “에 헤이, 헤야아, 헤야 헤 에 헤이 야”로 되받아 흥겨운 춤과 결합된 길굿놀이가 이어졌다.

이 길굿놀이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마을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다. 이때 세운 오색 풍색기와 봉기는

## 〔전래놀이〕

## | 화전놀이와 지지미재

바닷가에서 손죽 마을을 바라볼 때 중앙에 있는 야트막한 산등성이로 깃대봉의 남쪽에 있는 고개로 경사가 완만해 봄철이면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진달래꽃(참꽃)으로 지짐(부침개)을 만들어 먹으며 놀던 화전놀이 터이다.

손죽도의 화전놀이는 30여 년 전까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이촌 향도 현상과 인구 감소로 그 맥이 끊어졌다. 최근 도시로 떠나 만든 향우회 회원들이 손죽도로 들어가 화전놀이를 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마을에서 매구(埋鬼)곳이 끝나는 날 내렸으며, 길긋놀이 때 불렀던 앞 소리는 다양했다.

### ⑥ 이대원 장군 사당 총렬사



▲ 이대원장군 사당

손죽도에 이대원 장군을 모시는 사당이 언제, 어떤 규모로 세워졌는지를 밝혀줄 문헌 자료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대원 장군이 순직한 해(1587)에 '손죽도 이

대원 장군께 드리는 글(弔詞)'을 쓴 한천 정협(寒泉 鄭協)의 문장을 통해 당시 사당이 세워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의 문장 가운데 “누런 과일 붉은 과일 놓고 오늘 여기 꽃다운 혼백 위로하면서”라는 글귀로 보아, 장군이 순직한 후 바로 제단 또는 사당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손죽도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옛날부터 이대원장군의 사당이 있어 매년 봄과 가을 두 번씩 숭모제(崇慕祭)를 모셔 오다가, 대원군의 서원 철폐로 제사도 중단되고 건물도 남아버렸다.

일제강점기였던 1923년 손죽도 주민들이 힘을 합해 이대원 장군 사당을 다시 짓기로 하였다. 이기신(李起申)·김승구(金昇玖)·박오홍(朴五洪)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으며, 김치만(金致萬)이 유사가 되어 이상의(李商儀)의 찬조금으로 300여 년간 이어 내려온 사당을 다시 세웠다.

광복이 되었지만 10·19여수순천사건, 6·25한국전쟁, 4·19혁명, 5·16군사정변을 거치는 동안 사당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때문에 1964년 박성욱(朴成郁)이 중심이 되어 마을 주민들이 사당을 다시 세웠다. 1982년 이대원 장군 사당이 낡자 당시 행정 기관이었던 여천군의 지원금 100만원과 부녀회 기금, 출향 인사와 주민들의 성금으로 6



▲ 이대원장군 동상



▲ 이대원장군 위패 영정

개월간의 공사 끝에 1983년 7월 3일 다시 세우자 당시 여천군은 이 사당을 충렬사(忠烈祠)라는 이름을 지었다.

하지만 1986년 태풍으로 사당 옆의 나무가 부러져 지붕에 쓰러졌으며, 이 나뭇가지를 치우는 과정에서 지붕이 훼손되어 비가 새고, 뒤편 서까래가 무너지자 여천군의 지원으로 1987년 보수했다.

1990년 3월 경기도 평택에 사는 이장군의 11대 후손들이 손죽도 남쪽에 이대원 장군의 묘를 썼고, 음력 3월 3일에는 이대원 장군 숭모제(崇慕祭)를 올리고 있다. 이대원 장군을 기리는 모습은 현재 고흥군 녹동에 있는 쌍충사(雙忠祠)와 남산동 영당(影堂) 등이 있어 어업과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지키는 장군이라고 추모하고 있다.

이대원 장군의 순국을 슬퍼하며 그를 추모하는 다양한 시와 노래가 만들어졌는데, 송강(松江) 정철(鄭澈)의 아들 화곡(華谷) 정기명(鄭起溟)이 지은 녹도가(鹿島歌)는 가장 먼저 지어진 문학 작품이다.



## 7. 소거문도(小巨文島)

(2009년 2월)

세 대	인 구 (명)			면적 km <sup>2</sup>	해안선 km	공 공 기 관	교 육 기 관	교 통	선착장
	계	남	여						
16	26	13	13	0.14	7.5		폐교	일2회	1

손죽도 동쪽 1.4km 떨어진 해상에 있는 섬으로, 섬의 형상이 툽날을 닮았기 때문에 '거커리'라고 하였다. 섬 한가운데 우뚝 솟은 해발 328m의 '큰산(상산)'은 일제강점기 일본군 경찰기가 충돌한 흔적이 남아 있다.

'큰산'으로부터 바닷가로 많은 돌들이 흘러내린 애추(崖錐)가 발달하였으며, 섬을 둘러싼 해식애와 해식동 등 해안 침식지형의 아름다운 절경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취락은 섬의 남쪽 만 입구에 발달하였으며, 농산물로 마늘이 재배되며, 수산물로 전복, 문어가 유명하다.

삼산면 관내에서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다하여 '웃점'이라 부르다가





산이 툭날처럼 생겼다고 '거커리'라고 하였다. 한자로는 툭거(鉅)를 써서 거문도(鉅文島)라고 하였으나, 삼산면 행정 중심지인 거문도(巨文島)와 음이 같아 소거문도(小巨文島)



▲ 소거문도

로 고쳤다. 섬의 형태가 거문도의 고도와 닮았고 작은 거문도란 뜻에서 소거문도라 부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아름다운 해안 침식지형, 큰산과 해식애를 이용한 암벽 등반, 큰산 주변의 등산로 개발을 통한 난대림 탐방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가 많은 섬이다.

소거문도·광도·평도 등을 연결하기 위해 손죽도에서 '섬사랑호'가 운항되고 있다.



## 8. 평도(平島)

(2009년 2월)

세 대	인 구 (명)			면적 km <sup>2</sup>	해안선 km	공 공 기 관	교 육 기 관	교 통	선착장
	계	남	여						
16	32	13	19	0.41	5.5		패교	일2회	1

손죽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6km 떨어져 있으며, 섬 중앙 평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구릉지가 많아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과 어업을 겸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로는 고구마·콩·마늘을 주로 재배한다. 연근해에서는 문어·갈치·조기·잡어 등이 잡히며, 전복을 비롯하여 김·미역을 채취한다.

평도는 석란이 많다고 하여 석란도(石蘭島)라 불렸으나 섬의 형태가 평평하여 평도라 부르게 되었다.

최고봉이 137.4m이며, 본 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평도와 본 섬의 북쪽에 있는 소평도 2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섬 중앙부에 고도가 낮고 평탄한 지형이 나타난다.



해안 주위로 암석해안이 발달하고, 섬 주변에 비석바위·얕여·검둥여·큰여·작은여 등이 분포한다. 전력은 자체 발전소에서 공급되거나 상수도는 공급되지 않아 주민 대다수가 간이 상수도물을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

평도에서는 '대보름 현식굿'이 전승되어 왔다. 마을의 입자 없는 혼령을 한자리에 불러 모시고 위로하여 주는 곳으로서 하루 전까지 각 가정으로부터 잡곡을 공출해 들인 다음 밥과 떡을 만들어 현식터에 모여 넓적한 풀포기에 음식을 담아 여러 군데 놓고 제사를 올렸다. 제사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먹으며 이 떡을 먹으면 그 해에 무병할 뿐만 아니라 아픈 병도 낫는다고 하여 마을사람들은 굿이 끝나기가 무섭게 뛰어들어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다투기도 하며 마을 사람들이 흐뭇하게 지내는 날이기도 하다.

평도는 마을에서 걸어서 진입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여러 군데 있다. 북서쪽은 여(嶼) 발지대로 수심은 5~7m 정도, 비석바위 근방이 인기 있는 포인트이며 감성돔 낚시의 포인트로는 소평도, 취끝, 칼퀴섬 일대, 소두럭여 등이 명포인트이다.



## 9. 광도(廣島)

(2009년 2월)

세대	인구(명)			면적 km <sup>2</sup>	해안선 km	공공 기관	교육 기관	교통	선착장
	계	남	여						
6	10	4	6	0.66	5.1			일2회	1

손죽도에서 동쪽으로 약 17km 떨어진 곳에 있는 섬으로 최고지점은 243m이다. 섬 서쪽 완사면에 마을이 있고, 주민은 대부분 농업과 어업을 겸한다. 주요 농작물로는 소량의 고구마와 콩이 주로 재배되며, 김과 미역을 채취한다. 1917년경 사람이 처음으로 입도하여 살았다고 전한다.

명칭은 넓은 곳이라는 뜻인 너푸리란 이름으로 전해져 왔다. 너풀이는 한자로 사림도라 하였다는데, 사는 네(四) 개란 뜻이며 림은 수풀임(林)으로 의역한 결과이다. 본래는 병풍도라 불러 오다가 그 뒤 이 섬 주위의 조그만 서에 비해 넓다고 해서 광도라 하였다.

최근에는 광도에 낚시꾼들이 많이 찾아오며 여름철에는 뱃고기와

돌뚝, 가을에서 겨울철에는 감성돔이 많이 잡힌다. 전력과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태양광발전과 자가발전으로 제한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 불편함이 많으며, 우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너푸리’는 예로부터 재난을 당하지 않는 길지라고 알려져 왔는데, 마을에 내려오는 전설로 옛날 예언서에 화를 입지 않는다는 길지(吉地)중에 ‘사림도(四林島)’라는 섬이 있으나 그 섬이 어느 곳인지 알 수 없었으나, ‘너푸리’를 한역하니 ‘사림도’가 맞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이 섬은 옛부터 전화(戰禍)를 입지 않는 살기 좋은 섬이라고 한다.

## 참고문헌

- 『조정밀 1:50,000지도』, 동아지도, 랜덤하우스중앙, 2005.
- 『전라남도여수군읍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2002.
- 『여수·여천향토지』, 여수·여천향토지편찬위원회, 1982.
- 『도서지』, 전라남도, 1995.
- 『삼산면지』, 삼산면지편찬위원회, 1998.
- 『여수사람 여수이야기』, 여수지역사회연구소, 2007.
- 『여수의 향기 아름다움이 여기에』, 여수시, 2007.
- 『島嶼誌』, 內務部, 1985.
- 『道政白書』, 全羅南道, 1981.



# 제5장 화정면

- 1억년 전 숨결이 그대로



돌뚝, 가을에서 겨울철에는 감성돔이 많이 잡힌다. 전력과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태양광발전과 자가발전으로 제한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 불편함이 많으며, 우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너푸리’는 예로부터 재난을 당하지 않는 길지라고 알려져 왔는데, 마을에 내려오는 전설로 옛날 예언서에 화를 입지 않는다는 길지(吉地)중에 ‘사림도(四林島)’라는 섬이 있으나 그 섬이 어느 곳인지 알 수 없었으나, ‘너푸리’를 한역하니 ‘사림도’가 맞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이 섬은 옛 부터 전화(戰禍)를 입지 않는 살기 좋은 섬이라고 한다.

## 참고문헌

- 『조정밀 1:50,000지도』, 동아지도, 랜덤하우스중앙, 2005.
- 『전라남도여수군읍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2002.
- 『여수·여천향토지』, 여수·여천향토지편찬위원회, 1982.
- 『도서지』, 전라남도, 1995.
- 『삼산면지』, 삼산면지편찬위원회, 1998.
- 『여수사람 여수이야기』, 여수지역사회연구소, 2007.
- 『여수의 향기 아름다움이 여기에』, 여수시, 2007.
- 『島嶼誌』, 內務部, 1985.
- 『道政白書』, 全羅南道, 1981.



# 제5장 화정면

- 1억년 전 숨결이 그대로







가막만과 여자만의 품에 안긴 화정면의 아름다운 섬들은 연인, 가족들이 색다른 섬 여행을 만끽할 수 있으며 아이들과 함께 체험학습활동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 여수 섬 여행의 백미라 할 수 있는 곳이다.



## 제1절 개관

### 1. 위치와 역사

화정면은 여수시 서남쪽에 남북으로 분산되어 있는 15개의 유인도와 45개의 무인도로 구성되어 있다.

북으로는 여자만의 중심인 여자도와 송여자도, 서북에는 고흥반도와 1.65km의 거리인 적금도, 화양면의 서남단의 공진곶에서 연결된 조발도와 둔병도가 있다. 또한 면소재지인 백야도에서 서북쪽 12km에 위치하고 있는 낭도와 인근에 사도와 추도가 있다.

사도와 추도의 동쪽에 상화도와 하화도가 있다. 면소재지 남쪽으로 제리도, 자봉도, 개도, 월호도가 있다.

화정면은 화개면과 옥정면이 통합된 행정구역으로 화개면은 1896년(고종 33) 2월 3일 칙령 제13호에 의하여 나주부 돌산군이 설군되어 옥정면과 함께 행정구역으로 확정되었다.



▲ 백야대교

화개면은 개도에 화개산이 있어서 화개면으로 부르고, 관할 구역은 월호, 자봉, 개도, 제도, 상화, 하화로 구성되었다. 옥정면은 백야도에 옥정산이 있어서 옥정면으로 부르고 관할구역은 백야, 낭도, 조발, 둔병, 적금, 여자, 달천, 운두, 장도, 내백일, 외백일도, 대강죽도, 해도로 구성되었다.

옥정면의 장도(현재 보성군 벌교읍에 편입), 내백일, 외백일도는 1914년 3월 1일 고흥군에 편입되었고, 달천도는 소라면 복산리, 운두도는 화양면 이천리로 1983년 2월 15일 편입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13년 12월 29일 공포되고 1914년 3월 1일 시행된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의해 전라남도를 22군 273면 2,996리와 동으로 조정하였다. 이때 화개면과 옥정면을 통합하여 화정면이 되었다.

화정면 사무소는 1919년 4월 백야리 96-1번지에 개소하여 1941년 백야리 94번지에 양육을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 2. 현황 (2009년 2월)

### 1) 일반현황

(2009년 2월)

도서 (개)			세대	인구(명)			면적(km <sup>2</sup> )	해안선(km)
계	유인	무인		계	남	여		
60	15	45	1,367	2,893	1,421	1,472	26.34	156.60

## 2) 유인도서

법정리	행정리	세 대	인구(명)	면적(k㎡)	마을수	마을지명	도서명
백 아	백아	144	291	3,161	4	샛터, 동두, 진막골, 철터골	백아도
	화백	44	99	0,884	4	외달이, 신기촌, 가장골, 큰골	
개 도	월항	50	99	0,353	3	달리목, 정목, 쏜병이골	개 도
	신흥	55	119	0,357	2	웃물, 아랫물	
	화산	218	485	6,995	7	상촌, 중촌, 하촌, 건너골, 운구지, 벽촌	
	여석	36	86	3,395	4	서삼리, 솟돌구미, 엄남금이, 벽수골	
	모전	38	86	0,327	2	피번매기, 세김이	
	호령	29	58	0,332	1	훈역개	
	월 호	월호	95	229	1,925	3	
	자봉	31	60	0,337	2	웃마을, 아랫마을	자봉도
제 도	제도	64	141	1,049	3	개이도, 후포, 나루터	제 도
남 도	남도	172	298	3,671	3	여산	남 도
	규모	30	45	0,675	1	규모	
	사도	24	44	0,404	1	사도, 추도	사도, 추도
여 자	여자	135	348	0,759	7	송여자, 대동마을, 마파마을	대여자도 소여자도
적 금	적금	75	147	0,775	4	큰물, 작은물, 물락금, 적호	적금도
조 발	조발	32	62	0,715	1	앞골	조발도
	둔병	27	52	0,625	1	두음도	둔병도
상 화	상화	37	67	0,714	1	큰꽃섬	상화도
하 화	하화	31	77	0,75	1	아래꽃섬	하화도

## 3) 주요 무인도서 현황

도 서 명	면적(k㎡)	행정구역	특 징
야 도	3,500	개도	화산마을 전방 400m 전복양식장
단 도	4,000	개도	단도(端島)봉화산 뒤 100m 위치
단 도	6,100	개도	단도(單島) 개도 동쪽 20m 위치
호 리 도	1,100	개도	개도와 자봉도 사이, 무인등대 설치
고 여	2,520	개도	모전해수욕장의 정면에 멀리 보임
육고여도	2,000	개도	바위가 나란히 있어 형제바위
모듬여	1,000	제도	제도리 남쪽에 있는 섬
살피도	1,300	남도	남도 동북쪽 100m 바위섬
미 섬	7,000	남도	남도 동쪽에 위치
납대도	4,000	남도	남도리 서쪽, 섬과 섬 사이 1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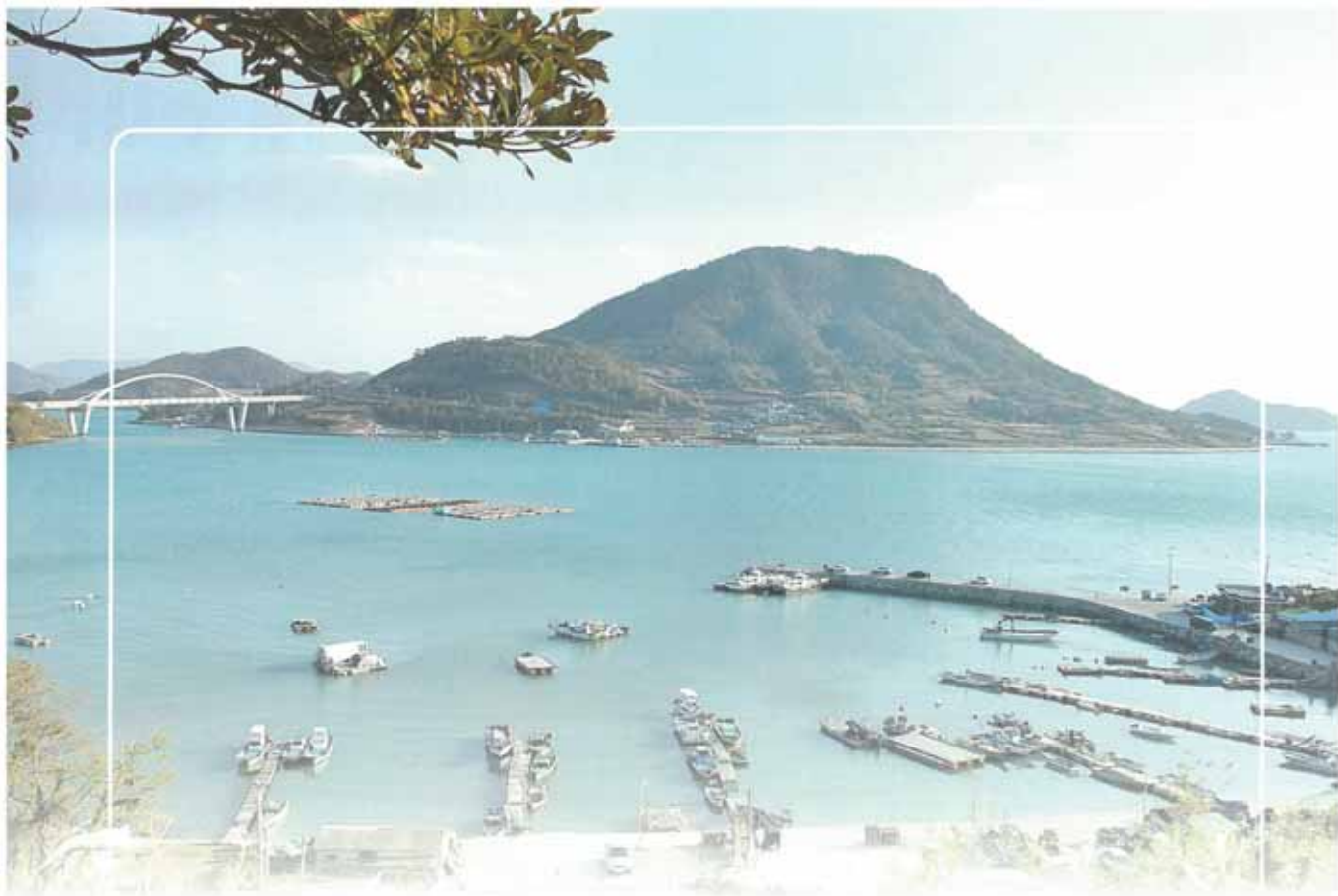
도서명	면적(k㎡)	행정구역	특 징
대 해 도	28,100	남도	남도리 서남쪽 600m, 방파제 축조
목 섬	4,100	남도	고래 같아서 고래여라 함
문 도	4,100	남도	사도 서쪽 2km에 길게 늘어진 섬
시루 섬	7,200	사도	사도마을 500m 해금강 같음
간대 섬	6,000	사도	도로완성, 사도에서 수시 왕래
장 사 도	8,000	사도	긴 뱀처럼 생겨 진대섬으로 불림
죽 도	14,200	여자도	시누대가 있고 고구마 같음
납 계 도	16,000	여자도	약 2,000㎡의 경지가 있음
동 굴 도	4,000	여자도	납계도의 옆 여름 낚시터
매 물 섬	6,200	여자도	마파부락의 방파제 역할
목 도	600	송여자도	송여자도 방파제 역할
검 등 여	4,000	여자도	송여자도와 마파도 중간에 위치
셋 여 도	1,400	송여자도	대부분이 수중에 잠김, 낚시터
소 담 도	7,000	적금도	간조 때에는 적금도와 연결
상 과 도	7,000	적금도	오이 같아서 윗 오이섬(上瓜島)
만 월 도	5,000	적금도	북쪽으로 1,600m의 둥근섬
매 도	2,000	적금도	적금도 남쪽 100m에 위치
독 도	3,000	적금도	적금리 200m에 위치, 전후에 암초
하 과 도	69,100	둔병도	적금과 둔병 사이의 아래 오이섬
오 도	1,700	둔병도	상과도 남쪽 150m에 위치
솔 개 섬	6,000	둔병도	둔병도 북쪽 900m에 솔개 같음
홍 도	4,000	둔병도	둔병도와 조발도 사이 250m 지점
대 부 도	3,000	하화도	하화도 서쪽 2.2km의 큰 가마섬
소 부 도	1,000	하화도	대부도에서 400m의 바위섬
장 구 섬	35,000	하화도	장구 같은 섬, 정상은 초지임
하 계 도	65,000	하화도	하화도 서남쪽 1km, 선상낚시터
상 계 도	51,300	상계도	상화도 1,200m, 민가가 있었음
원 앙 도	2,000	백야도	화양면세포 삼도 남방 500m 지점

#### 4) 인구변화

1925년	1945년	1955년	1965년	1975년	1985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9년
6,031	9,762	11,315	12,113	12,113	9,078	5,287	3,839	3,114	2,893

#### 5) 공공기관

면사무소	출장소	교육기관	파출소	우체국	농협지소	한전지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	3	초4, 중2	3	2	3	1	2	6



## 제2절 유인도서

### 1. 백야도(白也島)

#### 1) 개관

(2009년 2월 현재)

세 대	인 구 (명)			면적 km <sup>2</sup>	해안선 km	공 공 기 관	교 육 기 관	교 통	선착장
	계	남	여						
188	390	188	202	404.5	11.3	5	초등1	연륙교	3

백야도는 화정면 소재지로서 여수시에서 해상으로 18.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 10.5km 지점에 돌산읍이 있으며, 북동쪽 2.5km 지점에는 화양면과 연결되는 연륙교가 있다. 마을 뒤에는 해발 200m 백호산이 있으며, 본면 관내를 연결하는 연안 여객선의 교통중심지다. 1896년(고종 33) 3월 2일 돌산군 설립 당시 옥정면 백야도였다.



▲ 백야대교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화개면과 옥정면이 통합되면서 여수군 화정면 백야리로 개편되었으며, 동두, 와달, 신기, 백야마을을 합하여 법정리로 운영되고 있다.

백야도는 '흰섬'이란 의미의 우리말 이름이다. 섬의 주봉인 백호산 정상에 바위들이 하얀 색을 띠어서 섬이 하얗게 보인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하얀 색 바위의 모습이 호랑이를 닮아서 백호산이라는 이름이 지어져 한 때는 백호도라고 불리기도 했다.

## 2) 문화관광자원

### ① 백야도 등대

백야도 등대는 화정면 백야리 산34번지 (동경 $127^{\circ}39.4'$ , 북위 $34^{\circ}6.4'$ )에 위치하고 있다. 인근 해상을 항해하는 선박의 위치와 항로 결정, 위험물과 장애물에 대한 경고는 물론, 좁은 수로 또는 항로의 한계 등을 알려주고, 육지의 원근, 소재, 위험 장소를 알리거나 입항 선박에 항구 위치를 알려 주는 항로 표지의 일종이다.



▲ 백야도 등대

백야도 등대는 1928년 12월 세관공관부 등대국에 소속되어 평균 해수면으로부터 50m에 세워졌다. 광복 이후인 1948년 1월 교통부 해운국에 소속되었다가 한국전쟁이 끝난 뒤인 1955년 2월 해무청 시설국에 소속되었다. 1959년 6월 유인 등대로 전환하였다. 1961년 10월 여수지방해운국에 소속되었으며 1977년 12월 여수지방해운항만청 백야도항로표지관리소로 불리우고 있다.

1988년 8월 여수지방해운항만청 백야도항로표지관리소에 속하게 되었으며, 1997년 5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백야도항로표지관리소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다. 2006년 12월에 새로이 등탑이 건립되었다. 중앙정부 조직 개편에 의해 2008년 2월 국토해양부 산하 여수지방해양항만청 백야도항로표지관리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정갈하게 잘 다듬어진 잔디와 함께 등대에 근무하는 직원이 손수 만든 조각 작품들이 잘 어우러져 관광 명소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등대에서 남쪽으로 지척인 섬이 제도다. 연도교가 백야도와 제도 그리고 제도 건너편 개도까지 연결될 계획이다.

해질녘 황혼 무렵에 화양면 장수리 장등해수욕장을 거쳐 백야대교와 백야등대 가는 길은 노을에 물든 바다와 싱그러운 시골길이 드라이브 코스로 안성맞춤이다.

## ② 백야대교

백야대교는 화양면 안포리와 화정면 백야리 사이에 건설된 다리로, 2000년 6월에 착공하여 2005년 4월 14일 준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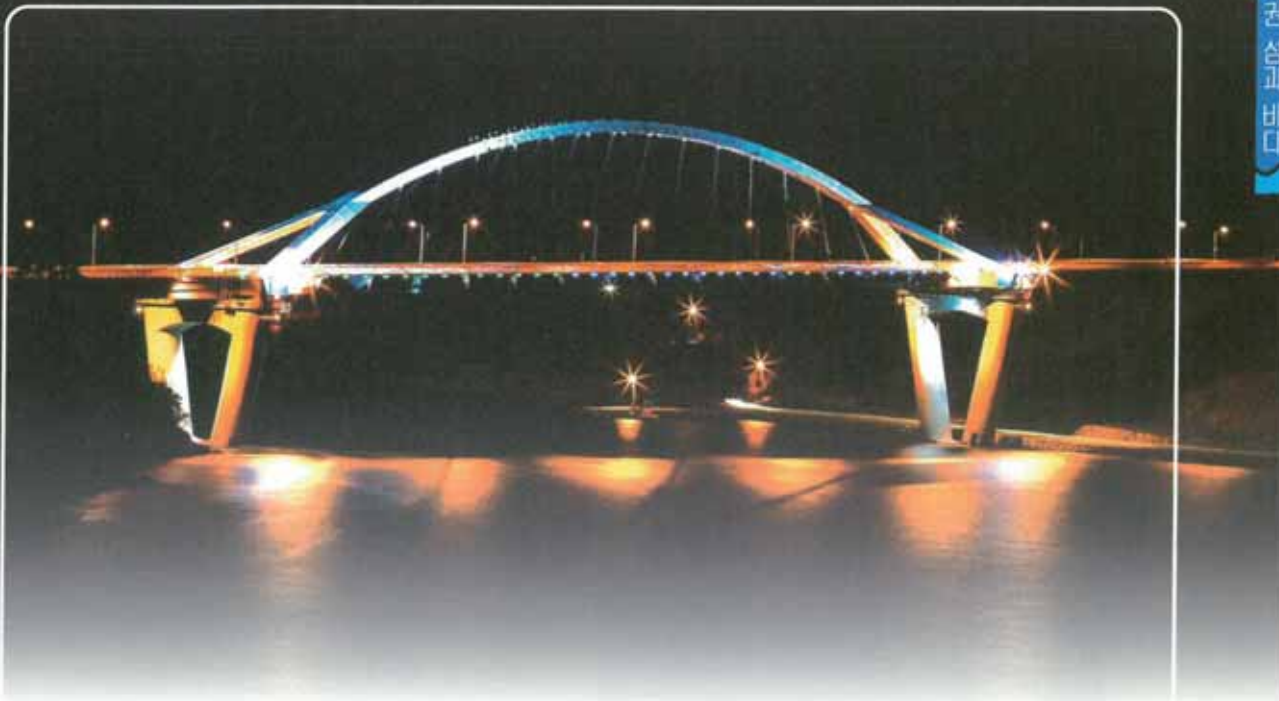


▲ 백야대교

길이는 325m, 폭은 12m이다. 주탑 없이 아치로 상부를 지탱하는 주전자 손잡이 모양의 닐센아치형 다리로 최신 공법과 첨단 기술이 집약되었다.

여수시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 확정으로 남해안 섬들을 연결시켜서 일주 코스로 만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백야대교는 여수시와 고흥군 사이에 건설될 11개의 다리 중에서 맨 처음 준공되었다. 백야대교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화정대교, 제도대교, 개도대교, 월호대교, 화태대교, 조발대교, 둔병대교, 낭도대교, 적금대교, 팔영대교 등 11개 교량이 완공돼 여수반도와 고흥반도가 연결될 계획이다.

### ③ 백호산

백야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높이가 286m로 산 정상은 바위가 많아서 산세가 험하다. 산의 모양이 하얀 돌로 깎아 세운 것 같아 멀리서 바라보면 하얀 뭉게구름 같고, 가서 보면 옥 같은 바위에 생긴 샘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산정상부에는 차별침식에 의한 잔구성 암봉들이 발달해 있다.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 화성암인 중성화산암류가 풍화된 높낮이가 없는 옥산으로 경사가 가파른 편이



▲ 백호산

다. 토양은 신생대 제4기 고온다습한 기후환경에서 만들어진 적색토가 넓게 분포한다.

주요 식생은 동백나무와 후박나무 등 상록 활엽수림과 등산로 주변에는 고들빼기·산벚나무·국수나무 등이 자란다. 기후는 대체로 온화하고 비가 많이 내린다. 정상에서는 화정면 일대를 조망할 수 있다.

#### ④ 백야산성

백야산성은 '문화유적총람'과 '여수·여천향토지'에 의하면 1592



▲ 백야산성

년(선조 25)에 이순신이 전라좌수사로 임명받고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여 백호산 정상을 중심으로 쌓은 성이라고 전해진다. 백야산성은 백호산 정상과 중턱 주위 능선을 둘러싸고 있다. 백호산정은 백야도에서 가장 높은 산정으로서 북으로는 화양면이 보이고, 동으로는 돌산읍의 방답진 봉수와 마주 보고 있으며, 남으로는 개도리 봉화산과 연결되어 있다.

성은 석축 산성으로 둘레는 약 2km에 달한다. 현재 기단 석축만 일부 남아 있다. 성벽의 높이는 약 1~2m 정도만이 남아 있다.

백야산성은 해상 교통이나 군사 통신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전을 대비하기 위해 미리 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 ⑤ 선군 익사사건

(세종실록 권36 세종9년 5월 21일 무신)

조회를 받고 정사를 보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전라도 돌산 천호 하흥(河興)이 그 족제인 전 연안 부사 하지둔(河之屯)과 함께 백야도에 가서 사냥을 하려고 밤에 바다를 건너다가 선군(船軍) 18명이 물에 빠져죽었으니, 율로는 오살(誤殺)로 교형에 해당되오나, 공무로 인한 죄라 하여 감형하면 속장 80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하명하기를 “하흥이 공무로 사냥하려 나간 것이라면 이같이 율에 따라 행하는 것



#### ■ 처녀바위

마을 뒷산에 크고 작은 바위가 형제처럼 나란히 서있는데 이 바위 모습이 고흥군 점암면 여호마을 까지 선명하게 보여 그곳 처녀들이 정조를 지키지 못한다고 하여 장정들이 찾아와 이 바위를 없애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도 두 형제바위가 나란히 서 있다. 또한 한 처녀가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실연한 나머지 형제바위 위에서 투신자살을 하였는데 그곳에 처녀모습의 바위가 생겨 지금도 그 바위를 처녀바위라고 부르고 있다.

이 가하지마는, 만일 죽진을 위한 일이라면, 풍세의 변화도 살피지 않고 밤을 타서 배를 몰아 사냥가기를 감행하다가 파선하는 사고를 내고 군인까지 빠져 죽게 했으니, 실로 고의범이 되는 것인데 오살의 율에 해당시킴은 어찌 불가하지 않겠는가?” 하니 형조판서 서선(徐選)이 대답하기를, “하옹의 진술로는 모두 공무로 인한 사냥을 말했기에 이렇게 해당시킨 것입니다.” 하였다.

이조판서 허조(許稠) 등이 “공무로 인한 일이면 반드시 감사에게 보고해야 할 것이요, 만일 보고하지 않고 지둔과 함께 밤을 타서 나간 것이라면 공무가 아닙니다.” 하므로 이에 다시 율에 비추어 보기를 명하니 하옹은 교형에 해당하고, 지둔은 한 등을 감하여 곤장 100에 유(流) 3천리에 해당되므로, 명하여 각기 한 등을 감하게 하였다.

#### ⑥ 백야 당산제

백야 당산제는 매년 삼월 삼짇날에 마을 공동으로 모시는 제사이다. 한 해 동안 마을의 평안과 풍년·풍어를 기원하며 마을의 수호신에게 제를 지내는 신앙이다.

#### ⑦ 백야마을

마을 뒷산의 산봉우리가 연꽃 봉우리처럼



▲ 백야리 당집과 당산나무

보이고 바위들이 모두 흰색을 띠고 있어 일명 흰섬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멀리서 섬을 바라보면 범이 새끼를 품고 있는 것 같다고 하여 백호섬이라고도 하였으나 지금은 백야리라 부른다.

임진왜란 당시 난을 피하여 창원황씨가 최초로 입도하였다. 그 후 장흥고씨, 광산김씨, 경주김씨, 나주임씨, 경주최씨, 밀양박씨, 성주배씨, 전주이씨 등이 살고 있다.

화양면 남단 계두(닭머리)와 백야도 사이의 바닷길이 계두수도 또는 헛도수도다.

백야대교가 완공되기 전에는 화양면 소재 마을 중 원포, 세포, 장등, 장척, 자매, 수문에 사는 학생들은 화정중학교로 통학선을 이용하여 등·하교를 하였다.

백야대교 길이가 325m인데 이 가까운 거리 사이에 화양면과 화정면으로 행정구역이 나뉘어졌다. 또 풍량이 거센 날과 비바람이 치는 날에는 학생들이 등교를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도 하였다. 오늘 날에 돌이켜 보면 먼나라 이야기 같은 시절이었다.



## ⑧ 화백마을

백야마을에서 서북쪽으로 2km지점인 백호산 뒤쪽 줄기에 와달과 신기마을로 구성되어있다. 원래는 백야리에 속한 와달과 신기였으나 1980년 인구의 증가로 화백리로 분리되었다.

와달은 해달피가 누워있는 형세이면서 강을 건너야 물에 갈 수 있다 하여 일제 강점기에 일본어 '와다르다' (강을 건너갔다)에서 유래하였다고 전한다.

신기마을은 '터가 세다'는 의미의 '세터'라 하였다고 전하고 있으나



▲ 화백마을

많은 돌과 잡초를 제거하고 새로운 터전을 일구어 마을을 만들었다는 의미의 신기촌으로 불리운다.

신기마을 바닷가에는 자갈밭을 치끝(너설)이라 한다. 해변의 끝으로 해송 군

락지가 방풍림을 이루고 있다. 이 송림은 마을의 자랑거리이며, 하계 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 2. 개도(蓋島)

### 1) 개관

(2009년 2월 현재)

세 대	인 구 (명)			면적 km <sup>2</sup>	해안선 km	공 공 기 관	교 육 기 관	교 통	선착장
	계	남	여						
426	933	485	448	8,76	25.5	4	2	일3회	9

개도는 여수시에서 남쪽으로 약 21.5km 떨어져 있고, 북쪽에 여수 반도, 북동쪽에 돌산도, 남동쪽에 금오도, 서쪽에 고흥 반도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에 작은 섬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 덮을 개를 써서 개도라 한다.

개도리에는 월항·신흥·화산·여석·모전·호령 등 6개의 자연마



을이 있다. 해안선은 동쪽과 서쪽이 돌출되어 있고, 곳곳에 깊게 만입되어 드나들이 심하다. 북쪽 일부 간석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암석 해안이며, 남쪽은 해식애가 발달되어 있다.

개도는 가막만이나 장수만에서 바라보면 섬의 모양이 개가 쭈뼛 귀를 세운 모양이다. 그래서 개섬이라 하였다.

‘여산지’에는 “개도에 있는 화개산은 천조봉이라 하는데, 양쪽 봉우리가 말의 귀가 쭈긋 솟은 것처럼 높게 서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천제봉과 봉화산의 생김새를 알려주고 있다.

개도(蓋島)에서 개(蓋)자는 덮는다는 뜻이 있는데 개도의 주산이라 할 수 있는 화개산의 모양이 솔뚜껑 모양을 닮아서 그렇게 붙여졌다. 또는 태풍이 남동에서 불어오면 개도가 여수시내 일원을 덮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도라 한다고 전한다.

충무공의 『난중일기』에 여도진을 돌아본 좌수영 수군이 개이도에 다 다르게 되어 방답진의 배가 마중 나온 대목과 남해를 떠나 개이도에 머무르게 된 대목이 전해오는데 여기에서 개이도란 섬은 주민들이 개섬이라고 부르던 섬 이름을 이두식으로 표현한 이름이다.

개도는 『세종실록지리지』 순천도호부조에 “바다에 있는 섬(海島)으로 돌산, 개도, 금오도 셋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에는 “개도는 제리도 동쪽에 있으며, 주위가 20리 이다.” 『여산지』에는 “개도는 돌산군의 남쪽에 있는 큰 섬으로 화개산의 옛 이름이 있고, 대동, 월

항, 여석, 혼역, 모전의 다섯 마을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1663년(현종 4) 사복시 제조였던 허목이 편찬한 목장도에는 여수 지역의 목장과 관련된 기록이 보이는데, 이 지도에서 17세기 이전 개도에 목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전에 의하면 임진왜란 당시 이동예가 난을 피하여 입도하고 그 후 경주정씨, 김해김씨, 남평문씨, 전주이씨, 경주이씨 등이 입도하여 마을을 형성하여 살아오고 있다.

## 2) 문화관광자원

### ① 개도 간척사업

개도는 화정면에서 가장 큰 섬이다. 그러나 논이 겨우 0.2km<sup>2</sup>에 불과하여 주민들의 식량 자급자족이 어려운 현실이었다. 당시 정부는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인 1963년에 식량증산을 위한 간척사업을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1965년부터 개도간척사업이 시작되었다. 바다를 막아 독을 쌓고 논을 새로 만들었으나 염도가 높고 농업용수가 없어 전혀 농토의 구실을 못했다.

따라서 1977년 한해대책영세민 취로사업으로 화산저수지 공사를 착공하여 1979년 2월 29일 완공되었다. 또한 1996년 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경지를 정리하였다. 간척사업은 식량증산을 위한 농토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 사업이었다.

그리고 중요한 국가차원의 사업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청정수역으로써 해양자원의 경제성은 물론 환경적 측면에서 개펄의 존재가치가 더 높이 평가되고 있다.

## ② 조개더미 유적

조개더미란 수렵·어로·채집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선사시대의 인류가 식료로 채집한 조개를 먹은 뒤 버린 껍질이 쌓여 이루어진 퇴적층 유적으로 패총(貝塚)이라고도 한다.

국립 광주 박물관에서 개도에 대한 지표 조사를 실시한 뒤, 『돌산세구지 유적』에 보고한 신석기 시대 유적인 조개더미에 대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도에 분포하고 있는 조개더미 유적지

소 재 지	내 용
개도리 정목, 월항	무늬없는 토기
개도리 정목	눌러찍은무늬토기 외 5종, 찌개, 솥돌 등
개도리 260-1	무늬없는 토기
개도리 대동, 산흥	덧무늬토기, 찌개, 돌칼, 솥돌, 갈돌
개도리 서삼	무늬없는 토기, 돌칼
개도리 서삼	덧무늬토기 외 3종, 돌도끼
개도리 모전	돌도끼, 갈돌 및 갈판
개도리 낭골	갈돌 및 갈판

유물은 조개더미의 패각층 단면에서 신석기시대의 용기문토키편, 압인문토키편, 침선문토키편, 무문양토키편외에 찌개, 석인, 석착, 지석, 갈돌, 갈판 등이 출토되었다.

### ③ 참 전복 양식장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의 특산물을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 상거래를 통해 마을의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개도는 참 전복을 중심으로 2005년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전남 여수 참 전복 개도마을'이다.

전복은 예로부터 조개류 가운데 가장 맛이 좋고 귀한 식품으로 여겨져 '조개류의 황제'로 불리고 있다. 깨끗한 개도 앞바다에서 자란 미역과 다시마 그리고 파래, 모자반(물)을 전복의 먹이로 이용함으로써 자연산과 다른 바가 없다. 0.3km<sup>2</sup> 전복 양식장에서는 참 전복을 주로 기르고 있다. 참전복의 먹이로 사용되는 미역은 강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산성 식품을 먹을 때 산도를 중화시키며, 소화율은 단백질 64%, 지질 60%, 당질 92%, 섬유소 37%이다. 미역은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뇌를 건강하게 하며 피를 보충하는 효과가 있고, 혈관 질환에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다. 또한 미역 속에 들어있는 알긴산은 혈압을 내리는 작용을 한다.



## ■ 전복 (鰓)



등에는 단단한 껍질이 있으며, 그 표면은 두꺼비의 등처럼 울퉁불퉁하다. 안쪽도 편평하지는 않지만 매끄럽고 오색찬란한 광채가 있다. 껍질의 원편에는 머리 쪽으로부터 5~6개, 혹은 8~9개의 구멍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

구멍이 뚫리지 않은 곳에서도 밖으로 볼록하고 안쪽으로는 오목한 구조가 구멍이 있는 곳과 같은

간격으로 꼬리 쪽의 봉우리에 이르기까지 죽 늘어서 있다.

꼬리 쪽의 봉우리에서 시작한 나선골은 한 바퀴를 돌아나가는데, 껍질 안쪽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껍질 안쪽에는 살이 붙어 있다. 그 바깥쪽 면은 납작한 타원형인데, 전복은 이것을 이용하여 돌에 달라붙거나 몸을 움직인다.

껍질 안쪽의 중앙에는 살덩어리 하나가 봉우리처럼 솟아 있고 입은 그 왼쪽 앞부분에 나와 있다. 입은 살덩이에 붙어서 꼬리 봉우리 바깥쪽까지 늘어져 있다.

살코기는 맛이 달고 진해서 날로 먹어도 좋고 익혀 먹어도 좋지만 말려서 포를 만들어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창자는 익혀 먹어도 좋고 젓갈을 담가 먹어도 좋으며, 종기를 치료하는 데도 효험이 있다.

## ④ 개도 막걸리

막걸리에 대한 아련한 추억은 밀주단속이다. 1970년대 중반까지 시골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순경과 세무서 직원, 산림청 직원이었다. 특히 밀주를 단속하러 나온 세무공무원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밀주단속의 역사는 1916년 7월 25일 일제강점기의 총독부가 수탈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술에 부과하는 세를 만들어 시행한 '주세령'으로부터다. 이로써 전통주는 수난시대를 맞게 된다. 1963년 8월 7일 법률 제1386호 양곡관리법에 의해 식량부족을 이유로 쌀을 이용한 술제조를 금지하였다.



▲ 개도막걸리 주조장

그 후 다수확 품종의 개발로 미곡생산량이 증가하여 1977년 쌀막걸리가 허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막걸리는 빛깔이 뜨물처럼 희고 탁하며, 알코올

성분이 적은 6~7도의 술이다. 탁주·농주·재주·회주라고도 한다. 지금은 각 지방 관인(官認) 양조장에서만 생산하지만 예전에는 농가에서 직접 만든 농주가 있었다.

개도 막걸리는 부드럽고 깔끔한 맛을 지니고 있다. 주민들은 개도 막걸리가 이러한 맛을 낼 수 있는 것은 물이 좋기 때문이라고 한다. 생산 과정이 기계화 되면서 찌꺼기가 거의 없어 여성들도 좋아하는 개도 막걸리는 많이 마셔도 다음 날 머리가 아프지 않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소주나 맥주에 밀려 소비량이 줄었다. 여수에서는 개도막걸리의 명성이 오늘날에도 이어져 오고 있다. 개도 여객선 선착장을 지나 마을 가는 길목에 막걸리 주조장이 있다. 2009년에는 막걸리가 발효주로서 건강에 좋다는 입소문으로 인기상승중이다.

#### ■ 사람 내음에 취하고, 막걸리에 취하는



▲ 개도막걸리

시인 조지훈은 막걸리를 가리켜 “나는 항상 삼도주란 술을 마신다. 중니선생이 애써 가꾸신 쌀과 노담옹이 손수 만든 누룩에다 실달다상인이 길러오신 샘물로 빚은 술인 연고다. 껌껌한 막걸리지만 청심한 맛이 일품이다.” 또 박목월에게 보낸 완화삼에서 “구름 흘러가는 물길은 칠 백리 나그네 긴 소매 꽃잎에 젖어 술 익는 강마을의 저녁 노을이여” 라고 읊었다.

박목월도 여기에 화답해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리 술익는 마을마

다 타는 저녁놀”이라고 했다.



모전해수욕장 ▲

### ⑤ 모전 해수욕장

모전해수욕장은 옛날 경주정씨가 이곳에 도착하여 이씨 처녀와 인연을 맺어 아이를 잉태하여 낳았는데 이 날 산모의 꿈에 신령님이 나타나 하시는 말씀이 아이는 천상에서 대역죄를 지은 아이니 아이의 몸에 두른 부적띠로 끈 새끼로 묶어서 바다에 던져 죽이라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부부는 신령의 계시대로 아이의 몸에 두른 부적으로 새끼를 꼬아 그 것으로 아이를 묶어 바다에 죽인 후 그 부적으로 시체를 덮어 바닷가에 묻으니 이때 갑자기 천둥번개가 난무하면서 자갈이 밀려들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아이의 무덤을 자갈로 덮어버렸다. 그 아이의 무덤이 모전 몽돌해수욕장이라 한다.

바닷가 몽돌은 만을 이루고 있는 바닷가 양쪽언덕의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퇴적암이 강한 파랑의 힘에 의해서 수많은 세월 속에서 닳고 닳아서 원형도가 높은 동그란 모양의 자갈이다. 특히 모전해수욕장의 몽돌밭은 남쪽 무인도 고녀쪽에서 불어오는 세찬바람 받은 파랑으로 더 곱다.

약 600m정도의 몽돌밭은 달 밝은 밤에 자갈 사이로 밀려드는 파도 소리와 다시 쓸고 내려가는 소리는 여름밤의 교향곡이다. 해수욕장에서 바라보는 일출은 자갈들이 아침햇살에 반사되어 보석처럼 반짝거린다.

동그란 자갈들이 햇살에 빛나면서 장관을 이룬다. 또한 천제산에서 내려다 보면 호령마을과 건너편 기다랗게 늘어져 나지막한 언덕 같은 산들로 만을 이루는 해수욕장은 호수처럼 아름답다.

### ⑥ 청석포 해수욕장

청석포는 신흥 마을에서 얇은 고개를 넘어가면 100m에 이르는 자갈밭이 있는 해수욕장이다. 포구는 만을 이루고 있는 구룡의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돌들이 파도에 깎이고 깎여 자갈한 자갈밭을 이루고 있다. 앞에 탁트인 망망대해에서 태풍과 거센 파도를 직접 받아 기암 괴석을 이루어 아름다운 해식애를 이루고 있다. 이 바윗돌들의 색깔이 푸른빛을 발하여 청석포라 한다.

청석포의 바위는 아주 넓고 평평하여 마을별로 화전놀이를 한 곳이다. 청석포의 바위들은 반듯반듯하게 떼 내어 온돌의 구들장으로 팔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흔적을 볼 수 있다.

온돌은 우리나라 고유의 난방시설이지만 최근에는 세계 각지에서 이 온돌을 이용한 난방장치가 각광을 받고 있다. 조상들의 슬기가 빛나는 문화이면서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⑦ 봉화산 봉수대

옛날에는 봉화산 정상에 봉수대 터가 선명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비바람과 주민들의 소홀함으로 그 흔적이 사라져 버렸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고흥 팔영산 봉수대로부터 봉화불이 오르면 이곳 봉수대에서는 즉각 남면 금오도 봉수대로 봉화를 올려 신호를 보냈다. 금오도 봉수대에서는 돌산 봉수대로, 돌산 봉수대에서는 여수 종고산 정상에 있는 봉수대로 연락을 하여 좌수영 본영에 급보하여 서남해안 방면의 왜구 군선의 출몰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 ⑧ 마녀목의 전설

화산마을에는 느티나무 노거수가 있는데 400년 이상 자란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광복 직후 심은 3그루의 느티나무와 균락을 이루고 있다. 그중에 가장 오래된 나무가 '복녀와 앞다리가 부러진 말'의 전설이 서린 '마녀목'이다.

조선시대에는 화양면을 '곡화'라 하고, 화동 마을에 말을 사육·관리하는 감목관이 파견되어 화양면 일대는 물론 백야도, 개도, 제도, 낭도와 같은 섬에서도 말을 길러 나라에 바치게 했다. 그런데 개도 목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돌아 계속 말이 죽어가자 말을 맡아 기르던 책임자가 심한 문책을 받고 쫓겨나게 되었다. 후임으로 이 마을에 살고 있던 '이들수'라는 사람이 말 사육사로 뽑히게 되자 그는 뒷산 봉우리에다 돌로 제단을 쌓았다.



▲ 느티나무 노거수 마녀목

“천지신명님! 목장에서 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말을 죽이는 질병을 없애 주십시오.”

이돌수는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빌었다. 지극한 정성 탓이었는지 그 후부터 목장의 말들이 죽어가는 일이 없어졌다. 이돌수에게는 ‘복녀’라는 열네 살짜리 딸이 하나 있었다. 복녀는 날마다 아버지를 도와 말을 돌보았다. 열심히 말들을 돌보았기 때문에 말들하고도 친하게 지냈는데, 특히 검은 점이 박힌 흰말이 유난히 복녀를 따랐다. 어느 날 복녀는 검은 점이 박힌 백마가 앞다리가 부러져 신음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복녀는 아버지께 달려가서 “아버지! 점박이 말의 앞다리가 부러졌어요.”라고 알렸다.

“큰일이구나, 말이란 짐승은 다리에 힘이 없으면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단다. 다리가 부러졌으니 이제 쓸모없는 말이 되고 말았다. 감목관에게 보고하여 폐마 시켜야겠다.” 아버지는 매우 근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이 말을 들은 복녀는 아버지에게 매달려 애원했다.

“아버님! 저 말을 소녀에게 맡겨 주시면 반드시 다리를 고쳐서 명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디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네 뜻이 그렇다면 열흘 내에 치료를 해야 한다. 그 동안에 말이 움직이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한단다.” 아버지는 복녀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복녀는 정성을 다해 말을 간호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쌓아 놓은 뒷산 산봉우리의 제단에서 빌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복녀가 말을 보살피 주다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깜박 잠이 들고 말았다.

“복녀야! 나는 이 산의 산신령으로 너의 정성이 하도 지극하여 너를 도와려고 왔다. 내가 점박이 말이 나올 수 있는 약을 일러줄 것이니 푹푹히 듣거라. 네가 밤마다 지성을 드리던 제단 옆 웅달샘에 가면 가재가 있을 것이다. 웅달샘에서 가재 세 마리를 잡아서 말에게 먹이면 반드시 효험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사라졌다.

복녀가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 꿈이었다. 이상한 꿈이어서 웅달샘으로 달려갔더니 그곳에는 가재가 있었고, 세 마리를 잡아서 말에게 먹였다. 그 날 밤 복녀는 제발 말이 낫기를 바라면서 정성껏 빌고 또 빌었다.

“말이 뛰여 다닐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산신령님, 신령님의 말씀대로 가재를 잡아서 말에게 먹였습니다. 꼭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두 손을 모아 빌면서 밤을 지냈다.

날이 밝자 마자 복녀는 말이 있던 곳으로 달려갔지만 있어야 할 말이



보이지 않아 소스라치게 놀랐다.

“히이힝 히힝...” 갑자기 우렁찬 말울음 소리가 들렸다. 복녀가 말울음 소리가 들리는 쪽을 보니 산봉우리에 점박이 말이 능름하게 서 있었다.

“점박아!”

복녀는 말을 보고 크게 소리쳐 불렀고, 말은 손살같이 복녀에게로 달려왔다. 복녀는 너무나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랐다. 그 때 점박이 말이 앞발을 들고 땅을 차며 머리를 숙였다. 복녀는 점박이 말을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 후부터 복녀와 점박이 말은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친하게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화동에 있던 감목관이 개도목장으로 와서 대장군이 탈 군마를 고르고 있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복녀하고 가장 친한 점박이 말이 뽑혔고, 복녀는 이 사실을 알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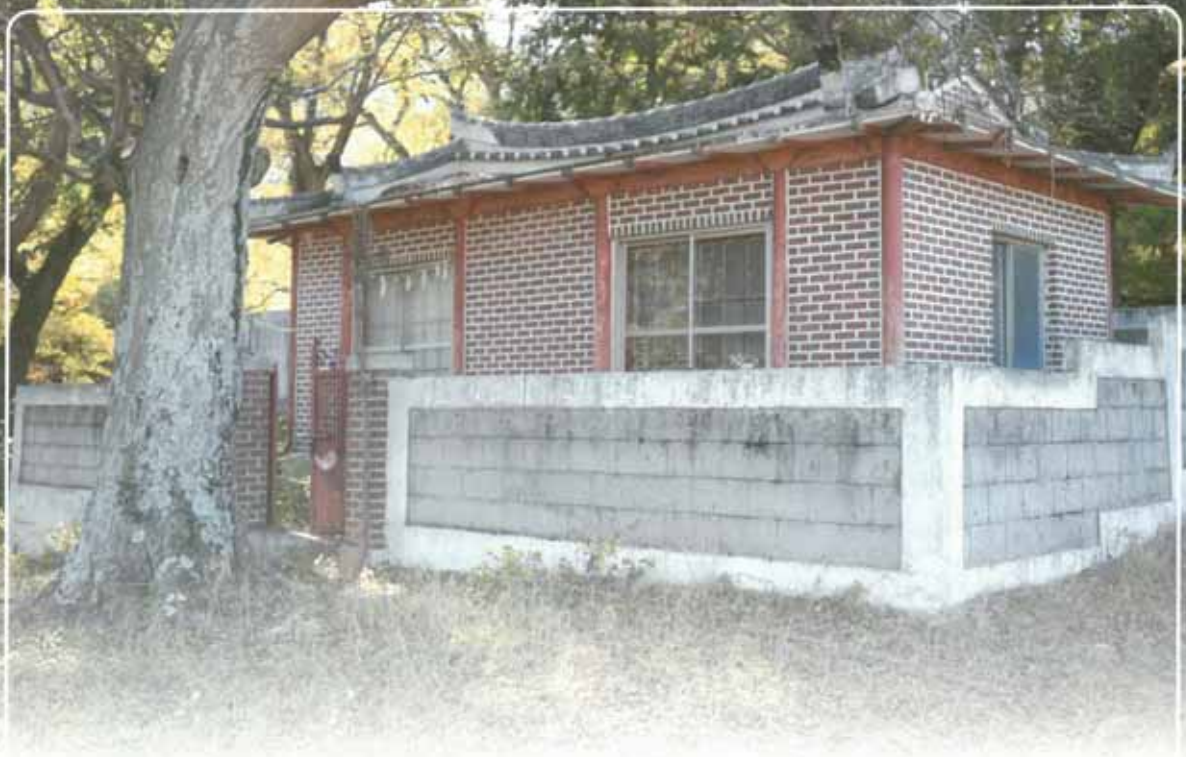
그러나 복녀에게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으며, 끌려가는 점박이 말도 복녀와의 이별을 서러워하였다. 가지 않으려고 뒷걸음을 치면서 우는 말을 보고 복녀와 아버지도 함께 울었다.

점박이 말과 헤어진 복녀는 점박이 말과 함께 지내던 곳에 느티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그 후 복녀는 병이 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고,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갔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새벽, 복녀 아버지가 목장의 느티나무가 있는 곳으로 갔을 때 뜻밖에도 느티나무 옆에 숨겨 있는 말을 발견하게 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복녀가 좋아하던 점박이 말이었다. 말 등에는 화려한 안장과 굴레가 씌어져 있어 대장군이 탔던 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점박이 말은 복녀를 만나기 위한 일념으로 군대에서 탈출한 뒤, 산과 계곡을 달리다 입은 상처가 너무 깊고, 강과 바다를 건너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지만 기어이 이곳까지 와서 죽은 것이었다.

“복녀야 점박이가 왔다.”

아버지는 급히 뛰어가서 복녀에게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다. 이상하게 여긴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복녀는 너무나 행복한 미소를 짓고 죽어 있었다. 아버지는 복녀와 점박이 말을 느티나무 옆에 나란히 묻어 주었다. 사람들은 그 느티나무를 ‘마녀목’이라 불렀다. 그 때부터 이 마을 사람들은 남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 점박이 말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 ⑨ 화산마을 당산제



▲ 천제단 아궁이

마을의 조상신·수호신에게 마을사람들의 연중 무병과 평온무사를 비는 제사를 당산제라고 한다. 혹은 동제·대동치성·산제라고 한다. 제삿날은 지방마다

다른데, 보통 제주의 운수가 좋은 날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섬 지방은 마을의 평안과 풍어를 비는 당제가 마을마다 대개 정초에 행해진다. 그러나 개도의 당제는 3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이나 행해지는 규모가 큰 당제로 유명하다. 당산제는 제사와 굿의 이중성격을 갖고 있는 점이 특이하며 축제 분위기로 마을사람들의 유대강화에 큰 역할을 한다.

## ⑩ 용바위 전설

개도에는 꿈을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전설이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다.

옛날 김씨 성을 가진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부인의 꿈에 영롱한 햇살이 비치



▲ 용바위

는 등근 해가 입 안으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었다. 그 후 아이를 출산하자 사내아이의 겨드랑이에 조그마한 날개깃이 돌아나 있었다.

아이가 돌 쯤 되었을 때 부부는 곡식을 마당에 넣어놓은 채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자 부부는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당에 넣어놓았던 곡식과 명석이 처마 밑에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며칠 후 또 다시 비가 내려 집으로 돌아와 보니 마찬가지로 말끔히 치워져 있었다.

부부는 어찌된 영문인지를 알고자 비가 올 것 같은 날씨를 택해 일부러 곡식을 마당에 넣어놓고 숨어서 지켜보았다. 마침 비가 내리자 한 살 밖에 안 되는 아이가 마당으로 나와서 곡식과 명석 등을 말끔히 치워놓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이 광경을 지켜 본 김 씨 부부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부부는 이 아이가 틀림없이 하늘에서 점지해 준 장수감이라고 생각했다.

이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금방 소문이 퍼져 결국은 역적으로 몰릴 것이고, 아이는 물론 가족도 모두 죽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부부는 여러 날 동안 궁리한 끝에 결국은 아이를 죽이기로 작정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눈물을 흘리면서 배에 태워 멀리 바다로 나갔다. 아이의 발목에다 큰 돌을 묶어 바다 속에 던져버렸다. 그러나 아이는 바다 위로 솟구쳐 나와 오른손으로 뱃전을 붙잡았다. 놀란 부부는 도끼로 오른손목을 잘라 버렸다. 그러자 아이는 다시 왼손으로

뱃전을 붙잡으면서 “오른손이 없는 장수가 무슨 뜻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하면서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면서 폭우와 함께 거센 파도가 일었으며, 청룡 한 마리가 남면 합구미 쪽으로 향하여 날아갔다.

지금도 산 위에 있는 큰 바위에는 죽은 아이의 영혼이 가지고 놀았다는 담뱃대, 손가락, 젓가락을 놓은 자국이 남아있고,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산 바위' 또는 '용 바위' 라고 부르고 있다.

### ⑪ 여석 벽수



여석 마을에는 길가에 벽수 2개가 나란히 서있다. 벽수는 장수에 대한 또 다른 명칭으로 거리를 표시하는 뜻말로 위쪽에 사람의 얼굴을 새겨 오리나 십리마다 세운다. 마을의 경계표시와 함께 사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경사스러운 것을 맞이한다는 벽사진경(辟邪進慶)의 수호신 역할도 하는 것으로 마을의 신앙 대상으로 섬겨진다.

이 벽수는 마을 어린이들이 질병에 자주 시달리자 그 원인을 귀신의 짓으로 생각하여 잡귀 잡신을 모두 마을 밖으로 쫓아내고자 동구 밖에 세운 것이라 한다.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할아버지 모양을 한 벽수는

170cm 높이에 머리가 89cm로 몸체부분에 '남정중(南正重)'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마을 쪽을 바라보고 있는 할머니 벽수는 160cm 크기에 머리에 길이가 67cm로 몸체부분에는 '화정려(火正黎)'라는 글을 새겼다.

여석마을에 있는 벽수는 여수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다른 벽수와 모양상 비슷한 점이 많다. 특히 '남정중'·'화정려'라는 명문이 공통적이다. 여수의 다른 벽수들도 읍락비보와 방위수호를 담당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 ⑫ 화산마을

화산은 개도에서 가장 큰 마을로 대동 또는 큰동네라 불렸으며 화개면 당시에는 면소재지였다.

화개면의 앞자인 화자(華)자와 산이 크다 하여 퇴산(山)자를 합하여 화산리라 부른다. 마을 뒷산은 해발 328m의 천제봉과 해발 337m의 봉화산이 나란히 솟아 있다.

개도리 월항마을에서 호령마을까지 일주도로가 완공되어 자동차가 왕래할 수 있게 되었다. 여수에서 도선을 이용하여 승용차로 이동하면 개도를 더욱 자세히 구경할 수 있다. 천제산 정상에 오르면 다도해의 주변 경관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고, 여수시 도심이 눈 앞에 있는 듯이 선명하게 보인다.



▲ 개도 화산마을

⑬ 월항마을



▲ 월항마을

화산마을에서 동남쪽으로 3.5km 지점에 자리잡고 있는 섬마을이다. 신흥에서 야트막한 고개를 넘어가는 길목이 천제봉과 봉화산 자락이 흘러내려 목이 만들어져 달리목이라 부른 마을이다. 한자로 달이 뜨는 목으로 해석하여 월항(月項)이라 하였다. 이 다리목에서 바라보면 왼쪽에 신흥탄섬이 있고 건너편 오른쪽에는 월항탄섬이 있다. 그 두 섬 안쪽으로 깊숙이 만을 이루고 있다. 신흥에서 월항으로 가는 중간지점이 정목이다. 이 정목에서 바라다 보이는 맑고 푸른 바다와 바위에 부서지는 포말이 바닷가의 아름다운 정경을 연출한다.

⑭ 신흥마을

마을 사람들이 생활환경이 어려워 집을 짓지 못하고 움막집을 만들



▲ 신흥마을

어 거의 100여년간을 살았다고 하여 버릴 제(除)와 군막 막(幕)자를 써서 진제막이라 불렀다.

그 후 마을 골짜기 처럼 길게 늘어진 모양을 하여 진막이라 부르다가 행정구역개

편으로 신흥리가 되었다.

## ⑮ 여석마을



▲ 여석마을

마을 서쪽에 숫돌이 많이 난다고하여 숫돌 여(礪)자와 돌석(石)자를 써서 여석이 라 부르고 있다.

숫돌은 선사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연모를 갈아서 날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돌·

지석(砥石)·여석(礪石)이라고도 한다.

여석에는 납석광산이 있어 일제강점기에서 1995년 까지 납석맥을 일본과 대만, 중국, 동남아시아에 수출하였다. 1927년 처음은 도자기 원료로 사용하였고 그 후 타일 원료로 사용하였다.

여석에서 서북쪽 모전마을로 가는 중간에 동쪽으로 큰 산에 가려서 겨울철이면 해를 많이 볼 수 없는 음지라 하여 음량금 했다가 엄남금으로 불리고 있다.

## ⑯ 모전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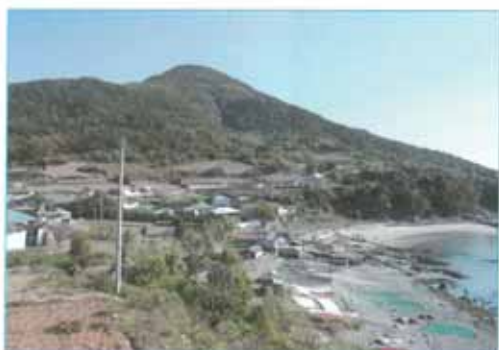
▲ 모전마을

개도리 서부지역으로 화산마을에서 고개를 넘어가면 산허리 아래가 여석이고 모퉁이를 돌아가면 모전이다. 동남쪽 1.5km 지점에 호령마을이 있다.

마을 전체가 띠풀이 많아서 띠모(茅), 밭전(田)자를 써 모전 이라고 칭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 앞 해변에는 600m 가량의 길이로 자갈이 뒤덮어 있어

일명 자갈밭이라고 별칭이 붙어 있다. 규모가 큰 태풍이 불면 바닷가의 자갈이 밀려들어오고 심할 때에는 자갈이 바람에 날린다고 한다.

⑰ 호령마을



▲ 호령마을

개도리 서북지역으로 북서쪽으로 1.5km 모전마을이 있으며, 마을 뒷산은 천제봉의 가파른 골짜기로 형성되어 논은 없고 밭만 있는 어촌마을이다.

마을 뒷산 능선이 호랑이 모양으로 생겼

으며 옛날에는 호랑이가 살았다고 하여 호랑이호(虎)자와 어조사야(也)자를 따서 호야라고 부르다가 어음이 변하여 혼역개로 불러왔다. 지방자치제로 인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호령(號令)이 되었다.

마을에는 해식동굴이 많다. 호령에는 호랑이가 살았다는 호랑이굴과 태평양 전쟁 때 대포를 맞아 생겼다는 대포굴이 있다.



▲ 개도 출정소





### 3. 월호도(月湖島)

(2009년 2월)

세 대	인 구 (명)			면적 km <sup>2</sup>	해안선 km	공 공 기 관	교 육 기 관	교 통	선착장
	계	남	여						
95	229	108	121	1.92	7.88	1	1	일5회	7

화정면 소재지로부터 동남쪽 약12.5km 지점에 위치한 섬으로 동쪽으로 1.5km에 돌산읍과 남쪽으로 남면과 서쪽으로 개도가 있다. 1896년 돌산군 화개면에서 1914년 화정면에 편입되었다.

임진왜란 당시 난을 피하여 파평윤씨가 입도한 후 밀양박씨, 김해김씨, 성주배씨가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동쪽으로 화태도, 남쪽으로 남면, 서쪽으로 개도로 둘러싸여 해안이 밝은 달처럼 둥글고 물이 맑은 모양이 반달형의 호수와 같다하여 월호(月湖)라 부르고 있으며, 개도 동쪽에 있는 섬으로 다리 역할을 하므로 다리도(多里島)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여지도서』, 『여산지』에 다리도로 기록되어 있다.



### 화정면 월호리

월호도는 섬과 섬 사이에 둘러싸여 태풍이 불어와도 파도가 없어 황금어장터로서 수산자원이 풍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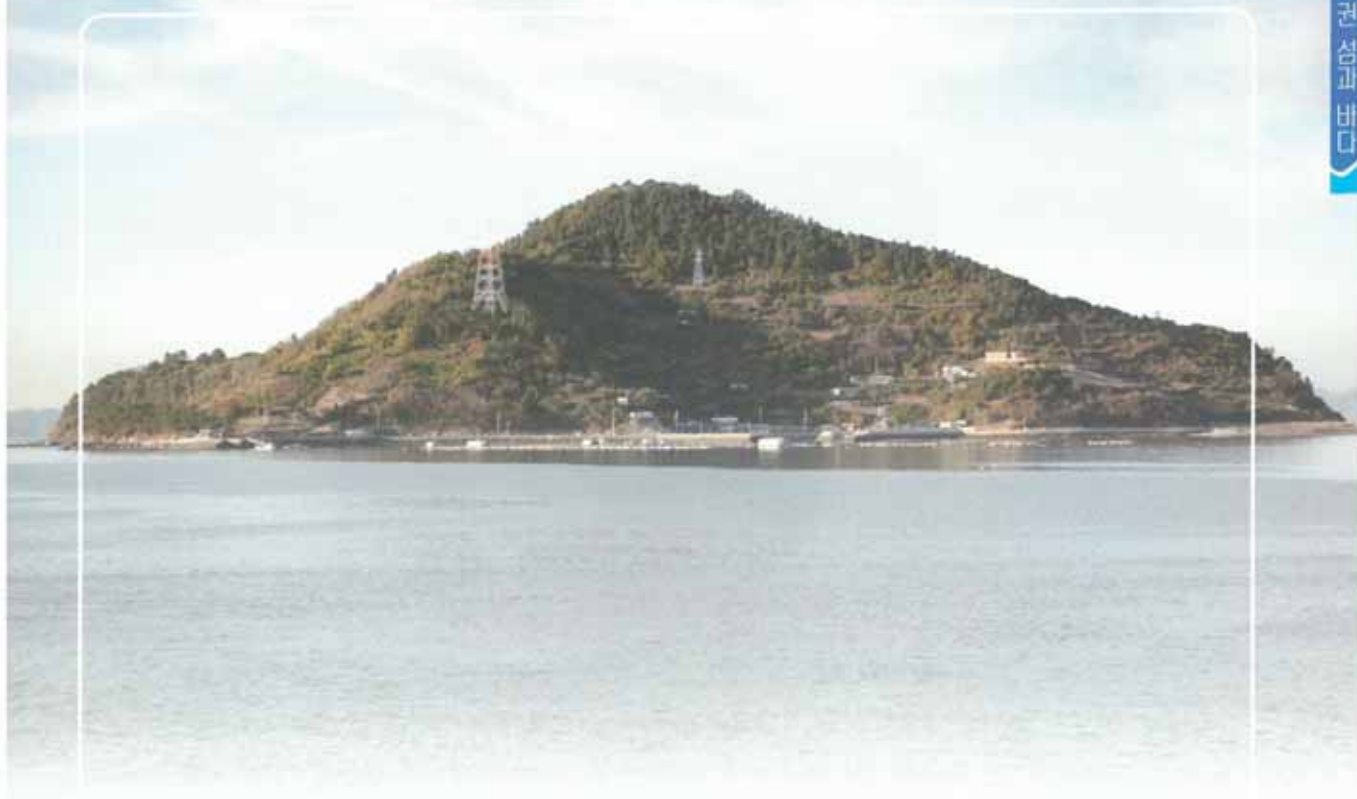
월호에는 1936년에 설립된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있다. 도서지방으로는 남면 우학리 교회가 1908년에 설립되었으며, 월호교회가 다음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서사리(글성리) 월호마을 남서쪽 약 2km 지점에 농로를 따라 형성된 작은마을로 옛날 한 선비가 주변 경관이 수려하여 잠시 머물면서 해안



▲ 월호마을

절벽에 글을 새겨 놓았다고 전하는 서사리 또는 글쓴개, 글쌍이가 있었다.



#### 4. 자봉도(自峰島)

(2009년 2월)

세 대	인 구 (명)			면적 km <sup>2</sup>	해안선 km	공 공 기 관	교 육 기 관	교 통	선착장
	계	남	여						
31	60	32	28	0.34	6.14	1	폐교	일2회	2

화정면 소재지로부터 동남쪽 약 6km 떨어져 있는 섬으로, 동쪽 2.5km지점 돌산읍 송도가 있고, 남쪽에 월호도가, 남서쪽으로 개도가 위치하고 사면이 바다로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김과 어류축양 등이 주민들의 주소득원이 되고 있다. 자봉도의 김은 옛날에는 진상품으로 유명하였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화정면 월호리 자봉마을로 운영되다가 1945년 자봉리로 분리 현재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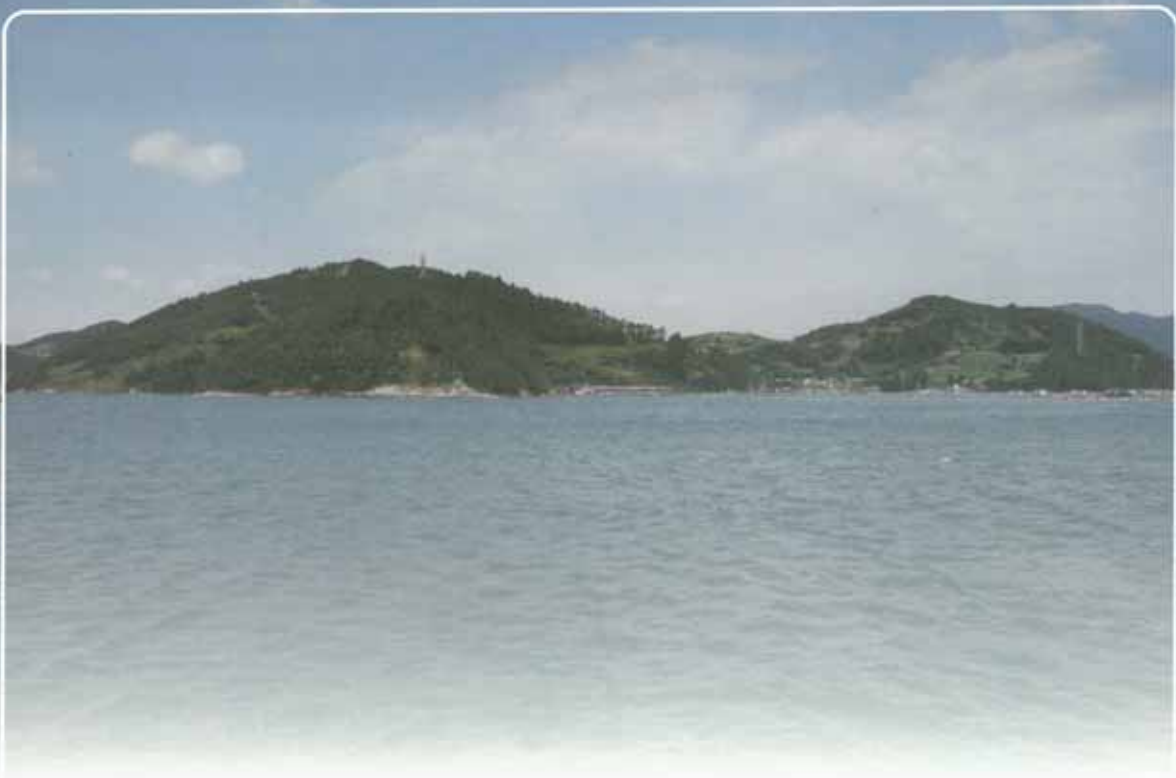
임진왜란 후 광산김씨인 김지열이 입향하여 마을을 형성하고 창원 황씨, 전주이씨 등이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1860년대 김정호가 편찬한 『대동지지(大東地志)』전라도 순천 도서조(島嶼條)에는 '자봉도(自峰島)'라는 섬 이름이 두리도(斗里島)와 함께 나타난다. 1872년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순천 방답진 지도에는 "자봉도는 방답진으로부터 물길



로 15리 떨어져 있고, 수심은 30장이다(自峯島自鎮水路十五里水深三十丈.)"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외적의 침입 상황을 살펴서 알렸던 요망대가 표시되어 있다. 1899년 돌산군수 서병수가 편찬한 『여산지(麗山誌)』에는 "자봉도는 서남쪽 10리 수태도 서쪽에 있으며 주위는 3리이다. 그 산의 생김새가 모두 정정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는 섬의 산봉우리가 하나이고 섬 모양이 큰새가 앉아 있는 형세를 하여 좌봉도(座鳳島)라 불렀다 하고, 봉황새 중에는 붉은 봉황이 길조라 하여 자봉(紫鳳)이라 부르다가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 때 자봉도(自峰島)가 되었다.

자봉도에는 웃물(上村)·중등물(中村)·아랫물(下村)과 같이 가옥의 위치에 따라 마을을 구분하고 있으며, 동쪽에는 새로이 터를 만들어 집을 지었기 때문에 셋터물(新基村)이라고 부른다.

과거 마을의 안녕을 빌면서 당산제를 모셨던 상봉의 바위는 인공으로 다듬은 것처럼 처마모양을 갖추고 있고, 주위에는 약 200년 된 팽나무가 있다. 자봉 마을 동쪽에 비스듬히 누워 있는 10여 평 정도의 넓고 큰 바위가 있는데, 이를 '상바구'라 한다. 옛날에는 이 바위가 울안으로 들어오면 마을에 상서로운 일이 생긴다 하여 바위에 울타리를 막아 직접 보이지 않게 하며 숭배했다는 전설이 있다.



## 5. 제리도(諸里島)

(2009년 2월)

세 대	인 구 (명)			면적 km <sup>2</sup>	해안선 km	공 공 기 관	교 육 기 관	교 통	선착장
	계	남	여						
64	141	74	67	1.05	9	2	폐교	일3회	4

제리도는 화정면 소재지로부터 동남쪽으로 2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동쪽에는 돌산읍이 5.5km 지점에 위치하고 동남쪽 1km 지점에 개도가 있다. 1896년(고종 33) 3월 22일 돌산군 설립당시 화개면 제도로 부르다가 1914년 여수군 화개면과 옥정면이 통합되면서 화정면 제도로 불린다.

임진왜란 당시 옥천육씨가 난을 피하기 위해 처음 입도한 후 나주임씨, 성주배씨, 김해김씨, 달성서씨, 밀양박씨가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1454년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단종실록』에 '제리도(齊里島)'에 관한 기사가 있다.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17세기 중엽에 저



술된 『동국여지』 및 1765년경 8도의 읍지를 수집하여 편찬한 『여지도서』, 1860년대 쓰여진 『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모두 “제리도는 백야곶의 동쪽에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한편, 1872년 제작된 순천 방답진 지도에는 제리도(諸里島)로 표기되어 있다.

① 제리도 목장터

병조가 올린 정문에 “제리도 목장은 돌산만호가 송도목장은 내례만



호가 관리하는 땅이니, 청컨대 감목을 겸임하게 하소서.” 기록을 통해서 목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해안지형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바람과 관련되어 ‘하늘땀’이 있는데 이는 북서풍인 하늬바람이 심하게 부는 곳을 의미하며, 제도에서는 자갈밭 해수욕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해안침식 지형으로 해식동과 관련된 ‘각시굴’은 마을 뒤 바닷가에 위치한 조그마한 굴로서 새색시의 방과 같이 생겼기 때문에 붙여졌고, 바위의 색깔이 붉은색과 검은색이 조합되어 붙여진 ‘얼릉바’ 등이 있다.



▲ 제도마을

## ③ 조형민 시적비

제도에는 통정대부 전 의관 조공형민 시적비(通政大夫前議官趙公亨敏施績碑)가 있는데 개도에 있는 화정초등학교에 다녀야만 했던 제도 학생들과 가난한 섬 주민을 위해 10여 년 간 무료로 나룻배를 운영하였으며, 뱃사공의 임금으로 매년 보리 10가마를 주었다. 그 고마운 뜻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 ④ 당제

‘하당(사장독)’은 매년 음력 3월 3일을 택해 주민들이 마을의 안녕을 비는 마지막 제당으로 제물을 돌 밑에 묻었고, ‘중당(굴사당)’은 가운뎃거리로 당집 터만 남아 있던 곳에 1984년 다시 건물을 세웠다.

제도에서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지내는 제의를 ‘당제’ 또는 ‘도제’라고 한다. 제사를 모시는 날은 음력 3월 삼짇날 새벽이다. 3월 1일 노인회 주관으로 당집을 청소하고, 3월 3일 해가 뜬 무렵 당주 부부가 당집에 올라가서 제를 지낸다. 당집 내부에는 ‘선당신령지신위(先堂神靈之神位)’라고 쓴 위패를 모시고 있다.



## 6. 낭도(狼島)

### 1) 개관

(2009년 2월)

세 대	인 구 (명)			면적 km <sup>2</sup>	해안선 km	공 공 기 관	교 육 기 관	교 통	선착장
	계	남	여						
202	343	147	198	5.33	19.5	4	초, 중	일5회	5

낭도는 면소재지에서 서북쪽으로 12km 떨어진 곳에 있는 섬이다. 동북쪽 4.2km 지점에 화양면, 북서쪽 22.5km 지점에 고흥군, 북쪽으로 적금도, 둔병도, 조발도가 위치하고, 남쪽 500m 거리에 사도, 추도가 있다. 섬의 형태가 여우를 닮았다고 하여 '이리 낭(狼)' 자를 써서 낭도(狼島)라 부르게 되었으며, 임진왜란 때 강릉 유씨가 처음 섬에 들어와 정착하였다고 한다.

동쪽에 상산(301.5m)이 있고 대부분은 낮은 구릉지이다. 해안은 만과 꽃이 교대로 연이어져 있어 해안선의 드나들이 복잡하다. 만입부는





대부분 사질해안이고, 남쪽 돌출부는 암석해안이다. 주변해역은 봄과 여름에 제주 난류가 북상하여 난류어족이 많이 모여들어 좋은 어장을 형성하고 있다. 마을은 섬 중앙의 만에 집중되어 있고 낭도해수욕장이 유명하다.

## 2) 문화와 관광

### ① 공룡발자국 화석지

낭도리 공룡 발자국 화석지 및 퇴적층은 2003년 2월 4일 천연 기념물 제434호로 지정되었다. 낭도리 공룡 화석지는 화정면에 속하는 사도, 추도, 낭도, 목도, 적금도 등 5개 섬 지역의 백악기 퇴적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조사 결과 발견된 공룡 발자국 화석은 총 3,526점으로 사도에서 755점, 추도에서 1,759점, 낭도에서 962점, 목도에서 50점, 적금도에서 20점이다. 종류도 다양해 앞발을 들고 뒷발만으로 걷는 조각류, 육식 공룡인 수각류, 목이 긴 초식 공룡인 용각류 등의 발자국이 발견되었다. 이 중에서 조각류 발자국이 전체의 81%에 달할 정도로 많이 나타났다. 한편 이어진 발자국들, 즉 보(步) 행렬의 화석이 나왔는데, 길이 84m의 보 행렬 화석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여수 낭도리 공룡 화석지는 전남 및 경남 지역 해안에서 이미 발견된

공룡 화석지를 연결하고 일본과 중국 등을 연결하는 중생대 백악기의 범아시아 생태 환경 복원을 가능하게 할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낭도리 공룡화석지는 국내 및 해외에서 발견된 기존 공룡 화석지와는 다르게 내륙 및 해안 지역이 아닌 5개의 가까운 섬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이와 함께 각종 식물 화석, 연체 동물 화석, 개형충 화석과 함께 연흔, 건열 등의 다양한 퇴적 구조가 발달되어 있어 국내 및 범아시아 공룡 서식 환경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가능하다.

### ② 낭도목장

1701년(숙종 27) '군수(軍需)를 보충할 수 있는 땅을 혁파한 후에 재정이 궁핍해졌으니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문서와 1757년(영조 33)부터 1765년(영조 41)까지 펴낸 295개의 읍지 중 『여지도서』를 통해 볼 때 지리와 역사의 현장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871년 10월 발행한 『국화목개지급사례』에 의하면 낭도에도 목장을 설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낭도 목장은 규모가 20리로 말 9필과 곡초는 3,000뭇이다.

### ③ 여산 마을 당제



▲ 낭도 여산마을 당산나무

낭도의 여산 마을에서는 당산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고 당제를 지낸다. 예전에는 윗당 1곳과 아래당 두 곳이 있었지만 30여 년 전 아래당에 있던 목장승이 썩어 없어지고 당산 나무도 말라 죽자 현재는 윗당에서만 당제를 지낸다. 제사를 모시는 날은 음력 1월 14일이며, 자정부터 15일 새벽 2시까지 제를 지낸다.

### ④ 낭도 등대

여산마을 동남쪽 약 2km 지점에 사도마을 쪽에는 송곳여가 있고, 낭도 쪽에는 증천여가 있어 크고 작은 선박 피해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 1971년 정부의 지원으로 등대가 세워졌다. 이 등대가 남도의 '남포등대'다.

### ⑤ 보호수

남도에는 3그루의 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그 가운데 팽나무가 2그루이고, 느티나무가 1그루이다. 팽나무 1그루는 마을 당산 나무로 옛날 풍어제 및 기우제를 지냈던 나무이다. 느티나무 한 그루에는 종을 매달아 마을 행사가 있을 때 종을 쳐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였으며, 현재는 정자나무로 활용하고 있다.



▲ 남도 여산마을 등대

### ⑥ 상산 봉수대

남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상산(301.5m)이며, 과거에는 주변의 상황을 봉수로 알리던 요망소가 있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측량했던 기점 표시인 십자표시가 지금도 남아 있다.

남도는 섬이기 때문에 어업과 관련된 땅 이름이 많다. 예를 들어 여





### ■ 연도교

남도과 적금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사업 계획에 따르면, 약 437억 원이 소요될 길이 500m의 사장교, 남도와 둔병도 사이에 길이 600m의 연도교가 세워지게 된다. 또한 사도와 남도 지역이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보전하면서 휴양 콘도미니엄, 펜션 단지, 자연형 숙박 시설, 해수욕장과 잔디밭매장, 공동발

자국 화석체험장, 문화유적지공원 등을 세워 관광산업을 육성시키려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산 마을 북서쪽 약 1.5km 지점에 있는 '고막포'는 수심이 얕고 갯벌이 좋아 예로부터 참고막이 많이 잡혀 붙여진 이름이고, '도낙포'는 낙지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드래곳'은 옛날 장어잡이 어선들이 '드래'라는 그물로 장어를 잡았으며, 탐동마을 남쪽 약 600m 정도에 바위에 바닷물이 고여 소금이 되면 채취하여 식용으로 사용한 모소금, 여산마을 동쪽 약 1km 정도의 굴에 금이 낫다는 금굴, 여산마을 서쪽 약 2km 정도에 탐을 쌓은 것 같이 생긴 탐고지등, 일제강점기 시대에 염전으로 사용했다는 낭도 제방, 여산마을 동쪽으로 약 2km 정도에 금같이 모래가 뻗쳐있어 장사금이 있다.

### ⑦ 조선시대 낭도 사람의 표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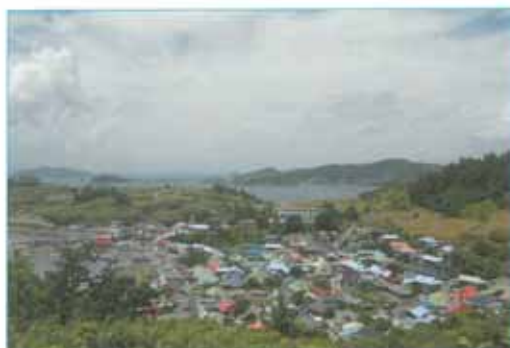
조선시대 낭도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정암회(鄭淹回)가 일본에 표류한 후, 표류민으로서 정당한 대접을 받으며 돌아온 과정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전라도 순천부 소라포면 낭도에 사는 정암회와 8명은 1791년 9월 29일, 고기를 팔기 위해 돈 300냥과 쌀 10석, 유지 30동을 함께 신고 강원도 평해를 향해 출발했다. 10월 4일, 울산부 항도에 도착해 쌀 4석을 팔아 80냥을 벌었으나 9일 점심 때 즘(午時) 장기현 포을천 앞에서 풍랑을 만나 표류하게 되었다. 13일 새벽 어느 곳에 표착했으며, 그곳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구했다.

그곳은 일본의 시마네현 이즈모슈(出雲州) 간도군(神門郡)고바다이

었다. 11월 15일 다시 나가사키(長崎)로 갔다가 다음 해 4월 5일 대마도를 통해 부산의 동래로 돌아왔다.

### ⑧ 여산마을



▲ 낭도 여산마을

낭도에서 가장 큰 마을로 섬의 모든 산이 아름답고 수려하여 고을 려(麗)자와 퇴산(山)자를 써 여산마을이라 부른다. 상산봉이 자리한 섬의 동편이외는 대부분이 구릉이고 지질은 대

부분 중성호산암류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시설로 1939년 4월 13일에 설립한 여산초등학교와 1969년 화정중학교 낭도분교로 개교한 후 1973년 낭도중학교로 승격되었으나 학생수 미달로 인해 1998년 3월 1일자로 낭도초등학교와 화양남중학교 낭도분교가 되었다.

### ⑨ 규포마을

규포는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마치 인장처럼 생겼다고 하여 도장개로 불렸다. 도장 규(閼)와 물가 포(浦)자를 합하여 규포리라 부르게 되었다.

낭도의 주산인 상산은 규포마을 뒷산으로 높이는 약 301.5m다. 정상에 있는 봉수대 터는 임진왜란 당시 고흥의 팔영산의 봉수대의 신호를 받아서 화양면 봉화산을 거쳐 여수 종고산 북봉연대로 연결한 곳이다. 또한 정상에는 일제강점기에 측량하던 기점 십자표시가 있다.



## 7. 사도(沙島)

(2009년 2월)

세 대	인 구 (명)			면적 km <sup>2</sup>	해안선 km	공 공 기 관	교 육 기 관	교 통	선착장
	계	남	여						
21	41	16	25	0.4	6.4	1	1	일5회	2

화정면 소재지 백야리에서 서북쪽으로 9.2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섬으로 동북쪽 5.5km 지점에 화양면이 있고, 서북쪽 4km 지점에 고흥군이 있으며, 동북쪽 500m 지점에는 낭도리가 있다.

1792년(정조 16) 무렵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순천부읍지 도서조에 “사도는 꽃섬의 서쪽에 있다. 9개 섬에 사람들이 논과 밭을 경작하며 살고 있는데 좌수영 둔전에 속한다.”

1896년(고종 33) 돌산군 옥정면 낭도리 사도라 칭하였으며, 1914년 여수군 화정면 낭도리 사도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도는 중도, 추도, 사도, 장사도, 나끝, 연목, 중도 등 인접한 7개



화정면 사도

의 섬 중 하나로 바다 한가운데 모래로 쌓은 섬 같다고 하여 모래섬 또는 사호도라고 부르기도 했다.

조석 간만의 차가 가장 큰 영등, 백중사리 때 7개의 작은 섬이 육계사주로 연결되는 육계도이며, 시루섬에는 기암괴석이 많다. 임진왜란 때 성주배씨가 이곳을 지나다가 해초가 많아 살기에 적당하여 터전을 잡았다고 전한다.

2000년 12월 23일 중생대 백악기 시대로 추정되는 공룡과 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어 2001년 12월 전라남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도 해수욕장, 양면 해수욕장, 육계사주 등 다양한 해안 퇴적 지형과 규화목 화석 등 지리사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 2) 문화와 관광

### ① 신비의 바닷가

사도는 1년 가운데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영등사리와 백중사리



▲ 신비의 바닷길

때면 7개의 섬이 'ㄷ'자 모양으로 연결된다. 지구에 대한 달의 운동에 따라 조석 및 조류 운동에 미치는 힘(起潮力)이 변화된다. 달, 태양, 지구가 일직선에 위치하는 초생달과 보름달에 기조력은 최대가 되는데,

이때를 대조(大潮)라 한다. 대조가 되면 조류의 높낮이, 즉 조차가 심하게 나타나게 되어 대조차가 형성된다. 특히 삭(朔) 및 망(望)이 된 후 조차는 더욱 극대화 되어 최고 고조와 최저 저조가 형성된다. 이때, 섬과 육지 쪽의 수심이 얇은 부분에 최저 저조가 나타나 바다 밑바닥이 물 위로 노출 되어 육지와 연결되는 현상이 나타나

게 되는데, 이를 '육계사주(陸繫沙洲)'라 하

고, 육지와 연결된 섬을 '육계도(陸繫島)'라 한다.

'ㄷ'자로 연결되는 육계사주도 독특하지만 나끝에서 추도까지의 바다 갈라짐 현상은 '모세의 기적'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가며, 해삼, 고둥, 미역, 청각 등을 채취할 수 있어 갯길 체험의 재미를 한껏 누릴 수 있다.

## ② 공룡발자국 화석지

주로 발자국이 남는 지역은 과거 호수의 가장자리나 바다의 가장자리였던 곳으로 공룡이 이곳을 걸어갔을 때는 지금처럼 단단한 바위가 아닌 부드러운 퇴적물이어서 위를 걸어갈 때 흔적이 남게 되었다. 이 퇴적물이 공룡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한 채 퇴적암으로 남으면서 공룡의 발자국도 남을 수 있었다.

사도와 중도 사이, 해안에 노출된 이암층이 파도에 의해 침식되어 지표가 낮아지면서 노출된 퇴적층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보존 상태는 불량하지만 많은 조각류의 발자국이 발견되었다. 심지어 84m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긴 조각류 보행열이 발견되었다.

남도는 선착장을 중심으로 남쪽 해안과 남도 등대 북동쪽 연안의 가파른 해안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적색 내지 담녹색의 사암, 실트





### ■ 공룡

공룡은 2억 3천 만 년 전에서 6천 5백 만 년 전의 시기, 즉 중생대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대형 척추동물이지만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린 고생물 중 하나이다.

공룡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디노사우리아(Dinosauria, 공룡)로 공포를 뜻하는 데이노스(deinos)와 도마뱀을 뜻하는 사우로스(sauros)의 합성어로 ‘공

포의 도마뱀’을 뜻한다. 거대한 초식 공룡의 길이가 20~30m이고, 그 몸무게가 50톤에 달한 이 파충류는 중생대 약 1억 6천 만 년 동안 생존했는데, 현재 지구에 번성해 있는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가 겨우 6천 5백 만 년 동안 생존한 것에 비하면 공룡은 아주 성공적으로 생존한 동물 무리이다.

스톤, 세일이 서로 어긋나게 만나는 지층에서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었으며, 썰물 때 화석지가 노출된다.

### ③ 중도

물결자국화석(漣痕, Ripple marks)이란, 물이나 파도에 의해 퇴적물이 쌓이면서 표면에 만들어지는 요철(凹凸)구조로, 주로 모래 퇴적물에서 발달된다.

일반적으로 하천에서처럼 물이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곳에서는 비대칭으로 나타나며, 바다나 호수에서 발생하는 파도에서처럼 물이 회전 또는 왕복 운동을 하는 곳에서는 대칭으로 나타난다.

사도 일대의 퇴적층에는 연흔(漣痕 Ripplemark)이 공룡 발자국과 함께 나타나는데, 이 지역의 연흔은 대칭형이 주를 이루고 있어 과거 이곳이 호숫가였음을 알려준다.

건열(乾裂)은 물속에서



▲ 중도 물결무늬 화석

쌓인 퇴적물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됨에 따라 퇴적물 내에 들어 있던 수분이 증발, 수축되면서 나타나는 균열 현상이다.

퇴적물의 수축에 의한 균열 현상은 응집력이 강한 점토질로 이루어진 진흙 퇴적층에서 주로 나타난다. 사도를 비롯한 주변 지역의 퇴적층에는 균열이 흔히 나타나는데, 이 균열들은 백악기에 이 지역에 존재했던 호숫가의 퇴적물들이 가뭄에 의해 수면 위로 노출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 ④ 전설의 바위

사도 마을 동남쪽 약 400m 지점에 있는 커다란 바위들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금이 가고 떨어져 나가면서 다양한 모양으로 변하였다.

사도에는 생김새가 거북이 모양을 닮은 '거북바위'가 있는데, 임진왜란 전 이순신 장군이 명석바위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거북이처럼 생긴 바위를 보고 거북선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는 전설이 있다.

명석바위는 시루섬 장군바위 옆에 있는 넓은 명석 같은 바위로, 이순신 장군이 부하들과 함께 전술을 논의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자연이 만들어 준 다양한 아름다움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도록 각 바위에는 간략한 설명과 바라보는 방향을 표시해 주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 ⑤ 규화목 화석

시루섬 동쪽 해안에 높이 약 30m 길이 약 50m의 규화목 화석층이 형성되어 있다. 이 화석은 걸씨(裸子)식물의 구과목



(毬果目)에 해당하는 측백나무류로 밝혀졌다. 목재 화석은 과거 지질 시대에 자라던 목본 식물의 목재가 암석화 한 것이다. 목재 화석은 암석화 과정에서 식물 조직과 유기물이 보존되며 식물 부위의 크기와 형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 식물과 그 식물이 자라던 환경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 규회목 화석

## ⑥ 용미암



▲ 용미암

‘용미암’은 시루섬 안에 있는 바위로 그 모양이 용꼬리 같이 생겨 이렇게 부른다. 사람들은 제주도의 용두암과 사도의 용미암을 연결시켜 한 마리의 용으로 이야기 한다.

지하에서 만들어진 마그마는 깊은 곳에서 식어 화강암과 같은 심성암체를 만들기도 하고 지표로 이동한 뒤 분출하여 화산암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마그마의 이동은 암석들 안에 만들어진 틈을 따라 이루어지며, 틈을 채우고 있던 마그마가 식어서 암석이 되면 암맥

(Dike)으로 나타난다.

용미암의 암맥은 바닷가를 따라 노출된 지층을 가로질러 분포하며, 앞의 절벽에 보이는 지층들을 거의 수직으로 자르고 있다. 바닷가의 암맥을 따라가 보면 지층을 자르는 면이 반듯하지 않고 몇 차례 방향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⑦ 취등

사도와 추도 사이를 연결하는 바닷길 같은 무인도다. 매년 썰물 때 8~10회에 걸쳐 길이가 약 700m 정도이고 넓이가 6~7m나 드러난다. 바닷길이 열리면 조개를 비롯한 각종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다.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로부터 새로운 체험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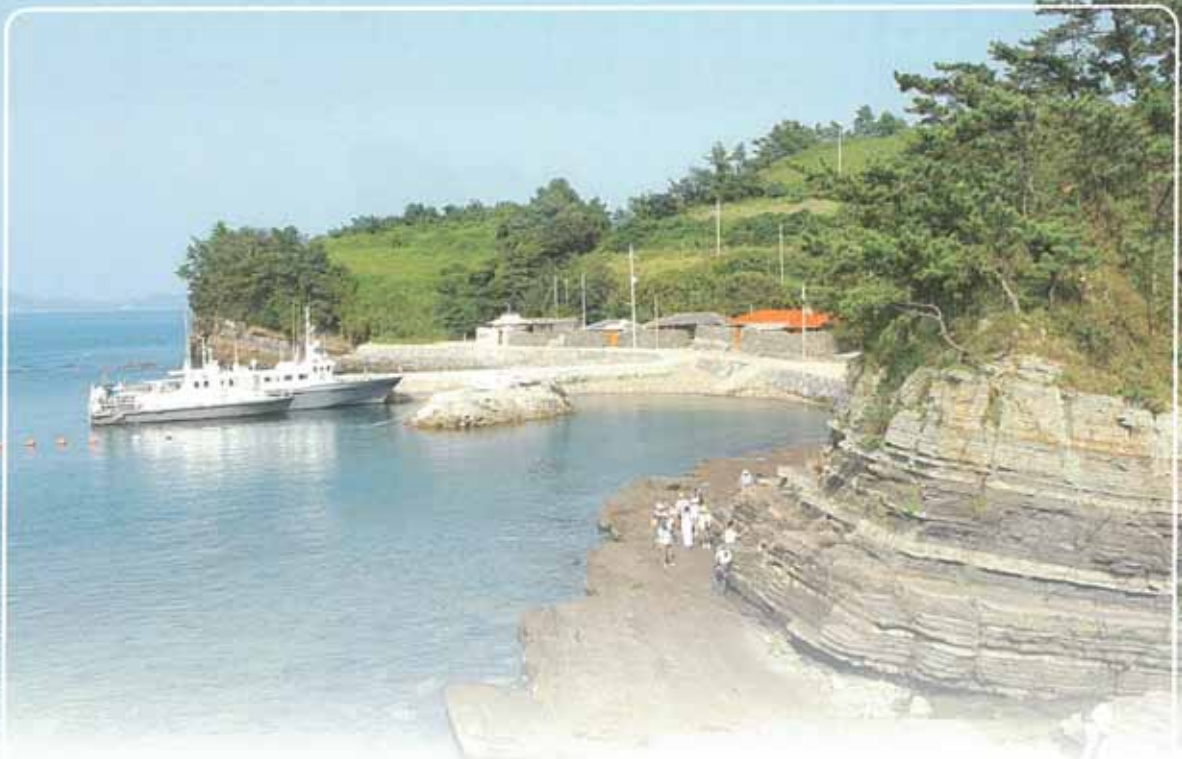
### ⑧ 해수욕장

사도 마을 동남쪽 해안으로 해수욕하기에 적합하다. 여름 휴가철에는 경향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서를 오는 곳이다. 남해의 맑은 물과 풍부한 먹거리 그리고 넉넉한 인심을 곁들인 유적지 마을이요, 용왕님의 선물이다.

### ⑨ 젖샘

젖샘에는 웅달샘 두 개가 있다. 산모가 아이를 출산한 후 젖이 부족하면 심야 삼경에 정갈하게 목욕재계한 후 준비한 물병과 조롱박과 불을 켤 수 있는 관솔을 가지고 가서 불을 켜 후 정성껏 물을 담아 와서 산모의 젖가슴을 문지른 다음 수유를 한다. 3일 밤이 지나면 기적적으로 젖이 나와서 아이를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는 샘이다. 7년 가뭄에도 샘물이 마르지 않고 또한 넘치지 않는 웅달샘이다.





### 8. 추도(秋島)

(2009년 2월)

세 대	인 구 (명)			면적 km <sup>2</sup>	해안선 km	공 공 기 관	교 육 기 관	교 통	선착장
	계	남	여						
3	3	1	2	0.04	2.6		폐교	사도	1

추도는 사도리의 1개 자연 마을로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섬에 취나물이 많이 자생하여 '취' 자를 썼으나 한자로 고치면서 미꾸라지 추(鮚)자로 변음 되었다고 한다. 추도는 직접 연결되는 여객선이 없어 마을 주민의 선박을 이용해서 사도와 낭도를 통해서 육지로 갈 수 있다.

추도는 멀리서 보면 두 개의 섬으로 구성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원래 퇴적암을 거의 수직으로 꿰뚫고 들어간 관입(貫入) 맥암이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떨어져 나가버리자 마치 칼로 두부를 잘라 놓은 듯한 모습으로 변한 것이다.



2001년 전남대학교 한국공룡연구소팀에 의해 약 84m에 이르는 43개의 공룡 보행렬이 보고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 추도 돌담길



## 9. 상화도(上花島)

(2009년 2월)

세 대	인 구 (명)			면적 km <sup>2</sup>	해안선 km	공 공 기 관	교 육 기 관	교 통	선착장
	계	남	여						
37	67	28	39	0.73	6.4	1	폐교	일1회	5

화정면 면소재지로부터 서북쪽으로 약 4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동쪽 4.5km 지점에 화양면이 있고, 동남쪽 1km 지점에 하화리가 위치하고 있으며 사면이 바다인 섬 마을이다.

1896년(고종 33) 돌산군 설립 당시 화개면 상화도로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화개면과 옥정면이 통합되면서 화정면 상화리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동여지도 제작자였던 김정호가 1861년 편찬을 시작하여 1866년 까지 보완한 것으로 알려진 『대동지지』에는 “큰 꽃섬과 작은 꽃섬을 비롯해 안도, 낭도, 두음방도 등이 모두 백야곶의 서남쪽에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 상화도

임진왜란 후 성주 배씨가 처음으로 입도한 후 김해김씨, 밀양박씨, 김녕김씨, 광산김씨가 들어와 마을이 형성된 섬이다. 상화도는 복개를 얹어놓은 것 같아 복개섬이란 별칭이 있다. 혹은 소머리

리같이 생겼다고 하여 소섬으로 불리었다. 그 후 섬 전체가 진달래꽃과 선모초꽃이 많아 꽃섬 또는 옷꽃섬이라 부르다가, 두 개의 꽃섬 중 위쪽에 있다 하여 상화도라 부르게 되었다.

## 10. 하화도(下花島)

(2009년 2월)

세 대	인 구 (명)			면적 km <sup>2</sup>	해안선 km	공 공 기 관	교 육 기 관	교 통	선착장
	계	남	여						
31	77	41	36	0.56	4.9		폐교	일회	2

화정면 소재지에서 서북쪽으로 약 3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동쪽 5.5km 지점에 육지인 화양면이 있고, 서북쪽 1km 지점에 상화리가 위치하고 있다.

돌산군 설립 당시 화개면 상·하화도로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화개면과 옥정면이 통합되면서 화정면 상·하화리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화도의 섬 전체가 동백꽃과 진달래꽃, 선모초가 만발하여 꽃섬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하화도에 1988년 4월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태양광발전소가 건설됨에 따라 철탑이 없이 전기를 공급받는 섬이 되었다.

『여산지』에는 화개면(華蓋面)의 “하화도는 면에서 서쪽으로 40리 떨어져 있고, 백야도의 서쪽에 있으며, 둘레가 10리 이다. 상화도는 면에서 서쪽 45리, 하화도의 서쪽에 있으며, 둘레는 7리 이다.”라고 위치와





### 화정면 상·하화리



▲ 하화도 태양광발전소

거리를 기록하고 있다.

하화도 마을 앞 바다에는 밀물 때는 물 속에 잠기고 썰물 때만 보이는 일곱 개의 바위섬(sea-stack)이 있어 마을 사람들은 이를 '칠때'라고 부르며, 대표적인 농어 낚시 포인트

로 활용되고 있다.

1981년부터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되어 오늘 까지 지속되고 있다.

주산업은 반농 반어로 특히 부추(소불, 정구지)를 많이 재배하는데 타지보다 먼저 출하하여 소득을 높이고 있다. 마을 뒤편은 파도가 높고 거세서 갯바위 낚시로 유명하다.

전너편 상화도 보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었는데 그 이유는 주민들이 소금을 받아서 육지로 내다파는 유통을 하였기 때문이다.



▲ 여자만 갯벌

## 11. 여자도(汝自島)

### 1) 개관

(2009년 2월)

세 대	인 구 (명)			면적 km <sup>2</sup>	해안선 km	공 공 기 관	교 육 기 관	교 통	선착장
	계	남	여						
108	289	157	132	0.77	7.5	2	1	일4회	3

화정면 소재지에서 북서쪽 해상 27.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 4.5km 지점에 화양면과 소라면이 있고, 북서쪽에 벌교읍과 서쪽에 고흥반도가 있다.

순천만, 여자만, 득량만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1896년(고종 33) 3월 2일 돌산군 설립시 옥정면 여자도라 하였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화개면과 옥정면이 통합되면서 화정면 여자리로 개칭되었다.

자연마을은 소재지인 대동마을과 마파마을 그리고 송여자도의 송



화정면 여자리

여자 마을이 있으며, 이 3개 마을이 하나의 법정리를 구성하고 있다.

임진왜란 당시 낙안군 선소에서 남원방씨가 처음 입도하여 마파마을에 살았으며 그 후 초계최씨, 광산김씨, 김녕김씨 등이 살고 있다.

1760년대 쓰여진 『여지도서』에는 각 지역의 지도도 포함되어 있는데, 낙안군에는 ‘여음주도(汝音朱島)’가 장도 등과 함께 표기되어 지금의 여자도로 추정할 수 있다. 19세기 이후 제작된 지방도 가운데 『낙안군 지도(1872)』에는 “여음지도는 별교리로부터 물길로 30리 떨어져 있으며, 수심은 10척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 『호남연해형편도』에도 여음자도(汝音自島)로 표기되어 있고, 사람들이 살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여음주도’나 ‘여음자도’는 남자도를 이두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1745~1765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 『비변사인방안지도』, 호남지도 낙안군 지도에는 대여자도(大汝自島)와 소여자도(小汝自島)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1724~1776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동지도』 낙안군 지도에는 대여자도, 여자도가 장도와 해도가 함께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여산지』에는 “여자도(荔子島)는 돌산군으로부터 서쪽으로 120리 떨어져 있는데 적금도의 북쪽에 있으며, 주위는 40리이다.

송여자도(松荔子島)는 큰 소나무 한 그루가 있기 때문에 소나무 송

(松)자를 썼고, 여자도 북쪽에 있으며 주위는 20리 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섬을 중심으로 주변 섬들의 배열을 공중에서 보면 너 ‘여(汝) 자형이고, 과거에는 육지와와의 교통이 불편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한다는 뜻으로 너 ‘여(汝) 자 스스로 ‘자(自) 를 써서 여자도라 하였다.

## 2) 문화와 관광

### ② 남자바다(여자만汝自灣)

해양수산부는 2005년 7월 21일에, 1999년부터 실시한 우리나라 갯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여자만은 우리나라에서 갯벌의 상태가 가장 좋은 2등급으로 판명되었다.

여자만의 가장 안쪽인 순천의 대대동 일대를 순천만이라고 부르는데, 그 지역의 갯벌이 갖고 있는 생물종의 다양성과 다양한 기능이 국가적 자연 자산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2003년 12월 2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연안 습지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여자만은 전라남도 동부 해안에 위치한 만으로 여자도를 중심으로 보성군, 순천시, 여수시, 고흥군으로 둘러싸여 있는 바다를 가리킨다.

만 입구의 폭은 약 7.4km이며, 왼쪽과 오른쪽 수로는 수심이 20m 이상으로 깊지만 나머지 해역은 10m 이하인 얇은 바다이다.

또한 만의 평균 직경은 약 21.6km로, 여자만 안에는 2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산재해 있다. 북쪽의 경우 보성군 장도를 중심으로 해역에 전형적인 갯벌이 펼쳐져 있다.

만 입구에는 남도의 좌우에 있는 서쪽 물길과 조발도를 중심으로 한

물길에 의해 해수 교환이 이루어진다.

여자만의 입구에는 낭도, 적금도, 조밭도 등의 섬들이 다양한 경관을 유지하면서 만을 가로막고 있어 만 내에 잔잔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규모에 비해 큰 바다로부터 유입되는 바닷물의 양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내수면 뿐만 아니라 인근 바다까지 청정해역으로 유지되고 있다. 만



▲ 여자만 일몰

안쪽의 순천만은 여수반도와 고흥 반도에 둘러싸인 호수와 같은 곳으로서 드넓은 갯벌이 펼쳐져 있다. 순천시내로부터 순천만으로 유입되는 하천인 동천의 하류에는 갈대가 많이 자라기에 적합한 습지가 펼쳐져 있다.

2000년 여자만의 수온은 4.7~25.9℃로 북부 지역이 평균 16.2℃인데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인다. 염분도는 29.04~33.71‰로 순천시에서 유입되는 이사천 하구와 별교천 하구에서 최저 염분을 보이며, 만 입구로 갈수록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대 조차는 밀물 때 나타나며, 만의 중앙부에 위치한 여자도 근처에서 422cm, 만 입구인 낭도 근처에서는 388cm이다. 여자도 근처의 밀물 때와 썰물 때의 최대 유속은 각각 54cm/sec 및 63cm/sec로서 낙조시의 유속이 약간 크다. 여자만은 주변 육지로부터 큰 강의 유입은 없으나 소하천들이 모이는 곳으로 민물의 유입량이 매우 적은 전형적인 해안 만입형이다.

낭도 남쪽의 사도와 추도 등은 육지에서 바다로 뻗어 내려간 모래 퇴적 지형인 사취(砂嘴)가 발달하여 사리 때에는 크게 드러나 섬 사이를 다닐 수 있는 통로로 이용된다.

만 내부의 북부는 5m 이하의 수심을 보이고 동쪽보다는 수심이 얇아 서고동저의 해저면을 이루며, 갯골과 연결되는 부분은 5m 이상의 수심을 이룬다. 여자만의 조석은 여수항 기준으로 1일 2회의 밀물과 썰물이 나타나지만 평균 고조 간격이 9시간 2분으로 밀물과 썰물 때의 해수면의 차이가 심한편이다. 조석 간만의 차가 가장 심할 때는 3.6m, 작을 때는 2.3m이다. 여자도 근처에서 가장 유속이 빠를 때는 밀물 때 54cm/sec, 썰물 때 63cm/sec로 썰물 때 훨씬 강하다.

### ■ 여자만에 사는 저서생물

저서 생물이란 물 바닥에서 살고 있는 생물을 뜻한다. 여자만 갯벌에서는 총 274종의 저서 생물이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갯지렁이류(Polychaeta)가 122종으로 전체 종수 가운데 점유율은 44.5%였다.

갑각류(Crustacea)는 70종으로 전체 종수의 25.6%를 점유하였다. 연체동물(Mollusca)은 57종으로 20%를 차지하였다.

서식 출현 밀도는 평균 2,346개체/㎡였으며, 이 가운데 갯지렁이류가 1,543개체/㎡로서 65.8%를 차지하였다. 갑각류는 407개체/㎡로 17.3%, 연체동물은 274개체/㎡로 11.7%를 차지하였다.

## ② 여자만 갯벌

여자만 내 갯벌 면적은 27.0km<sup>2</sup>(갯벌 21.6km<sup>2</sup>, 갈대밭5.4km<sup>2</sup>)이며, 대대적인 간척 사업으로 원래 갯벌의 20%만이 보존되어 있다. 만의 서부와 북부, 즉 간척 사업이 진행되었어도 해안선의 굴곡이 심한 순천시 지역은 섬들과 인접하고 경사가 매우 완만함으로써 세립질 퇴적물이 쌓여 현재도 활발하여 갯벌이 확장되고 있다. 특히, 만의 북부 간척지 주변은 빠른 퇴적으로 간척지에 비해 더 높은 고도를 갖는 갯벌이 형성되어 있다.

만 내에는 육지로부터 공급되는 퇴적물이 적어 모래질 갯벌은 극히 소규모로 침식되는 해안선 부근에만 분포하며 만 전체에는 펄질 퇴적물이 분포한다. 적은 양의 민물 영향을 받는 만의 북서부에는 넓은 갈대습지가 발달하여 철새의 도래 및 서식, 어패류의 산란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금기가 있는 땅에서 사는 식물을 염생식물(Halophyte)이라고 하는데, 소금기가 있는 땅에서 식물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조건이 있다. 첫째, 높은 염분 농도에 의한 삼투압을 극복하면서 물을 흡수해야 하고, 둘째, 높은 농도의 나트륨, 염산, 마그네슘, 황산 등의 독성을 극복해야 한다. 셋째, 개흙알갱이가 작아 식물의 뿌리가 필요로 하는 공기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악조건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갯벌가에 자라는 염생 식물의 생존 노력은 눈물겹기까지 한다. 염생 식물 군락 형성은 갯벌의 물리적 환경에 영향이 크다.

## ③ 대동

대동마을은 여자리 소재지다. 소라면 달천에서 나룻배를 이용하여 마파마을에서 내려 41m 정도의 낮은 산허리를 돌아 가면 대동마을이다.

마을은 마파마을과 대동마을 뿐이고, 여수경찰서 출장소와 소라면 신흥초등학교 여자분교가 있다. 초등학교는 학생이 1명이다. 섬마을 초등학교는 아담하고 정감이 넘친다. 여기서 운동회를 하고 마을 체육대회 하던 곳이다. 그 옛날 소녀와 소년들의 웃음이 푸른 바다의 파도소리와 함께 들리는 듯하다.

대여자도에서는 효성이 깊은 며느리가 앞을 못 보는 시아비를 봉양하기 위해 바닷가로 나가 고둥을 잡아 지성을 다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죽었다는 '각시바위' 전설이 전해진다.



▲ 대동마을

## ④ 마파

마파는 여자도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지형이 말머리 모양을 하고 남쪽으로 향하고 있어 여름에는 남풍(마파람)이 많이 부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마파지라 한다. 마파마을에는 화정면 사무소 출장소와 보건지소가 있다.

마파에는 대동마을 가는 길목 주변에 옛날에 큰 샘이 있었는데 지금이 집수정이 되었다. 또한 서쪽 바닷가에 우물이 있었는데 옛날 자손이 귀한 어느 집안의 며느리가 아이를 잉태하여 이 우물에서 정화수를 길어와 공을 들여 옥동자를 낳았다고 하여 애기남태라 불리다가 그 후 애기남태가 되었다.

마파 마을의 입도 시조인 방씨네는 사윗감을 구하였는데, 섬에 도둑



▲ 마파마을

들이 많이 들어오자 적들로부터 섬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센 사위가 필요했다. 사윗감을 고민하던 방씨가 마침 보성에 장을 보러갔다가 장날 벌어진 씨름판에서 우승한 최씨를 데릴사위로 맞았다.

늦은 밤, 섬에 노략질을 하러 들어온 도적이 있어 방씨가 사위에게 알렸으나 장인의 두려움과 위급함에도 불구하고 최씨는 방에서 잠을 자면서 느긋하게 기다리라고 하였다. 노략질을 마친 도적들이 배에 짐을 가득 싣고 떠나려는데 갑자기 최씨가 배를 잡고 산으로 끌어 올려 버렸다. 도적들은 도망가기에 바빴고, 이후 여자도에 얼씬도 못하였다고 전한다.

## 12. 송여자도(松汝自島)

(2009년 2월)

세 대	인 구 (명)			면적 ㎢	해안선 km	공 공 기 관	교 육 기 관	교 통	선착장
	계	남	여						
27	59	28	31	0.17	3.75		폐교	일4회	1

송여자도는 1896년 돌산군 설군 당시 옥정면에서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화정면 여자리에 속하고 250여 년 전 김해김씨가 입도하여 정착하였다. 소나무가 많아 송여자도라 부른다.

송여자도에서는 소나무를 당산나무로 삼고 있다. 30여 년 전만 해도 이 소나무에 독수리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마을 뒤쪽 고개를 넘어서 내려가면 1968년 개교하여 2007년 3월 1일 폐교된 소라면 신흥초등학교 송여자분교가 있다.

분교는 바다를 오른쪽으로 두고 남향인 길쭉한 타원형이다. 예전에 이 곳의 학생들이 바다에서 고둥을 잡고 낚시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진다.

지역 교육청은 각 도서마다 폐교를 활용하여 여가선용과 정서순화 및 주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송여자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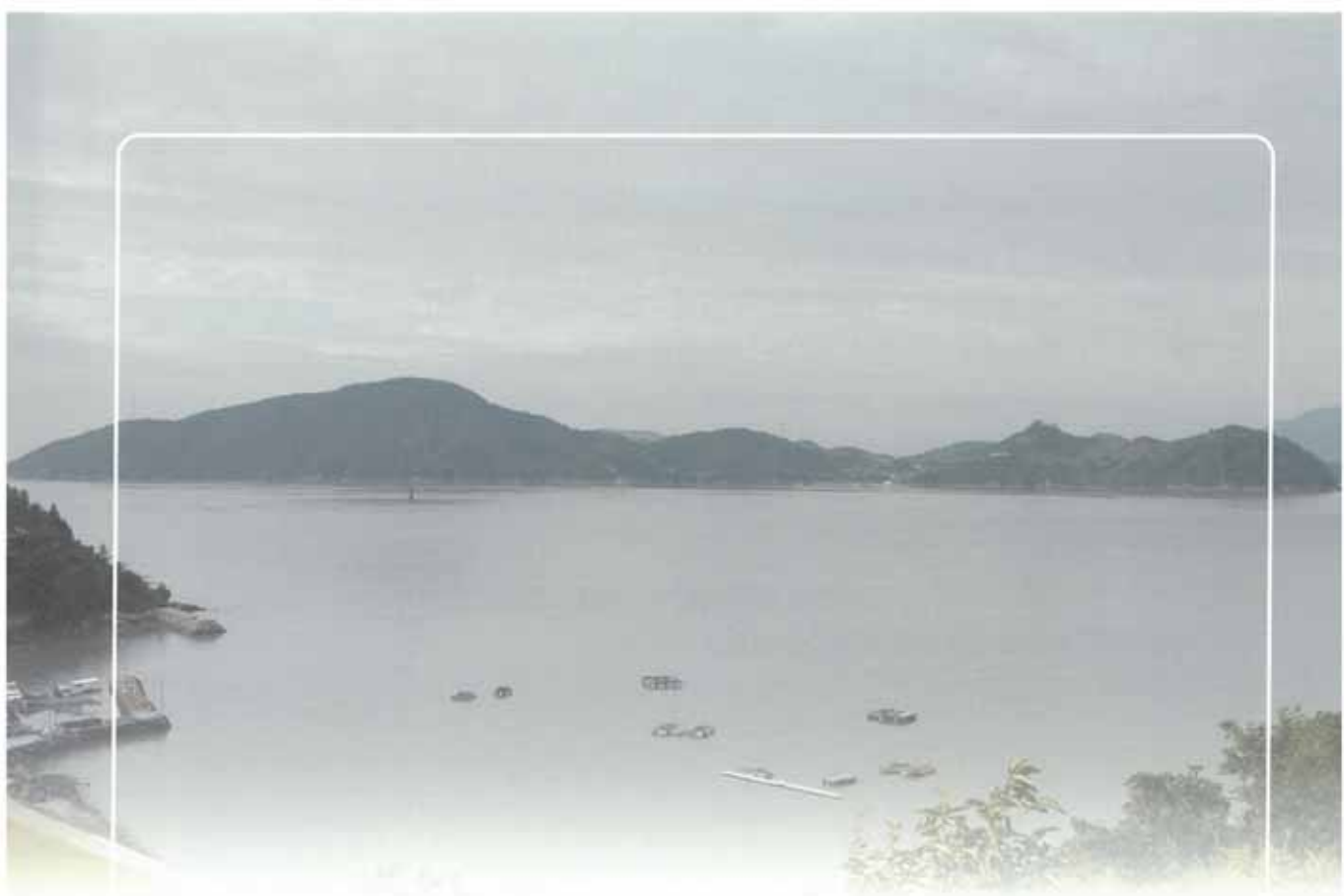


학교 주변을 주민들은 '왜막골' 이라고 부른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그 곳에 거주하면서 새우와 활어를 증매하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몰리는 왜막골에는 막걸리 주조장도 있었다.

송여자도에서 대여자도로 가는 바다 위에 조그마한 바위섬이 있는데, 전봇대가 덩그러니 세워져있다. 이 바위섬의 이름은 '검등여' 이며, 교환식 전화기를 사용했던 예전에 전화선을 연결하기 위해 전봇대를 설치한 것이다.

무선 전화기와 휴대폰이 일상화된 지금 전화와 관련된 역사적인 섬이다. 여름부터 초가을 사이 감성돔 포인트로 유명하다.





### 13. 조발도(早發島)

(2009년 2월)

세 대	인 구 (명)			면적 km <sup>2</sup>	해안선 km	공 공 기 관	교 육 기 관	교 통	선착장
	계	남	여						
32	62	30	32	1.05	7.8		폐교		5

화정면 소재지로부터 서북쪽으로 8.3km 지점에 위치하고, 동북쪽 2.3km 지점에 화양면이 있으며, 북서쪽 2.5km 지점에 둔병도와 남쪽 3km 지점에 낭도가 있다.

여자만을 지나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고, 1896년(고종 33) 3월 2일 돌산군 설군 때 옥정면 조발리라 하였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화개면과 옥정면이 통합되면서 화정면 조발리가 되었다.

임진왜란 당시 순흥안씨가 입도한 후 밀양박씨, 김해김씨, 경주이씨, 김녕김씨가 살고있다.

마을 형세가 말 등처럼 생겨 평지와 높은 산도 없으며, 지형이 모두



### 화정면 조발리

경사지로 되어 있어 주민들 간에는 ‘뼈뼉이 동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해가 뜨면 섬 전체를 일찍 밝게 비추어 준다고 해서 일찍 조(早)와 쏘 발(發)자를 써서 조발리라고 부른다.

조발도에는 임진왜란과 관련된 ‘마사지’라는 땅이름이 있는데 조발도 북동쪽 산 정상으로 망을 보면서 쉬는 곳, 즉 왜군의 동태를 살피던 요망소 기능을 담당했다고 전해진다. 서남쪽 500m 지점에 있는 고개를 ‘망재’라고 하는데 임진왜란 때 적의 동태를 살폈던 곳이라고 한다.

화양면 공진에서 조발도에 이르는 해협이 조발수로도 물길이 센 곳이다. 이 사이를 연륙교로 연결할 계획이다. 고흥에서 적금도와 낭도에 이어 둔병도와 조발도를 연결하는 연륙·연도교가 세워질 계획이다. 조발도는 조석간만의 차가 없어 어패류가 거의 서식하지 않아 고기잡이가 주산업이다. 또한 수발수로의 물길로 인해 어족자원이 풍부하지 못하여 적금도와 둔병도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편이다.



## 14. 둔병도(屯兵島)

(2009년 2월)

세 대	인 구 (명)			면적 km <sup>2</sup>	해안선 km	공 공 기 관	교 육 기 관	교 통	선착장
	계	남	여						
27	52	25	27	0.62	7.13		폐교		3

둔병도는 화정면 소재지에서 9.5km 떨어져 있으며, 동북쪽 4km 지점에 화양면, 마을 앞 남쪽 2.5km 지점에 낭도, 북서쪽 3km 지점에 적금도, 동북쪽 2.5km 지점에 조발도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고종 33년 돌산군 설립 당시 옥정면 조발리 둔병 마을이라 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화정면 둔병리가 되었다.

큰섬과 작은섬 2개의 섬으로 나뉘어졌으나 지금은 다리를 놓아 연결되었다. 이 큰섬과 작은섬의 해안이 너무 깊어서 명주실 한 타래가 다 들어갈 정도의 깊은 '용굴' 또는 둔병(웅덩이)처럼 생겼다 하여 '둔병'이라 했다 한다. 또한 임진왜란 때 전라좌수영의 수군이 고흥방면



으로 이동하면서 잠시 머물렀던 곳이라 해서 진철 둔(屯)자와 군사 병(兵)자를 써서 '둔병'이라 불렀다는 설이 있다.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17세기중엽에 저술된 『동국여지지』 및 1765년 경 8도의 읍지를 수집하여 편찬한 『여지도서』에는 “둔도(屯島)는 백야곶의 서쪽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1860년대 쓰여진 『대동지지(大東地志)』에 大花島, 小花島, 낭도 등과 함께 豆音方島라는 섬의 이름이 보인다. “이 섬들은 모두 백야곶의 서남쪽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두음방도가 현재의 ‘둔병도’라고 볼 수 있다.

둔병도에는 마을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매년 음력 정월 10일에 지성으로 지낸다. 제당이 있었던 당산과 산의 생김새가 독수리와 같이 생겼다는 수리봉과 임진왜란 때 기를 이용해 상황을 알렸다는 둔병산 등이 있다.

또한 솔개가 날아가는 모양을 닮은 솔개섬, 옛날 홍학이 노래를 부르면서 신선들과 함께 놀았다는 전설이 있는 홍창도(홍도), 밀물 때는 물에 잠겨 보이지 않다가 썰물 때 2개의 바위가 드러나는 삼초, 조그마한 섬이 납작하게 보이는 납데기 등 크고 작은 섬들이 분포하고 있다.

큰 섬의 둔병 같은 해안은 황금어장으로 자연산 고막을 채취하여 가구당 일백만원 정도씩 소득을 올리고 있다. 여름에는 문어잡이가 한창이다.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도서 중의 하나다.



## 15. 적금도(積金島)

### 1) 개관

(2009년 2월)

세 대	인 구 (명)			면적 km <sup>2</sup>	해안선 km	공 공 기 관	교 육 기 관	교 통	선착장
	계	남	여						
75	147	61	86	0.78	9	1	폐교		4

적금도는 화정면 소재지에서 서북쪽으로 18.5km 떨어져 있으며, 서북쪽 1.5km 지점에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가 있다.

1896년(고종 33) 돌산군 설립 당시 옥정면 적금도였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화정면 적금리가 되었다.

임진왜란 당시 고령신씨가 낙안군에서 입도한 후 전주이씨, 고령신씨, 함안조씨, 진주강씨, 밀양박씨가 살고 있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적포' 또는 '적호' 라고 불렀다고 전해진다. 적포(赤浦)는 '붉을 적'에 '갯가 포'로 섬 주변에 바위들이 노을에 물들



어 붉은색을 띠기 때문이다.

마을은 대동과 소동 2개이다. 대동에는 여수경찰서 화정면 파출소 출장소가 있고 그 옆에 수 백 년 된 팽나무가 있다. 마을 뒤편에도 궁터에 400년이 넘는 5그루의 오래된 팽나무가 넓은 그늘을 이루고 있다. 이 궁터는 고흥의 여도만호의 초병들의 활터로 사용되었다.

대동과 소동은 육계사주에 의해서 연결된 마을이다. 그러나 오래전에 마을 뒷산인 요막산이 크게 무너져 대동마을과 소동마을이 연결되었다고 전해진다. 섬을 배로 뒤편을 돌아가면 고흥 영남과 연륙교 공사가 한창이다.

이 연륙교부터 시작되어 둔병도와 조발도를 이어 화양면까지 연결되면 여수와 고흥이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파래나 미역 등 해조류가 많이 생산되었던 '개미밭', 산모가 아이를 분만한 뒤 태를 묻었던 '안태골(안투골)', 초분이 있었던 '가장골 초빈(初殯)·가빈(家殯)·초장(草葬)'이 있다.

벼락을 자주 맞는 '바락봐', 검은색 자갈밭인 '물락금', 섬 자체가 보름달처럼 생겼다는 '만월도(약섬)', 육계사주로 연결되면 작은 집처럼 보이는 '소당도' 등 적금도 사람들의 생활이나 생김새와 관련된 다양한 땅이름이 많다.

적금도는 화양면과 둔병, 남도, 과도로 둘러 쌓여 바다가 마치 거대

### ■ 적금도 금광을 찾아서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 적금도에서 금광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 말기에는 일본 사람이 채광을 시도하여 금맥을 발견했지만 많은 양을 생산하지 못했으며, 채광한 굴은 현재까지 4군데가 남아 있다. 금광이 있다 하여 쌓을 적(積)자, 쇠 금(金)자를 써서 적금리로 부르고 있다. 마을에서 가까운 포구 오른쪽 끝에 있는 굴은 여름에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으며 주민들에 의하면 황금박쥐가 서식한 것 같다고 전한다.

한 호수처럼 보인다. 이 호수 같은 바다가 황금어장인 것이다. 둔병도와 적금도는 여름 내내 이 문전옥답 같은 바다에서 문어잡이와 어패류로 높은 소득을 올린다.

적금도와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사이 1,340m의 연륙교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 2) 문화와 관광

### ① 매바위

연륙교를 지나 섬을 돌아가면 이름이 3개인 바위가 있다. 적금에서 보면 매바위, 연륙교를 돌아가면서 보면 거북이, 낭도쪽에서 바라보면 영락없이 사자바위다. 인공적인 조각보다 자연의 오묘함을 섬 답사 때마다 새삼 느낀다.

### ② 탑고지

섬의 남쪽 절벽은 탑을 쌓아놓은 것 같이 바위들이 아름답게 진열된 탑고지가 있다. 옛날 군량미 또는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던 곡식을 실은 배가 출발할 수 있는 물때를 맞추기 위해 이 탑에 매어 두었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치자 밧줄이 끊어지면서 탑머리 부분이 잘려 떨어져 나갔다는 전설이 있다. 옛날에는 6층 탑 정도의 높이였지만 지금은 탑의 몸체 모형만 남아 있다.



### ③ 옛골

마을 입구에 오래된 팽나무 숲으로 우거진 언덕 아래가 옛골이다. 사람이 었드린 자세와 같은 바위 자욱이 있고 공룡 발자국처럼 생긴 것들이 많았으나 지금은 매립되어버렸다. 여객선 선창에서 바로 정면에 바라다 보이는 공원이다.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커다란 팽나무 숲이 마을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포용하듯이 감싼다.

### ④ 가장골

가장골은 분묘를 조성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시신을 안치하는 곳이라는 의미의 장소로 대개 마을마다 공동묘지 성격의 가장골이 있다. 그러나 적금의 가장골은 초분을 한 곳이다. 초분은 초빈(初殮)·가빈(家殮)·초장(草葬)이라고도 한다. 입관 후 출상한 뒤 관을 땅이나 평상 위에 놓고 이엉으로 덮어서 1~3년 동안 그대로 둔다.

해마다 명절이나 기일에는 그 앞에서 간단한 제사를 지낸다. 초분의 이엉은 해마다 새것으로 바꿔준다. 초분에 모신 시신은 탈육(脫肉)되고 나면 뼈만 간추려 일반 장례법과 동일하게 묘에 이장한다. 매우 원시적인 형태를 간직하고 있는 장법으로 인정되며 유교식 장법이 관철되기 전의 토속장례의 전형성을 보여준다.

### ⑤ 의병의 활동 무대

적금도를 비롯한 여자만 입구의 섬들은 동학 농민 혁명이 끝나고 의병 활동으로 이어졌을 때, 의병들의 주요 활동 무대였다.

융희 3년(1909) 7월 24일

7월 18일, 관내 돌산군 옥정면 적적도(積赤島 : 적금도)에 약 40명의 폭도가 잠복하고 있다는 첩보를 듣고 출장 간 토벌대가 진지하게 수사를 진행했으나, 소득이 없이 20일 오후 3시에 되돌아 왔다. 그러나 같은 날 적적도 연해에서 조업 중이던 일본인 어부들이 약 70

명의 폭도에게 습격당했다는 급보를 받고 돌산 주재소의 1명과 돌산 수비대 상등병 이하 7명이 협력하여 20일 오후 4시에 출발하여 적 적도 부근으로 급히 출발했다.

#### ⑥ 홍성표 고택

적금도 324번지에 우리의 옛집을 연구할 수 있는 홍성표 가옥이 있다. 이 집은 19세기 후반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안채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채의 구조는 2고주 5량의 가구로 호박돌 주초석 위에 4각 기둥을 세웠다. 아랫방의 전면은 기둥을 벽면보다 두드러지게 만든 심벽(心壁)에 띠살의 덧문을 내었고, 왼쪽 벽면은 판벽으로 처리하였다. 마루방과 안방의 전면은 심벽에 쌍여닫이의 띠살문을 달았고, 마루방의 내부에는 우물마루를 놓고, 안방의 뒷면 벽에는 외부로 통하는 덧문을 내었다. 정지의 앞뒷면은 판벽에 살창을 내고 쌍여닫이의 판장문을 달았으며 오른쪽 벽을 판벽으로 하였다. 마루방과 안방의 전면에 툇마루를 두고, 도리는 굴도리를 사용한 민도리 집이다. 2009년 여수시 보조금으로 새롭게 보수하였다.

## 참고문헌

- 『도서지』, 내무부, 1985.
- 『도서지』, 전라남도, 1995.
- 『문화유적분포지도』, 여주시·순천대학교박물관, 2003.
- 『여수·여천향토지』, 여수·여천향토지편찬위원회, 1982.
- 『여수의 성지』, 순천대학교박물관·여주시, 1998.
- 『여수사람 여수이야기』, 여수지역사회연구소, 2007.
- 이종범 외, 『여수시의 문화유적』, 여주시·조선대학교박물관, 2000.
- 『한국도서백서』, 전라남도, 1996.
- 『여수의 향기』, 여수지역사회연구소, 2007.
- 『화정면지』, 화정면지발간편찬위원회, 2000.



## 제6장 소라면 · 울춘면 · 화양면





소라, 울촌, 화양면 인근에도 바다가 주는 넉넉함과 섬 사람들의 강인함으로 살아남은 섬과 섬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직도 끊임없이 솟아 나온다. 숨쉬는 연안을 만들기 위해 소중히 지켜내어 우리 곁에 오래 두고 싶은 섬들이다.



## 제1절 소라면 - 황금빛 노을바다

### 1. 도서 현황

(2009년 2월)

도서구분	도서수	도 서 명	행정구역
유인도서	1	달천도	소라면 복산리 5구
무인도서	4	북개도, 모개도, 장구도, 새섬	
계	5		

### 2. 달천도 達川島

세 대	인 구 (명)			면적 km <sup>2</sup>	해안선 km	공 공 기 관	교 통	교 육 기 관	선착장	보 건 진료소
	계	남	여							
49	115	59	56	0.95	5.5		연륙	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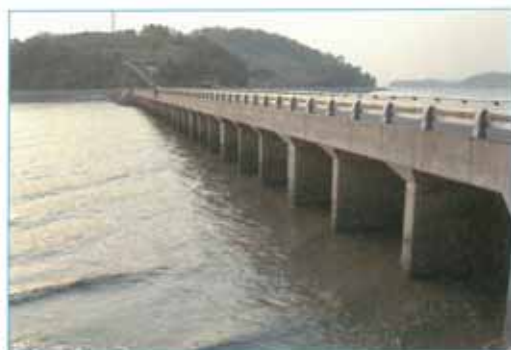


소리면 유일의 유인도서로 북산리와 달천교로 연결되어 육지화되었다. 최고지점은 88m이며, 대체로 완경사의 구릉지를 이루고 있다. 북동쪽 만입부와 동쪽 해안 일대에 간석지가 넓게 펼쳐져 썰물 때는 섬 전체가 육지와 이어진다.

기후는 대체로 따뜻하고 농산물로는 고구마가 많이 나며, 쌀·보리·콩 등도 약간 생산된다. 주민은 대부분 농업과 어업을 겸하며, 취락은 주로 동남쪽 만 안의 달천마을에 모여 있다.

달천도는 '섬달천'이라고도 불리는데 '육달천(陸達川)'이라고 부르는 북산리 달천마을과 대하고 있는 지명이고, 다리섬이라는 이두음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옛날에는 달천 지역을 '종산포(種蒜圃)'라 하였으며, 섬달천을 '달래도(達來島)'라 불렀다.

이곳은 1545년(명종 1)에 일어난 을사사화 때 억울하게 화를 당했던 사림(士林, 乙巳名賢) 가운데 정랑(正郎) 정자(鄭滋)의 둘째 동생이며, 송강(松江) 정철(鄭澈)의 둘째 형인 청사(靑莎) 정소(鄭沼) 선생이 은거하며 살았었다.



▲ 달천교

선생은 18세에 사마양시(司馬兩試)에 합격하고 김모재(金慕齋 : 김안국, 1478~1543)의 문하로 학문을 닦았다. 어려서부터 효행과 우애가 깊어 형이 을사사화 때 화를 입음을 슬퍼하여 벼슬에 나가지 않고 소라포(召羅浦) 달래도(達來島)에 종적을 감추고, 밭을 만들어 마늘을 심고 바다에 낚시를 드리워 고기를 잡았다.

선생이 동생을 방문하려고 서울에 갔을 때 친구들이,

“바닷가에 얼마나 좋고 맛있는 것이 있어서 돌아오지 않았소?” 하니 콩이 말하기를 “나는 섬 안에 밭을 갈고 마늘을 심었소. 새 줄기가 자라려 하면 오적어(烏賊漁 : 오징어)가 스스로 와서 마늘 줄기에 걸리니, 모두 잡아 구어 먹지요. 이런 까닭으로 돌아오는 것을 잊었소이다.”라고 하였다. 『강남악부(江南樂府)』에는 종산포(種蒜圃)라는 시가 전해지고 있다.

달천도 주변은 2010년 여수해양엑스포 개최 후보지로 선정될 정도로 바다와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이다.

‘복개도’는 복촌 마을 앞 무인도로 바닷물이 빠지면 복촌 마을과 연결되는데, 이렇게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연결하는 모래톱을 ‘육계 사

### 종산포(種蒜圃)

청사(靑莎) 정소(鄭沼)



마늘 심은 밭,  
그 밭은 소라포에 있네.  
포(浦)에는 물고기가 있으니  
이름은 오적(烏賊)이라네.  
장각(長脚)과 단 물도 밭 주변에서 얻고,  
밭 주변에 마늘을 심어 긴 줄기를 뽑았네.  
마늘 밭에 물고기가 걸리니 잡기가 쉬워,  
물고기도 잡고 마늘도 뽑으니 먹고도 남네.  
돈이 없어도 매일 매일 갖추니,  
삼공(三公) 중 누구와도 이 즐거움을 바꾸리.  
세간에서는 아무도 모른다네, 이 깊은 즐거움을.

※ 출처 : 강남악부(江南樂府)



주'라 하며 연결된 섬을 걸어서 다녀올 수 있다.

북촌 마을 앞바다를 마을 사람들은 '넘자바다'라고도 하며, '여자만'이라고도 부른다. 여자만은 가운데 여자도(汝自島)라는 섬이 있어 붙은 이름으로 여수, 순천, 벌교, 보성을 포함한 큰 바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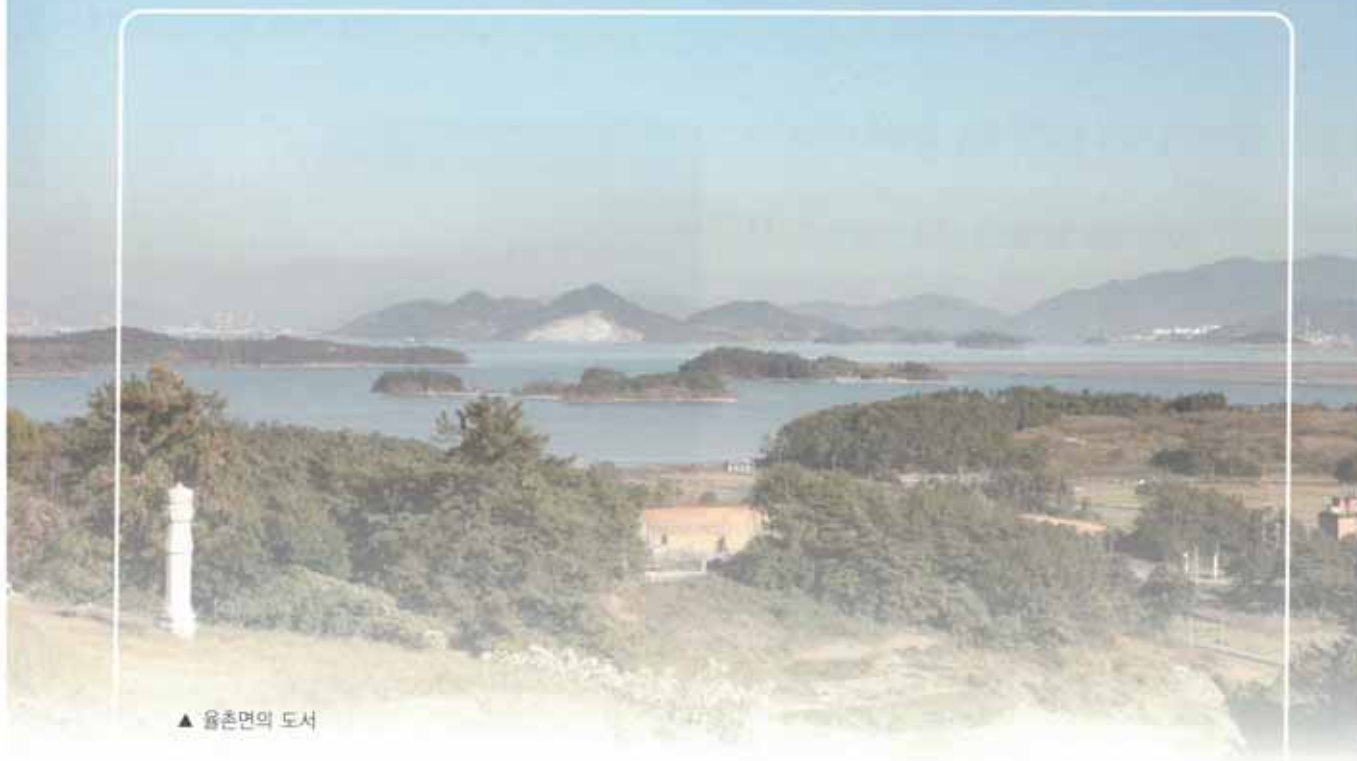
『호남여수읍지』에는 “여수군의 북쪽 50리에 있는 조화(漕禾)와 서쪽 40리에 있는 궁항(弓項)에 어살(漁箭)을 막았다.”라는 기록이 있어 광양만과 여자만을 중심으로 어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울촌과 소라 지역의 전통적 수산업은 도구를 이용하여 고기를 잡는 어업과 해조류나 조개류를 잡는 '갯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업에는 독살(石防), 죽방(竹防 또는 죽방렴) 등이 대표적이었다.

여자만은 저녁노을이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따라서 주변에 찻집을 겸한 레스토랑이 많고, 바닷가를 따라 만들어진 해안도로는 드라이브 코스로 자리 잡고 있어 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매년 11월 사곡리 장척마을 체험마을에서는 갯벌노을축제가 열리고 있다.



▲ 북개도 육계사주



▲ 울촌면의 도서

## 제2절 울촌면 - 바다는 아직 살아있다

### 1. 도서 현황

(2009년 2월)

도서구분	도서수	도서명	행정구역
유인도서	3	송도, 대륙도, 소록도	울촌면 여동리
무인도서	8	외화노도, 중도, 중늑도, 낭도, 교도, 달도, 장도	울촌면 여동리
		단도	울촌면 봉전리
계	11		

### 2. 송도(松島)와 장도

세 대	인 구 (명)			면적 km <sup>2</sup>	해안선 km	공 공 기 관	도 선	교 육 기 관	선착장	보 건 진료소
	계	남	여							
74	257	110	147	0.53	5.4		일8회	폐교	3	



울촌면 여동리 동쪽에 있는 섬으로서 울촌 소재지인 조화리에서 1.5km 떨어져 있으며, 최고봉은 67m, 취락은 서쪽과 남쪽 만입지에 발달해 있다. 남안에 물양장과 방파제, 선착장이 있다. 주요 농산물로는 보리, 고구마, 마늘이 재배되고, 수산물로서는 고막, 바지락, 장어, 낙지 등이 난다. 해안에는 간석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기후는 대체로 따뜻하고 비가 많다.

임진왜란 전 진주강씨(晋州姜氏)가 입도하여 마을을 형성하였으며, 당초 광양군 골약면에 속해 있다가 1973년 7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여천군 울촌면에 편입되었고, 그 후 1998년 삼여 통합이 이뤄지며 오늘날 여수시에 속하게 되었다.

1973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현재 여수시 울촌면 송장리(松獐里) 지역이 광양땅이었다. 송장리는 송도, 장도, 소록도, 대록도, 낭도, 칼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송장리는 오랫동안 광양땅으로 되어 오다가 1896년 돌산군으로 넘어갔으나 1914년 돌산군이 폐지되면서 광양땅으로 원상 복귀시켰는데 그 이후 대통령령 제6542호(1973년 3월 12일 공포)에 의거 1973



▲ 송도

### 참새미우물 전설

송도 마을 뒷산에는 참새미 우물이 있다. 옛날 마실 물을 구하기 어려운 송도에 도사 한 사람이 찾아와 지형이 소를 닮았기 때문에 누워 있는 소의 젖꼭지 부분을 파면 식수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마을 사람들이 그 곳을 파니 맑은 물이 솟아나 마실 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년 7월 1일자로 광양군 골약면에서 여천군 울촌면에 이관되었다.

섬의 모양이 가늘고 길게 생겨 본래 이름을 '솔섬'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옛날에는 솔섬을 소섬의 의미로 표기하여 우도라 하다가 지금은 솔을 소나무 의미로 해석하여 송도라 한다. 솔이란 뜻은 '가늘고 길다'는 의미로 옷을 터는 솔이나 소나무 잎을 뜻하는 솔가지의 모양에서처럼 가늘고 긴 형상을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송도는 섬의 생김새가 소가 누워있는 모양을 닮아 소섬(牛島)으로도 불렸지만, 조선 시대부터 사용된 땅이름으로 보인다.

송도 마을에는 보호수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높이 약 20m, 나무 밑둘레 5.8m, 수령 약 500년의 팽나무가 있으며, 대늑도에도 수령 약 500년, 높이 10m, 가슴 높이 둘레 3.3m의 팽나무가 있어 연구가 필요하다.

울촌면 여동리 모래목에서 나룻배가 수시로 운항되고 있다.

울촌산업단지 확장에 따라 현재는 무인도가 되어 섬의 절반 이상이



▲ 송도마을 앞바다

깎여나간 장도(獐島)는 섬의 모양이 노루를 닮아서 '노루섬'이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노루장(獐)자를 써서 장도라고

하였다.

노루섬 장도에는 『조선왕조실록』에 코끼리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태종 12년 일본 국왕 원의지(源義持)는 친선의 의미로 코끼리 한 마리를 조선에 선물하였다.

그런데 코끼리를 구경하던 관리가 코끼리에 밟혀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때문에 사람을 죽인 코끼리가 울촌의 장도로 귀양을 오게 되었는데 섬에 도착한 코끼리가 수초를 잘 먹질 않고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려 태종 31년에 다시 육지로 보내어서 기르게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으며 기록에 나오는 장도가 울촌의 장도였다는 이야기가 오래도록 입에서 입으로 장도에 전해왔다.

장도는 이 후 임진왜란 때에도 신성포에 있던 왜성의 왜군들과 싸우던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로 실록에 그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주변의 작은 무인도의 이름으로 소의 구시 같아서 이름지어졌다는 대방섬과 소방섬이 있으며 사람이 타던 가마같이 생겼다는 가마섬은 가마 교(輪)도로, 칼날같이 생겼다는 칼래섬은 낭(娘)도라는 이름으로 전해온다.

▼ 정도 선착장 앞 당산나무



### 3. 대륙도(大勒島)

(2009년 2월)

세 대	인 구 (명)			면적 km <sup>2</sup>	해안선 km	공 공 기 관	도 선	교 육 기 관	선착장	보 건 진료소
	계	남	여							
13	59	34	25	0.16	1.5				1	



▲ 대륙도 마을 해안

송도의 남쪽에 있는 옷눅섬이라고도 불리우는 대륙도는 최고지점은 84.8m로 섬 전체의 경사가 비교적 완만하며, 섬의 주위에 간석지가 발달하였다. 기후는 대체로 온화하며, 비가 많다. 주민은 대부분 농업과 어업을 겸하며, 농산물은 보리·고추·마늘이 재배되고, 고막이 양식된다.

150년 전 송도의 진주강씨(晉州姜氏)가 처음 입도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섬의 지형이 늑대를 닮았다고 하여 또는 늑섬이란 뜻을

한자로는 음이 비슷한 늑(勒)도라 하였는데 한자의 뜻으로 해서 소의 굴레처럼 생겼다는 유래가 만들어졌다.

일부 문헌과 지도에 나오는 대인도(大勒島)는 늑(勒)자를 인(勒)자로 오기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전력과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자가발전을 하며, 우물을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

### 4. 소륙도(小勒島)

(2009년 2월)

세 대	인 구 (명)			면적 km <sup>2</sup>	해안선 km	공 공 기 관	도 선	교 육 기 관	선착장	보 건 진료소
	계	남	여							
10	47	23	24	0.02	1.2				3	

아랫늪 섬  
이라고 불리  
는 소록도는  
최 고 지 점  
20m로서 섬  
전체의 경사  
가 비교적 완  
만하며, 섬의  
주위에 간석  
지가 발달하



▲ 소록도 해안

였다. 주민은 대부분 농업과 어업을 겸하며, 농산물로는 보리가 재배되고, 고막·바지락 등이 양식된다.

1939년 기독교 순천교회의 선교사가 섬의 일부를 매입하여 기도원으로 이용하면서 주민(신도)들이 거주하기 시작하여 마을이 형성되었고, 대륙도 옆의 작은 섬으로 소록도라 부르게 되었다.

전력과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자가발전을 하며, 우물을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





### 제3절 화양면 - 아름다움 속에 숨겨진 삶의 흔적

#### 1. 도서 현황

(2009년 2월)

도서구분	도서수	도서명	행정구역
유인도서	1	대운두도	화양면 감도리
무인도서	17	죽도, 소운두도, 대락도, 삼도 등	
계	18		

#### 2. 운두도 (雲斗島)

세 대	인 구 (명)			면적 km <sup>2</sup>	해안선 km	공 공 기 관	도 선	교 육 기 관	선착장	보 건 진료소
	계	남	여							
13	22	12	10	0.48	4.3			폐교	2	





화양면 유일의 유인도서인 운두도는 감도리에 속한 섬으로 달천도 남쪽 가까이에 대운두도, 소운두도 2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다.

주민은 대부분 농업과 어업을 겸하며, 농산물로는 고구마·보리 등이 생산된다. 연근해에서는 전어·낙지 등이 잡히며, 바지락·꼬막·굴 등의 양식이 이루어진다. 마을은 섬의 남안에 자리 잡고 있다.

주위에는 자래섬·간도 등 무인도가 산재해 있으며, 대운두도는 110m의 구릉으로 섬 중앙이 평탄하고 주변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다.

섬 해안 전체를 따라 해식애와 파식대가 발달하였으며, 소운두도는 71m의 구릉지로 동쪽이 급사면이고 서쪽이 완사면을 이룬다. 썰물 때는 육계사주로 감도마을과 연결된다.

예전에는 화정면 여차리에 속했으나 1983년 화양면 감도리로 편입되었다.



▲ 운두도

대운두도의 남안에 길이 10m의 선착장이 있으며, 주로 감도리와 내왕된다. 전력은 외부에서 공급되지 않아 자가발전을 하고 있으며, 식수는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우물을 이용하고 있다.



### 운두도 전설

섬 유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화가 전해 내려온다. 옛날 한 효자가 물에서 생활했는데, 그때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어서 일정한 연령이 되면 부모를 생매장시키는 풍습으로 마을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큰 벌을 받게 되었다.

이 효자는 부친이 생매장할 나이가 되어 저녁에 지계에 부친을 지고 산위로 올라가 생매장하려다 자식된 도리로서 도저히 생매장할 수 없어 그길로 부친과 함께 운두도로 피신을 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을사람들은 운두도로 간 부자를 찾기 위해 배를 타고 운두로 갔지만 심한 풍랑과 구름이 덮여서 운두도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죽고 말았다. 그 후 마을사람들이 이 섬을 운두도라 불렀다고 전해진다.

## 참고문헌

- 『동아지도 초정밀 1:50,000지도』, 랜덤하우스중앙, 2005.
- 『국역 강남악부』,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정문사, 1991.
- 『호남여수읍지』, 여수문화원, 동아인쇄사, 1988.
- 『여수여천 향토지』, 여수여천향토지편찬위원회, 동광인쇄공사, 1982.
- 『전라남도여수군읍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동아기획, 2002.
- 『여수사람 여수이야기』,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2007.
- 『여수의 향기 아름다움이 여기에』, 여수시, 이레기획, 2007.
- 『여천시지(지리·역사·정치·산업 편)』, 여천시문화원, 호산나인쇄사, 1998.
- 『도서지』, 전라남도, 영진문화사, 1995.

## 제4권 섬과 바다 집필위원

위 원 : 김 병 호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

위 원 : 노 희 구 (여도중학교 교사)

위 원 : 이 정 훈 (여수고등학교 교사)

위 원 : 정 태 균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연구부장)

위 원 : 정 양 균 (진성여자고등학교 교사)

위 원 : 정 희 선 (청암대학 교수)

위 원 : 조 종 두 (여수중앙여자중학교 교사)

위 원 : 허 승 호 (여도중학교 교사)

